

2018
남한산성 학술심포지엄

성곽유산의 연구성과와 보존정비 방향

주최_경기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주관_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후원_국회의원 김태년·국회의원 소병훈·국회의원 김병욱

성곽유산의 연구성과와 보존정비 방향

09:30~10:00	접수	
10:00~10:40	개회사	김성명(경기문화재연구원장)
	환영사	이재명(경기도지사)
	축사	정재숙(문화재청장)
		김태년(국회의원)
		소병훈(국회의원)
10:40~10:50	내빈 사진 촬영 및 휴식	김병욱(국회의원)
10:50~11:10	기조강연	성곽유산 연구성과와 보존·정비 연계의 중요성 발표자 차용걸(국립충북대학교 명예교수)

1부 발표 지역별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I

11:10~11:30	발표1	발표자	안성현(고려문화재연구원)
	경기·서울 지역	토론자	박현욱(경기문화재연구원)
11:30~11:50	발표2	발표자	김진형(강원고고문화연구원)
	강원도 지역	토론자	유재춘(국립강원대학교)
11:50~12:10	발표3	발표자	조순흠(서원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 지역	토론자	노병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12:10~12:30	발표4	발표자	서정석(국립공주대학교)
	충청남도 지역	토론자	이천우(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12:30~13:40	점심 및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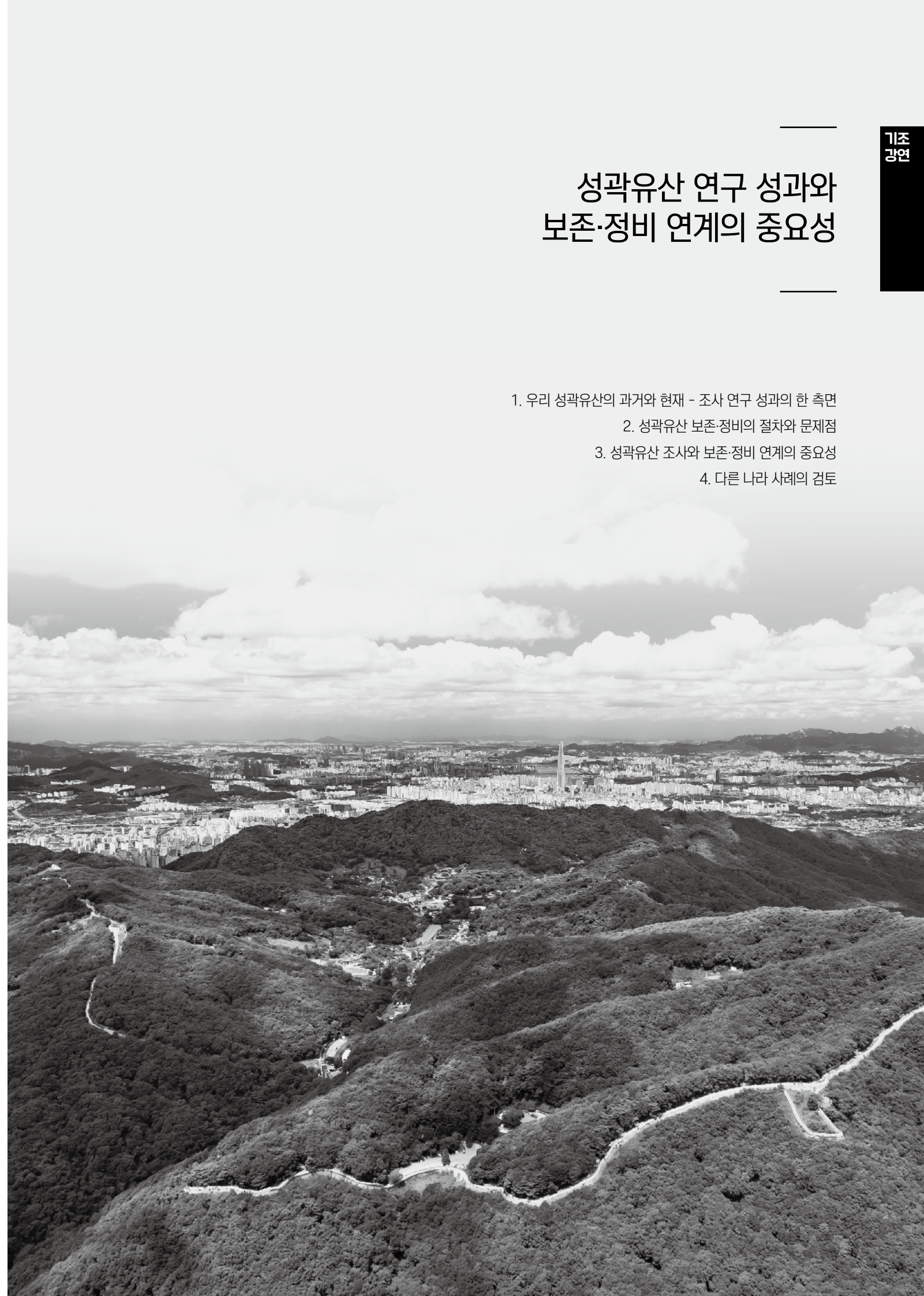
2부 발표 지역별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II

13:40~14:00	발표5	발표자	김찬영(계정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 지역	토론자	조효식(국립대구박물관)
14:00~14:20	발표6	발표자	홍성우(경상문화재연구원)
	경상남도 지역	토론자	노재현(국방문화재연구원)
14:20~14:30	휴식		
14:30~14:50	발표7	발표자	박영민(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라북도 지역	토론자	조명일(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14:50~15:10	발표8	발표자	고용규(고대문화재연구원)
	전라남도 지역	토론자	최인선(국립순천대학교)
15:10~15:30	발표9	발표자	변성훈(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도 지역	토론자	이희인(인천광역시립박물관)
15:30~15:50	휴식 및 토론 준비		
15:50~17:20	종합토론	좌장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장)
17:20~18:00	폐회		

기조강연	성곽유산 연구 성과와 보존·정비 연계의 중요성	7
	차용걸(국립충북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1	경기·서울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29
	안성현(고려문화재연구원)	
토론문1	박현욱(경기문화재연구원)	60
— 발표2	강원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63
	김진형(강원고고문화연구원)	
토론문2	유재춘(국립강원대학교)	89
— 발표3	충청북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93
	조순흙(서원문화재연구원)	
토론문3	노병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137
— 발표4	충청남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141
	서정석(국립공주대학교)	
토론문4	이천우(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156
— 발표5	경상북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159
	김찬영(계정문화재연구소)	
토론문5	조효식(국립대구박물관)	190
— 발표6	경상남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193
	홍성우(경상문화재연구원)	
토론문6	노재현(국방문화재연구원)	222
— 발표7	전라북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225
	박영민(전라문화유산연구원)	
토론문7	조명일(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257
— 발표8	전라남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261
	고용규(고대문화재연구원)	
토론문8	최인선(국립순천대학교)	284
— 발표9	제주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287
	변성훈(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토론문9	이희인(인천광역시립박물관)	310

성곽유산 연구 성과와 보존·정비 연계의 중요성

1. 우리 성곽유산의 과거와 현재 - 조사 연구 성과의 한 측면
2. 성곽유산 보존·정비의 절차와 문제점
3. 성곽유산 조사와 보존·정비 연계의 중요성
4. 다른 나라 사례의 검토





성곽유산 연구 성과와 보존·정비 연계의 중요성

차용걸 • 국립충북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의 성곽은 우선 그 공간적 분포범위가 한반도 전역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일본열도의 서부지역에 걸쳐 있다. 즉, 우리의 역사무대와 관련된 전역에 걸쳐 분포한다. 대략 1천 수 백여 년 전 이후로는 주로 한반도에 축조되고, 수축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성곽과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유구의 유형은 복합유산이다. 성곽은 그 발생으로부터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공통성과 시간과 지역에 따라 특수성을 가졌으므로, 성곽에 대한 말도 다르고, 성곽의 각 부분에 사용되는 용어조차도 다르게 표현되어 왔다. 그러므로 축성사나 성곽사라는 역사학적 입장에서의 성곽유산은 과거에 실제로 기능하던 시기의 군사학을 포함하며, 그에 종속되어 있던 토목과 건축학의 기술적 속성을 포함하게 된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학술적으로는 고고학적 수단에 의해 과거의 내력과 속성을 파악하며, 이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유구와 유물의 기술적 속성의 작은 변화라도 관찰되면, 그 변화의 속성을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슨 이유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를 탐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곽에 대한 문화적 향수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학술적 내용 뿐만 아니라 그에 포함된 문학적·심미적 감성까지도 향유케 하고 있다.

성곽관련 문화유산의 주요한 시설물은 벽체나 해자 등으로 내외가 구분되면서도, 그 외연(外緣)으로 다른 시설들이 복합되거나 연결되는 범위가 가장 넓게 확장되는 광범위한 면적 공간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국가별, 혹은 지역별 문화속성과 기술속성이 반영되어 발전해 왔



기 때문에, 성곽의 양상은 각 시기나 시대별로 변화되면서 적응된 양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하나하나의 유적이 각기 다른 형태와 규모와 시설을 가지도록 진화해 온 존재라는 특징도 가진다.

성곽유산은 각각의 유형별로 기본적인 구성 성분을 이해할 수는 있고, 전래되는 이야기 - 대표적인 마고할멈 축성설화나 남매축성설화를 포함-를 통해 언어학적 문학적 소재가 되어 오거나 전쟁사를 구성하는 역사기록에 의한 과거를 복원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각각의 단위 성곽유산들은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진정한 축성의 양상과 거기에 적용된 당시의 기술적 속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학술적 내용을 조사하는 작업과 함께 조사의 방법이 비파괴적 방법이 아닌 이상, 성곽유산의 보존을 위해 신속한 보수공사나 정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보존과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이 누적되어가기 이전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현행의 법령과 제도가 미처 포함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여, 향후 더 바람직한 조사와 보존,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 오늘 이 학술심포지엄의 목적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된다.

꼭 학술적 입장이 아닌 ‘문화유산의 국민적 향유’의 입장에서든 후세를 위한 성곽의 보호와 보존은 우선되어야 하고, 학술적 내용을 알기위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와 동시에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성곽유산은 성터, 혹은 성지, 성곽 등의 이름으로 여러 유형의 문화유산이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보존의 대상이면서 활용의 대상으로서의 일정한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보존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성곽 조사 방법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근래에는 완전하지는 않으나 방법론이 모색된 바가 있다.¹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현재 파악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소의 생각 일부를 밝혀 질정을 받고자 한다.

1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3, 『성곽 조사방법론』((주)사회평론아카데미)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 축약하여 원고를 작성함.

1. 우리 성곽유산의 과거와 현재 - 조사 연구 성과의 한 측면

우리의 성곽유산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관방으로서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조정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지만, 한편으로는 종래의 기능을 잃고 운영이 폐지되거나 성벽이 헐리기 시작하였다. 조선왕조의 말기까지 이어오면서 백성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들어 쌓여지고, 고쳐지면서 민족을 지켜 온 성곽들은 개국 505년(1895) 7월15일의 칙령 139호부터 143호까지를 통해 삼도통제영·병영과 수영·진영·진보·감목관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현실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묻혔다.² 이어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도성의 성벽 일부가 철거되기에 이르렀으니, 일제 통감부 체제 아래 광무 11년(1907) 3월 30일 고종은 동대문과 남대문 옆 양쪽 성벽 8칸씩을 전차길을 위해 헐 것을 승인했다.³ 이어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성벽은 방어에 유익함이 없으니 헐 수 있게 하였다.⁴ 도성 성벽을 허는 문제는 그 상징성에서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고종의 강제퇴위와 순종이 즉위하는 분위기 아래 이른바 ‘내각령 제1호’로 ‘성벽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성 뿐만 아니라 지역 통치의 거점인 주요 도시의 성벽철거 문제를 처리토록 하였다.⁵ 이미 통영과 병영과 수영, 진보 등의 군사 거점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제 전국의 118개소의 읍성⁶ 가운데 도시적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시구개정市區改定과 도로·수도 등의 기반시설에 방해가 되는 대도시 읍성의 상당수가 대략 1915년경까지 철거되었다.

이 시기 동안 한국성곽에 대한 조사는 동경대학 공과대학의 關野貞 조교수에게 맡겨졌는

2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7월 15일.
3 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3월 30일.
4 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6월 22일.
5 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7월 30일. 내각령(內閣令) 제1호 성벽 처리 위원회(城壁處理委員會)에 관한 안건. 성벽처리위원회는 1908년 7월 23일에는 진주읍성을 헐면서는 석재의 처리 문제로 미결, 대구읍성의 성벽은 헐어서 도로 닦는데 사용하는 안건을 의결, 서울 성곽의 석재를 팔아넘길 일은 미결한 사실이 있다.(共立新報, 융희2년8월26일) 1908년 내각령 제9호(순종실록 권2 순종1년 9월 5일, 관보, 융희 2년 9월 7일)로 폐지되고, 그 업무가 내부 지방토목국에 이관되었다.
6 읍성은 부·목·군·현 행정단위에 있었는데, 18세기 후반 정조 때의 경우 다음의 118처 읍성이 운영되었다.
경기도(3): 開城·江華·喬桐. 충청도(11): 淸州·洪州·忠州·韓山·舒川·庇仁·藍浦·瑞山·結城·保寧·海美. 전라도(28): 光州·羅州·南原·順天·長興·全州·靈光·靈巖·寶城·古阜·珍島·樂安·臨陂·沃溝·龍安·高敞·萬頃·扶安·茂長·務安·海南·康津·興陽·求禮·光陽·濟州·大靜·旌義. 경상도(34): 尙州·星州·慶州·晉州·安東·大丘·東萊·昌原·善山·咸陽·蔚山·金海·寧海·密陽·梁山·興海·咸安·淸道·機張·迎日·淸河·長鬐·彦陽·盈德·慶山·添原·昆陽·泗川·三嘉·宜寧·固城·南海·鎭海·熊川. 강원도(5): 江陵·三陟·襄陽·平海·蔚珍. 황해도(5): 海州·黃州·延安·瓮津·豐川. 평안도(14): 安州·定州·平壤·義州·肅川·龍川·朔州·昌城·楚山·江界·龜城·碧潼·渭原·殷山. 함경도(18): 吉州·咸興·安邊·北青·端川·甲山·三水·明川·富寧·鍾城·會寧·慶源·穩城·茂山·鏡城·慶興·洪原·利城.



데, 그는 1903년 약 2달 동안에 걸쳐 한정된 지역이긴 하나 중요한 지역에 대한 건축물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⁷ 이것이 한국의 건축물, 그 가운데 성곽이 포함된 건조물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이며 의도적인 첫 조사라 할 수 있다. 이미 學政參與官이던 幣原坦 등의 도움을 받은 사실에서 식민주의 역사관의 영향을 알 수 있다. 건축사에서의 실상 조사와 해석은 한국역사에 대한 지정학적 한계를 지적한 역사지리학적 관점, 神籠石과 조선식산성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 성격 파악의 대강을 알 수 있다.⁸

이후 일본 강점시기에는 식민지 통치의 기초조사인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진행되었다. 1916년에 고적조사위원회가 성립됨과 더불어 시작되어 이듬해까지에 걸쳐, 殖産局 山林課에서는 보존 임야 및 기타 산림의 관리와 처분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다는 방침에 의해, 임야에 존재하는 고적과 유물을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조사하였다. 그 내용을 寫本 13책으로 분책한 『古蹟臺帳』으로 만들어 두고, 이를 다시 지방 행정자료로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1책으로 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1942)를 간행하여 비밀스런 용도로 활용하였다. 이때 파악된 성터·산성·관액·영액·읍성·봉수·돈대 등으로 표시된 유적의 수는 대략 2,000개를 넘었다.⁹

성곽에 대한 조사는 당시 한반도와 만주에 걸친 침략과 식민주의 역사관과 관련하여 관심이 큰 부분에 집중되었다. 특히 총독부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28명으로 구성된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약한 인물들은 東京과 京都 및 京城제국대학의 교수들(8명)과 총독부의 학무국장, 문서과장, 중추원의 참의와 촉탁(6명), 총독부의 사무관이나 비서관(9명), 技士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10년이 지난 1926년에는 산림과장, 고등경찰과장, 종교과장, 지방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회계과장, 혹은 보안과장과 총무과장 등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총독부의 식민지 통치와 관련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조사와 수리 등의 일을 벌일 수 있었다.¹⁰

1924년에 이르면 경남과 전남의 왜성倭城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1928년까지 5개년에 걸친 왜성의 조사는 당시 중국 漢의 군현이 설치된 낙랑과 대방군 지역의 서어와 고분, 비석 등의 조사와 짝하여 정책적인 것이었다. 또 이른바 옛 삼국시대 도읍지역의 고분 등에 대한

조사에 혈안이 되어 있던 상황과도 다르지 않았다. 고적조사위원회에 동원된 학자들은 1916년부터 1939년까지 파악되는데, 關野貞(1916-35)·黑板勝美(1916-39)·今西龍(1916-32)·鳥居龍藏(1916-33)·小田省吾(1916-39)·谷井濟一(1916-33)·大原利武(1922-33)·池內宏(1922-39)·原田淑人(1922-39)·濱田耕作(1922-37)·小場桓吉(1923-39)·藤田亮策(1923-39) 등이고, 이후 1934년 이후로는 한국인으로 최남선과 이능화 등과 일본인 鮎貝房之進·藤島亥治郎·梅原末治 등이 가세하였다.¹¹

2차 세계전쟁 기간을 지나 숨돌릴 틈 없이 6.25전쟁을 겪은 후, 1960년대로 들어서자 한국에서도 고고학적 조사가 시작되었다. 성곽유산에 대한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조선식산성과 유사한 신농석 유적이 더 많이 발견되면서, 고대 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1959년에 原田大六이 神籠石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여, 축조연대의 문제와 축성의 국제적 계기, 水門과 列石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조사와 연구의 신선한 착안을 제시하고, 1963~4년에는 더 많은 유적이 조사되면서 건축사 및 고고학자 사이에 山城說이 정착되었다.¹² 이후 근대성곽까지 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유적조사 이후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에서의 고대 산성 조사와 연구, 중세와 근세 성곽유산 조사와 연구의 타산지석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성곽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先占한 일본인 학자들은 주로 역사지리분야와 건축사 분야에서 성곽을 조사·논의하여 왔으며, 일제강점시기의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都城·山城·倭城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시기적으로는 漢代 郡縣治所와 관련된 성터에 대한 고증, 삼국시대의 都城 체계 문제, 고려의 도성과 왕궁 및 천리장성, 조선의 성곽과 궁궐, 왜란 시기 축조된 왜성 등이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그들의 의도는 소위 임나일본부를 증명코자 했을지 모르나, 오히려 신농석의 조선식산성설은 그것이 한반도로부터의 전래와 그 역사적 변화형일 가능성을 암시하게 하였다. 일제 강점시기 고적조사가 이루어지고, 보존의 대상이 된 성곽 유적은 적지 않은 수에 달했는데, 주로 도성과 관련되거나 대규모의 산성들로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중요시된 성곽들이었다.¹³ 이후 도성과 읍성, 산성 등의 성곽문제에 대한 이론적 실체적 접근은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이루어지고, 이 분야에서 정리된 논리적 시각이 한국의 성곽에 대한 도시지리학적 연구에서 언급되었다.¹⁴

7 關野貞, 1904, 『韓國建築調査報告』 당시 조사된 성곽은 신라 월성, 개성성곽(나성, 내성, 왕궁), 조선시대 성곽(개경내성의 남대문, 경성성곽의 숭례문, 흥인지문, 소의문, 창의문, 광희문, 오간수문, 여장, 동래읍성, 경주읍성, 북한산성), 왕궁(창경궁, 창덕궁, 경복궁성) 등인데, 주로 성문과 남아 있는 목조건축물이 중심이 되었다. 이때 보고된 사진들은 지금도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8 幣原坦, 1910, 『朝鮮の城郭』, 『歴史地理』제15권3호, p80~84. 幣原坦, 1910, 『朝鮮の山城』, 『歴史地理』제15권5호, p7-10. 15권6호.
9 성곽과 관련된 것과 돈대, 봉수를 합하면 당시 남북한 전역에서 2,030개의 유산이 파악된 것인데, 당시에는 임야가 아닌 평지에 위치한 읍성은 파악에서 제외되었다.
10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선, 2008, 『조선총독부 문화재정책의 변화와 특성』-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성, 2009, 『朝鮮總督府의 古蹟調査委員會와 古蹟及遺物保存規則』-일제강점기 고적 조사의 제도적 장치(1)- 『영남고고학』51(영남고고학회) 등이 다룬 것이 참고 된다. 이들과 관련된 법령과 규칙 등은 1920년의 『朝鮮土木法規』(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를 참고하면 편리하다.

11 http://www.museum.go.kr/site/main/content/japanese_gen_korea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조사자료, 조사자료 원문 서비스 및 이기성, 2009, 앞의 글 참조.
12 이 문제에 대해서는 小田富士雄, 1983, 『北九州瀬戸内の古代山城』(名著出版) 및 小田富士雄, 1985, 『西日本古代山城の研究』(日本城郭史研究叢書 13, 名著出版)에 정리된 내용이 있다.
13 초기에는 고적으로 지정되었는데, 1933년 수원성곽(1997년 화성으로 명칭변경), 1935년 성흥산성과 부소산성, 1936년 서울성곽·광주 풍납리토성·공주 공산성·경주 월성·경주 남고루·경주 남산성·경주 부산성·부여 청마산성, 1938년 명활산성·관문성·행주산성, 1939년 남한산성·부여 나성·부여 청산성·건지산성·익산토성, 1942년 경주읍성·양산 신기리산성·양산북부동산성 등 30개소의 성이 지정되고, 이와 함께 倭城들이 지정되었다.
14 일본성곽협회의 『일본성곽전집』 10책(1959-60), 인물왕래사의 『일본성곽전집』 16책(1967-69), 소학관의 『탐방일본의성』 11책



이후 한국에서의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유산은 점차 조사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수를 더하게 되었다. 우리 손으로 사적으로 된 성곽유산은 1960년부터 1999년까지 40년간에 56곳이 증가되었다.¹⁵ 이 당시는 대략 문헌조사와 지표조사를 거쳐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그야말로 보존을 위한 지정이라는 법적 조치가 목표였다.

필자가 기억하는 조사와 연구의 현실적 기억은 1969년을 상한으로 한다. 그러므로 현대사에 속한 연구사는 별도의 정리를 하는 중이어서 여기서는 그 개략만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우리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성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석사학위 논문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략 1980년대 이후로 전문적인 조사를 통한 성곽의 한국적 진상파악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인적 기반은 손꼽을 수 있는 한정된 인원에 불과하고, 발굴조사 또한 우리 성곽유산의 극히 일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차츰 조사의 영역이 확대되었는데, 예컨대 1988년을 겨냥하여 1984년에 어쩔 수 없이 몽촌토성이 발굴조사를 거치게 되었을 때, 4곳의 대학박물관이 동원되어 짧은 기간에 수습조사를 하는 등의 사례에서 그 시대적 한계를 볼 수 있다. 즉, 당시의 고고학적 수준 전반이 성곽유산에도 적용되었는데, 고인돌과 고분의 발굴이 중심이다 보니 성곽처럼 종합적 성격의 유산은 뒤로 밀려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곧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성곽유산의 조사는 조사와 연구에 종사하는 인력의 증가와 비례하여 그 속도가 2000년대에 접어들자마자 가속화되었다.

21세기로 접어들면 개발의 압력이 더 커지는 가운데,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의 인적 기반이 확충되었다. 성곽유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러 이유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연차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이어지면서 계획 발굴이 진행되어 온 경우도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례가 있다. 초기에는 주로 대학의 박물관과 연구소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각 지역의 거점 대학들이 중심이 되었다.

(1977-83), 신인물왕래사의 『일본성곽대계』 20책(1979-81) 등이 있고, 성곽과 도시를 다룬 矢守一彦, 1970, 『朝鮮の都城と邑城』-その系譜・形態・分布-, 『都市プランの研究』-變容系列と空間構成-(大明堂) 등이 있다.

15 1960년 해미읍성·진주성, 1964년 용장산성·남도성성·삼랑성·강화산성, 문수산성·독산성 및 세마대지, 1965년 고창읍성·적상산성, 1966년 문경관문(제1,2,3관문 및 부속성벽)·하동 고소성·함양 사근산성·연양읍성, 1967년 증산성(부여), 1968년 북한산성 1970년 상당산성, 1971년 금정산성·가산산성·당성·초지진·덕진진·광성보, 1973년 아차산성·삼년산성, 1977년 파사성, 1979년 영춘 온달산성·단양 적성, 1981년 덕포진·남고산성, 1982년 몽촌토성·남원성, 1983년 낙안읍성, 1984년 갑곶돈·장도청해진유적, 1987년 울산 병영성·황석산성, 1990년 나주읍성남문지, 1991년 한우물 및 주변산성지·무장읍성·파주 오두산성·대덕 계족산성, 1992년 양천고성지, 1993년 장성 입암산성·구례 석주관성, 1994년 영일 장기읍성, 1995년 논산 노성산성, 1997년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전라병영성지·충주 장미산성·괴산 미륵산성, 1998년 통제영지·포천 반월성지·왕궁리유적·백산성, 1999년 청주 정북동토성. 모두 56건이 된다.

2000년 이후의 사적 지정은 22건으로 순천 검단산성·하남 이성산성·이천 설봉산성·파주 칠중성·영월 정양산성·원주 영원산성·강화외성·하동읍성·아차산 일대 보루군·연천 호로고루·연천 당포성·연천 은대리성·완주 위봉산성·광양 마로산성·정읍 고사부리성·보령 충청수영성·거제 둔덕기성·여수석보·양주 대모산성·해남 전라우수영·안성 도기동산성·파주 덕진산성. 고려와 조선시기의 것이 8건이고 모두 고대의 것인데, 시기별과 유형별 지정의 학술적 가치 판단 패턴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말까지는 지표조사를 거치고, 때로는 발굴조사를 일부 진행한 성곽유산과 봉수, 돈대와 포대, 마성(목장성)과 굴항, 보루나 장성 등의 성곽유산 범주에 드는 유적 가운데 110건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도 유형문화재 8건과 시·도 기념물 253건, 문화재자료 64건으로 약 435건에 달하는 성곽유산이 지정문화재로 일단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¹⁶

이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선별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국립박물관, 대학 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기관 산하의 박물관과 대학 연구소 등)과 비영리 문화재조사연구기관 등 약 150여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아직 국가 단위의 총체적 조사는 봉수에서 일부 시도된 바 있을 뿐,¹⁷ 방대한 성곽분야의 체계적인 조사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¹⁸ 이런 실정은 연구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즉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역사기록 등에 의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한 현상의 기록 위주인 지표조사, 필요한 부분의 선별적인 발굴조사가 위주로 되어 있고, 기술사적 속성을 알아보는 부분 발굴에 집중되어 있다. 부분적인 것, 예컨대 성벽·성문·수문과 수구·저수설비·여장·치성·포루·해자·성곽관련 건축물과 설비·도시경관·도시구조·방어설비·지형과 공간분석 등의 여러 분야로 전문화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에서 아직 ‘합의된 정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의 경우 보존과 정비에 연계되는 조사로서의 성격과 학술 조사의 성격이 모호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선부른 결론을 도출하려는 조급함이 드러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6 문화재청 통계자료(www.cha.go.kr에서 검색).

17 문화재청, 2015, 『전국봉수유적 기초학술조사』, 문화재청, 2016, 『전국봉수유적 심화학술조사』.

18 1차적인 시도로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 편-이 있으나, 용어의 통일적 개념 정리, 조사 사실의 객관적 정리 등을 통한 全集이 없는 실정이다.



2.

성곽유산 보존·정비의 절차와 문제점

성곽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 문화재는 史蹟으로 지정되고, 시·도지정의 경우는 기념물이나 문화재자료인 경우가 많으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성곽유산이 절대적으로 많다.

지정된 문화재의 정의는 이 법 제2조 3항의 기념물에서 ‘성터’를 포함한 “사적지(史蹟地)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막연히 정의되어 지정된 성곽유산 조차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국가지정의 사적을 포함하여 시·도 지정으로 된 ‘지정문화재’ 등 모든 문화재는 제3조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原形維持)를 기본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부분도 그 원형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원형인지 역시 구체성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사적, 기념물로 지정된 성곽유산들은 먼저 다른 일반적인 유형의 문화재 등과 달리

- (1)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주, 혹은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 (2) 지리적 결절점 등에 자리하여 사용시기가 중첩된 경우가 많으며,
- (3) 그런 이유로 현재의 토지이용도, 혹은 군사와 통신상의 지속적 이용도가 높고,
- (4) 역사상의 기록, 혹은 고고학적 유물 출토 빈도와 출토 수량도 대단히 많을 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관련 각종 유구가 복합되고,
- (5) 벽체나 해자 등의 내외에 성곽과 관련된 유구(양마장, 치성, 해자, 천전, 현색, 관아나 창고 건축물과 매탄 등의 매장 유구, 도로, 연못, 성문, 수문이나 수구, 단야와 야철 관련 시설과 기와나 벽돌 등의 제조시설 등)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매장 유구가 동반되는 사례가 많으며,
- (6)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와 하나의 유적이 둘 이상의 기초행정구역이나 시·도에 유적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 사실상 보존과 관리에 가장 어려운 요소들을 가진 문화유산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근래에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이 문화재청 훈령으로 제정(2009)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성곽문화재 및 성곽과 관련된 범주에 해당되는 유산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체에 의해 지정, 고시된 성곽문화재의 보존·정비·활용의 법적 근거는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점차 수정되어 각종 법령과 훈령 등이 최근에 이르러 비교적 명확하게 정비 되었다.

그러나 성곽유산의 대부분은 비지정문화재인 채로 남아 있다. 문화재(비문화재가 아닌)로서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이라 볼 수 있다. 비지정문화재를 아직 지정, 고시되지 않은 문화유산으로 보면, 비지정문화재는 아직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크면서도 일정한 심의를 받아 확정되지 않은 ‘가치 미정’의 ‘관리대상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¹⁹⁾

아직 지정되지 아니한 성곽유산들은 향후 조사 등에 의해 그 가치가 크게 드러나 지정문화재로 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존·관리되어야 하고, 그것도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존되어야 할 성곽유산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는 점이 분명하고, 또 이들은 역사 이전부터 역사시대를 통해 문헌자료가 빠뜨린 학술 자료를 가장 많이 포함한 채 간직하고 있으므로 문화내용 및 역사자료의 보물창고인 셈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곽유산은 1차적으로 원형보존, 2차적으로는 보존을 위한 붕괴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일부 유실구간에 대한 보완과 활용을 위한 정비·복원도 필요하며, 잔존 유구에 대한 보존의 필요에서 별도의 부가 시설이 임시로 설치될 수도 있다. 그 어느 경우에도

- (1) 신중한 학술적 접근을 통한 보완, 수리, 정비 대상의 선정
- (2) 성격 규명을 위한 정밀하고 충실한 고고학적 조사와 객관적인 상세한 기록
- (3) 보존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한 종합정비계획
- (4) 원형유지를 전제로 한 고증과 실증 위주의 설계와 충분한 기술지도와 합당한 공법에 의한 시공
- (5) 원형 유지의 확인과 부분 보완의 철저한 기록 및 정기 점검의 장기적 모니터링

등을 차례로 진행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다년간 종사해 온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현행 성곽유산의 보존과 관리 관련 지침 등에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도 불만족스런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일까? 성곽유산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19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는 아니나 인위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으나,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로서 「비지정문화재 관리대상 확정지침」(문화재청 정책총괄과-1889호, 2010.05.10)에 의거 확정된 문화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준하는 절차(조례 등)를 통해 관리하는 문화재(향토유적 등으로 관리)도 포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하는 학회인 한국성곽연구회가 2002년에 결성되고, 이후 사단법인 한국성곽학회로 개편된 (2005) 이후에도, 성곽유산에 대한 바람직한 보존과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도 있으나, 학회 자체가 국가의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참여치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직도 지적될 수 있다.

성곽유산을 포함하는 국가사적의 경우,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 등으로 제도화되었다. 특히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이 예규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등의 법과 예규에 따른 보존과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제반 규정은 각 단계별로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지도 및 향토사학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되는 등 점차 개선된 매뉴얼이 만들어져 왔다. 고증이나 실증의 절차와 행정절차, 이 후의 정비와 관련되거나 활용과 관련된 설계와 시공의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 국가기관 등이 참여하는 준 경쟁체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성곽유산 조사와 보존·정비 연계의 중요성

성곽유산 가운데 특히 사적과 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이 법의 시행령(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과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 2012.25 일부개정)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 수리기술자’와 ‘문화재 수리기능자’, 문화재 수리업, 문화재 실측설계업, 문화재 감리업(이들을 합해서 ‘문화재수리업 등’으로 부름) 등은 등록(법인 혹은 개인)하며,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보수교육을 받게 하며, 동시 시공과 설계 등에 대해 행정제재, 혹은 심사에 의한 우수업자의 지정 등 상벌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 수주의 대상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성격으로 되어 있다.

이들 ‘문화재수리업’ 관련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가 가능한 여건과 관련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규정한 부분에서 성곽유산과 관련된 부분은 석조건축물의 한 항목에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는 항목에 해당하고, 구조적으로는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牆 및 성문·암문暗門·수문’으로 구체적인 명시를 하였다. 기념물의 경우도 문화재의 몸체나 위에 든 것과 유사한 구조부분을 기준하였다. 고분 등은 매장 또는 저장시설을 주요부로 보았지만, 성벽의 경우 해자와 그 밖에 있는 함정 등의 유구를 포함하는 등에 대한 언급이 혹 빠진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다. 역사학이나 고고학적 입장이 아닌 건축학적 입장에서의 기본 틀이 정해진 것으로 읽혀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이다.

법령으로서의 모법母法 이하의 훈령訓令·예규例規·지침指針으로 이어지는 성곽유산과 관련된 제반 법과 규정 등은

- (1)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훈령 제228호, 2011.4.1)
- (2)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예규185호, 2017.12.13.)
-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고시 제2010-130호, 2011.1.6)
- (4) 「문화재수리 표준품셈」(고시 제2011-74호, 2012.4.11)
- (5)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고시 제2018-20호, 2018.3.5.)



등이 있다. 금년(2018)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마지막 해가 되기도 한다.²⁰

이들 가운데 (1)은 당초 행정지침이었다가 훈령으로 된 것이며, 성곽문화재의 보존과 보수, 활용 등의 내용을 위주로 하여 성곽유산의 보호와 정비의 가장 핵심을 이룬다.

성곽의 보존과 관련, 특히 보수와 정비 등의 현상 변경²¹과 관련된 경우 그 행정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즉, 문화재 수리의 기본 방향을 숙지한 상태에서 사전조사로서의 문헌 조사와 현황조사, 다음으로 실측설계도서(시방서, 산출조서 등 포함)의 작성, 수리(시공), 기록(수리보고서)의 큰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여러 종류별로 표준 시공의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 석축 성곽의 경우에는 1400 석조물공사의 10항에 봉수대의 표준 시방이 있고, 성곽은 일괄로 1500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성곽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사를 ‘기초조사’라 하였다. 이 기초조사에는 현황조사 및 학술조사를 의미하는 ‘성곽의 역사적 성격 규명’과 ‘보존·관리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가 포함된다. 흔히 고고학에서 말하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그 가운데서도 발굴조사에서의 학술목적의 조사와 보존·관리(사실상 정비, 보수, 복원, 활용을 포함)를 위한 조사가 모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사의 다음은 종합정비 계획이 마련되고, 시행청(발주청)에 의해 설계와 시공의 단계로 이행된다. 이때 성곽의 보존·관리 과정에서 설계 및 시공 전반을 감독하는 ‘감독관’(설계감독관, 공사감독관)이 큰 역할을 하게 되며, 필요시 ‘기술지도자문단’이 구성되어 자문한다.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표본성곽’을 축조하여 원형보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도면과 당해 성곽의 고증된 원형 등과 상이한지 여부를 확인 후 시공하는 신중한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²²

이러한 조사와 설계, 설계심사, 시공 등의 과정에서 이른바 ‘기초조사’를 하는 조사자(혹은 조사기관)의 역할이 있다. 즉, 조사자는 아직 애매하다. 적어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82호, 2011.7.21 일부개정)에 규정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충족하고 등록된 기관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설계를 위한 조사의 경우는 건축사에 의해 수행된다. 조사된 성곽유산의 보존과 수리, 정비와 복원은 영리단체에서 제한경쟁입찰의 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20 문화재청 고시 2013-12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은 법률 제4조에 따라 5개년 주기로 품질향상과 원형보존 등에 관한 제도 기반 마련, 행정 합리화, 기술 전문성 제고, 품질 제고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21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유산의 원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성곽의 원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수리, 보수, 복원 등을 포함하여 활용과 관련되는 동행로 정비와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도 포함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22 표본성곽 : 잔존성곽 및 원형고증 등을 통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구간의 성벽을 시범적으로 축조한 성벽을 말한다. 원형이 잘 보존된 기존의 성벽구간이 있을 경우 이를 표본성곽으로 할 수 있다.(「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제3조 6항).

성곽은 그 자체로서도 매장문화재가 가장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문화재로 평가된다. 때문에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이전에 훼손 자체를 막아야 한다.²³ 이는 문화재행정 담당자와 주민들의 자각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를 조사하는 기관과 조사 가능 인력이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평소 문화재보호자 및 감시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지정된 문화재로서의 사적과 기념물인 성곽유산의 경우 실제로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를 보면, 이미 실시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에게 전달되는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내역을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발굴조사의 도면(평면, 입면, 단면)의 유적 크기에 따른 축척을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든지, 석재의 규모와 모양 등을 일정한 용어와 모양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무엇보다 큰 문제는 건축사 분야와 고고학 분야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있다. 다른 부처의 흙공사와 흙쌓기, 돌공사와 돌쌓기 등 토목공사일반시방에서의 용어나 기법과 다른 성곽유산에서의 분명히 차별되는 전통적인 토목기법에 대한 시방을 제시하고, 이것에 따른 「문화재 표준품셈」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한 학계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기 분야별 입장만 고집하고 불평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성곽유산관련의 통일된 용어와 개념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담론이 필요할 것이다. 특정한 외국의 용어를 번역하듯 적용한 현행 제도의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성곽의 기초조사 항목은 문화재조사기관이 행하는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드러나는 현상과는 불필요하거나, 필요한 것이 결여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1917.12.18.훈령 449호로 일부개정)에서의 검토기준에서 성곽은 애매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보존방안을 구역설정에 반영한다’고만 하였다. 성곽의 외연 확장성과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로 취급하면서도 애매한 기준으로 26개 기준유형으로 구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²⁴

성곽유산의 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학술적 내용이어야 하며,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수리와 정비의 기본원칙대로 양식의 변형은 있어서는 아니 될 사항이다. 여기서 현행 법령과 현실적 구조적 모순이 일부 존재하게 된다. 즉 역사학과 고

23 비지정문화재로서 성곽문화재로 알려져 있지만 토지소유자나 토지이용권자에 의해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이전에 성벽이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알려져 있다.

24 이런 개념은 문화재의 유형구분부터 나타나는데, 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중요 민속 문화재와 자연유산>유형문화재와 매장문화재>궁궐·관아와 객사·서원과 향교·사찰·성(평지성, 산지성)·능, 원, 묘·사우·전통가옥·민속마을·탑, 비, 불상·민간신앙·근대건축·전적지, 인물 및 사건유적·기타건조물(교량, 굴뚝, 농기구, 석빙고, 수표, 연못, 저수지, 정원, 조선폭, 천문, 풍기대)로 구분함에서 드러난다. 매장문화재에 선사유적(주거지, 패총)·사지·고분군과 지석묘·가마터·기타유적지(유적지, 침몰해역)로 구분한 것과 같은 계통을 무시한 구분과 관련된다.

고학적 입장이 중심이 된 학술적 내용의 조사와, 건축설계나 토목시공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현황조사 사이의 의견의 조율이 없다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성곽유산을 규정하게 된다. 그 결과는 자칫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원형을 훼손하여 그르칠 우려도 있다. 한 쪽은 비영리기관 위주의 조사이고, 한쪽은 영리를 전제로 한 기관이다. 그러므로 그 사이의 이른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술지도단’이 있다고 하여도, 거기서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면 전문적인 지식과는 거의 먼 ‘감독관’의 권한에 의해 시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조사기관이나 조사책임자의 조사 자료와 의견이 설계와 시공 이전에 반드시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4. 다른 나라 사례의 검토

우리는 과거 일본의 문화재 정책을 거울로 삼아 수정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문화재로서의 법률용어와 구분도 1919년에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으로 명문화하였던 데서 출발되었다. 일본 성곽은 그 독특한 구조와 형태에서 세계적으로 일본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특히 석축의 기법과 성루 건축의 아름다움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한국의 성곽에 대한 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우리의 성곽도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위치에 여럿이 올라 있다. 저들이 목조와 석조의 건축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존기술과 발굴, 정비기술을 선도하면서 꾸준히 기술의 전승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목조건조물의 수리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이 1974년에 정해지고, 석축성벽[石垣]의 수리에 대해서도 2005년에 이르러 「史跡等整備のてびき」(文化廳 記念物課)를 통해 수리에 사용되는 석재는 유구와 동일 규격과 동일 재질, 무너진 곳의 복구는 복원이 아닌 붕괴 이전의 형태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저들의 성곽유산에 대한 수리복구의 절차는 그 전체 과정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성벽 수리복구의 절차가 극히 치밀하고, 조사자·기술자(上級技能者)와 기능자技能者·공사감독자[工事監理者] 등이 각각의 공정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문적·기능적·기술적으로 전승되는 고유한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성곽유산의 수리에 앞서 철저한 조사에 의해 성벽 자체에 대한 치밀한 정보를 얻어내는데, 그들이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요조사 : 석축성벽의 개요조사는 다시 다음의 3가지를 말한다.

- ① 석축성벽이 입지한 토지의 지형·지질·수목의 생육상황 등과 석축과의 관계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는 조사.
- ② 석축성벽의 석축이 벌어진 현황이나 배부름 현상 등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붕괴의 위험도를 확인하는 조사.
- ③ 석축성벽의 시대적 변천 및 각 부분에 보이는 기법의 특징 등을 파악하는 조사.



이러한 조사는 반드시 사진촬영 등에 의한 기록을 남겨야 하며, 그 성과나 분석 결과 등은 지형도에 색을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시한다.

기초조사 : 개요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하게 되며, 이에는 다음 6가지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하며, 석축의 상세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다. 그 결과는 단계별로 조사카드·구역별 조사표·발굴조사보고서로 나타난다.

- ① 조사표에 의한 일체조사[悉皆調査] : 성벽의 잔존상태, 붕괴상태를 막론하고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시작점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구간까지 연속적인 사진촬영을 동반한다. 따라서 각종 성벽관련 정보를 항목화 하고, 그 내용을 일정한 카드 양식을 정한 바에 따라 조사카드를 작성하므로, 성벽의 유존상황과 부분적으로 파손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성벽의 축조상의 특징·개축 여부·각 시대나 구간마다의 규모 양식과 특색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며, 한국의 경우 정밀지표조사보다 자세한 내용파악이다. 이를 통해 수리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 ② 파손상황에 대한 조사 : 이전에 실시한 복구 흔적과 그 현재 상황, 밀리고 벌어지고 배부름 현상이 있는 관계 등을 포함한다. 성석의 경우 면석, 끼움 돌[介石, 켜기돌인 楔石], 받돌[粟石] 등의 간격과 본래의 배수 계통이나 수구 계통 등이 조사되고 토사유입과 세굴 등의 위치와 원인 등도 파악된다.
- ③ 석재에 대한 조사 : 축성에 사용된 석재의 특색特色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석재의 산지産地를 알기 위한 조사.
- ④ 석축기법의 조사 : 돌쌓기[石積]에 관한 조사는 입면을 보고 특징을 파악하는 조사, 실제 돌쌓기의 수법과 구조 등을 파악하는 조사가 있다. 전자는 조사표 작성을 하는 일체조사에서 하고, 후자는 해체를 하면서 조사하는 것이다. 입면의 조사는 석축의 높이·경사정도·곡면 기울기·석축 기법 등의 특징을 파악하여 당초의 성벽이 남은 곳의 파악과 동시에 후대에 덧쌓기 하거나 수개축 된 부분을 가려낸다. 파손상태까지 파악되므로 석재 하나하나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석축 기법의 조사에 이르면 석축의 외관에서 판단되는 의장과 구조상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수리공사의 범위와 수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⑤ 옛 그림과 문헌 등의 사료조사 : 회화작품과 토지관련 기록과 지도, 보청普請 기록, 지역 사료 등을 망라한다.
- ⑥ 전승에 관한 조사 : 그 지역에 살거나 살았던 사람이 기억하는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이야기로 전해오는 것’을 탐문 조사하는 것, 어려서 본 성벽의 모습과 높이 등의

기억을 포함해 사진 등의 자료 조사.

- ⑦ 수리를 동반한 발굴조사 : 발굴조사는 성벽의 해체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해체 이전에 실시하는 것과 해체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발굴조사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수리를 담당하는 공사 감리, 석공 등 기능자들이 긴밀히 의사소통 하며, 전문가는 현장에 입회하여 성벽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기록하고, 전문적 관점에서 공사 감리 및 기능자에게 적절한 지시를 한다.

공법 시험조사

석축의 수복에서 벽이 수직방향으로 전개되는 구조체를 이루고 있을 때, 강도가 약화된 석재로 교체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므로 약품을 써서 개별 석재를 보존처리하는 경우에 공법 시험 조사를 한다. 주요한 구조재가 아닌 석재로서 부분적으로 약화, 풍화, 파손된 것을 강화하거나 접착하는 등의 보존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사용되는 화학 약품에 대해 사전에 시험 조사를 한다.

수리의 공정

성벽의 정비에 대한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은 개요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수리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성벽의 긴급성에 따라 사업 순위를 정한다. 이 계획과 병행하여 성벽에 대한 조사표가 작성되고, 일체조사를 계속 하도록하며, 기초조사의 성과에 기초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입안한다.

성벽이 사적 등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개요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곽유산 범위 전체에 대한 정비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세우며, 수리복구의 필요성이 제시된 성벽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정한 사업항목의 실시순위에 의해 해당되는 성벽에 대해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기초조사의 성과를 가지고 수리복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작성된다.

실제 수리복구의 공사 순서는 한국과 다르지 않으나, 모든 석축성벽에서 해체 이전과 해체복구 이후의 도면이 모두 작성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실제 공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성벽의 실측도화 : 석재 파손 점검 및 성벽 횡단면측량도화
- ② 가설공사 : 해체 이하 공사를 위한 거푸집 가설 등
- ③ 번호부여 : 해체범위 전체의 것과 실제 해체석재에 대한 번호부여
- ④ 해체 : 면석, 뒤(속)채움, 뒤쪽 상태 등 해체공사



- ⑤ 정비 : 가치假置, 정리, 파손석재의 확인
- ⑥ 새로 보충하는 석재 가공 : 새로 보충되는 석재의 수집 및 가공
- ⑦ 석축공사 : 돌쌓기 및 뒤펀공사용 받돌 현장가공 포함
- ⑧ 뒤펀 공사 : 뒤펀 받돌과 성토 넣고 다지기 공사
- ⑨ 완성된 성벽의 도면화 : 석축 복구 뒤에 완성실측도 작성

이 공정의 해체부터 석축공사에 이르도록 ③-⑥의 공정에서는 당초석재의 재사용(면석 및 각석)과 뒤펀에 사용한 받돌(栗石)까지 재사용하며, 부족한 부분과 보충되는 석재는 당초의 석재와 동일한 종류와 복구될 크기로 전통기법에 의해 가공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해체 복구의 과정에서 해체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해체된 석재는 하나하나 파손상황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한지 교체하여 새로 보충될 것인지 최종 구분이 행해진다.

석축은 석재의 가공을 하던 직인職人和 석축을 하는 직인이 모두 역사적인 축성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기능자들로 공사의 핵심에 배치되어야 가능하므로, 공사경력서 등을 필요로 하는 기술자와 수련 겸 기능을 연마하는 기능자로 구성된다.

이런 과정을 보아 일본의 수리체계를 일부 도입하려면 오히려 더욱 세밀한 규정과 학술적 조사기록을 남기는 방향으로 우리의 지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란 점을 쉽게 느끼게 된다.

성곽유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과 정비 공사 등이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의 하나는, 조사 이후의 임시적인 유적의 포장과 정비를 위한 재발굴 등의 시간적 간극에서 발생하는 성곽유산 자체의 훼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현행의 한국 제도는 쉽게 말하면, 보존 기술과 관련한 교육과 전승에서 철저하지 못한 기본적인 내용도 지적된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우리는 민간차원에서의 성곽유산 보호와 보존, 수리와 정비의 체계에서 대륙계라기 보다는 영국계의 내셔널트러스트의 영향을 받았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영국의 역사적 건조물과 기념물 및 영국에서 매우 아름다운 지역경관 보전기구)에서 영향을 받아 21세기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 보존운동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국민신탁기금이 설치되고, 문화유산을 신탁하는 국민운동이 전개되었다.²⁵ 이 운동은 이후 미국과 호주, 일본 등으로도 확산되었다. 우리도 급격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이른바 그린벨트(Greenbelt)의 전면적 해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1월에는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결성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성벽’을 의미하는 렉파르(Rempart)란 이름으로 국제적인 워크캠프(Work

Camp)의 형식에 의한 사적 등의 보존(Preserve)과 복원(Restore)의 자원봉사 겸 체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성립되었다. 렉파르는 1966년 기념물과 예술성이 높은 문화유산의 복원과 그를 통한 보존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적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일정부 역사적 기념물에 대해 봉사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170개의 비영리 단체가 프랑스 문화유산 보존연맹(Union Rempart)을 창설한 것에서 시작된다.

프랑스 정부기관인 문화부·청년부·교육부·환경부·사회부·외교부의 6개 부처와 지방과 지역정부가 입안에 합의하여 만들어진 공익기구로서 렉파르에서 다루는 문화적 기념물 유적(heritage site)은 여러 유형을 아우르지만, 그 명칭과 같은 첫 유형인 군사적 유적으로 방벽으로 둘러쳐진 성곽(fortified catles), 요새의 성채(fortresses), 읍성(town walls), 망탑(towers), 보루(forts), 방어를 위해 축조한 성벽(fortifications) 등이 주요 대상으로 되어 있다. 1968년 이후로는 유럽연합(EU)의 협회로 되고, 각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유적 복구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참가 희망자가 프로그램 가운데 희망하는 유적을 선택하여 참가하되, 자신의 휴가와 방학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기간 여비를 자부담하면서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워크캠프(work camp)에 참여케 한다. 참가하는 청년들(19세 이상)은 자원봉사 형식을 띠면서 주요한 보존대상인 성벽의 수리와 복구에 참여하여, 해당 유적에 대한 정확한 인지認知(awareness)를 통해 그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고고학적 조사와 고고학적 복원 작업에 일정기간 종사케 되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얻게 하며, 원형대로 수리하는 여러 공정을 직접 노동하면서 습득한다.²⁶ 물론 전문가 교수의 지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성벽 복원의 기술을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렉파르는 성곽유산의 역사문화유적(historical monuments)에 대한 수리와 복원 기술(restoration techniques)의 습득과 체험을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참여케 하여, 그 작업의 일부를 분담케 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처럼 체험학습을 강조하는 교육 분위기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제 아래서 보존과 정비를 위한 참다운 후속세대가 자라날 수 있을지 한번쯤 숙고해 볼 문제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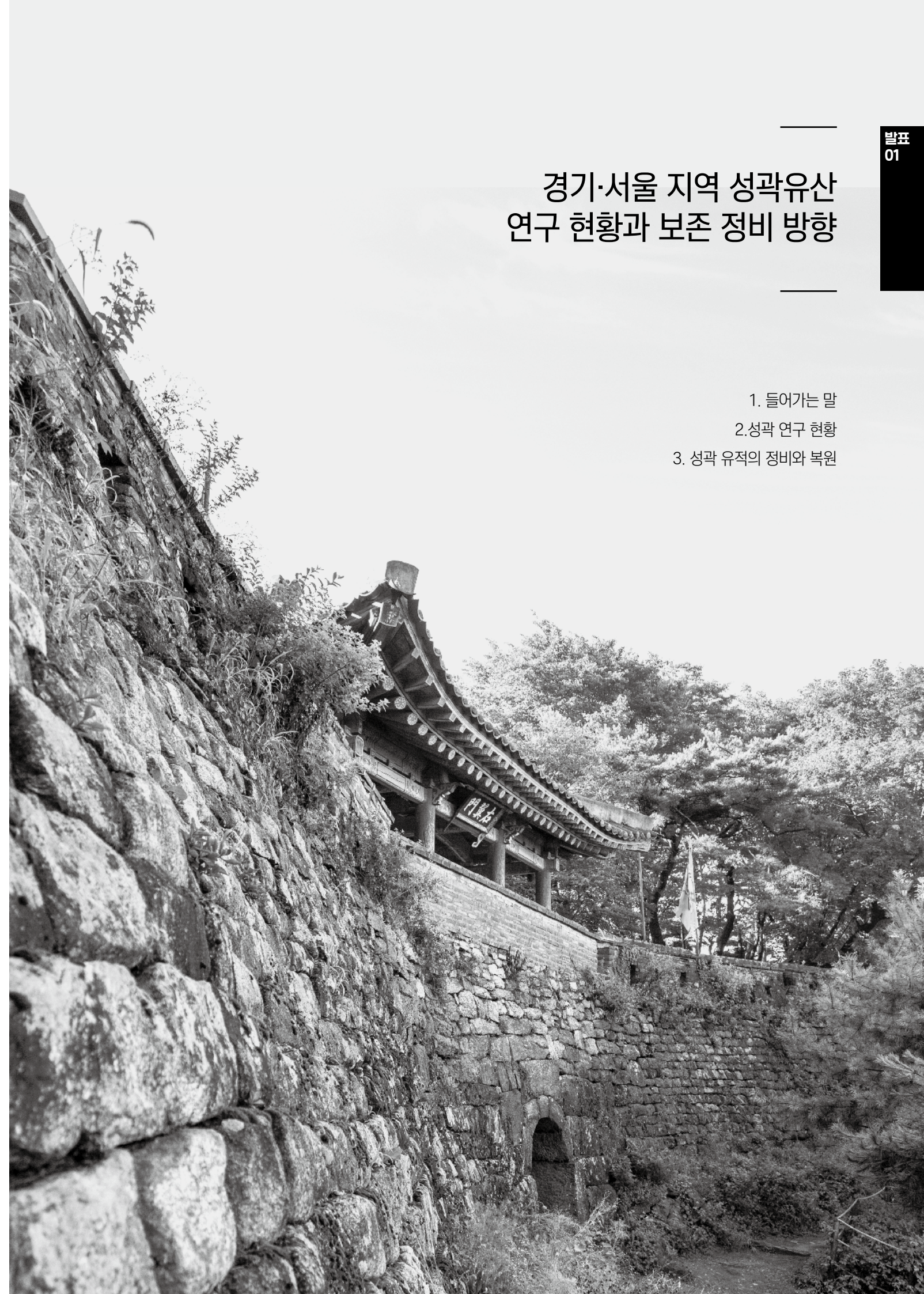
성곽유산의 조사와 연구는 비영리 기관이 담당하고, 이를 보존하고 수리하고 정비하는 영역의 설계와 시공을 영리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조사 후 곧바로 보존·정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사와 발굴 등을 담당하는 분야와 기능자나 기술자가 자라나는 설계와 정비공사가 접목되는 자연스런 후속세대 양성과정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6 유적의 수리 기술은 석공기술과 석축기술(masonry, stonework), 메쌓기(dry wall construction), 초벽질(rendering), 석재의 절단과 치석(治石, stone-cutting), 목수일(carpentry), 지붕이기(roofing), 스테인드 그라스 기술(stained glass tecnicques) 등의 전통기술(traditional techniques)과 지방적으로 축적된 노하우(local know-how)를 배우기도 하는 등의 전문적 영역이다. www.rempart.com 참조.

25 <http://ntfund.tistory.com>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참조.

경기·서울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1. 들어가는 말
2. 성곽 연구 현황
3. 성곽 유적의 정비와 복원



경기·서울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안성현 · 고려문화재연구원

1. 들어가는 말

경기·서울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한강을 중심에 두고 북으로는 임진강과 남으로 안성천을 경계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앙에 해당하며, 삼국시대에는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국가가 전성기를 구가하였고,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조선시대까지 중요성은 여전히 지속되었다.¹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듯 현재까지 경기·서울·인천 지역에는 363개소의 성곽이 조사되었으며, 경기지역만 230여 개소에 달한다. 이중 반 정도인 110여개소가 고려시대에 새롭게 축성되거나 수·개축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사용되었다.²

이 지역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는 1970년대 몽촌토성에 대한 조사에서 시작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개별 성곽에 대한 연차 발굴이 이루어진 후 정비·복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 차이점이라 하겠다. 그 결과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

1 崔種澤, 1998,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百濟研究』第28輯, 백제사학회, p. 135.

2 백종오, 2002, 「京畿地域 高麗城郭 研究」, 『史學志』第35輯, 단국사학회, p. 95.

려우나 그에 따른 쟁점 역시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쟁점의 기본적인 열개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완성되었으며, 이후 신진 연구자들이 새롭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논지가 보강되어진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의 발굴조사 수준이 논지가 완성된 시기보다 발전되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³ 이와 더불어 경기·서울 지역은 마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순차적으로 점유하였을 뿐 아니라 삼국의 격전장이기도 하였으므로 다양한 국가에 의해서 축성이 이루어졌으며, 성벽이나 부속시설 등이 변화되는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빨랐을 가능성이 높다.⁴ 따라서 현재의 쟁점과 조사 당시의 결과에 대한 재분석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발표문은 경기·서울 지역 성곽연구의 현황과 정비복원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며, 최근에 이에 대한 정리가 간략하게 이루어진바 있으므로⁵ 기왕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수용한 후 이제까지의 쟁점과 소홀히 다룬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성곽 연구 현황

성곽연구는 대부분 성벽의 축조수법이나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근거로 축조시기와 국가를 파악한 후 영토 확장 및 지방지배, 국경선과 교통로 등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경기·서울 지역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된 듯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점유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정 정도의 연구 성과 -이를테면 성곽의 축조수법이나 시기적인 특징, 관방체제, 교통로, 개별성곽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⁶ 다만 마한의 성곽 특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1) 백제

한성 백제기 성곽 연구는 왕성의 위치비정과 이동, 운영 체제와 축조시기, 왕성외곽방어체, 교통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왕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으로 정리되어 가는 것 같다.⁷ 다만 하북 위례성과 한산 및 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이 진행 중에 있으나 풍납토성과 최근에 재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몽촌토성, 삼성동토성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기왕에 조사된 유적에 대한 재분석 결과 새롭게 행주산성⁸과 홍천 신금성⁹에서 한성백제기의 토성을 재발견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기왕의 조사된 성곽에 대한 재분석과 재해석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풍납토성에서 확인된 3중 환호의 해석문제

한성 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진 풍납토성은 3중 환호에서 토성으로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¹⁰ 물론 그 사이에 소규모 토성이 축조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전체적인 변화에

3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2013년에는 성곽조사 방법을 정리한 방법론이 출간되기도 하였다.(한국문화재조사협의회, 2013, 『성곽 조사방법론』, 사회평론아카데미.)

4 안성현, 2015, 「덕진산성의 축조 연대와 의미」, 『파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방안』, 중부고고학연구소, pp. 78~79.

5 심광주, 2017, 「서울지역 城郭遺蹟 調査研究 現況과 課題」, 『서울지역 고중세 성곽유적에 대한 주요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 제60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pp. 7~20.

백종오, 2016, 「인천 문학산성의 보존 관리 방안-사적 및 기념물을 중심으로-」, 『인천의山城, 그 역사적 가치 재조명 인천 문학산성 복원과 보존 방향』,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pp. 7~51.

6 안성현, 2018, 「파주 대전리산성의 성격연구」, 투고 중.

7 신회권, 2002,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통한 하남 위례성 고찰」, 『향토서울』62; 2015, 「왕도의 성립과 운영 체제」, 『서울 2천년사 4-한성백제의 도성과 지배체제-』, 서울역사편찬원, 130~168쪽.

8 안성현, 2016a, 「서울·京畿地域 성곽 발굴조사 성과」, 『계간 한국의 고고학』34호.

9 이혁희, 2017, 「홍천 신금성의 구조와 성격 재검토」, 『야외고고학』30, 한국매장문화재협회, pp. 101~142.

10 박순발, 2012, 「백제, 언제 세웠나-고고학적 측면」, 『백제, 누가 언제 세웠다.』-「백제사의 쟁점」집중토론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성백제박물관, pp. 7~24.

대해서는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¹¹ 문제는 이 시기 토성과 그 주변에 대한 정확한 경관은 밝혀진바 없으나¹², 최근에 이루어진 몽촌토성의 조사결과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즉 몽촌토성의 북문지 일원은 지속적인 대지조성이 이루어졌으므로 풍납토성 역시 이와 유사하였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 이유는 왕성 내부에는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였으므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지조성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따라서 3중 환호 내부의 토층은 양자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환호 내부는 'U'자 상의 자연퇴적층이 확인될 뿐 인위적인 다짐층은 잔존하지 않는다. 토층만으로 한정할 때 3중 환호가 자연 폐기된 이후 토성이 축성되었으며, 토성을 축조한 집단은 3중 환호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풍납토성 환호 마을 유적 전경

환호 토층

삽도 1. 풍납토성 환호(경기도박물관, 2006, 『한성백제』, pp.24~25. 전재)

(2) 풍납토성 성벽의 구조와 시기

풍납토성 성벽은 중심토루를 쌓고 외피토루를 덧붙인 형태로 파악하였으나 토성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어지는 토층의 분할선을 수축의 증거로 보았으며, 축조 시기에 대해 초축성벽은 2세기, 수축은 2세기 전반에서 3세기 중반에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¹³ 이후 풍납토성의 축조시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성벽은 2차례의 증축이 이루어졌으며, 초축성벽은 3세기 중후반~4세기 초반의 어느 시점에 착공되어, 늦어도 4세기 후반에 완성되었다. 이후 4세기 후반과 5세기 중반을 중심에 두고 그 이전에 두 차례의 증축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¹⁴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풍납토성의 축조 시기는 동일한 기관에서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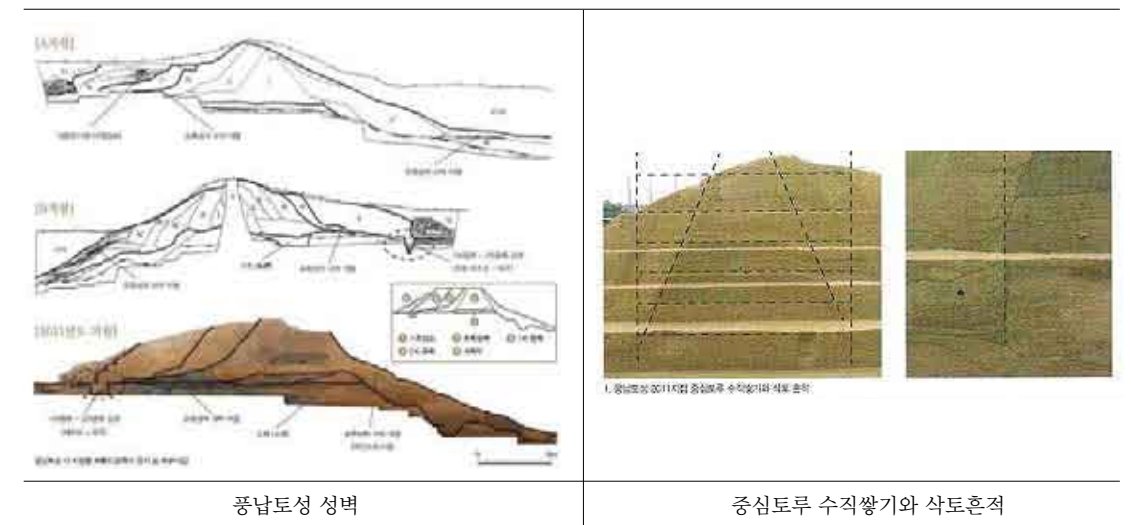
11 김성남, 2014, 『백제 漢城期 편년의 현상과 성찰』, 『쟁점, 중부지역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물질문화 편년』11회 매산기념강좌,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pp. 63~73.
12 한성기 경관에 대한 연구는 이홍중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일이다(이홍중, 2015, 『한성 백제기 도성권의 지형변화』, 『고고학』14-1호, 50~60쪽).
1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풍납토성 II』-동벽 발굴조사 보고서-.
14 국립문화재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2014, 『風納土城XV』-성벽의 축조공법 및 연대 규명을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 pp. 221~250.

간한 보고서에서 조차 100년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벽의 구조는 막연하게 판축토성이라고 명명할 뿐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최근 한성기 판축기법의 가장 큰 특징을 일정한 높이에 따라 설치→해체→재설치를 반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본 견해가 제시되었다.¹⁵ 중심토루의 내·외벽 가장자리를 완만한 경사로 절토한 이유에 대해 첫째, 판축과정 중 달구질이 정교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가장자리는 비교적 경도가 약하므로 가장자리를 삭토하였을 가능성. 둘째, 중심토루(골조)에 판괴를 덧댈 후속 판괴의 하중을 중심으로 향하도록 한 결과물일 가능성인데, 후자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듯하다.¹⁶

풍납토성 성벽에 대한 축조공정에 대한 복원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발표자의 생각으로 이 견해는 현재까지 발표된 것 중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첫째, 판축토성의 성벽은 상부와 하부가 다른 흙으로 다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색조와 강도의 차이로 다른 판괴로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중심토루의 외벽 기저부에서 영정주와 협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초축성벽 내벽 다짐시공 구간의 기둥구멍 흔적이 확인되었으나 내벽의 진행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1차 증축내벽에서 확인된 목주흔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성벽을 쌓았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초축 및 증축 성벽의 생활면과 풍납토성이 폐기된 475년 층을 찾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삽도 2. 풍납토성 환호(이혁희, 2016, 앞의 글, pp. 237~238. 전재)

15 이혁희, 2016, 『백제토성 축조기법의 특징과 변천』,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성곽』, 국립중앙박물관, pp. 336~341.
16 이혁희는 이 논문에서 증축 성벽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었으나 최근의 논고에서 이를 수정하였으므로 향후의 연구성과가 기대된다.

(3) 백제 석축산성의 존재유무

우리나라 성곽 연구에 있어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가 한성 백제기 석축산성의 존재 유무인데, 그 결과에 따라 한성기 도성 외곽방어체계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 논쟁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후 소강국면에 들어섰으나 최근에 들어 긍정론의 재반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¹⁷ 발표자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견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론은 1990년대 초반부터 포천 반월산성과 이천 설봉산성·설성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되어졌으며, 그 이후 여러 논고를 통해서 논지가 보강되어져 왔다.¹⁸ 이 견해는 산성내부에서 백제 유구나 유물이 출토되는 성곽들을 중심으로 기왕에 알려진 6~7세기 신라산성들의 특징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시켜 왔으나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① 백제 유물이 출토되는 대부분의 성곽 중 포천 반월산성과 이천 설성산성 및 설봉산성을 중심으로 축성법을 비교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부정론자들에게 반론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즉 기저부에 턱을 둔 것이나 외벽의 축조수법, 기단보축 유무, 토축부 형태 등 초축성벽과 관련된 모든 성벽을 백제특징으로 파악한 후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저부 조성 방법은 지질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축성국가를 파악할 수 있는 속성은 아니다.¹⁹ 기단보축은 성벽 전구간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후술하겠지만 경기·서울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축성 시기와 국가를 구분하는 속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성곽내부에서 확인되는 유구나 문화층의 해석문제이다. 설봉산성 서문지의 배수로 주변 및 토축부에서 출토된 백제 유물²⁰들과 설성산성 초축 성벽의 회곽도를 굴착하고 조성된 백제주거지 등을 근거로 백제 초축설을 주장하고 있다.²¹ 특히 후자의 경우 백제가 산성

을 축조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시기적 경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회곽도와 백제주거지 사이의 중복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이나 토층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③ 긍정론자가 주장하는 산성들이 한성기 백제성곽이라면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경기·서울 지역 산성들과 충주 장미산성이나 성흥산성 역시 동일한 국가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백제는 전남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소형의 산성들을 포함한 임실 성미산성, 부여 석성산성 등 허튼충쌓기를 한 산성과 잘 치석된 할석으로 바른충쌓기를 한 백령산성 등 전혀 다른 축조수법을 가진 3개의 축성세력이 존재하는 셈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축성법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데, 한성백제기 최고의 공법으로 축성하는데 반해 웅진기 도성인 공산성과 전남 동부지역의 백제 산성들의 축조수법은 허튼충쌓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의 축성수법은 퇴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론은 심광주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며²², 논지는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있고²³, 이에 다른 연구자도 동참하게 된다.²⁴ 이 견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백제의 도성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웅진기의 공산성, 사비기의 부소산성이 토성이란 이유로 웅진·사비기에 가서야 석성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었다.²⁵ 하지만 신라의 왕성인 월성은 토성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명활성과 남산성 역시 토성에서 석성으로 개축되었다. 지방에는 강문동토성과 옥천 이성산성, 양산 순지리토성, 울주 화산리토성 등이 석축산성과 같이 축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경기·서울 지역의 백제 석축 산성들은 6~7세기 신라산성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성곽 연구의 수준을 감안할 때 고대의 건축 수준을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특히 설봉산성 서문지는 신라산성의 특징으로 알려진 현문식이 아닌 어긋문일 가능성²⁶과 배수로와 그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간층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7, 『경기도 백제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18 박경식, 2002, 「이천 설봉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제45회 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집』, 한국고고학회.
김호준, 2002, 「抱川 半月山城의 時代別 活用研究」-삼국·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 「이천 설봉산성 축조기법 고찰」-서문지 및 주변 정비구간 백제성벽을 중심으로-, 『문화사학』21집; 2007, 「한성 백제시대 산성 축조방식에 대하여」, 『학예지』第14집.

백종오, 2004, 「百濟 漢城期 山城의 現況과 特徵」, 『白山學報』第69號, 백산학회.

서영일, 2009, 「고대산성의 축조 공법 비교 연구」-석축공법의 보편성과 특수성-,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병희, 2017, 「경기지역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와 신라의 개축과정 검토」, 『한국성곽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성곽학회.

19 안성현, 2016b, 「고찰」, 『연천 대전리산성 II』.

20 김호준, 2017,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과 성격」, 『경기도 백제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p. 47~71쪽.

21 서영일, 2017,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과 성격」, 『경기도 백제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p. 5~23쪽.

22 심광주, 2002, 「경기·서울 지역의 삼국시대 연구현황과 과제」, 『고고학』1, 서울경기고고학회.

23 심광주, 2004, 「漢城時期的 百濟山城」, 『고고학』제3-1호, 서울경기고고학회; 2012, 「양주 대모산성 축조방법과 축성시기」, 『양주 대모산성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전문가 학술회의』; 2013, 「계양산성의 축조방법과 축조시기」, 『인천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 「청주 부모산성과 주변 보루의 축조기법」, 『한국성곽학보』24.

24 김영, 2010, 「경기지역 백제초축설 제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심광주, 2002, 「경기·서울 지역의 삼국시대 연구현황과 과제」, 『고고학』1, 중부고고학회, p. 96.

26 김병희, 2017, 앞의 글, p. 56.

2) 고구려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42개소의 고구려 유적이 확인되었으며²⁷, 이중 성곽 및 관방유적이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성곽의 구조나 축조수법,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교통로 및 관방체계, 지방지배를 밝히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특히 이들 논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파악된다. 하나는 문헌기록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듯하다. 물론 발표자 역시 당대의 시대상을 밝히는데 문헌기록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고학적 조사 결과와 기록이 다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경기·서울 지역의 시대상을 밝히는데 기초 자료인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와 고구려 지리지에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고학적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기왕의 보고서 및 중국·북한 자료에 대한 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발굴조사 결과 보고자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후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성곽의 구조와 정치한 토기편년체계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된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의 쟁점인 축조수법과 시기적 경관, 한강 하류지역의 향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곽의 축조수법 및 구조²⁸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 및 보루의 성벽은 아차산일대 보루와 임진강 일대의 강안평지성이 차이를 보이며, 지형적 차이에 따라 축조수법을 달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왕의 연구에서 고구려 성벽의 특징은 중간벽의 유무와 토심석축공법이다.

① 중간벽의 유무

주지하다시피 고구려 성벽의 특징 중 하나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 중간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겹성(二重城)이라고도 불리며,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이 대표적이다.²⁹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성벽이 동시기인지 아니면 후대에 가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문제는 중간벽이 설치된 성곽으로 자주 인용되는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에 대해서 보고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문봉 주

변 성벽은 기왕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중간벽 등 3개의 성벽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성벽들이 동시기에 축조되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가축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중간벽이 외벽과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면 계단식으로 성벽을 쌓은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벽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수축의 흔적이 나타날 수 없다. 소문봉 주변 성벽은 외벽과 중간벽 사이 간격이 380cm 정도임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바깥벽이 낮았다면 성벽을 보강하는 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벽에 대한 입론의 여지는 없어진다. 따라서 축조 당시에는 현재의 중간벽의 높이와 같거나 높았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벽의 상부는 하부와 달리 축조수법이 조잡할 뿐 아니라 가구목인 목주흔이 잔존하므로 수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간벽은 외벽과 달리 부정형에 가까운 할석으로 허튼층쌓기에 가깝게 축조하였다. 그리고 벽면을 따라 대략 200cm 간격으로 목주흔이 확인되지만 높이는 불규칙적이며, 축조수법은 잔존 목주의 최상단부를 중심으로 상부와 하부가 차이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목주가 설치된 성벽은 소문봉 주변 성벽 외벽과, 연천 호로고루 및 당포성 등의 고구려 성곽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의 덕진산성 보축성벽, 그리고 중세산성으로 알려진 보은 성점산성³⁰, 제천 와룡산성³¹, 충주 대림산성³², 춘천 삼악산성³³, 영월 태화산성³⁴ 등과 이 이외 많은 산성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중세산성의 기둥홈은 상단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구목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³⁵ 소문봉 주변 성벽의 중간벽에서 나타나는 목주는 성벽의 상부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부는 수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왕의 연구와는 달리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의 중간벽은 지상에 노출된 외벽이었으며, 현재의 외벽은 후대에 가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아차산 일대의 보루 중 흥련봉 1보루와 아차산 3보루의 성벽 역시 2겹~3겹의 성벽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하였다.³⁶ 하지만 석축 성벽의 기저부 위치가 다양하다는 점과 증평 추성산성 남성 남문의 측벽 축조상태를 감안할 때 동시기로 보기 어렵다. 또한 파주 덕진산성의 고구려 성벽의 하단부에서 단상을 띠므로 한 차례 수축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30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8, 『報恩 味谷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31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0a, 『堤川 城山城·臥龍山城·吾峙山城 地表調査報告書』.

32 祥明大學校 博物館, 1997, 『忠州 大林山城·情密地表調査 報告書』.

33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0b, 『春川 三岳山城』.

34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0c, 『寧越 王儉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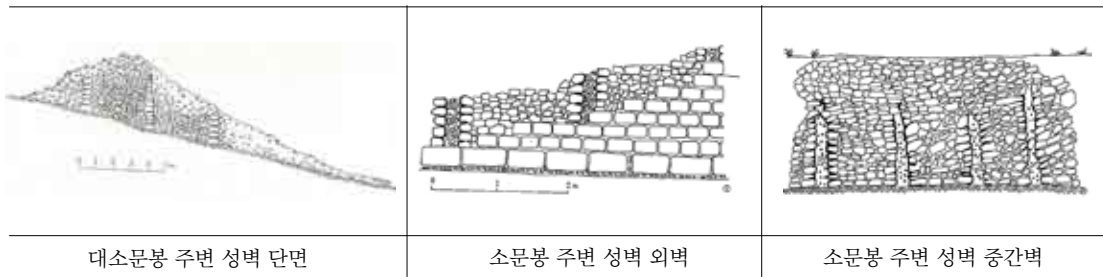
35 조순홍, 2007, 『韓國 中世의 기둥 홈을 가진 石築山城에 대한 研究』, 충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청구 논문.

36 심광주, 2014a, 『아차고구려 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방안』, 한강문화재연구원, p. 37.

27 심광주, 2008, 「고구려의 관방체계와 경기지역의 고구려성곽」, 『경기도 고구려 유적』, 경기문화재단연구원, p. 347.

28 발표자의 줄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안성현, 2017, 「경남지역 통일신라시대 토성에 대한 재검토」, 『경남연구1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pp. 102~108.)

29 서길수, 1999, 「고구려 축성법 연구(1)-석성의 체성(體城) 축조법을 중심으로-」, 『高句麗山城研究』, 학연문화사, 303~361쪽.



삽도 3.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

② 토심석축공법

남한 지역 고구려 성곽이나 보루들은 토축부와 석축부로 나누어진다. 즉, 토성의 성벽은 안식각 이상으로 축조할 수 없으며, 축조 이후에도 성벽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 석축벽을 덧대어 쌓았다는 견해가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축조수법을 ‘토심석축공법’이라고 지칭되고 있다. 이 공법은 아차산보루군과 연천 당포성·연천 호로고루 등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특징으로 보았다.³⁷ 최근에 조사가 이루어진 흥련봉 1보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벽의 축조수법을 4개 공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토축으로 구축할 내벽과 외벽 너비만큼 영정주를 벌려서 세우고, 영정주와 영정주를 종장목으로 연결한 후 협판을 대고 판축으로 영정주 내부의 토축부를 먼저 조성.

둘째, 이후에 영정주와 종장목은 그대로 둔 채 협판만 제거하고, 외벽과 내벽을 석축으로 마감.

셋째, 토축 후 석축성벽을 쌓을 때에는 일반적인 석축성을 쌓을 때처럼 비계목을 설치.

넷째, 석축 후에는 석축부의 바깥쪽에 일정한 높이까지 흙다짐을 하여 외벽을 보강하였다.

토심석축공법으로 성벽을 쌓았을 때의 효용성으로 첫째, 축성입지 선정이 자유로움. 둘째, 성 내부 공간이 획기적으로 확장됨. 셋째,防禦力이 획기적으로 증진된다고 주장하였다.³⁸

이에 반해 박태우는 토축부와 석축부가 결합된 형태의 성벽을 ‘石築附加 版築城壁’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는 부여 나성과 대전 월평동산성의 축조수법이나 토층의 중복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석축부가 후대에 가축되었음을 밝혔다.³⁹ 또 부소산성을 발굴한 조사단은 토축부가 백제, 석축부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석축부는 후대에 가축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⁴⁰ 발표자는 줄고에서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를 분석한

결과 동시에 쌓은 것과 후대에 개축된 것으로 나누어지며, 후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⁴¹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를 동시기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최근 들어 발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전자의 견해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 토성의 내·외벽은 안식각 이상으로 축조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 성벽을 보강해야지만 붕괴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듯싶다.⁴² 하지만 발표자는 이 견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ㄱ. 토성의 기울기

토성벽의 기울기에 대해서는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없다는 견해⁴³와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⁴⁴ 흙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쌓는 구조물은 외벽을 마감하는 재료에 따라 축조수법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즉 마감재가 석재나 점토블록일 경우에는 면석과 내부의 적심을 동시기에 쌓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별도의 마감재 없이 성벽을 쌓을 경우는 성토 및 판축기법 중 어느 방법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축조수법이 달라지므로 이 둘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지하다시피 안식각의 사전적 의미는 ‘흙을 자연 상태로 쌓아올렸을 때 그 경사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경사각’을 지칭하는데, 입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25~40° 내외이다.⁴⁵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붕괴되지 않는 안식각을 토성벽이나 봉분과 같이 인공적인 구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자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으나 토목공학적인 측면과 온전한 상태로 잔존하는 성벽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하지만 지상으로 쌓은 구조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상부가 붕괴되어 가장 안전한 각도로 잔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있는 시설은 없게 된다.

특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성토토성인 길성리토성, 소근산성, 먹절산토성, 증평 추성산성, 함양 성산토성의 성벽이 완만한 기울기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먹절산토성 발굴조사 결과 외벽 경사도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토성벽에

37 심광주, 2014b, 『德津山城과 臨津江 流域 高句麗와 新羅의 築城法 比較』, 『波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中部考古學研究所, 333~337쪽.

38 심광주, 2013, 『축성기법을 통해 본 대전리산성과 주변 성곽의 역사적 위상』, 『연천 대전리산성 학술대회』, 경기문화재단연구원, pp. 57~84.

39 박태우, 2006, 『월평동산성 석벽축조기법과 시기에 대한 검토』, 『백제문화』3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p. 75~100; 2007, 『百濟 사비羅城 築造에 대한 檢討』, 『湖西考古學』제16집, 호서고고학회, pp. 57~82.

40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0, 『扶蘇山城-發掘中間報告書Ⅳ-』.

41 안성현, 2016b, pp.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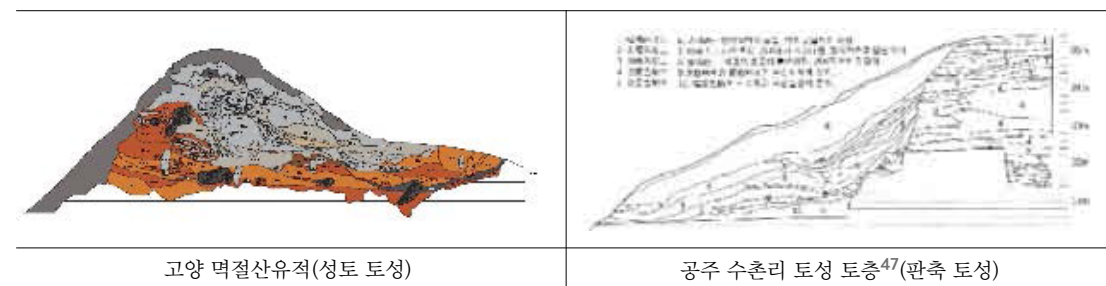
42 심광주, 2014b, 앞의 글, p. 39.

43 심광주, 2014c, 『德津山城과 臨津江 流域 高句麗와 新羅의 築城法 比較』, 『波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中部考古學研究所, pp. 333~337.

44 안성현, 2015a, pp. 63~92.

45 심광주, 2014a, 앞의 글, pp. 39~40.

설치된 4트렌치의 외벽 기저부는 풍화암반을 토제상으로 마련하였고⁴⁶, 외부는 급경사를 이룰 뿐 아니라 성벽을 보강하는 외피토루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하는 외벽의 경사도는 60° 정도이지만 초축 당시에는 현재보다 경사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벽절산토성만으로 한정할 때 성토토성의 성벽은 안식각 이상으로 축조되었으며, 성토기법이 적용된 성벽임에도 불구하고 외피토루 없이 유지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삽도 4. 성벽 기율기

후자는 수직에 가까운 성벽을 높게 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성벽과 같은 방어용 시설을 축조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어 왔다.⁴⁸ 관축토성은 축조기법의 특성상 영정주를 세우고 영정주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횡장목과 종장목을 설치한 후 협판을 대고 다지는 과정을 반복하여 축조하므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성벽의 상부가 붕괴된 경우라도 영정주의 기율기는 성벽의 기율기와 동일하다. 둘째, 협판의 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성벽의 기율기와 상관없이 내·외벽은 직선에 가까워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축 성벽이 잔존하는 홍천 신금성, 목천토성, 사천 선진리토성, 고성 고읍성, 김해 송정리토성, 충주 호암동토성, 청주 우암토성, 회원현성, 공주 수촌리토성, 옥천 이성산성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토성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기왕의 통설과는 달리 내·외피 토루의 설치 유무는 차치하더라도 관축토성은 수직에 가깝게, 성토토성 역시 안식각 이상으로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ㄴ. 내·외피 토루

토성의 성벽은 수직에 가깝게 쌓더라도 장마와 같은 우기나 자연적인 붕괴 등으로 인해 유지할 수 없으므로 내·외벽을 보강하는 토루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왕의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관축토성의 성벽은 수직에 가깝게 축조되었으므로⁴⁹ 외피토루가 설치되

었다면 성벽은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됨에 따라 수축흔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 예로 홍천 신금성⁵⁰과 거창 정장리 토성⁵¹의 성벽은 내·외벽을 쌓은 후 토축벽을 가축한 형태이므로 원성벽에서 수축흔이 나타나지 않는다.⁵²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자가 토성의 성벽 내·외부를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

㉞ 외피토루를 상정하기 힘든 것으로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㉟ 수축부가 성벽의 기저부에 연접되거나 아니면 근접한 부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로 부소산성 북벽⁵³, 울주 화산리 토성⁵⁴, 울산 반구동토성⁵⁵, 사천 선진리성⁵⁶, 남해 대국산성 외성⁵⁷ 등이다.

이중 부소산성 북벽의 경우 외벽 외부의 토층을 외벽보강 토루라고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보강부 내부의 성벽에서 붕괴흔이 확인될 뿐 아니라 외벽의 잔존부는 추정 외벽라인에서 약 100cm정도 내부에 위치하므로 보강부로 보기 어렵다. 남해 대국산성 내성의 기단보축은 토성의 상부에 위치하는데, 만일 토성에 내·외피 토루를 설치하였다면 기단보축 설치 시 성벽 대부분을 제거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이와 더불어 잔존 성벽이 기단 석렬이나 토성벽의 일부만 잔존하는 성벽 역시 외피토루를 상정할 수 없다.

㊱ 토성벽에서 석성벽으로 개축된 것으로 파주 덕진산성·부산 구랑동성지⁵⁸·강릉읍성⁵⁹·양양읍성⁶⁰·부산 당감동성지⁶¹·의령 호미산성⁶²·남한지역 고구려 보루 등과 더불어 다수의 토성에서 확인된다.⁶³ 특히 양양읍성의 성벽은 초축 이후 최소 3차례 이상 수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토성벽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이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정선 고성리산성의 경우 선축된 토성의 성벽을 굴착하여 기저부를 조성한 뒤 석축성벽을 쌓았으며, 잔존상태로 보아 토성벽에서 석축성벽으로의 전환은 각 구간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⁶⁴ 강릉읍성 역시 조선시대 읍성으로 이전 시기 토성을 절개하고 성벽을 축조하였다.

46 中央文化財研究院·高揚市, 2014, 『고양 벽절산유적(1차)』.

47 國立公州博物館, 2002, 『公州 水村里 土城 I』.

48 신희권, 2014, 『版築土城 築造技法의 理解-風納土城 築造技術을 中心으로-』, 『문화재』47집, p. 103.

49 안성현, 2016b, 앞의 글, p. 27.

50 忠南大學校博物館, 1994, 『神衿城』.

51 (재)경상문화재연구원·거창군, 2011, 『居昌 正莊里 遺蹟』.

52 거창 정장리토성의 경우 원성벽의 내벽 상부에 수축흔이 잔존한다. 이는 외벽을 덧대어 쌓기 이전의 수축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벽 축조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3 백종오, 2006, 『부소산성의 축성기법과 특징』, 『扶蘇山城을 다시 본다』, 주류성, pp. 153~194.

54 東亞大學校博物館, 1990, 『蔚州華山里城址』.

55 심봉근, 1992, 『蔚山 伴鷗洞土城址』, 『歷史考古學志』第8輯.

56 泗川市·慶南文化財研究院, 2008, 『泗川 船津里城-사천 선진리성 공원화 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7 경남문화재연구원, 2003, 『南海 大局山城-南門址·蓮池』.

58 동양문물연구원, 2013, 『부산 구랑동성지-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부지(H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59 江原文化財研究所·江陵市, 2006, 『江陵邑城』.

江原文化財研究所, 2006, 『강릉 성내동 11-1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0 양양군·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양양읍성-추정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61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6, 『堂甘洞城址 I』.

62 경상문화재연구원·의령군, 2011, 『의령 호미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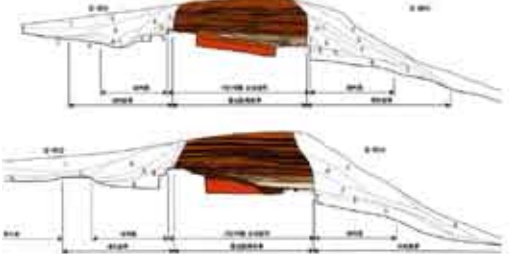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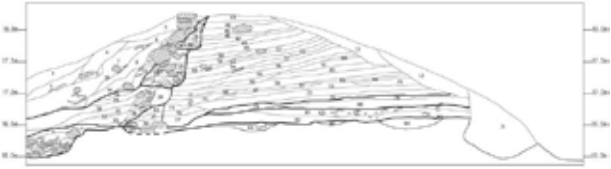
63 안성현, 2016a, 앞의 글.

64 안성현, 2013, 앞의 글, pp. 122~123.

㉔ 기장 고읍성은 초축 외벽과 인접한 부분을 ‘L’자 형태로 절개한 후 수축성벽을 축조하였다.⁶⁵ 또 회원현성⁶⁶의 수축성벽은 초축 기단석렬 상부 약 100cm지점에 위치하지만 초축 기단석렬보다 외부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거창 정장리토성과 신금성과 같이 수축부의 기저부에서 외피 토루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㉕ 선진리토성의 북벽은 성벽 외부에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150cm정도의 두께로 퇴적된 상태로 조사되었다.⁶⁷

따라서 위의 토성들은 내·외피 토루를 쌓았다고 상정하기 힘들며, 성벽 바깥으로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기저부를 보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장리 토성 성벽		강화중성 성벽	
			
사천 선진리토성 북벽 외벽	사천 선진리토성 수축부	회진토성 성벽	
			
		충주 우암동토성(상)과 송정리토성(하) 성벽 토층	

삽도 5. 토성 성벽 및 기저부 보강토

65 기장군·부경문화연구원, 2012, 『기장고읍성 학술조사 보고서-기장고읍성 보존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66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馬山市, 2007, 『馬山 會原縣城-馬山 會原縣城整備復元을 위한 發掘調査 報告書-』
67 泗川市·慶南文化財研究院, 2008, 앞의 책.

㉔ 성벽의 수축부가 성벽의 일정 높이까지 이루어진 경우인데, 고성 고읍성⁶⁸, 사천 선진리토성 남문지 주변, 동래 고읍성⁶⁹, 대전 월평동성지⁷⁰, 회진성⁷¹에서 확인된다. 고성 고읍성과 사천 선진리토성은 성벽 기저부에 사질점토를 30~50cm 정도 덧대어 보강하였는데, 이중 고성 고읍성은 성벽과 보강토의 경계지점에 수축이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월평동성지는 판축토성 기저부 보강토를 높이 100~120cm로 쌓았으나 잔존 성벽의 높이가 426cm임을 감안할 때 외벽을 피복할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월평동성지의 석축벽은 보강토를 단면 ‘L’자상으로 굴착한 후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들 토성들 역시 외피토루를 상정할 수 없으며, 성벽 기저부를 보강하는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㉕ 성벽에 수축흔이 나타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보이는 경우인데, 청주 우암토성 남벽⁷²·김해 송정리토성⁷³ 등이다. 이들 토성들은 단면상에서 외벽의 상당한 높이까지 보강토를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우암산성의 성벽 상부에 수축흔이 잔존하므로 보강부의 높이는 현재와 유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김해 송정리토성은 내·외벽에 보축을 하였는데, 보강부의 토층은 성벽 내·외부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다만 이들 보강부가 성벽 전체에 걸쳐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축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외 정북동토성⁷⁴ 역시 외피토루를 상정할 수 있으나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과 같이 성벽을 덮을 정도로 높게 쌓았는지는 알 수 없다.

㉔. 각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성의 성벽은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내·외피 토루 역시 설치된 것과 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효율성의 관점이다. 외벽과 내벽을 석재로, 적심을 토축으로 쌓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면석과 적심을 동시에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벽을 나동욱은 ‘석축형 토성’이라고 지칭한 바 있으며⁷⁵ 필자 역시 이 견해에 공감한다. 추성산성 북성 남문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석축형 토성은 면석과 토축부를 동시에 쌓아 올리면 절개선이 나타나지

6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4, 『고성 서외리 49번지 일원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조신규, 2015, 『고성 서외리 49번지 유적 발굴조사의 소개』 『한국성곽학회』 제27집, 한국성곽학회, pp. 165~184.
69 慶南文化財研究院(주)대경종합건설, 2007, 『東萊 古邑城址-釜山 望美洞 共同住宅敷地內 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70 충청문화재연구원, 2003, 『大田 月平洞城址』
71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羅州 會津城』
72 백영중, 2015, 『청주 우암산성의 성격과 특징』 『한국 성곽의 최근 조사 성과』 한국성곽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4~26.
73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1, 『김해 복합스포츠허브시설부지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결과약보고』
74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淸州 井北洞土城3-北門址 發掘調査-』
75 나동욱, 1995, 앞의 글, p. 59쪽.

않는다.⁷⁶

이에 비해 토성에 잔존하는 석축부 중 잔존상태가 양호한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의 성벽은 토축부와 석축부 사이에 절개선이 확연할 뿐 아니라 홍련봉 1보루와 시루봉 2보루·아차산 4보루 성벽의 경우 다짐토 상부에 석축의 기저부가 위치한다. 그러므로 토축부의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덧대어 쌓았다고 보기 힘들고 석축부가 설치된 부분만큼 절개한 후 성벽을 쌓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토성벽의 수축부와 동일하다. 이들을 동시기에 축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토축부를 먼저 축조한 후 석축부를 덧대어 쌓거나 아니면 잔존 성벽보다 넓은 폭으로 성벽을 축조한 후 토축부를 절개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성벽에 비하여 더 많은 공력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상은 순수 및 기단석축형 판축토성의 성벽 축조수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축성에 대한 관념은 최소한의 공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축성관념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면석과 적심을 동시에 쌓아 올리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축부를 먼저 쌓고 석축부를 부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둘째, 방어력과 견고성의 관점이다.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과 같이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에 축조된 성벽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토성 외부에 석축이 부가됨으로써 석축 성벽과 토성벽의 장점이 결합된 형태로 토성보다 방어력이 우수하다고 주장한다.⁷⁷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석축성벽 외벽의 축조수법을 중요시 여기는 듯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임진강과 남한지역 고구려보루 및 토성벽의 토축부와 석축부를 동시기로 보는데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발표자는 성벽의 견고성을 높이는 속성으로 외벽의 축조수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심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적심은 채운다고 기술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면석과 동시에 쌓아올렸으므로 외벽이 붕괴되더라도 적심은 축조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성곽 전공자들은 자주 목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석축부가 가축된 성벽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 견고한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석축부의 폭이 일반적인 석축성벽보다 좁고, 토축부를 절개한 후 부가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외부의 충격과 상부에 흙을 다진다고는 하지만 연결부는 우수와 같은 습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남한지역 내 고구려 보루의 성벽 모식도나 토층도를 검토해 보면 석축부는 토축부를 수직 및 완만한 경사로 절개하고 설치되었으므로 석축부가

슬라이딩될 가능성 역시 높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성벽은 석축성벽과 토축성벽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 결합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성벽의 구조에 대한 것으로 양시은은 아차산 보루의 석축성벽은 높게 쌓는 것이 불가능하며, 산 정상부의 평탄면 정도까지만 축조되었다고 보았다.⁷⁸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형태의 석축은 성벽보다 기단이나 축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석축부를 성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단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석축부의 높이가 아니라 석축 상부에 토성벽의 축조유무에 있다. 기단석축형 판축토성의 기단석렬은 1~2단 정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목천토성 및 회원현성지와 같이 상당히 높게 쌓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석축성벽이라고는 지칭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상부에 성벽이 축조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과 같이 석축부를 산 정상부의 평탄면 정도까지만 축조하였다면 기단이나 축대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논쟁에 대한 입론의 여지가 사라져 버린다. 최근에 조사된 홍련봉 2보루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석축부는 산 정상부보다 높게 쌓았음이 분명하다.

넷째, 현재 잔존하는 성벽을 토대로 축조수법을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성곽과 관련된 구조물에는 보수·수축·증축 및 개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잔존하는 유구는 성곽이 폐기되는 시점의 것이거나 아니면 여러 시기의 성벽이 중복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중 성벽의 수·개축에 대해서는 남산신성비의 비문을 참고할 수 있다. 비의 첫머리는 ‘591년(신해) 2월 26일 남산 신성을 쌓을 때, 법에 따라 쌓은 지 3년 만에 무너지면 죄로 다스릴 것을 널리 알려 서약케 한다.’라는 공통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⁷⁹ 비의 내용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죄를 받는 기간이다. 왕경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성곽 중의 하나인 남산신성이 축조 후 3년 이내에 붕괴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지방에 축조된 다수의 성곽이 3년 이내에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벽에는 다수의 수·개축흔과 성곽 내부에는 다양한 시기의 유구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각 시기별 유구를 구분한 후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⁸⁰

발표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파주 덕진산성에 대한 토층과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내성의 시기적 경관을 파악한 바 있다. 내성의 성벽은 고구려에 의해서 토성으로 초축되었으며, 취약한 부분에는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내성의 성벽 전체를 석축성벽으로 개축되었다. 성 내부의 경우 초축 당시에는 원지형과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통일신라시대에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대지가 조성되었고 다수의 와전물지가 축조됨으로써 산성 내부는 상당히 변모하였으며, 현재의 경관은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

76 중원문화재연구소, 2014, 『증평 추성산성』.

77 심광주, 2013a, 앞의 글, pp. 37~76; 2015, 『덕진산성 축성법 검토』, 『파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 중부고고학연구소, p. 135.

78 양시은, 2012a, 『경기도 연천 무등리 2보루 3차 발굴조사』, 『계간고고학』20, 周留城; 2012b, 『아차산 고구려 보루의 구조 및 성격』, 『文化財』,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p. 75~28.

7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浦項 中城里新羅碑』, pp. 70~74.

80 안성현, 2015b, 『거창지역 성곽연구-신라산성을 중심으로-』, 『거열산성의 역사적 가치조명』,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pp. 89~90.

야 완성되었다.⁸¹ 이러한 양상은 다른 산성들에서도 유사하였을 것이며, 석축부 역시 후대에 가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벽을 석재로, 적심을 토축으로 쌓은 성벽의 경우 동시기로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을 알 수 있다.

(2) 고구려 복속 이후 한강유역의 향방

한강유역은 475년 고구려군의 침공으로 한성이 함락된 이후 이 지역의 향방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 먼저 고구려의 침공으로 한성이 함락된 이후 551년 백제·신라·가야 연합군이 고구려군을 몰아내기까지 76년간 고구려가 차지하였다고 보는 것으로 이를 고구려 영유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계에서 다수설에 속하므로 통설이라 칭해도 무리가 없다. 둘째, 통설과 달리 장수왕의 한성 함락 이후에도 한강유역이 여전히 백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는 것인데, 일시 점유설과 전 기간 동안 점유하였다는 것으로 나누어진다.⁸² 마지막으로 이 시기 한강유역을 점이지대로 보는 것이다.

이들 논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간취된다. 먼저, 문헌기록을 중시하고 있으나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문구에 대해서도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이 지역의 향방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에 대해, 통설쪽에 선 연구자들은 적극적으로 분석하는데 반해 이설쪽의 연구자들은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다. 셋째, 고고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고 역시 입지와 규모, 축조수법, 부속시설을 근거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나 주로 입지와 규모를 중시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강유역의 지방지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이 일대 고구려 보루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문헌기록과 상황적 근거에 의존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한강유역의 지배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시기적 경관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발표자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을 시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³ 구의동보루는 최소한 두 시기로 나누어지는데, 초축 당시의 성벽은 최하단에 지대석을 두고 그 할석으로 허튼층쌓기를 하였으며, 외부의 돌출부는 설치되지 않았다. 내부의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으나 구의동보루의 규모와 내부에 토광 및 배수로가 설치되었음을 감

안할 때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축이 이루어지면서 보루는 이전 시기와 상당히 다른 경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즉 성벽은 초축성벽 위에 천석으로 허튼층쌓기를 하였고, 외부에는 돌출부를 설치하였다. 이중 돌출부C는 할석으로 쌓았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돌출부 A·B보다 이른 시기로 추정된다. 다만 성벽에 가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축조수법도 차이를 보이므로 성벽과는 동시기로 보기는 힘들며, 축조순서는 초축 성벽→돌출부C→1차 수축벽·돌출부A·돌출부B 순으로 상정할 수 있다.⁸⁴ 내부는 선축된 유구·토광·배수로·의 상부를 정지한 후 수혈주거지를 조성하였으며, 구의동보루가 폐기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구의동보루 평면도	용마산 2보루 평면도	용마산 2보루 3·4호 건물지
		
홍련봉 1보루 전경	홍련봉 2보루 할몰지 석축	시루봉 보루 성벽

삽도 6. 아차산 일대 보루의 수·개축흔

홍련봉 1·2보루의 경우 기와의 연구와 달리 목책 단계를 설정할 수 없으며, 토성으로 축조된 후 석축성벽으로 개축되었다. 2보루의 경우 외황은 초축시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치역시 시기 차이가 있다. 결과론적으로 방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생활면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동일한 생활면에서도 중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내부의 유구들을 동시기로 보기 힘들다. 또한 유구 내부의 퇴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수혈유구나 저수 및 저장시설의 토층설명이나 토층도로 보아 자연퇴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아차산 일

81 안성현, 2015a, 앞의 글, pp. 78~80.

82 김현숙, 2008, 『高句麗의 漢江流域 領有와 支配』, 『百濟研究』第50輯,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pp. 27~55; 2009, 「475년~551년 한강유역 領有國 論議에 대한 검토」, 『郷土서울』제73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p. 5~49. 에 잘 정리되어 있다.

83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에 대한 시기적 경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84 구의동보루의 성벽 내부에 토축부가 구축된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양상은 아차산 보루군 및 무등리보루와 동일한 구조이므로 토성에서 석축성으로 개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의 고구려보루들 중, 적어도 필자가 분석한 흥련봉 1·2보루·시루봉 보루·용마산 2보루·아차산 4보루 등은 일정 기간 동안 폐성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지 못하였으며, 진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신라 성곽 연구

신라성곽에 대한 연구는 한성 백제기 석축산성 축조문제와 연동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논쟁의 여지가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강유역이 신라에 복속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라성곽의 초축 시기와 축성에 참여한 집단, 지방지배 과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발표자는 이 지역의 토기 편년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기 전까지 정확한 시기를 밝히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신라 성곽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1) 신라 복속 후 축성 및 피점령국의 기술 수용

점령국이 피점령국의 영토에 어떠한 방식으로 축성하였는지와 성벽 축조에 피점령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은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순차적으로 점유하였을 뿐 아니라 신라가 복속한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사민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성곽축조에는 다양한 국가의 기술력이 적용되었다.

후자의 경우 경기·서울 지역 성곽에서 이러한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기단보축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보축 축조에 사용된 재료는 석축과 토축으로 나뉘어진다. 석축은 이 지역 대부분의 산성들에서 확인되며, 적심은 흙과 할석으로 구분된다. 적심을 흙으로 다진 산성들은 연천 대전리산성, 파주 오두산성·덕진산성 등이다. 이중 덕진산성의 경우 1차 기단보축 적심은 흙으로, 상부의 2차 기단보축은 할석으로 쌓았다. 이와 달리 전형적인 신라산성의 기단보축과 동일하게 할석으로 채운 것은 이 지역 대부분의 산성에 확인된다.

토축으로 축조한 것은 화성 당성 1차 산성과 하남 이성산성, 행주산성 석축성에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성은 2015년 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단보축이 확인되었다. 즉, 점토와 석재를 혼합한 삼각형 보축과 부정형 보축, 그리고 적갈색사질점토를 다져서 보강하였으며⁸⁵, 붕괴된 성석과 유물들이 다짐층 상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초축성벽과 관련

85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5, 「당성 4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성산성은 기왕의 조사결과 기단보축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절개조사가 이루어진 8차 보고서⁸⁶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초축성벽의 붕괴부는 성벽 기저부가 아닌 사질점토층 상부에 위치하므로 성벽의 기저부와 붕괴부 사이의 점토층은 초축성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점토층의 명확한 성격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성벽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한 다짐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주산성⁸⁷, 당성의 1차 산성과 이성산성의 성벽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흙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벽 전 구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설치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남해 대국산성 기단보축



함안 성산산성 기단보축



파주 덕진산성 성벽 및 기단보축



고양 행주산성 보강토

삽도 7. 기단보축 각종

기왕의 연구에서는 성벽 기저부를 토축으로 보강한 형태는 백제산성의 특징으로 알려져 왔다.⁸⁸ 하지만 신라가 축성한 것이 분명한 산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축이 확인되었으므로 경기·서울 지역을 한정할 때 백제성곽만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고 백제의 축성기법이 신라산성 축조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전자는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5세기 후반 충북지역까지 점령하였으며, 최전선인 청원 남성골에 산성을 축조하였다. 몽촌토성은 재활용한데 반해 먹절산토성⁸⁹, 소근산성, 포

86 한양대학교박물관·하남시, 2000, 『二城山城-第9次 發掘調査 報告書-』.

87 불교문화재연구원, 2017, 「고양 행주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발굴(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88 최인선, 2014, 「호남지방의 백제산성」, 『韓國城郭研究의 新傾向』, 심정보박사 정년퇴임 기념논총 간행위원회, p. 136.

89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고양 먹절산유적(1차)」.

천 고모리산성, 모락산성, 월룡산성⁹⁰ 등 다수의 성곽들은 폐성되었으며, 임진강과 한탄강 북안에는 호로그루와 은대리성, 당포성을 쌓았다.⁹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유사한 시기에 아차산 일원에 보루를 축조하여 방어력을 높였다.

이후 한강유역을 복속한 신라에 의해 대대적인 축성이 이루어지지만 고구려에 의해 축성된 보루들은 대부분 신라에 의해 재사용되지 않았으며⁹², 대표적인 예로 태봉산보루⁹³를 들 수 있다. 다만 아차산의 서쪽 사면에 축성된 아차산성과 교통로에 인접한 낮은 산 정상부를 두르는 양주 대모산성은 주변의 보루를 활용하지 않으면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재사용되었다. 또한 임진강 북안에 위치하는 파주 덕진산성⁹⁴과 연천 호로그루, 당포성 역시 신라에 의해서 재사용된다.⁹⁵

후대의 점령국들은 선대 점령국에 의해 축성된 성곽들을 재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지며, 방어체계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관방체계나 지방지배, 교통로 등의 연구는 관방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신라복속 이후 고구려와의 북서쪽 경계

신라복속 이후 고구려와의 북서쪽 경계에 관한 것이다. 한강 하류지역인 파주와 영동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 시기는 비교적 명확한데 비해⁹⁶ 연천지역은 불분명한 편이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신라의 북진기 서북경계에 대해서 임진강 및 한탄강⁹⁷과 임진강 이남⁹⁸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임진강과 한강 사이의 공간을 점이지대로 보고 있는 듯하다.⁹⁹ 그 이유는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설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점이지대였으나 7세기 초 낭비성 전투 이후 신라가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헌기록에 맞추어 고고학 자료를 해석하고 있다. 물론 필자 역시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90 경기도박물관, 2004, 『월룡산성』.

91 풍납토성에서도 고구려유물과 유구가 확인되었다는 점(양시은, 2010,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9-1호, 서울경기고고학회, pp. 35~36.)을 감안할 때 풍납토성 역시 고구려가 활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92 발표자는 최근 아차산 보루 중 용마산 4·5·6·7보루와 망우리 1·2·3보루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용마산 5·6·7보루에서 신라토기를 채집한 바 있으므로 기왕의 보고와 달리 상당히 많은 고구려 보루들이 신라에 의해서 재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3 거래문화재연구원, 2016, 『양주 태봉산 보루 I -고구려유적 태봉산 보루 시굴 및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7, 『양주 태봉산 보루 II -고구려유적 태봉산 보루 2차 발굴조사 보고서-』.

94 波州市·中部考古學研究所, 2014, 『波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95 안성현, 2017, 「김해지역 삼국시대 성곽의 축성 배경」, 『문물』제7호, 한국문물연구원, pp. 69~70.

96 김성태·허미형, 2005, 「임진강 유역의 新羅遺蹟」, 『畿甸考古』제5호, pp. 252~253.

李盛周·姜善旭, 2009, 「草堂洞遺蹟에서 본 江陵地域의 新羅化 科程」, 『강릉 초당동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pp. 461~484.

97 전덕재, 2009,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鄉土서울』제73호, pp. 109~111.

98 朴省炫, 2010,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55.

99 박성현, 2013, 「양주 대모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 『楊州 大母山城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출판부, pp. 34~42.

서영일, 2001,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발해연구』11집, 고구려발해학회, pp. 27~45.

방유리, 2009, 「포천 반월산성 출토 신라유물 연구」, 『史學志』41집, 단국사학회, pp. 27~46.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강유역의 신라유적 중 6세기 중·후반의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된 유적의 분포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기 신라의 유구와 유물이 출토된 유적의 분포는 신라의 북진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고분과 산성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산성으로 아차산성, 양주 대모산성, 포천 성동리산성·반월산성, 이천 설봉산성·설성산성, 여주 파사성, 평택 자미산성, 용인 할미산성, 인천 계양산성, 불암산성 등이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징적인 산성들을 살펴보면, 아차산성에 대한 조사결과 7세기 전반경에 축조되었다고 보고¹⁰⁰하였으나 이후 출토유물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등을 참고하여 6세기 후반으로 비정하였다.¹⁰¹ 최근에 성벽 기저부에서 출토된 인화문토기가 늦어도 6세기 말에 제작되었다는 견해는 이러한 산성이 늦어도 6세기 후반경에 축성되었음을 반증한다.¹⁰²

양주 대모산성은 매소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5차례의 발굴조사가 실시¹⁰³되었으며,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 및 고고학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¹⁰⁴ 그 결과 대체적으로 6세기 후반경에 축성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토기 역시 이 시기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¹⁰⁵ 또한 포천 반월산성과 설봉산성, 설성산성의 축조수법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일하며, 출토유물 역시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시차를 두기 어렵다.¹⁰⁶ 특히 설봉산성에서 출토된 무개고배는 용인 할미산성에서 6세기 후반에 속하는 부가구연대부장경호와 함께 발견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¹⁰⁷ 이러한 양상은 한강유역의 산성들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경기·서울 지역내 신라토기가 출토된 대표적인 고분군은 파주 성동리 고분군, 파주 법흥리 고분군, 여주 매룡리 용강골 고분군, 용인 보정리·소실 고분군, 하남 광암동 유적, 부천 고강동 고분군,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고분군, 여주 대평리 고분군, 군포 산본동 고분군, 화성 천천리 유적, 안성 반제리 고분군, 영주 상거리 유적, 하남 수리골 유적, 설봉산성 부성내 석실분 등이 있으며¹⁰⁸, 경기지역 전역에서 확인된다.

100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

101 任孝宰·尹相惠, 2002, 「阿且山城의 築造年代에 대하여」, 『淸溪史學』제16·17輯,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pp. 203~222.

102 윤상덕, 2010, 「6~7세기 경주지역 신라토기 편년」,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47~148쪽.

한강문화재연구원, 2018, 「아차산성 망대지 일대 2차 발굴조사 7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현재 아차산성에 대한 연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된다면 보다 명확한 시기와 성격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103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 박물관, 1990, 앞의 책.

한림대학교박물관, 2002,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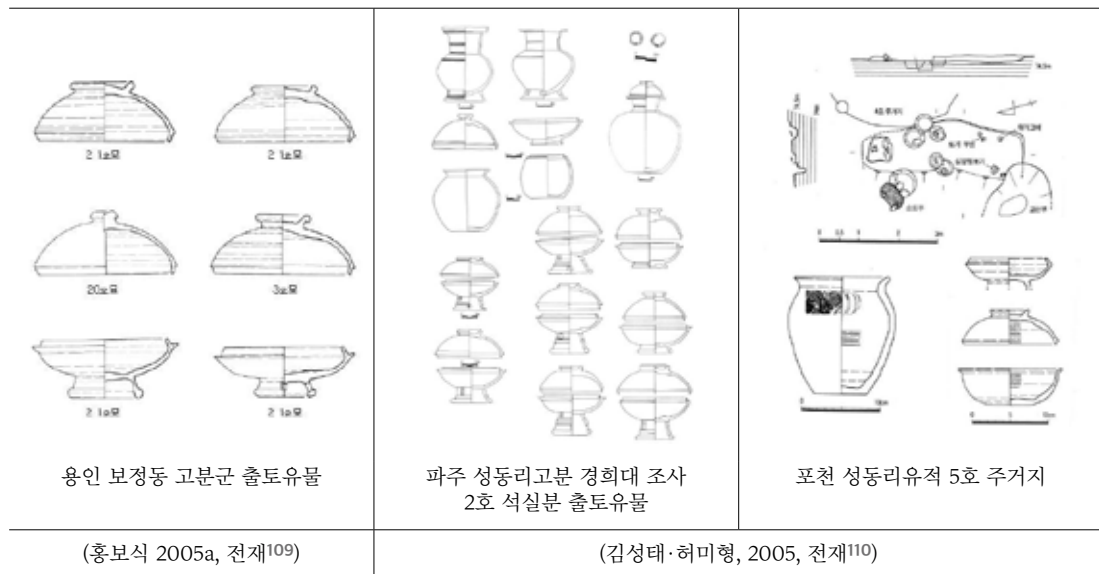
104 노혁진외, 2013, 『楊州 大母山城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출판부.

105 박성남, 2009, 「서울·京畿 城郭 및 古墳 出土 신라」, 앞의 글, pp. 70~71.

106 포천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

107 강진주, 2006, 「漢江流域 新羅土器에 대한 考察」,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9~70.

108 강진주, 2006, 앞의 글; 박성남, 2009, 앞의 글; 김진영, 2007, 「한강유역 신라고분 연구-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삽도 9. 한강 북쪽 유적 및 출토 유물

따라서 신라는 553년 백제로부터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임진강과 한탄강의 남쪽지역에 집중적으로 축성하였음을 시사한다.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북서쪽 국경선은 임진강과 한탄강 선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⁰⁹ 그렇지 않은 경우 고구려와 추가령구조곡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영동 지역 및 경기 서부지역과 한강유역의 방어가 취약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산성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이 소량이므로 안정적인 지배보다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09 연천읍의 북서쪽에 위치하는 옥녀봉산성은 신라가 쌓은 것이 확실하며, 축조수법으로 보아 군사산성 및 칠중성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한국토지공사박물관·연천군, 2000, 앞의 책, pp. 338~339.) 이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전리산성과 동시기에 축성되었다면, 6세기 중·후반경의 신라와 고구려의 서쪽 국경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대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성곽 유적의 정비와 복원

국가지정 성곽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는 2002년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는데,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던 성곽은 이양된 이후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탁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관광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성곽에 대한 조사와 정비·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의 성곽유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및 현황과 실태조사는 2008년 문화재청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¹¹⁰ 이 당시 조사대상 성곽 16곳의 종합정비계획의 수립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3년 이전에 작성된 종합정비계획의 대부분은 기초조사와 연계하거나 보수를 위한 정비계획으로 각 성곽들은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 중이면서 필요에 따라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러한 계획 내용에는 ‘일괄적 복원계획의 수립’, ‘중장기 연차별 세부계획의 부재’, ‘형식적인 기초조사’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는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¹¹¹과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¹¹²을 하달하였다. 그 내용은 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에서는 유적의 진정성과 활용가능성,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절차에 대해서도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을 명시하였다.¹¹³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성곽에 대한 조사는 성격을 밝히기 위한 순수학술조사와 정비와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로 나누어지며, 후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경기·서울 지역 역시 다른 지역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산성들은 축조국가와 관계없이 정비·복원이 이루어졌다. 물론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학술조사 결과를 어떻게 정비·복원까지 연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110 명지대학교 부설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8, 『성곽정비 및 보존 관리 활용방안 지침마련 연구』 문화재청.

111 문화재청, 2009,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112 문화재청, 2009,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113 백종오, 2016, 앞의 글, p. 33 인용 후 일부 수정.

1) 발굴조사

성곽에 대한 정비복원에 앞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기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유적의 특성상 장기간 동안 사용되므로 대상유적의 시기적 경관을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이외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다.

- ①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기에 덧붙여 지역이나 전공자의 유무에 따른 제한을 설정하기도 한다. 다만 대상 성곽에 대한 연차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기관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는데¹¹⁴, 전혀 연고가 없는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유구에 대한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과 초축 및 사용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성곽의 해석 역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 ② 전공자의 유무에 따른 제한을 둘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전공자의 수준이 다양하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 방편으로 발표자가 참여한 김해읍성 복문지 조사에서 자문위원과는 별도로 실제 현장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초빙하여 현장에서 유구에 토론을 진행한 바 있는데, 실제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정치한 조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정비·복원

성곽은 축조된 이후 장기간 동안 사용된다는 점에서 ‘선’에 비유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기의 성벽과 부속시설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성벽은 폐성 시기의 것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시기의 성벽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비해 정비·복원은 어느 특정 시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므로 발굴조사 결과와 정비·복원은 일치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 ① 성곽의 정비·복원에는 문화재청의 관리 하에 지방자치단체와 설계 및 정비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는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시작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단체장의 임기 내 끝내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한 부실 복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성벽은 초축 당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찾기 어렵고 수·개축이 이루어지며, 내부의 생활면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성벽을 복원할 경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예는 찾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에서는 성벽 복원에 부재의 교체를 규제하고 있으나 대부분 새로운 석재를 채석장에서 공급해 사용하는 것 같다. 최근 들어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즉, 붕괴가 우려되는 성벽과 치성의 대부분은 신재로 쌓았으나 우려가 약한 부분은 원성벽을 보장 후 마무리 하였다. 향후 붕괴 양상에 따라 원성벽의 활용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기를 기대한다.
- ③ 성곽의 발굴조사와 정비·복원을 진행할 전문 조직의 부재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남한산성의 예가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남한산성은 2014년 6월 우리나라에서 11번째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등재 이전부터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전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과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복원추진기획단에서 유적의 발굴조사와 정비·복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와 정비·복원의 문제점이 해결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백종오의 지적과 같이 문화재 수리를 그 결과물로 평가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¹¹⁵, 이 이외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보수업체, 발굴조사단의 협업과 제도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곽 복원을 성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14 그 예로 연천 대전리산성은 1차 조사는 경기문화재연구원, 2차 조사는 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장성 진원성의 경우 지표·시굴, 발굴(1차와 2차조사)는 전남문화재연구원, 3차 시굴은 영해문화재연구원, 3차 발굴은 부경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이 외에 많은 성곽에서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115 백종오, 2016b, 『한국 성곽 문화재 보존 관리의 방안과 과제』, 『역사문화연구』제60집, pp. 291~328.

4. 맺음말

이 발표문은 경기·서울 지역의 성곽연구와 그에 연계된 정비 및 복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서울 지역은 삼국의 각축장이었으므로 점유한 국가들에 의해 축성된 성곽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지역 성곽 연구의 기본적인 열개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완성된 후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논지가 보강되어진 측면이 강한 편이지만 새로운 논지는 등장하지 않은 듯하다. 이 지역 성곽연구의 특징은 문헌기록의 중시, 기왕의 조사 성과와 중국 및 북한 자료의 재분석 부재, 성곽 유적의 시기적 경관 파악의 미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곽연구의 방법론 역시 한정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유구의 구조와 시기적 경관 등을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발굴조사와 성곽의 정비·복원이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장기적인 플랜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의 경우 지방자치체와 연계하여 장기적·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라고 생각된다.

〈경기·서울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에 대한 토론문

박현욱(경기문화재연구원)

이번 학술대회는 2014년에 우리나라 11번째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과 관련한 국내 성곽유산의 연구현황 및 보존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발굴조사 후 정비·복원 등의 보존관리의 현황과 함께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것은 첫번째 주제발표인 경기·서울 지역 성곽연구의 현황과 정비복원이라는 주제로 고려문화재연구원 안성현 조사연구실장의 발표에 대한 토론입니다.

우선 먼저, 본 토론자는 이러한 큰 학술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은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에 대한 학술연구 및 보존정비를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자는 오랫동안 삼국시대 성곽에 대해 연구와 논문발표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반면, 토론자는 시대를 달리하는 조선시대 성곽 한 곳의 보존관리를 담당할 실무자로서 고대 성곽에 대한 무지와 좁은 견해로 발표자의 연구에 혹시 모를 누를 끼칠까하는 우려를 사전에 밝혀두는 바입니다.

발표자는 경기·서울 지역 성곽 연구의 현황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서울 지역의 특수성(한강과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삼국의 격전장, 한반도 패권의 중심지)으로 인한 마한-백제-고구려-신라의 순차적 점유에 따른 여러 국가의 축성과 성벽, 부속시설 등의 변화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백제·고구려·신라의 성곽 연구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마한을 제외하고, 백제는 풍납토성의 환호해석, 성벽의 구조와 시기, 한성백제기 석축산성의 존재유무의 문제와 고구려는 고구려 성곽의 특징인 중간벽의 유무, 토심석축공법에 따른 성벽기울기·내외벽 토루·부속시설 등의 논쟁점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신라 성곽은 한강유역이 신라에 복속된 이후 기존 성곽에 대한 재사용과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성곽유적의 정비와 복원에 관하여서는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 정책적으로 엄격한 관리를 받는 반면 기타 산성들의 정비복원은 축조주체 및 특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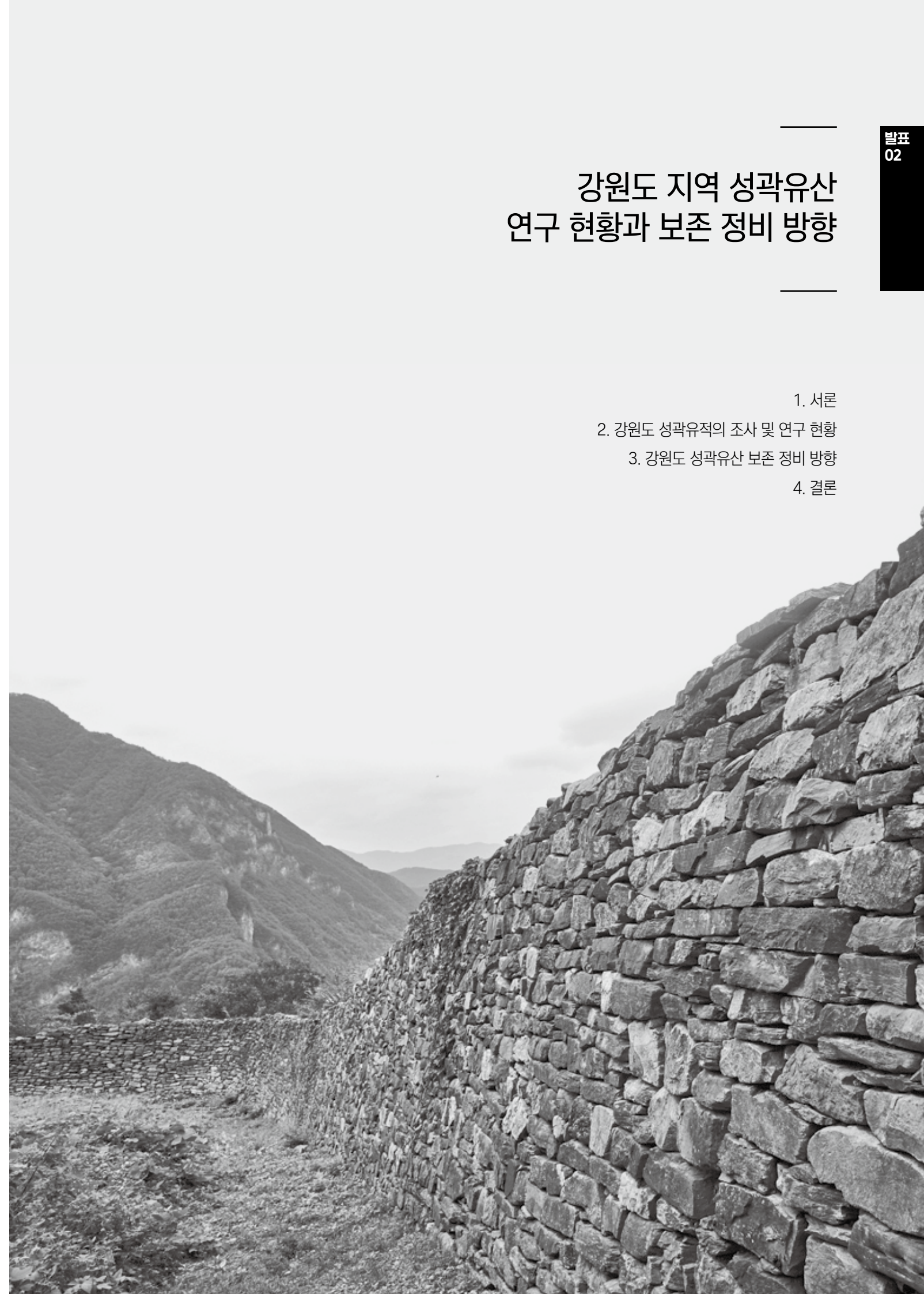
이 반영되지 못한 채 정비와 복원이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며, 학술조사에서 정비, 복원까지 연계방안을 발굴조사와 정비복원으로 나누어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발굴조사에서는 성곽유산의 조사 특성상(장기간, 연차발굴) 동일기관의 지속적 조사 방안과 정비복원에서는 조사기관이 정비복원에 참여하도록 하고, 복원기점 선정의 어려움, 전문조직의 부재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플랜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발표자의 기 연구성과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경기·서울 지역의 성곽에 대한 연구성과 및 현황은 1970년대를 성곽조사 시작기로, 1990년대 삼국시대 성곽 이론의 정립기로, 2000년대 새로운 논지로 재해석 또는 재분석하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체 성곽발달사의 관점에서 볼 때, 연구의 중심이 삼국시대 성곽에서 중근세 성곽으로 그 관심시기가 확대되고, 각각의 시기별로는 축조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그 조사대상 유적에 대한 미세한 연구까지도 집중하는 경향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구자마다 견해 차이를 보이는 조사성과는 발표자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삼국시대 성곽 쟁점과 관련), 다만 현재 연구의 주제들이 현재 연구 가능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지? 하는 막연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유적에 대한 파괴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므로 오히려 현재의 연구조사가 좀 더 폭넓은 당대의 문화상을 밝히는 포괄적인 연구방향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비·복원과 관련하여서는, 발표자가 이야기 한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은 성곽발달사의 아마도 마지막 단계의 성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성곽은 그 기록과 문헌이 풍부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존과 정비 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시기에 해당하는 고려시대와 삼국시대의 성곽에 대한 보존, 정비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만의 획기적인 답변보다도 아마도 성곽을 조사·연구하고, 정비·보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해답을 찾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성곽의 나라라 불리운다는 또는 10년전 조사에서 남한지역의 성곽이 1,850여개 서울경기에만 360여개를 넘는 숫자적 많음에 더하여 성곽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활용하는데에도 최선두에 서는 문화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토론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강원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1. 서론
2. 강원도 성곽유적의 조사 및 연구 현황
3. 강원도 성곽유산 보존 정비 방향
4. 결론



강원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김진형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1. 서론

강원도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동쪽에 위치하며, 남한에서 가장 큰 산맥인 태백산맥의 본맥과 크고 작은 지맥으로 이어진 산들로 이루어진 산지가 많은 지역이다.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을 영동, 서쪽을 영서로 구분한다. 경위도로는 동경 127°05'~129°22', 북위 37°02'~39°37'에 걸쳐 있고 지리적으로는 북쪽은 함경남도와 황해도, 서쪽은 황해도와 경기도 등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동쪽은 동해와 접하고 있다.¹

전면적의 약 80% 이상이 산지인 강원도는 지형적 영향으로 영동지방은 급사면을 이루어진 하천이 없으며, 짧은 하천이 급류를 이뤄 평야가 적고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고 좁은 사빈이 해안을 따라 발달되었다. 영서지방은 전형적인 침식산지로서 한강수계에 의한 고원과 구릉 및 침식분지가 완사면을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지를 따라 강원도의 하천은 크게 4개의 수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강과 남한강, 영동수계, 임진강, 섬강으로 구분할 수 있

1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0, 『강원도사』 강원도

으며, 성곽들은 이 수계들과 연관이 있다. 다시말해 강원도 성곽들은 험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수자원 등을 확보하기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다.

강원도는 부족국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삼국시대에 들어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역으로 영토확장의 각축장이었다. 고려시대에는 兩界 중 東界에 편입되었으며, 동여진과 왜구 등 외부로부터의 잦은 침입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왜구의 침입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헌사적 내용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강원도에는 선사·역사시대의 유적들이 다수 확인되며, 역사적 전환과 더불어 전쟁의 필요시설인 성곽이 축조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강원도에는 100여개의 성곽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 확인된 성곽은 80여개소 뿐이며 나머지 성곽은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험한 자연지형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곽이 위치한 곳은 문화적 교류나 역사적 흐름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강원도의 성곽연구는 문헌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며, 실질적인 강원도의 성곽유적의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는 타지역에 비해 미진한 편이다.

2000년대 들어와 고고학적 조사결과가 조금씩 증가하였고, 더불어 강원도의 성곽유적에 대한 자료도 증가하면서 연구 방향도 비교적 다양해졌으나 아직도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최근까지 축적된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강원도의 성곽유적 조사현황을 토대로 간략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조사성과를 토대로 보존 및 정비가 이뤄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강원도 성곽 유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성곽사 구성에 일조하고자 한다.

2. 강원도 성곽유적의 조사 및 연구 현황

강원도는 총 1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태백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 성곽이 분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정밀지표조사되거나 발굴조사된 성곽유적의 분포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현황

조사현황은 최근 정리된 성곽사전²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각 시군의 문화유적분포지도,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개인 자료 등으로 보완하였다. 위치를 알 수 없는 유적은 제외하였으며,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다면 목록에 정리하였다.³

표 1. 강원도 성곽유적 ※()는 추정 및 잔존

번호	성곽명	위치	해발(m)	둘레(m)	입지조건	형식	시대	축조재료	평면형태	비고
1	장안성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50	501	구릉	포곡식	삼한	석성		
2	삼한성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5	533	산	테뫼식	고려	석성		
3	괘방산산성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265	·	산	테뫼식	고려	석성		
4	고려성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90	451	산	테뫼식	고려	석성	타원형	
5	칠봉산성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360	1,000	산	테뫼식	고려	석성	타원형	
6	왕현성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50	546	구릉		(통일신라)	토석혼축	타원형	
7	강릉읍성	강릉시 명주동	12	1,030	평지	평지성	고려	토성·석성	마름모	
8	석교리 토성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10	800	평지	평지	고려	토성	방형	
9	대공산성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950	(4,000)	산		(고려)	석성	타원형	보현산성
10	교허성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50	900	평지+구릉	평산성	고려	토성	장방형	방내리토성
11	금강산성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700	(5,000)	산	포곡식	(고려)	석성	부정형	아미산성
12	강문동토성	강릉시 강문동	7~25	883	산	포곡식	삼국	토축	타원형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편)』, 학연문화사.
3 강원도 성곽유적 조사 현황을 정리하면서 연구자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관련개념 또한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모든 성곽을 답사해 보지 않아 그 기준마저 달라지면 기존의 조사성과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류방식이나 개념정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전면적인 검토가 어려워 조사보고자들의 보고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황을 정리하였다.

번호	성곽명	위치	해발(m)	둘레(m)	입지 조건	형식	시대	축조재료	평면형태	비고
13	우계산성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600	800	산	테뫼식	삼국	토석혼축	장방형	비계현읍성
14	제왕산성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840	3,000	산	테뫼식	고려	석성	타원형	
15	항호리성	강릉시 주문진읍 항호리	250	500	산		고려	토석혼축	원형	
16	금수리산성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295	633	산		신라	석성	타원형	고현성, 고성산성
17	간성읍성	고성군 간성읍 하리	25	1,165	평지 +구릉	평산성	고려	토축, 석축		
18	죽도성	고성군 죽왕면 오희리	53	(360)	섬		고려			
19	고성산성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290	205	산지	테뫼식	통일신라	석성		
20	열산현성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100				(고려)	토석혼축		
21	금구도성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6	(280)	섬		(고려)	삭토,석축		초도고성, 금구리성
22	백촌리 토성	고성군 토성면 백촌리		(450)	평지	평지성	고려	토축		
23	두타산성	동해시 삼화동	1,032	4,600	산	포곡식	고려	석축	부정형	
24	심곡리성	동해시 심곡동		700	구릉		(고대)	토석혼축		장안성, 안토성
25	광태리 고성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50	(1,000)	산	테뫼식	삼국			재산성지, 부남고성
26	월계촌 고성	삼척시 당저동 월계촌		360	산		삼국	토축		
27	삼척읍성	삼척시 성내동	15	(1,100)	평지 +구릉	평산성	고려	토축,석축	부정형	
28	갈야산고성	삼척시 성북동	111	400	산	포곡식	삼국	토석혼축		
29	요전산성	삼척시 오화동	99	1,000	산	복합식	삼국	석축		오화리성
30	옥원성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일부잔존			고려	석축		옥원역토성, 해리고현성
31	호산리성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63	630	구릉	포곡식	(삼국)	토석혼축		죽령현성
32	삼척포진성	삼척시 정상동	20		평지 +구릉	평산성	조선	석축		삼척포성, 삼척포진
33	숙암리산성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100		산	산성	삼국	석축		
34	권금성	속초시 설악동		4,100	산	포곡식	고려	석축	부정형	설악산성
35	속초리토성	속초시 동명동	20	(733)	평지 +구릉	평산성	고려	토축	방형	
36	비봉산성	양구군 양구읍 하리	360	460	산	테뫼식	통일신라	석축	부정형	
37	오봉산고성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78	1,150	산	테뫼식	(고려)	토석혼축, 석축	타원형	낙산산성
38	양양읍성	양양군 양양읍 군향리	50	(1,400)	평지 +구릉	평산성	고려	토석혼축, 석축		
39	석성산성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80	682	산	테뫼식	통일신라	석축	타원형	
40	대포영성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100	550	평지 +구릉	평산성	조선	토축,석축		대포성
41	후포매리산성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	311	300	산	테뫼식	통일신라	석축		
42	광정진성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50	(280)	평지 +구릉	평산성	조선	토석혼축, 석축		
43	도원산성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2,000)	구릉	테뫼식				
44	법흥산성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800	3,000	산			토석혼축, 석축		
45	완택산성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916	900	산	테뫼식	(고려)	석축	타원형	
46	정양산성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550	1,630	산	복합식	삼국	석축	삼태기	사적 제446호
47	태화산성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900	1,200	산	포곡식		석축	부정타원형	
48	대야산성	영월군 하동면 대야리	400	400	산	테뫼식	(삼국)	석축	장방형	대야리산성

번호	성곽명	위치	해발(m)	둘레(m)	입지 조건	형식	시대	축조재료	평면형태	비고
49	견훤산성	원주시 문막읍 후율리	130	500	산	테뫼식	(후삼국)	석축	장방형	
50	영원산성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70	2,400	산	포곡식	고려	석축	부정형	강원도 기념물 27호
51	금대산성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600	1,820	산	복합식	통일신라	석축	부정형	해미산성
52	금두산성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000		산	포곡식	(통일신라)	석축	부정형	
53	결가리성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680	200	산	테뫼식	미상	석축	장방형	
54	성재성	인제군 남면 부평리	205	960	산	테뫼식	미상	석축	삼각형	
55	한계산성	인제군 북면 한계리	700 ~1,000	6,000	산	포곡식	고려	석축	부정형	
56	서화리산성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334	(110)	산	테뫼식	(고려)	석축		당봉산성
57	함강리산성	인제군 인제읍 함강리	328	300	산	테뫼식	고려	토석혼축, 석축	장방형	
58	고성리산성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425	665	산	테뫼식	삼국	토축,석축	타원형	강원도기념물 68호
59	송계리산성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45	830	산	테뫼식	삼국	석축	사다리꼴	강원도기념물 70호, 장찬성
60	신월리고성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00	380	산	테뫼식		석축		정선읍성, 기우산성
61	애산리산성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13	628	산	테뫼식	삼국	석축	장방형	
62	어음성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360	400	산	테뫼식	(삼국)	(석축)	부정형	
63	명성산성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870	(2,000)	산	포곡식	고려	석축	부정형	울음산성
64	철원토성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450)	평지	평지성	삼국이전	토축		강원도기념물 24호
65	성산성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04	982	산		통일신라	석축	부정형	강원도기념물 78호, 자모산성
66	성모루토성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평지	평지성	(고려)	토석혼축	장방형	
67	고석성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11	1,200	산	포곡식	미상	토축,석축		
68	동주산성	철원군 동송읍 관전리	360	591	산	테뫼식	(삼국)	석축	부정형	
69	궁예도성	철원군 철원읍 흥원리		왕궁성1800 내성7800 외성12500		복합식	(후삼국)	토축, 토석혼축	장방형	
70	봉의산성	춘천시 봉의동	300	1,284	산	테뫼식	통일신라	석축	부정형	강원도기념물 26호
71	삼악산성	춘천시 서면 당림리	630	4,500	산	포곡식	고려	석축	부정형	강원도기념물 50호
72	우두산성	춘천시 우두동	128	826	산	(테뫼식)	(삼국이전)	토석혼축		고매성, 우두평고성
73	대화산성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70	산		(삼국)	토석혼축, 석축		
74	태기산성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750 ~1,000	1,840	산	포곡식	고려	석축	부정형	
75	노산성	평창군 평창읍 하리	419	868	산	테뫼식	통일신라	석축	부정형	강원도기념물 제80호
76	대미산성	홍천군 동면 성수리	200	1,150	산	포곡식	(삼국)	석축	부정형	
77	오성산성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226	250	산	테뫼식				
78	석화산성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250	667	산	복합식	통일신라	석축		
79	용화산성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870	348	산	테뫼식		석축		맥국산성
80	마산동산성	화천군 상서면 상양리	480	433	산	테뫼식		토석혼축, 석축		
81	생산성	화천군 화천읍 하리	348	696	산	테뫼식	삼국	석축		
82	하리산성	화천군 화천읍 하리	280	410	산	테뫼식		(석축)		
83	운무산성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655	(잔존200)	산	테뫼식	미상	(석축)		울무성

2) 강원도 성곽유적의 분석

(1) 입지 및 형태

입지와 형태는 크게 산성과 평지성, 평산성으로 구분하고, 특징에 맞게 대표적인 성곽유적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산성은 우리나라에서 성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유형의 성곽이다. 강원도 내에 위치한 성곽들도 역시 산성의 비율이 높다. 산성의 유형은 크게 테뫼식산성과 포곡식산성으로 다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발굴조사나 정밀지표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테뫼식산성은 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산성으로, 사용면에서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치소로서의 중심성곽 기능을 담당하던 성곽이다. 이 성곽들은 삼국시대(신라),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성곽으로 신라토기부터 고려시대 초기에 이르는 토기편과 자기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성벽을 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장)방형에 가까운 석재들을 정충쌓기한 성벽이 확인되고 있어 신라성곽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가진 성곽으로는 영월 정양산성, 양양 석성산성, 원주 해미산성, 춘천 봉의산성, 강릉 명주산성 등이 해당된다. 이 성곽들은 삼국시대(신라),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초기까지 각 고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영동지방은 읍성이 축성되면서 그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는 소규모로 축조되어 해안에 접하고 있거나 섬의 정상부에 위치한 성이다. 이 성곽들은 동해를 통해 침입하는 적들을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축성된 해안경비나 각 항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성되었다. 이 성곽들의 성벽은 비교적 정연하게 쌓여있으며, 성벽 상부는 잣은 보수가 함께 이뤄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성곽들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며, 이에 해당하는 성곽들이 강릉 고려성지, 강릉 패방산성, 고성 금구도성, 고성 죽도성, 삼척 요전산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포곡식산성은 산의 정상부와 내부의 계곡을 포함하여 축조된 산성이다. 수원을 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포곡식산성은 강원도 내에서 대규모로 축조되었다. 따라서 많은 인원이 장기적으로 籠城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성곽으로는 인제 한계산성, 동해 두타산성, 강릉 제왕산성, 속초 권금성, 원주 영원산성, 춘천 삼악산성 등이 있다. 이 성곽들은 산세가 험하고, 테뫼식산성과 비교하였을 때 고지대에 위치한다. 또한 입출입이 용이하지 못한 곳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산성을 제외하고 평산성과 평지성이 있는데 주로 영동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이 성곽들은 구릉 위에 축조되어 평탄지로 연결하여 성곽이 축조되는 평산성이다. 군사적인 산성의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성곽이다. 그러나 통치와 관련된 행정·치소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그 예로 양양읍성과 삼척읍성이 있다.

평지성은 평지에 축조된 성곽으로 산성에 비해 공역이 많이 드는 반면 방어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 성곽이다. 평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주변을 통치하는 기능이 극대화된 성곽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성곽으로 강릉읍성, 강릉 석교리토성 등이 해당한다.

(2) 축성재료

축성재료에 따라 크게 석재를 이용한 석성과 진흙, 모래 등을 이용한 토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성과 석성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굴조사되거나 정밀지표조사 실시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석성

석성은 석재를 이용하여 층층이 쌓아 올린 성곽으로 삼국시대(신라)성곽과 이를 증개축한 성곽, 또한 고려시대 새롭게 축성한 성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신라성곽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까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영월 정양산성이 있다. 영월 정양산성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신라~고려시대까지 운영되었음이 밝혀졌으며,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문화층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그 문화층에 해당하는 내부시설물이 확인되었다.⁴ 축성방법에 있어서 정충쌓기하여 축성한 높은 체성벽과 단면형태가 삼각형인 보축 등 삼국시대 신라의 거대산성에서 볼 수 있는 축성법을 보이고 있으며 외성은 이와는 완전히 다르게 고려시대에서 볼 수 있는 난층쌓기를 하였다. 이렇듯 초축부터 폐성이 될 때까지 남한강 상류역에 위치한 정양산성은 모습을 달리하며 중요한 거점, 요충지로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성곽으로 춘천 봉의산성, 양양 석성산성 등 발굴조사된 사례가 있으며, 이밖에도 발굴조사는 되지 않았으나 삼척 요전산성, 철원 동주산성, 원주 금대산성 등도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새롭게 축성한 성곽들은 대형의 포곡식산성과 영동지역의 해안성이 있다.

포곡식산성들은 둘레가 약 2,000m 이상인 대형의 성곽이다. 이 성곽들은 난층쌓기하였으며,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굴곡이 심한 능선을 연결하고 작은 계곡을 막아 방어에 유리하게 축조되었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이 대형의 포곡식산성들은 산세가 험한 곳에 입지하여 방어에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는 속초 권금성, 동해 두타산성, 인제 한

4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 『영월 정양산성 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총서 32책.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영월 정양산성 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총서 47책.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8, 『영월 정양산성 I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총서 58책.

계산성, 춘천 삼악산성, 원주 영원산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성곽들은 크게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하여 축성되었으며, 각 성곽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防護別監 등을 파견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산성에 입보하여 농성한 기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내부에서 수습되는 유물들은 신라의 유물은 없으며, 고려시대 도기편 및 자기편, 고려시대 신문·어골문 기와 등이 있으며, 조선시대 자기편 및 기와편 등도 출토되고 있다.

두 번째로 영동지역의 해안성들은 동해와 산의 접점에 석성으로 축성하였다. 이 성곽들은 비고차에 있어서 바다쪽이 낮고 산쪽이 높아 해안을 관찰하고 방어하는데 최대의 이점을 살리도록 축성되었다. 축성방법에 있어서도 정충쌓기를 하여 비교적 견고하게 성벽을 만들었다. 그러나 둘레가 400m 이내로 규모가 작고, 평탄지가 적어 치소보다는 해안경비 등에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성곽으로는 강릉 정동진 고려성 등이 있다.

② 토성

토성은 흙을 이용하여 축성하는 것으로 판축법, 삭토법 등이 있다. 현재 토성으로 알려진 강원도의 성곽유적은 대부분 읍성이 해당하며, 삭토법보다는 판축법을 활용하여 토성을 쌓았다. 현재 영동지역에서만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실체가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 그 실체가 더 밝혀질 것으로 여겨진다.

토성은 평지성과 평산성으로 구분되며, 평지성에는 강릉읍성이 해당하며, 평산성에는 삼척읍성, 양양읍성이 해당한다. 읍성 내 각 관아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나 강릉읍성의 관아지 내의 최하위층에서는 10세기를 전후로 하는 해무리굽 청자가 출토되어 강릉읍성의 축성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였고, 성벽에서도 그 흔적이 확인되는데 토성의 외벽으로 1·2차 석성이 수축한 흔적이 확인되어 조선시대 증개수한 기록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척읍성에서는 신라토기부터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이 읍성 내에서 출토되어 삼척읍성터가 신라가 통치하던 시기부터 계속해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성은 공역이 많이 소비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토성의 발굴조사 결과, 토성의 주재료인 흙은 주변하천에서 공급하기 용이한 실트를 이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의 나지막한 산에서 구하기 용이한 점토를 이용하여 판축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주변하천을 해자로 사용하여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발굴조사 된 강릉읍성, 양양읍성, 삼척읍성 모두 해당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영동지역에는 고려시대에 흙을 이용해 축성한 평지성, 평산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영서지역은 아직까지 기록에 의해 전해지거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알려진 토성은 없다.

(3) 성곽의 분포

강원도에 위치한 성곽들의 분포양상은 크게 남한강수계에 위치한 성곽들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 영서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진 1. 강원도 지역 성곽 현황도와 현재의 도로망

강원도 남쪽에는 남한강수계를 따라 성곽들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신라성곽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이 성곽들은 남한강을 내려다보거나 북쪽 또는 북서쪽을 내려다 보고 있다.

표 2. 남한강 수계 위치한 성곽

지역	성곽
정선	송계리산성, 애산리산성, 고성리산성,
영월	정양산성, 대아리산성

남한강수계에 위치한 성곽들은 북쪽부터 정선-영월-단양-제천까지 이어지며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 남한강수계에 분포한 성곽들은 규모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있으나 성벽의 내외협축으로 쌓은 축조방식이나, 비고차에 따른 성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방향이 모두 같다. 또한 수습되는 유물에 있어서도 6세기를 전후로 하는 토기편들이 수습되고 있어 동일한 시기에 운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곽의 특성상 교통로상에 위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을 이어주는 동-서 방향의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



사진 2. 남한강 수계 성벽 모습

현재 각 시군의 시청이나 군청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의 산에는 성곽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 성곽들은 현재 통일신라시대 성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성곽들은 시내, 읍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곽유적의 예로는 철원 동주산성, 춘천 봉의산성, 원주 금대산성, 양양 석성산성, 양구 비봉산성, 강릉 명주산성 등이 있다.

5 김진형, 2013, 『강원의 신라성곽』, 『2013 국립춘천박물관 기획특별전-흙에서 깨어난 강원의 신라 문화』, 통천문화사.



동주산성

금대산성



봉의산성

석성산성

사진 3. 시·군청 주변의 성곽

강원도 내 전체 성곽의 분포상은 지역별 면적대비 비교하여 보면 태백산맥의 서쪽 부근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의 면적을 놓고 보면 성곽의 집중도에 있어 영동지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도호부가 설치된 강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설치된 성곽의 숫자가 높다. 이는 당시 영동지역의 중심이 강릉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서지역보다는 영동지역이 더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시대를 예를 들면 五道兩界체제에서 東界에 해당하는 영동지역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

표 3.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의 면적과 성곽수

구분	면적(km ²)	성곽수
영서지역	13,071	42
영동지역	3,802	40

지역별로 분포양상 중 특징을 살펴보면 영동지방은 고려시대가 되면 잦은 해적의 침입으로 해안가와 인접하여 작은 규모의 테피식 산성이 축성되고, 배후에 읍치소인 읍성이 축성

6 김진형, 2011, 『영동지방 고려시대 방어체계』, 『年報』,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창간호.

된다. 후기에 들면서 기마병을 중심으로 한 외침이 거세지자 입보용산성을 축성하게 된다. 모든 성곽들은 읍성을 주변으로 위치하며, 평상시 읍성에 의해 관리되어지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⁷



영월 정양산성 외성



속초 권금성



인제 한계산성



동해 두타산성



춘천 삼악산성



원주 영원산성

사진 4. 강원도 고려시대 입보용산성

하지만 영서지역은 읍성은 문헌기록이나 고고학적 조사가 전무한 상태여서, 거점의 역할을 어디서 수행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춘천 봉의산성에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용된 건물지가 조사되었고⁸ 최근 발굴조사된 영월 정양산성에서도 층위는 다르지만 삼국시대(신라)~

7 김진형, 2010, 『嶺東地方 高麗 城郭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8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春川 鳳義山城 發掘調査 報告書』,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38冊.

고려시대까지 각 시기별로 건물지가 조사되면서 계속해서 운영되었음이 확인되었다.⁹ 또한 춘천 봉의산성과 영월 정양산성의 주변에는 험준한 산속 깊은 곳에 춘천 삼악산성과 영월 태화산성과 같은 포곡식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즉, 신라인들이 사용하던 중대형의 성곽을 수축하여 고려시대에 거점성으로 삼고, 주변에 입보용산성을 쌓는 분포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영동지역과 영서지방의 차이점은 거점성이 새롭게 축성한 토성과 신라인들이 사용하던 성곽을 수축하여 사용한 석성이다. 그러나 이 거점성들을 기준으로 입보용산성들은 15~20km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 강원도 성곽의 연구현황

강원도의 성곽유적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편이다. 물론 성곽 전공자의 숫자도 관련이 있겠으나 아직까지 강원도에 대한 성곽유적의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에서도 소수의 전공자들의 연구한 결과물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강원도의 성곽연구는 시작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문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더불어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거나 특정성곽에 한하여 연구가 이뤄졌다. 또한 유적의 소개나 조사현황에 그치거나, 성곽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살핀 연구성과물이 다수이다.¹⁰ 2000년대 들어와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 및 정밀지표조사가 소수 진행되면서 강원도 성곽연구의 결과물이 나왔다.¹¹ 특히 고려시대 영동지역의 성

9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 『영월 정양산성 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총서 32책.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영월 정양산성 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총서 47책.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8, 『영월 정양산성 I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총서 58책.

10 유재춘, 1997, 『조선시대 강원지역의 축성연구』, 『강원문화사연구2』.
유재춘, 1998, 『역에 대한 축성과 기능에 대하여 : 삼척 옥원역성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사연구3』.
유재춘, 1999, 『북한강 유역의 전란과 성곽연구』, 『강원문화사연구4』.
유재춘, 2003, 『韓國 中世築城史 研究』, 경인문화사.
유재춘, 2004, 『춘천 우두산성고』, 『강원문화사연구9』.
유재춘, 2006, 『고대 춘천지역의 관방시설에 대하여』, 『강원문화사연구11』.
유재춘, 2008, 『정선 애산리산성의 현황과 성격에 대하여』, 『강원문화사연구13』.
유재춘, 2010, 『삼척지역 일대의 성곽 및 수군 유적 연구』, 『이사부와 동해2』.
홍영호, 2004, 『삼척시 하장면 속암리산성의 발견과 역사성 검토- 『삼국사기』지리지의 삼척군 축령현과 관련성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19-20호』, 강원대학교 사학회.
홍영호, 2009, 『양양 후포매리 신라 산성의 고찰』, 『선사와 고대30』, 한국고대학회.
김홍술, 2006, 『江陵의 都市變遷史 研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1 유재춘, 2009, 『고려강원지역의 고려시대 지역 거점 산성에 대한 연구』, 『한국성곽학보16』, 한국성곽학회.
유재춘, 2010, 『동해안이 수군 유적 연구 :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1』.
유재춘, 2013, 『려말선초 강원도 내 읍성 축조과정과 그 유적』, 『고고학12』, 중부고고학회.
오강석, 2008, 『강원지역 입보용산성의 현황과 특징』, 『강원지역의 역사고고학』, 강원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김진형, 2010, 『嶺東地方 高麗 城郭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김진형, 2010, 『고려시대 영동지방 방어체계』, 『연보』,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창간호.
김진형, 2013, 『강원지방 중세성곽에 대한 연구』, 『한국성곽학보23』, 한국성곽학회.
김정현, 2011, 『高麗時代 嶺東地域의 海防遺蹟 研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곽을 중심으로 한 성곽의 분포양상, 성곽들의 관계, 방어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후 2010년에 영월 정양산성, 원주 영원산성, 강릉읍성, 삼척읍성 등 한 유적에 대한 여러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고, 그와 관련한 연구 성과물도 나왔다.¹²

하지만 아직까지 강원도의 성곽연구는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 많고, 연구와 함께 체계적인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강원도 성곽유산 보존 정비 방향

1) 강원도 성곽유산의 보존 및 정비 사례

강원도의 보존 및 정비 사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진한 편이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진행된 보존 및 정비 사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월 정양산성¹³

- 사적 제446호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 1-1 일대
- 삼국시대~조선시대까지 사용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
- 9차에 걸쳐 발굴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비안을 만들고 군청, 발굴조사단, 설계사무소, 자문위원 등이 모여 복원 방안 마련
- 발굴조사 순서가 아닌 위험한 구간부터 복원 정비를 실시하여 현재 복문지 복원공사가 마무리됨



사진 5. 영월 정양산성 성벽(좌:복문지, 우:북동쪽 곡성부)

12 유재춘, 2013, 『인제 한계산성의 역사와 유적에 대한 연구』, 『한국성곽학보23』, 한국성곽학회.
홍영호, 2013, 『신라의 동해안 연안항해와 하슬라 : 강릉 경포호 강문동 신라토성을 중심으로』, 『백산학보95』, 백산학회.
홍영호, 2017,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 『백산학보108』, 백산학회.
김진형, 2013, 『강원의 신라성곽』, 『2013 국립춘천박물관 기획특별전-흙에서 깨어난 강원도의 신라 문화』, 통천문화사.
김진형, 2016, 『남한강 상류역의 신라성곽에 관한 소고』, 『강원고고연구』, 고려출판사.
김진형, 2017, 『영월 정양산성 변천과정 검토』, 『한국성곽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고대성곽의 수축과 개축』, 한국성곽학회.

13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 『영월 정양산성 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총서 32책.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영월 정양산성 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총서 47책.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8, 『영월 정양산성 I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총서 58책.

(2) 강릉읍성¹⁴

- 강원도 강릉시 성내동, 명주동, 용강동 일대
-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강릉대도호부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였던 곳
- 1990년대 후반부터 발굴조사하여 2000년대 후반까지 발굴조사 및 관아지, 객사문, 임영관을 복원하여 현재 역사문화공원으로 활용
- 관아지·객사문 임영관지는 지역문화제(단오제)와 연계되어 있음
- 성벽은 총 3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입간판만 세워져 역사교육 및 자료로써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사진 6. 강릉읍성(좌:석성, 우:토성)

(3) 원주 영원산성¹⁵

- 사적 제447호
- 1998 지표조사, 2013~2015년 3차 발굴조사 발굴
- 강원도 원주시 관부면 금대리 치악산
-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임보용산성으로 사용된 성곽
- 고려시대 원나라와의 전투,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전투현장
- 비교적 성벽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남쪽 성벽 발굴조사 없이 일부구간 복원

14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6, 『臨瀛館址 試掘調査 報告』, 『江陵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試掘 및 緊急 收拾調査)』, 江陵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14冊.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江陵 官衙址』,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36冊.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강릉 성내동 11-1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39冊.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陵邑城』,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57冊.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江陵 臨瀛館址-강릉 임영관지 주변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79冊.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2, 『江陵 臨瀛館址- 강릉임영관지 주변 의운루 건립부지 내 유적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 17冊.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6, 『강릉읍성-강릉 문화도시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 45冊.
15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6, 『원주 영원산성 I -원주 영원산성 1·2차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 43冊.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원주 영원산성 II -원주 영원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 50冊.

-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사용빈도가 낮고, 영원산성을 소개할 수 있는 입간판이 없어 홍보 필요



사진 7. 원주 영원산성(좌:남문지 발굴조사 후 모습, 우:복원된 성벽)

(4) 정선 고성리산성¹⁶

- 강원도 기념물 제68호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산319번지 일대
- 삼국시대 성곽
- 1997년 ~2000년 까지 발굴조사 없이 복원사업 진행
- 성곽의 규모, 성격, 축조세력, 시기 등 정보를 제공하는 곳마다 다름
- 2004년 1석축구간 발굴조사
- 복원 후 관광자원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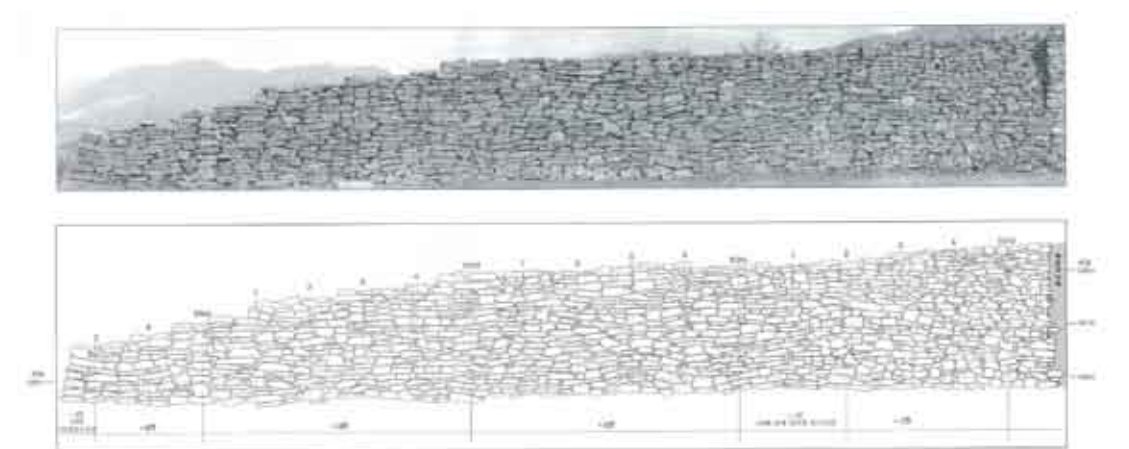


사진 8. 정선 고성리산성 2석축 내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16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정선 고성리 산성』, 강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45책.

(5) 양양읍성¹⁷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향리
- 조선시대 양양도호부를 둘러싸던 읍치소
- 무분별한 개발로 대부분 붕괴
- 북쪽 성벽 1차레 발굴조사, 그밖에 고고학적 조사 없음
- 현재 도로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공사 후 이곳이 성곽유적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보이지 않음



사진 9. 양양읍성 2차 성벽

(7) 인제 한계산성¹⁸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한계리(설악산)
- 강원도 내 대표적인 고려시대 입보용산성
- 최근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외성 등 추가로 확인
- 발굴조사를 통하여 건물지 등 확인
- 고증없이 복원 공사가 진행된 바 있음(성벽, 남문지)



사진 10. 인제 한계산성 성벽(좌:북서쪽 성벽, 우:성문 위쪽 성벽)

17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양양읍성』, 학술조사보고서 제41책.

18 유재춘, 2012, 『한계산성의 역사와 유적의 현황』, 『인제 한계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정비·활용방안-인제 문화유산 가꾸기 심포지움 한국성곽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한국성곽학회, 강원대학교 박물관.

2) 앞으로의 방향

(1) 고고학적 조사의 필요성과 활용

현재까지 밝혀진 강원도의 성곽유적은 일부만 조사가 진행된 상태이다. 다시말해 아직까지 강원도의 성곽유적은 위치, 성벽 규모 정도만 추정할 뿐 그밖에 특징을 알 수 있는 성곽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토성은 경작지 또는 성토하여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석성은 가정집의 담장이나 초석, 성내는 경작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장 시급한 것은 고고학적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고학적 조사는 발굴조사 뿐만 아니라 정밀지표조사 등을 통해 잔존하고 있는 성벽 및 성내 시설물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양산성의 경우 성벽 뿐만 아니라 내부시설물에 대한 조사, 하층유구에 대한 조사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로 복원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무너진 석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발굴조사단과 지자체의 협의로 원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석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강원도의 성곽유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전체적인 규모나 특징을 알 수 없는 곳이 많다. 물론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겠지만,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남아있는 성곽유적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홍천의 석화산성, 정선 고성리 산성처럼 아무런 고증 절차 없이 성벽을 정비하고, 체육시설물, 공원 등을 설치하는 것은 유적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성벽을 복원함에 있어서도 인제 한계산성과 원주 영원산성은 복원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인제 한계산성은 평거식성문을 복원하였으나 문화석과 성벽이 어긋나 있고, 원주 영원산성은 잔존하는 성벽과 복원된 성벽의 이질감이 크다. 따라서 문헌에 대한 검토, 정밀지표조사 등을 우선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성곽유적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그에 따른 정비나 이곳이 성곽 유적임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나 탐방객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2) 문화재지정 및 안내판 설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강원도의 성곽유적은 지역민들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경작지나 집담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도기념물과 같은 문화재의 지정도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행정적 문제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성곽유적이 역사적 가치가 높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도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되며, 성곽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문화재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강원도 성곽 유적을 보면 점점 더 훼손되고 있어 안내판 등을 설치해 이곳이 성곽유적임을 알리는 것도 또다른 방법으로 생각된다. 안내판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성곽 유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복원 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된 성곽유적은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복원 정비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중장기 계획하에 발굴조사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그대로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발굴조사가 진행된다면 유적을 정비하고 복원하는데 유구 노출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원형에 입각한 보존, 정비, 복원 계획을 세워야 하며, 효율적인 유적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계획 및 주변활용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복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토목건축물을 복원하는 것 만큼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역민, 탐방객이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탐방로, 안전문제 등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복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곽 유적의 경우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큰 토목건축물을 활용하는 점이라 그 어려움은 더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은 중요하다.

(4) 타 지역과의 비교

현재 성곽유적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은 산성과 읍성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더불어 타지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강원도의 성곽유적을 역사교육자원 및 관광자원에 활용하는데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토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읍성에서 확인된 토성은 단면의 길이가 큰 규모는 아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발굴조사된 부분을 노출하여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실체를 공개하면 좋겠으나 토성은 햇빛, 강우, 폭설 등 자연적 영향으로 인하여 자칫 붕괴될 우려가 있다. 또한 토성의 위치는 현지표 아래로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할 수 있도록 열어 둔다는 것은 안전상으로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전사 등을 활용하여 박물관이나 자료관 등에 자료만 전시하는 것이 좋은 활용방안으로 생각된다. 그 일례로 서울에 있는 한성백제박물관을 들 수 있다.

한성백제박물관에는 풍납토성의 성벽이 전시되어 있다. 발굴조사된 토성의 단면을 전사하여 전시한 것으로 토성의 축조과정을 모형으로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발굴조사 당시 출토된 유물과 더불어 문헌에서 기록한 축성기사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일반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의 시선에 맞춘 설명에 눈에 띈다. 이것은 곧 일반 어른들도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맞춤형 전시라 할 수 있다.



사진 11. 한성백제박물관 모습(좌:풍납토성 단면 전사, 우:풍납토성 복원 모형)

석성은 토성과 다르게 발굴조사에서 노출된 성벽을 자료관이나 박물관으로 옮겨 복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석성을 중심으로 성벽을 복원하여 관광자원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석성은 완전히 훼손된 부분, 상부만 훼손된 부분, 내벽만 훼손된 부분 등 짧은 구간이지만 훼손된 상태가 다르다. 따라서 성벽이 노출된 상태에서 훼손된 각각의 원인에 맞추어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석성복원은 추가 복원은 지양해야하며, 복원 후에도 붕괴의 위험성 없이 최대한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무너진 석성의 높이는 원형 고증 및 유적 정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기관들 사이에 많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석성과 관련하여 비슷한 복원 사례는 한양도성과 청주읍성, 언양읍성 등이 있다.



사진 12. 한양도성(좌:한양도성 내 낙산공원, 우:한양도성 둘레길)

한양도성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성곽으로 한양의 궁을 둘러싼 성곽이다. 한양도성의 경우 성벽을 복원하고 주변에 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한양도성은 복원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성벽을 따라 둘레길을 조성하여 서울시민들의 여가를 활용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더불어 승례문과 흥인문은 철저한 역사학적·고고학적 고증을 거쳐 주변 성벽까지 복원하였으며, 현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주읍성과 언양읍성의 복원 및 활용사례는 복원에 있어 나아가야할 방향과 비슷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성벽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일부구간은 복원하여 관광자원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주도아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면서 성벽에 대한 복원공사가 진행되었고, 청주읍성의 경우 발굴된 성돌과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성돌로 성벽을 복원하였다. 이렇듯 지역민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어울려 복원 정비해야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진 13. 청주읍성 내 지역축제와 청주읍성 성돌 모으기 운동(2013.03.07. 연합뉴스)



사진 14. 인양읍성 지역축제와 복원된 성벽

4) 홍보의 필요성

성곽유적의 복원 후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보존·복원은 무의미할 것이다. 시민들의 비참여와 무관심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방송, 신문, 광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성곽유적 복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대중매체 외에도 간략하게라도 이곳이 강원도의 성곽유적임을 안내하는 안내판이나 표지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유적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유적 안내판 설치하여 관람객의 수요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안내판은 성곽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요약정리 기록하여 탐방객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적의 연혁, 고고학적 조사 내용, 성벽·성곽내부 시설물에 대한 기초적 설명 등을 기록되어야 한다.

안내판은 성벽과 함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성벽복원 후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내판 설치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강원도의 성곽유적에 간략하게 조사현황과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의 보존 및 정비방향에 대해 필자의 개인생각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성곽을 분석하는데 있어 정밀발굴 조사가 아닌 지표조사의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성곽별 특징과 사용시기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아직까지 강원도 내 성곽에 대한 조사는 다른지역에 비해 미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아직까지 강원도 내 각 지역의 치소성, 복원경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된다면 조금 더 정밀하고,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그에 따른 연구성과가 증가하길 바란다.

복원 방향에 있어서도 성곽유적만을 다루다 보니 주변유적이나 다른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활용방안이나 복원방향을 설정하는데 성곽유적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종합하여 복원·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을 복원하다는 것은 문화재로서의 원형복원과 보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유적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단순히 성곽유적 복원이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박물관, 자료관 등 다른 역사·관광자원과의 광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관람욕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계 전문가들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기원과 참여로 복원이 이뤄져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 『영월 정양산성 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총서 32책.
_____, 2016, 『원주 영원산성 I -원주 영원산성 1·2차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 43冊.
_____, 2016, 『강릉읍성-강릉 문화도시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 45冊.
_____, 2017, 『영월 정양산성 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총서 47책.
_____, 2017, 『원주 영원산성 II -원주 영원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 50冊.
_____, 2018, 『영월 정양산성 III』,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총서 58책.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0, 『강원도사』, 강원도.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旌善 古城里山城』,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45冊.
_____, 2006, 『旌善 松溪里山城 發掘調査 報告書』,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51冊.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편)』, 학연문화사.
김진형, 2010, 『嶺東地方 高麗 城郭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_____, 2011, 「영동지방 고려시대 방어체계」, 『年報』,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창간호.
_____, 2013, 「강원의 신라성곽」, 『2013 국립춘천박물관 기획특별전-흙에서 깨어난 강원의 신라 문화』, 통천문화사.
_____, 2014, 「삼척읍성의 현황 및 보존방안」, 『삼척도호부 관아 유적의 활용 및 보존방안 학술심포지움』, 강원고고문화연구원.
_____, 2016, 「남한강 상류역의 신라성곽에 관한 소고」, 『강원고고연구』, 고려출판사.
_____, 2017, 「영월 정양산성 변천과정 검토」, 『한국성곽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고대성곽의 수축과 개축』.
김철주, 2013,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 놀와.
김홍술, 2006, 『江陵의 都市變遷史 研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김홍식, 2013, 「계양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 『인천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거레문화유산연구원·한국성곽학회.
손영식, 2009, 『한국의 성곽』, 주류성.
신유리, 2011, 『中部地方 新羅 堅穴住居址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정보, 1995, 『한국 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유재춘, 2003, 『韓國 中世築城史 研究』, 경인문화사.
_____, 2012, 「한계산성의 역사와 유적의 현황」, 『인제 한계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정비·활용방안-인제 문화유산 가꾸기 심포지움 한국성곽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한국성곽학회, 강원대학교 박물관.
_____, 2013, 「인제 한계산성의 역사와 유적에 대한 연구」, 『한국성곽학보23』, 한국성곽학회.
이천우, 2011, 「성곽문화재 복원사례를 통해 본 보존 관리 방안」, 『2011년 제8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성곽의 이해와 조사법-』,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순홍, 2012, 「한계산성의 보존과 정비·활용방안」, 『인제한계산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정비·활용방안』, 한국성곽학회·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_____, 2013, 「증평 이성산성 보존 활용방안」, 『증평 이성산성의 조사 성과와 사적화 방안』, 한국성곽학회·증평문화재연구원.
차용걸, 2002, 『한국의 성곽』, 눈빛.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3, 『성곽조사방법론』, 사회평론.

〈강원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에 대한 토론문

유 재 춘(국립강원대학교)

I. 발표문에 대한 전체적인 소견

지난 2001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주관으로 전국의 관방유적 연구 현황을 점검하는 학술행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주요 내용은 “성곽유산”이지만 17년만에 전국적인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보존정비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1년에는 본 토론자가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였었는데, 그로부터 17년 사이에 이루어진 많은 학술조사와 연구 성과들을 본 발표문에서 정리하여 지역별 조사, 연구 동향을 쉽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지역별 발표내용이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이어서 너무 범위가 넓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적절하게 수반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보존 정비 방향 부분에서는 기존의 성곽 정비 과정에 일어난 문제점들을 분석적으로 냉철하게 접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연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을 잘 알기에 발표자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분석적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체적인 발표 논지에서 쟁점이 될만한 것은 없지만 부분적인 서술에 대한 확인과 보존 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II. 발표문에 대한 질의

1. 강원도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 현황 관련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강원지역 성곽유적의 조사 현황을 총 82개소를 제시하였는데, 강릉 명주성(명주산성)을 비롯하여 철원 할미산성(동송읍), 월하리토성(철원읍) 등 여러 곳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성곽의 유형 분석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산성은 테피식산성과 포곡식산성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 평산성과 평지성이 있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런 분류가 틀린 것은 아니지

만 성곽의 분류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분류는 다소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성곽의 분류는 입지, 형태, 기능, 축성 재료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학계의 공통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3. 발표자께서는 테피식산성은 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산성으로, 축조방법은 같으나 사용면에서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고 하며 그 두 번째를 “소규모로 축조되어 해안에 접하고 있거나 섬의 정상부에 위치한 성이다. 이 성곽들은 모두 동해를 통해 침입하는 적들을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축성되었으며, 각 항구에 대한 경비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서술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성곽유적 사례로 강릉 고려성지, 강릉 패방산성, 고성 금구도성, 고성 죽도성, 삼척 요전산성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 중 고성 금구도성, 고성 죽도성은 몽고 침입시 정부에서 적절한 산성이 없는 연해 지역의 경우 海島로 들어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난을 위한 성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에 서술하신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축성 재료에서는 토성과 석성만 언급하셨는데, 강원지역에서 목책성이 확인된 사례는 없는지요? 그리고 토석을 혼합하거나 구간별로 토축과 석축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성곽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5. 성곽의 분포에 대한 설명에서 성곽유적의 수를 가지고 집중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대도호부가 설치된 강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설치된 성곽의 숫자가 많고, 이는 당시 영동지역의 중심이 강릉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서지역보다는 영동지역이 더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라고 하였는데, 각 지역에 분포하는 성곽유적이 동시기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 분류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한 유적지 숫자 비교는 의미를 적절하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크고 작은 침입 가능성이 많은 변경이나 연해지역에 방어시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6. 발표자께서는 아직까지 강원도의 성곽연구는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 많고, 연구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피력하셨는데,

데,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종합적인 연구와 체계적 조사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언급하신 것인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 발표자께서 정비사례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조사와 정비 모두가 부실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이건 비지정문화재이건 개발 압력에 의해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정비과정에서 고고학적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조사의 과정이나 조사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여러 성곽을 오랜 기간 동안 발굴하여 온 이 분야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곽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존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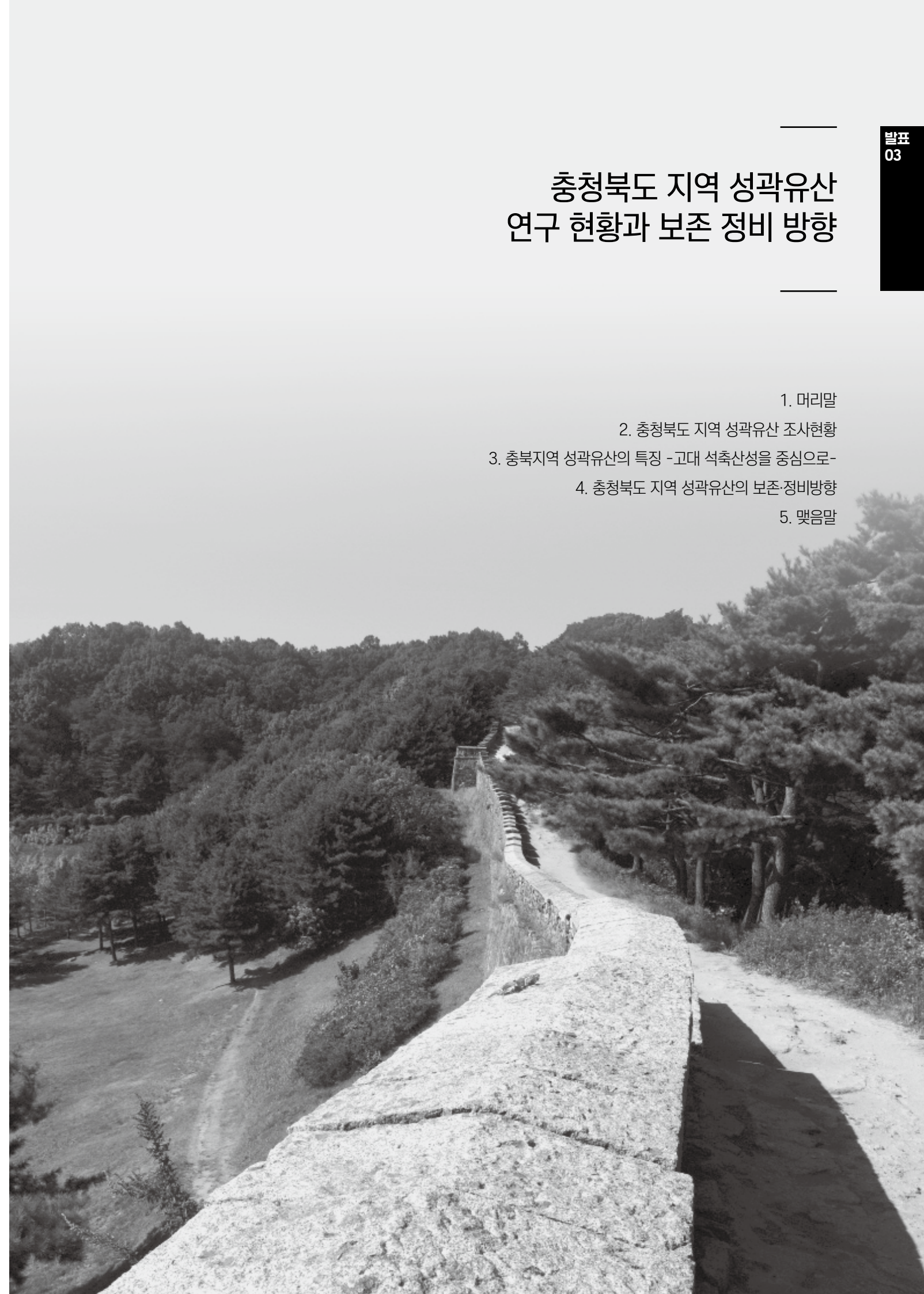
1. 머리말

2. 충청북도 지역 성곽유산 조사현황

3. 충북지역 성곽유산의 특징 -고대 석축산성을 중심으로-

4. 충청북도 지역 성곽유산의 보존·정비방향

5. 맺음말



충청북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조순흠 · 서원문화재연구원



1. 머리말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백두대간의 높은 산줄기가 영남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한남금북정맥이 속리산으로부터 도의 남동방향에서 북동방향으로 관통하는데, 이를 경계로 북부지역은 한강수계, 남부지역은 금강수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동부와 북동부지역은 대체로 백두대간의 높은 산줄기가 이어져 있으며, 남한강과 금강 및 그 지류인 달천과 미호천을 중심으로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충청북도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관통하는 남한강과 금강은 고대로부터 중요한 수운교통로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수운교통로는 물적·인적자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즉, 남한강과 금강은 산간지역과 내륙평야지역 및 해안지역을 하나의 경제·문화권역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교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¹, 죽령·계림령·조령·화령·추풍령 등 백두대간을 넘는 육상교통로와 연결되어 있어 동-서, 남-북 교통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1 서영일, 2008, 「남한강 수로가 중원문화 형성에 미친 영향」, 『중원과 한강』, 충주대학교 박물관.

하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충북지역이 고대로부터 중요한 쟁패지역이 되는 요인이었다. 고대국가 성립기로부터 한강유역을 어느 나라가 점유하느냐에 따라 삼국의 성패가 좌우되었으며, 백제와 신라는 금강 중상류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충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곽유산은 대부분 이러한 연유에서 축성되고 경영된 것들의 산물이다.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유산은 총 227개소²이다. 성곽에 대한 평면과 단면 실측을 동반한 정밀지표조사는 1979년 삼년산성에 대한 기초학술조사³로부터 시작되었다. 80년대 들어 우암산성⁴, 상당산성⁵, 충주 남산성⁶, 온달산성⁷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진행되어 산성의 구체적인 현황이 알려지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역의 성곽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요 산성을 중심으로 모두 56개소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실시되어 개별 산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었다.

성곽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는 1980년 보은의 대홍수로 드러난 삼년산성 서문지⁸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나 학술기관에 의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삼년산성 연못지에 대한 발굴조사⁹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이후 청풍토성¹⁰과 충주 남산성¹¹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성벽의 축조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들어 충주 남산성¹², 견학리토성¹³, 정북동토성¹⁴, 상당산성¹⁵ 등 소수의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가 간간히 이어졌으나, 한편으로는 보은 삼년산성을 비롯하여 단양 적성산성, 온달산성 등에서 정밀학술조사를 통한 고증과정 없이 성벽이 복원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정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곽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충북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산성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충북지역 성곽유산에 대한 시·발굴조사는 90년대 이후 약 9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충주 남산성, 보은 삼년산성, 증평 추성산성, 청주 정북동토성, 청주 부모산성, 단양 온달산성 등은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성벽 기저부 조성방법, 성벽의 축조방법, 성문의 구조, 저수시설 및 건물지와 같은 성내 시설물에 대한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해당 성곽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연하게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충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성곽유산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¹⁶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발굴조사 된 산성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발굴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고대 석축산성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성곽유산의 특징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향후 보존과 정비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최근까지 알려진 충북지역의 산성은 청주시 40, 충주시 14, 제천시 14, 음성군 14, 진천군 16, 보은군 14, 괴산군 19, 증평군 4, 옥천군 46, 영동군 34, 단양군 15개소로 총 230개소이다. 그러나 견제산성 등 3개소의 산성이 두 개의 시군에 걸쳐 소재한 산성으로 파악되고 있어 총 성곽의 수는 227개소이며, 부강면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에 따라 부강면 소재 8개 산성을 제외하면 219개소가 된다. 한편 니말여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환호유적을 성곽유산의 범주에 포함하면 성과유산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3 報恩郡, 1979, 『報恩 三年山城 基礎調査 報告書』.

4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 『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5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2, 『上黨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6 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 1984, 『忠州山城 綜合地表調査 報告書』.

7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89, 『丹陽 溫達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8 忠清北道·報恩郡, 1984, 『三年山城 西門址 調査概報』.

9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 『三年山城-추정연못터 및 수구지 발굴조사 보고서』.

10 朴永福, 1984, 『淸風土城址 發掘調査 報告』, 『忠州댐水沒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査綜合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11 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 1985, 『忠州山城 및 直洞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12 忠州産業大學校 博物館, 1995, 『忠州山城 2次 發掘調査報告書』.

13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忠州山城 東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14 忠北大學校博物館, 1992, 『中原 見鶴里土城』.

15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淸州 井北洞土城 I -1997年度 發掘調査報告書』.

16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7, 『上黨山城-西將臺 및 南門外 遺蹟址 調査報告-』.

16 충북지역 산성에 대한 조사성과와 연구현황은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차용걸, 2007, 『중부내륙지역 옛 산성군의 성격과 특징의 검토』,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 선정 학술회의 발표집』, 한국성곽학회.

심광주, 2007, 『중부내륙지역 고대산성의 성격과 특징』, 위 책.

유재춘, 2007, 『중부내륙지역 중세산성의 성격과 특징』, 위 책.

노병식, 2007, 『남한강유역 석축산성군의 성격』, 위 책.

조순홍, 2007, 『금강 상류지역의 산성군과 그 성격』, 위 책.

차용걸, 2008, 『중원지역 성곽 연구의 성과와 과제』, 『중원문화 정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방향』,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

충청북도 지역 성곽유산 조사현황

1) 남한강 유역

(1) 단양 온달산성¹⁷

온달산성은 남한강 상류 단양군 영춘면 하리 남쪽 해발 427m 성산의 정상부와 남한강변의 북쪽 사면을 둘러쌓은 사모봉형의 석축산성으로 평면형태는 길다란 말각장방형에 가깝다. 전체 성벽의 둘레가 682m이다.

성벽은 일부 사암계통의 석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반암인 석회암을 이용하여 수평줄눈을 맞추어 정연하게 축조하였다. 성벽은 하단부는 편축법으로 중단부 이상은 협축법으로 축조하였으며, 성벽의 높이는 6.0~9.6m 내외로 확인되었다. 남쪽 치성의 하단부에서 기단보강석축시설이 확인되며, 북쪽성벽과 북문지 외측성벽 하부에 단면 삼각형의 기단보축성벽을 축조하였다. 성문은 남문·동문·북문 3개소가 모두 현문식이며, 북문은 당초 현문으로 개설되었다가 후대에 문구부를 좁혀 암문으로 사용한 후 최종적으로 폐쇄되었다. 성벽 부대시설로 북쪽 치성·남쪽치성이 있다. 성내에 말각방형을 이루는 통일신라시대 집수시설과 쪽구들을 갖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가장 낮은 지점을 통과하는 북쪽 성벽에 입면 제형의 수구가 있다.

성내에서는 6세기 중엽으로부터 나말여초에 이르는 토기편, 기와편, 철축 등이 수습되고 있어 6세기 중엽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에서 초축되어 통일신라시대 현의 치소성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파악¹⁸되고 있다.

(2) 단양 적성산성¹⁹

적성산성은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성산에 위치하고 있다. 산성의 정상부를 둘러싼 마안봉

형의 석축산성으로 둘레는 923m, 평면형태는 동서로 길쭉한 타원형이다. 성내에 단양적성비가 위치하고 있어 신라 진흥왕대인 545~551년 사이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성에 대한 지표조사 이후 정밀발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성벽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져 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다. 다만 최근 복원된 성벽이 붕괴되면서 이루어진 학술조사에서 기존 석축성벽의 하부에 토축성벽 내지 토축기단부가 확인되어 현재의 석축성벽 이전에 선행하는 토축성벽이 존재할 가능성 또는 석축성벽을 축조하기 위한 토축 기단부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양적성비가 산성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산성은 6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인근에서 조사된 당동리고분군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으로 편년²⁰되고 있어 산성의 초축연대는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충주 남산성²¹

충주 남산성은 충주시 동쪽에 우뚝 솟아 있는 해발 636m의 남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낮아지는 계곡을 포함하는 사모봉형의 석축산성이다. 평면형태는 굴곡이 심한 부정형이다. 전체 둘레는 1,120m이다.

성벽은 외벽 기저부로부터 편축으로 축조한 후 성벽의 중간 이상에서부터 내벽을 같이 쌓아 내외협축을 이루도록 하였다. 당초 성벽의 높이는 6~8m로 추정되며, 성벽 상면에는 타의 구분이 없는 평여장이 설치되었다. 체성벽은 두께 15~20cm 내외의 세장방형 내지 장방형 성돌을 이용하여 수평줄눈을 맞추어 정연하게 축조하였으며, 중간 중간 켜기돌을 사용하였다. 성벽의 기저부 조성은 암반이 노출된 구간은 암반에 턱을 주어 기단석이 밖으로 밀리는 것을 막고, 암반이 없는 구간은 산자갈과 점질토를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까지 다져 기저부를 조성하였다. 성벽 외측 하단부 기단보축성벽은 외측이 급경사를 이루는 일부 구간에서만 확인된다. 문지는 동문·북문·남문이 조사되었는데, 동문지는 내용성을 갖춘 독특한 구조로 바닥에서 높이를 달리하는 3개의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북문에서는 성문을 구성하였던 확쇠와 철정이 출토되었으며, 남문은 초축이후 3차례의 수축사실과 성문의 하부구조를 유추할 수 있는 하인방목을 고정하였던 인방석렬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계곡을 지나는 동쪽 성벽의

17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89, 『丹陽 溫達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3, 『溫達山城 - 北門址·北雉城·水口 試掘調査 報告書』.
한국고통대학교 박물관, 2013, 『단양 온달산성 - 서문지 일원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4, 『온달산성 - 2012년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7, 『온달산성 - 2015년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8, 『온달산성 - 2016년 발굴조사 보고서』.
18 梁秉模, 2018, 『三國時代 丹陽 溫達山城의 築造와 運營』, 忠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 한성문화재연구원, 2017, 『단양적성』.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7, 『단양 적성 동벽 보수구간 문화재 표본조사 학술자문위원회의 자료』.

20 東洋대학교 박물관, 2015, 『단양 당동리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21 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 1984, 『忠州山城 綜合地表調査報告書』.
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 1985, 『忠州山城 및 直洞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忠州産業大學校 博物館, 1995, 『忠州山城 2次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忠州山城 東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5, 『忠州山城 - 東門 南側 貯水池 試·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忠州山城 - 北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18, 『忠州 南山城 - 南門址 發掘調査』.

안쪽에는 계단식으로 축조된 저수지와 입면 사다리꼴의 성벽통과식 수구가 설치되었다.

성내에서는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되는 단각고배 등 신라토기만이 수습되고 있어 신라의 충주지역 진출 후 국원소경의 설치 및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성으로 추정된다.

(4) 충주 장미산성²²

장미산성은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남한강의 서안에 솟아 있는 장미산(해발 337.5m) 정상부와 동쪽으로 낮아지는 계곡의 하단부를 둘러싼 사모봉형의 석축산성이다. 전체 둘레는 2,940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성벽은 세장방형 내지 장방형의 성돌을 수평줄눈을 맞추어 정연하게 축조하였으나 북동쪽 정상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붕괴되었다. 성벽 기저부는 편축으로 중간부 이상은 내외협축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의 높이는 구간에 따라 다르나 6~7.5m 내외이다. 성벽이 회절하는 능선부에는 특이한 구조의 목책치성이 확인된다. 성벽 내측으로 성벽을 따라 배수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일정한 간격으로 석환을 보관하는 석곽이 배치되었다. 지표상으로 어긋문 형태의 남문지가 확인되나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성내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의 한성백제 토기와 6세기 중엽 이후의 신라토기가 수습되고 있다.

(5) 음성 수정산성²³

수정산성은 음성읍 읍내리 수정산(해발 396.3m) 정상부를 둘러싼 산봉형의 석축산성으로 둘레는 593m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타원형이다.

성벽은 기저부는 편축으로 축조한 후 일정한 높이에 이르러 내벽을 축조하여 내외협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일부 구간에서 기반보축성벽이 확인된다. 성벽의 높이는 약 4~6.5m 내외이다. 성벽은 장방형내지 세장방형 성돌을 이용하여 수평줄눈을 맞추어 ‘品’자형으로 정연하게 축조하였다.

성내에서는 고배편, 인화문토기편 등 신라토기편으로부터 청자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다. 출토유물과 성벽의 축조양상으로 보아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경에 축조되어 지방

현의 치소성으로 기능²⁴하였으며, 고려시대까지 일부 경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충주 대림산성²⁵

대림산성은 충주시 향산동 대림산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큰 계곡을 둘러싼 사모봉형의 토석혼축성으로 일부 구간에 석축이 남아 있다. 전체 둘레는 4,906m이며, 평면형태는 동서로 길쭉한 타원형이다. 달천에 접해 있어 계립령, 조령으로 이어지는 충주의 남쪽 길목을 감제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석축성벽에는 성벽을 축조하기 위해 목주를 설치하였던 수직홈이 남아 있으며, 성벽의 높이는 4~6m로 세장방형 내지 장방형 성돌을 수평줄눈을 맞추어 정연하게 축조하였다. 4개소의 성문과 암문이 있으며,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10여 곳에 용도를 설치하였다.

성내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토기편, 고배뚜껑편과 당초문 와당, 선문 및 어골문 기와편, 고려청자 등이 수습되고 있다. 673년 국원소경에 축조된 국원성으로 추정²⁶되며, 고려시대 대몽항쟁기의 전승지인 충주산성으로 비정²⁷되기도 한다.

(7) 제천 덕주산성²⁸

덕주산성은 한수면 송계리의 송계계곡과 덕주계곡을 시기를 달리하여 4점으로 둘러싼 석축산성이다. 영남지방에서 하늘재를 거쳐 충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덕주산성은 가장 상류인 윗 덕주사를 둘러싼 내성, 하덕주사까지를 둘러싼 중성, 덕주골 입구까지를 둘러싼 하성과 송계계곡의 남북을 둘러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4종의 성벽은 자연지형을 적절히 활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여 축성공력을 현저하게 줄였다. 각각의 성벽은 공유성벽을 제외하고 내성 4,449m, 중성 7,410m, 하성 1,413m, 외성 12,671m로서 총 길이는 25,943m이다. 성벽은 기본적으로 내외협축으로 축조하였다. 성문은 외성에 2곳, 내성, 중성, 하성에 각각 1곳이 있으며, 중간 중간 암문을 설치하였다. 일부 구간에 성벽 상면의 ‘ㅍ’자형의 여장시설이 잘 남아 있다.

성벽의 축성양상과 동문 및 남·북문의 구조 등으로 보아 4종의 성벽은 내성과 하성이 먼저 축성되고, 이후 조선시대 중성과 외성이 축조되어 전체적으로 내성과 외성의 구조를 갖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2, 『中原 薔薇山城』.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3, 『薔薇山城 -整備 豫定區間 試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6, 『忠州 薔薇山城 -1次 發掘調査 報告書-』.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14, 『忠州 薔薇山城 발굴조사 보고서』.
국강고고학연구소, 2018, 『忠州 薔薇山城』.
23 忠州産業大學校 博物館, 1998, 『陰城 水精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2, 『陰城 水精山城 試掘調査 報告書』.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3, 『水精山城 2次 試掘調査 報告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음성 수정산성-2013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24 노병식, 2016, 『음성 수정산성의 성격』, 『한일 성곽의 새로운 인식』, 한국성곽학회.
25 詳明大學校 博物館, 1997, 『忠州 大林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26 盧秉湜, 2014, 『新羅 國原小京과 西原小京의 防禦施設 變遷』, 忠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7 金虎俊, 2012, 『高麗 對蒙抗爭期の 築城과 立保』, 忠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8 忠州工業專門大學 博物館, 1992, 『德周寺磨崖佛과 德周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堤川 德周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3, 『堤川 德周山城 -北門址 東側 城壁 基底部 試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6, 『堤川 德周山城 -上城 門址 및 西側城壁 整備區間 試掘調査 報告書』.

(8) 괴산 미륵산성²⁹

미륵산성은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의 상류 협준한 산악지대인 청천면의 도명산과 낙영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의 상단부를 둘러싼 고로봉형의 석축산성이다. 전형적인 고려시대 입보용 산성이다.

산성의 전체 둘레는 5,100m 정도로 인공적으로 성벽을 축조한 구간은 약 3,050m 정도이다. 성벽은 자연암반 등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지형의 변화에 따라 편축식과 협축식을 혼용하였다. 성문은 동쪽을 제외한 3곳에 설치하였다. 서쪽계곡의 서문 주변에 수구가 있으며, 서문을 중심으로 양쪽에 별도의 성벽을 축조하여 취약한 계곡의 방어력을 높였다³⁰.

수습유물과 산성의 입지, 성벽 축조방법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축성되어 조선시대까지 입보용 산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합단의 칩입시 옥천 동부와 남부의 주민이 입보하였던 청주산성으로 비정³¹되기도 한다.

(9) 충주 탄금대토성³²

탄금대토성은 탄금대의 북동쪽 대문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북쪽은 천연의 남한강 단애면을 이용하고 나머지 삼면에 토루를 축조하였다. 전체 둘레는 415~420m이며, 인공적인 토루가 축조된 구간은 234m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토성은 성벽의 중심부에 강돌을 내·외측으로 계단상을 이루도록 5~6단을 축조하고 성토공법으로 토루를 축조하였다. 성외측에는 2중의 외황을 배치하였다. 문지 등 기타 성벽 관련 시설물은 훼손이 심하여 명확하지 않다. 성내에서는 제련공방지로 추정되는 주거지와 저수시설이 조사되었고, 저수시설에서 출토된 철정 40매를 비롯하여 송풍관편, 지석, 단경호, 장란형토기 등 4세기대로 편년되는 한성백제기의 토기편들이 출토되고 있다.

한편 최근 탄금대의 남쪽 사면을 중심으로 백제에 의해 대규모 철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제련로가 밀집되어 조사³³되었다. 탄금대토성의 출토유물과 주변의 대규모 제철유적 등으로 보아 탄금대토성은 4세기대 백제가 탄금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철생산 기지를 운영하며 축조한 토성³⁴으로 판단된다.

(10) 충주 견학리토성³⁵

견학리토성은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의 가섭산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요도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며, 요도천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하여 있다. 견학리토성은 전체 둘레 200m 정도의 방형의 토성으로 추정³⁶되나 공장신축으로 서벽 전체와 북벽 및 남벽의 일부가 훼손되어 현재는 97m 가량이 남아 있다.

성벽의 높이는 외측에서 5~5.5m, 내측에서 2m 정도이다. 남벽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은 후대 수축된 성벽으로 당초 성벽은 외측 2~3m에서 판축된 성벽이 확인되었다. 성벽은 기단석렬을 놓지 않고 3.3m 간격으로 목주를 세운 후 판축하였다. 성 내측에는 성벽과 나란한 배수로가 확인되며, 외측에 외황을 배치하였다. 수축된 성벽은 외황을 매몰하고 중심토루의 안쪽을 성토하여 축조하였다.

견학리토성은 당초 1차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차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벽의 축조방법, 판축토 내의 출토유물의 양상이 확인되어 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축조되어 호족의 시대에 경영이 이루어진 후 고려시대 이후에는 폐성³⁷된 것으로 밝혀졌다.

(11) 제천 청풍토성³⁸

청풍토성은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성이다. 현재는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된 상태이다. 수몰되기 전 청풍토성이 위치한 곳은 남한강 변의 충적평야로서 ‘성들’이라 불렸다. 충주댐 건설과 관련하여 서벽과 북벽, 동벽의 일부가 조사되었다.

성벽의 둘레는 약 450m 정도이며, 성벽의 내·외측에 기단석렬을 배치하고 성벽을 축조한 기단석축형 판축토성이다. 성벽의 폭은 약 6m이며, 내·외측의 기단석렬과 직교하는 석렬이 4.7m 단위로 확인되고 있어 성벽 축조의 구획단위로 판단되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구획단위와 동일한 4.7m 간격으로 배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토성의 극히 일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정확한 초축 시기는 불명이나, 성벽 기저부의 축조기법과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활용된 것으로 추정³⁹된다.

29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6, 『槐山 彌勒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3, 『괴산 미륵산성 서문지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30 노병식, 2009, 「고려 괴산 미륵산성의 구조와 성격」, 『한국성곽학회』 16, 한국성곽학회.

31 車勇杰, 1997, 「高麗末 1290年の 淸州山城에 대한 豫備的 考察」, 『郷土史學論叢』, 修書院.

32 忠州工業專門大學 博物館, 1991, 『彈琴臺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2, 『忠州 彈琴臺』.

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忠州 彈琴臺土城 I』.

33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6, 「충주 칠금동 392-5번지 제철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34 조순홍, 2008, 「충주 탄금대토성 발굴조사 개요」, 『중원문화 정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방향』,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35 忠北大學校博物館, 1992, 『中原 見鶴里土城』.

忠北大學校博物館, 2002, 『忠州 見鶴里土城(II)』.

36 車勇杰, 1984, 「方形土城의 二例」,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37 강민식·윤대식, 2010, 「충주 견학리 토성과 중부지역의 판축 토성」, 『한국성곽학회』 18, 한국성곽학회.

38 朴永福, 1984, 「淸風土城址 發掘調査 報告」, 『忠州댐水沒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査綜合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39 성벽과 직교하는 석렬은 최근 영월 정양산성 외성에 대한 발굴조사에 확인된 바 있다. 외성에서 확인된 석렬은 3.5~4.5m이며, 간벽 사이는 토석혼축하였다(김진형, 2017, 「영월 정양산성 변천과정 검토」, 『고대성곽의 수축과 개축』, 한국성곽학회). 정양산성 외성은 고려시대 내성에 덧대어 축조된 산성으로 청풍토성의 축조시기가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

(12) 충주 고읍성⁴⁰

고읍성은 충주읍성의 외곽을 둘러싼 토성으로 그동안 만리산에서 일부 토루의 흔적이 보고되어 오다 최근 발굴조사를 통하여 사직산구간과 호암동구간의 성벽이 확인되면서 구체적인 축조양상이 밝혀지고 있다. 고읍성의 전체 둘레는 약 8km 이상으로 추정되나, 현재 대부분의 성벽은 충주의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되었고, 잔존 구간은 만리산구간 280m, 사직산구간 380m, 호암동구간 500m로 약 1,160m 만이 남아 있다.

성벽은 기단석축형 판축토성으로 성벽의 내·외측에 1~3단의 기단석열을 배치하고 중심 토루를 판축한 후 내·외측에 외곽토루를 덧붙인 구조이다. 성벽의 너비는 약 400~440cm, 중심토루를 축조하기 위해 설치한 목주의 간격은 300~360cm이다. 호암동구간에서는 52.5~70m 간격으로 배치된 치성이 조사되었는데, 치성은 성벽과 동일 공정으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되는 청자잔 편 등이 출토되었다.

성벽의 축조방법이 강화중성과 매우 유사하고, 출토유물로 보아 대몽항쟁기에 축조 또는 개축된 것으로 판단⁴¹된다.

2) 미호천 유역

(1) 청주 부모산성⁴²

부모산성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과 지동동의 경계에 위치한 부모산 정상부와 동쪽과 북쪽의 작은 곡부를 에워싼 사모봉형의 석축산성이다. 부모산에서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모두 4개의 보루가 배치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불규칙한 삼각형에 가까우며, 둘레는 1,135m이다.

성벽은 세장방형의 판상할석을 이용하여 수평줄눈을 맞춰 정연하게 내외협축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의 높이는 6~10m이다. 성벽 외측 하부에는 1~3겹으로 축조된 기단보축성벽이 확인된다. 2차 발굴조사에서는 내외협축으로 축조된 서쪽 성벽의 안쪽에 덧대어진 2차 성벽이 확인되었는데, 1차 성벽의 적십이 석재로 축조된 것과 달리 내부를 흙으로 다짐하고 벽면만 석축하였다. 성문은 동서남북 4개소가 확인되며 이중 발굴조사 된 서문지와 북문지는 현

문식 성문으로 북문지에서 성문에 사용된 화쇄, 서문지에서 성문의 하인방석렬, 성문 결구에 사용된 철정이 출토되었다. 서문지 2차 문지는 개구부 내측 선단이 곡면으로 처리되었다. 집수시설은 동쪽 계곡부 성벽 안쪽과 부모산 정상부에서 서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상에서 평면 원형의 계단식으로 확인되었으며, 북쪽 계곡부에 입면 삼각형의 성벽통과식 수구가 있다.

성내에서는 ‘前’·‘北’·‘大’銘의 인장와를 비롯하여 선문계통의 평기와, 막새기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경의 신라토기, 사비기의 백제토기가 혼재되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출토유물과 서문지와 서쪽 내측성벽의 개축양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세기 중후엽 신라에 의해 초축된 후 7세기 전반 혹은 중엽의 어느 시점에 백제가 산성을 개축하여 백제의 서쪽 변경을 지키는 군사지역의 중요한 거점성으로 활용⁴³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주 양성산성⁴⁴

양성산성은 충북 청주시 문의면 미천리 마을 서쪽에 있는 해발 292m의 양성산 정상부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계곡부를 둘러싼 사모봉형의 석축산성이다. 평면형태는 마치 주걱모양과 같은 부정형으로 전체 둘레는 985m이다. 자비마립간 17년(475)에 축성된 一牟山城으로 비정되고 있다.

성벽은 붕괴가 심하여 현재 동쪽 계곡부와 남쪽 성벽 일부 구간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잔존하는 성벽은 계곡부는 내외협축, 능선부는 편축식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성벽은 두께 10~20cm, 길이 40~60cm 내외의 얇은 판상석을 이용하여 수평줄눈을 맞추어 정연하게 축조하였다. 남쪽 성벽 체성벽 하단부에서 기단보강석축이 확인되며, 기단보축성벽은 동쪽 계곡부 수구가 있는 성벽 하단부에서 확인된다. 수구는 동쪽 계곡부에 높이를 달리하는 3개의 입면 방형의 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수위에 따라 배수량을 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저수지는 동쪽 계곡부 성벽 내측에 평면 원형의 계단상을 이루도록 축조하였다. 성문은 동문지와 남문지가 확인되며, 잔존 양상으로 보아 현문식으로 추정된다.

(3) 진천 도당산성⁴⁵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에 위치하는 석축산성으로 남북으로 이어지는 능선정상부와 동쪽 계곡을 둘러싼 사모봉형의 석축산성이다. 전체 둘레는 850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성문은 남서·서북문지가 지표상으로 확인되며, 현재 길상사가 건립되어 있는 곳에 저수시설과 동문지 및 수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은 세장방형의 석재를 이용하여 수평

40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충주 호암동유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忠州邑城 學術調查報告書』.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8, 『忠州 虎岩洞 複合遺蹟Ⅴ』.
41 노병식, 2010, 『새로이 찾은 충주지역의 성곽』, 『한국성곽학보』 17, 한국성곽학회.
심종훈, 2015, 『충주 호암동토성의 성격과 특징』, 『한국성곽의 최근 조사 성과』, 한국성곽학회.
42 忠北大學校中原文化研究所, 1999, 『淸州 父母山城-地表調査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6, 『淸州 父母山 蓮華寺-大雄殿 増築敷地 試掘調査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淸州 父母山城-북문지·수구부 일원-1, 2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忠北大學校博物館, 2014, 『淸州 父母山城-西壁區間 및 母乳井-第1堡壘-』.
忠北大學校博物館, 2016, 『淸州 父母山城 II-西壁區間 및 集水址, 第1堡壘, 鶴天山城-』.

43 박중균, 2013, 『충주 부모산성 출토 토기』,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44 忠北大學校中原文化研究所, 2001, 『淸原 壤城山城』.
忠北大學校中原文化研究所, 2005, 『淸原 壤城山城 圓池 發掘調査 報告書』.
45 中原文化財研究院, 2005, 『鎮川 都堂山城-地表 試掘調査 報告書-』.

줄눈을 맞추어 정연하게 축조하였으며, 성벽의 높이는 5~8m로 추정된다. 성벽 외측 기저부에 기단보축성벽이 축조되었으며, 그 외측으로 외황의 흔적이 남아 있다.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과 주변 고분군으로 보아 6세기 중엽 이후에 신라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주 상당산성⁴⁶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상당산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진 계곡을 둘러싼 고로봉형의 석축산성이다. 전체 둘레는 4,200m로 평면평태는 전체적으로 원형에 가깝다.

성문은 동문과 남문, 서문이 있으며, 동북쪽과 서남쪽에 암문을 배치하였다. 남쪽 성벽에 3개소의 치성이 있으며, 서문 밖에서 현재의 성문 이전의 서문이 확인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은 조선시대 충청병영이 해미에서 청주로 이관되면서 새로이 축성된 성벽으로 기저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개축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산성의 남문밖 일대에서 ‘沙啄部屬長池駟’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고, 운주헌터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대규모 창고 시설로 추정되는 대형건물터와 ‘城’·‘城草’銘 기와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상당산성의 현재 남아 있는 석축성벽은 조선후기 토축성벽을 석축성벽으로 개축한 것으로 현재 석축성벽 이전의 성벽의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산성에 대한 기록과 성내·외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수습되고 있어 상당산성의 초축연대는 통일신라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기록에 보이는 서원경성 또는 서원술성의 하나로 추정⁴⁷된다.

(5) 음성 망이산성⁴⁸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마이산(해발 472m) 정상부와 북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의 상단부를 둘

러싼 고로봉형의 석축산성과 마이산 정상부를 둘러싼 토성의 2중성이다. 성벽의 둘레는 약 2,080m이다.

석축산성인 외성은 장방형으로 잘 치석된 성들을 수평줄눈을 맞추어 정연하나 내탁기법으로 축조하여 대부분 붕괴되었다. 문지는 서문지와 동남문지가 조사되었으며, 성벽에는 모두 5개소의 치성이 배치되어 있다. 남쪽성벽의 곡부에서 2개소의 방형 저수시설이 확인된다. 토축산성인 내성은 내부에 조선시대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확인된 성벽의 둘레는 북쪽 성벽을 중심으로 약 250m이다. 북쪽 성벽에 대한 조사에서 성벽은 목주를 160cm 간격으로 세우고 축조한 판축토성으로 확인되었다.

산성의 경영과 관련하여 백제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남쪽 성벽의 우물터 부근에서 철제갑옷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과 성벽의 축조양상으로 보아 내성은 백제, 외성은 통일신라에 의해 축성되어 고려시대까지 경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5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신쇠는 발해 상경성 출토⁴⁹품과 동일한 형태여서 주목된다.

(6) 청주 정북동토성⁵⁰

정북동토성은 청주시 정북동 미호천변의 충적평야에 위치하고 있는 방형토성이다. 일찍부터 강안의 평지에 입지한 평지토성으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고대 중국식 방형토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주목받았다⁵¹. 토성은 모두 7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벽의 축조방법, 성문의 구조, 해자 등과 함께 토성의 경영시기가 밝혀졌다.

토성의 둘레는 675m이며, 36~48m 간격으로 곡성이 축조되어 있다. 성벽은 순수판축토성으로서 1.5~2.1m 간격으로 목주를 세운 후 점질토와 사질토를 10cm 내외로 판축하여 중심토루를 축조하였다. 중심토루의 내·외측에 외피토루를 부가하였다. 성문은 각 방향의 성벽 중간 지점에 동서남북 4곳이 있는데 남문과 북문은 어긋문 형식이다. 성벽 외측의 해자는 2차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1겹으로 조성된 1차 해자가 매몰된 후 내·외 2중의 2차 해자를 조성하였다. 성내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목책, 굴립주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토성의 경영이 끝난 후 통일신라시대 메워진 해자 위에 조성된 적심건물지와 석곽묘, 우물 등이 확인된다.

46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2, 『上黨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7, 『上黨山城-西將臺 및 南門外 遺蹟址 調査報告-』.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2, 『上黨山城』, 『韓國의 近世山城』.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4, 『上黨山城 -城壁補修區間 內 試·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淸州 上黨山城 -運籌軒址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16, 『淸州 上黨山城 -北鋪樓址 및 西壁 水口址 發掘調査-』.
47 차용걸, 2001, 『서원소경의 위치와 구조』,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
盧秉湜, 2014, 『新羅 國原小京과 西原小京의 防禦施設 變遷』, 忠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48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2, 『망이산성 학술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2, 『望夷山城-忠北區間 地表調査 報告書』.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안성 망이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陰城 望夷山城Ⅰ -충북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陰城 望夷山城Ⅱ -충북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음성 망이산성 -2014 발굴조사 보고서-』.

49 흑룡강성문물고고연구소, 2009, 『발해 상경성 - 1998~2007년도 고고발굴조사 보고-』, 문물출판사.
50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淸州 井北洞土城Ⅰ -1997年度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2, 『淸州 井北洞土城Ⅱ -2000年度 發掘調査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淸州 井北洞土城Ⅲ -北門址 發掘調査-』.
忠北大學校 博物館, 2018, 『청주 정북동토성Ⅳ-해자터 발굴조사-』.
51 車勇杰, 1984, 『方形土城의 二例』,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토성의 축성연대는 아직까지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나 토성의 축조방법, 성내·외에서 확인된 주거지를 비롯하여 석곽묘, 우물, 적심건물지와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탄소연대측정값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3세기 대에 축성되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경영된 후 폐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7) 증평 추성산성⁵²

추성산성은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이성산(259.1m) 정상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지봉(242m)에 각각 북성과 남성이 각각 토축으로 축조되어 있다.

북성은 내성과 2개의 자성, 외성으로 구성된 마안봉형의 토축산성으로 내성 219m, 외성 310m, 내·외성의 공유벽 100m로 전체 둘레는 429m이다. 자성의 둘레는 각각 101.8m, 98.8m 정도이다. 북성은 2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내성과 자성은 백제, 외성은 고려시대 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벽의 규모는 폭 9~14m, 높이 3.5~5.8m이며, 기저부에 토제를 축조한 후 교호성토(유사판축)법으로 성벽을 축조하였다. 성문은 남문지가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는데, 동쪽과 서쪽의 측벽은 석축하였으며, 바닥은 성내에서 외측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성내에서는 원삼국시대에서 백제시대에 조성된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남성은 북성이 위치한 이성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지봉의 정상부와 남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을 둘러싼 사모봉형의 토축산성이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성 741m, 외성 1,052m, 공유성벽 191m로 공유성벽을 제외한 전체 둘레는 1,411m이다. 남성은 5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벽의 축조방법, 남문지와 북동문지, 서문의 구조 등이 밝혀졌다. 먼저 성벽은 기반을 정지한 후 외측에 반원형의 토제를 축조한 후 이를 기초로 4~5차례의 성토공정을 통하여 토루를 조성하였다. 남문은 측벽을 석축한 것으로 내측 모서리가 곡면으로 처리되었다. 조사결과 1차 이상 수축이 이루어졌으며, 지형상 개구부 바닥으로 성내의 우수가 배수되는 구조이다. 북동문지는 개구부 바닥과 측벽을 모두 석축하였다. 서문은 내성과 외성의 연결부에 어긋문 형식으로 마련하였다. 최근 내성의 북쪽 계곡부 성벽에서 석축으로 마련된 배수시설이 확인되었다.

추성산성의 남성과 북성은 성벽의 축조방법과 성내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한성백제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성백제의 청주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산성으로 추정된다.

(8) 청주 우암산성⁵³

우암산성은 청주시의 동쪽에 우뚝 솟은 우암산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4중으로 축조된 산성이다. 크게 내성과 외성, 당산토성으로 구분되며, 내성은 다시 제1곽, 제2곽, 제3곽으로 각각 구분된다. 성벽의 둘레는 내성 1곽 1,452m, 내성 2곽 1,889m, 내성 3곽 1,052m, 외성 서벽 1,861m, 동벽 2,119m, 남벽 650m이다.

성벽은 내성 1곽에서 석축성벽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성벽은 성토법, 판축법, 삭토법 등 다양한 공법이 적용되어 성벽이 축조된 시기에 차이가 있다. 성벽의 축조방법과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내성의 제1곽이 삼국시대 가장 먼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고려시대에 문헌기록에 보이는 청주성과 청주나성의 축조와 관련하여 나머지 성들이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9) 청주 남성골산성⁵⁴

남성골산성은 세종특별자치시 부용면 남성골 일대 해발 106m의 야산에 축조된 목책성이다. 금강의 북안 낮은 구릉성 산지의 정상부와 남쪽사면에 내·외곽을 이중으로 목책을 두르고, 능선부는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능선을 횡단하는 4개의 호를 시설하였다. 성벽의 회절부에 치를 배치하였으며, 정상부의 동문지에는 석축벽체가 남아 있어 목책단계에서 석축단계로 이행하는 성곽축조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성내에는 목곽고, 저장시설과 구들시설을 갖춘 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장동호를 비롯하여 고구려 토기와 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금제태환이식이 출토되었다.

남성골산성은 5세기 후반 고구려가 한성백제를 함락시키고 금강의 상류지역까지 진출하여 일정기간 성을 축조하고 군사를 주둔시켰던 거점성⁵⁵으로 밝혀졌다.

52 忠清大學博物館, 1997, 『曾坪 二城山城』.
中原文化財研究院, 2011, 『증평 이성산성 I -南城 南水門址-』.
中原文化財研究院, 2012, 『증평 이성산성 II -北東門址』.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曾坪 二城山城 III -南城 1·2·3次 發掘調査 綜合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14, 『曾坪 柵城山城-4次(北城 1次)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16, 『曾坪 柵城山城-5次(北城 2次)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17, 『曾坪 柵城山城-6次(南城 4次) 發掘調査 報告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7, 『증평 추성산성 7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53 노병식 외, 2010, 『청주를 지켜온 와우산성』, 『청주 와우산』, 국립청주박물관·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5, 『청주 우암산성 I』.

54 忠北大學校博物館, 2004,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55 차용걸, 2003, 『청원 남성골 고구려 성책 유적』, 『성곽학회 창립학술대회』, 한국성곽학회.

박중근, 2016, 『남성골산성의 構造와 性格』, 『韓日 城郭의 새로운 認識』, 한국성곽학회.

3) 금강 유역

(1) 보은 삼년산성⁵⁶

삼년산성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오정산(해발 325m)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서쪽으로 열린 계곡을 둘러싼 것으로 이른바 사방이 높고 중앙이 오목한 고로봉형 지형에 산성을 축조하였다. 삼년산성의 평면형태는 대략 네모꼴을 이루며, 전체 둘레는 1,700m이다.

성벽의 두께는 10~20cm, 길이 40~50cm 크기의 점판암 계통의 판상할석을 수평출눈을 맞추어 정연하게 축조하였고, 성벽의 높이는 지형조건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10~21m, 성벽 상면 너비는 6.6~9.0m로 전체 구간에서 내외협축으로 축조되었다. 성벽의 단면은 북경사를 이루는 첨성대형이며, 성벽 상면에는 타의 구분이 없는 평여장이 시설되었다. 성벽의 외측에는 1~2겹의 기단보축성벽이 축조되었고, 외곽이 곡면을 이루는 곡면치성이 성벽의 회절부와 성문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성문은 동·서·남·북 네 곳에 개설되었는데, 조사결과 북문은 조선시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년산성의 정문인 서문은 개구부 바닥에 석재를 이용한 문틀의 구조가 잘 남아 있다. 그러나 수해로 인한 긴급 조사로 정확한 출토유물, 수·개축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남문은 현문으로 개구부 바닥에서 철제 확쇠가 출토되었으며, 1차례 수축을 거쳐 최종적으로 폐쇄되었다. 동문 또한 현문양식으로 초축된 이후 모두 8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2차문지의 개구부 바닥에서는 성문을 구성하였던 확쇠와 철제 띠, 철정 등이 출토되었으며, 하인방목을 고정하였던 인방석렬이 확인되어 삼국시대 신라산성의 성문구조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다. 수구는 동문지 남쪽 계곡부에 입면 오각형의 형태가 남아 있으며 가장 큰 계곡부인 서쪽에 수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내에서는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2단투창고배편을 비롯하여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토기편과 기와편, 자기편이 수습되고 있고 삼년산성 주변의 능선부를 중심으로 5세기 후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⁵⁷.

56 報恩郡, 1979, 『報恩 三年山城 基礎調査 報告書』.
忠清北道 報恩郡, 1984, 『三年山城 西門址 調査概報』.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 『三年山城-추정연못터 및 수구지 발굴조사 보고서』.
報恩郡, 1987, 『三年山城-城壁構造 및 西北雉 調査概報-』.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5, 『報恩 三年山城 -2003年度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6, 『報恩 三年山城 -2004年度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報恩 三年山城 -2005年度 蛾眉池 整備區域 內 發掘調査-』.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報恩 三年山城 -2006年度 內側 城壁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報恩 三年山城 -南門址 內側 및 西南曲城 發掘調査-』.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報恩 三年山城 -東門址 2次 發掘調査 報告書-』.

57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보은 삼년산성 고분군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2) 옥천 이성산성⁵⁸

이성산성은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의 보청천 강변 해발 115~155m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삼년산성과 함께 개축되었다고 기록된 굴산성으로 비정되는 산성이다. 성벽은 자연지형을 따라 축조하여 구불구불한 부정형이며, 전체 둘레는 1,140m이다.

성벽은 목주를 80~90cm 간격으로 비교적 촘촘하게 각재를 세운 후 중심토루를 축조하였고, 내·외측에 외피토루를 부가하였다. 성벽의 너비는 15m, 높이는 3.5m 정도이다. 성벽은 2차례 정도 개축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외측의 토루를 잘라내고 석축을 덧붙였다.

성내에서는 고배편, 뚜껑편, 완편, 선문 기와편 등이 수습되며, 중심토루에서 2단투창고배가 출토되고, 개축과정에서 폐기된 수혈유구 내부에서 단각고배편, 인화문토기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초축은 5세기 중후반, 개축은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58 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옥천 산계리 굴산성(이성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沃川 已城山城』.

3. 충북지역 성곽유산의 특징 -고대 석축산성을 중심으로-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유산은 모두 227개소이다. 지역적인 분포는 남한강 본류와 지류 72개소, 미호천 유역 47개소, 미호천을 제외한 금강본류와 지류에 108개소이다.

전체 227개 산성의 정확한 축성시기는 아직까지 불명확하지만, 정밀 지표 및 시·발굴조사와 광역지표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성곽은 대략적인 축조시기와 경영시기가 파악된다. 대략적인 축성시기가 파악된 산성중에서 삼국시대 축성이 170여개소, 고려시대 이후 축성이 39개소로 파악⁵⁹되고 있다. 이렇듯 충북지역에 고대산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남한강과 금강이 삼국의 최대 쟁패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대산성은 남한강수로와 금강수로, 이와 연결된 육상교통로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고구려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밝혀진 남성골산성은 목책성으로 대전의 월평동유적과 함께 장수왕대 고구려의 금강유역 진출을 알려주는 중요한 산성유적이다. 남성골산성으로 제외하고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대성곽은 백제와 신라에 의해 축성되었다. 충북지역 고대성곽 중에서 백제에 의해 축성된 대표적인 성곽은 남한강 유역의 탄금대토성, 장미산성, 서부리토성, 다락산성, 미호천 유역의 망이산성 내성, 대모산성, 추성산성, 정북동토성 등이다. 신라의 대표적인 성곽은 남한강 유역의 온달산성, 적성산성, 충주 남산성, 미호천 유역의 부모산성, 금강유역의 삼년산성, 양성산성, 옥천 이성산성, 황간읍성 등이다. 초축국가에 이견⁶⁰이 있는 장미산성을 제외하고 백제의 경우 토성 중심이며, 이에 반해 신라의 경우 석축산성의 비중이 높다.

고대성곽의 분포양상은 한성백제가 남한강 수로를 이용한 충북 북부지역의 진출양상, 미호천 상류를 통한 청주지역 진출양상을 잘 보여주며, 신라의 경우 5세기 후반, 추풍령과 화령을 통한 금강 상류지역 진출, 6세기 중엽 이후 죽령 및 계림령을 통한 한강유역 진출과 영역화 과정을 보여주는 분포양상이다. 한편 금강 유역인 부용면과 옥천 및 영동군에는 규모가 작은 보루가 산줄기를 따라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대전 동부지역까지 동일한 양상으로 이어지는데, 관산성 전투 이후 삼국통일기까지 금강 상류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신라

와 백제의 치열한 공방전을 알려주고 있다. 더불어 청주 부모산성은 신라에 의해 초축되고, 백제에 의해 개축되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문헌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백제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충북지역에 가장 많은 성곽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정밀발굴조사를 통하여 성벽의 구조와 성문 및 저수지 등의 현황이 밝혀진 고대 석축산성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피도록 하겠다.

1) 석축성벽의 구조

(1) 석축성벽 기저부 조성방법

석축산성의 기저부 조성은 5가지 방법이 확인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성벽이 통과하는 지점을 ‘L’자상 또는 계단식으로 굴착한 후 기반토가 노출되는 구간의 조성방법으로 성벽의 최하단석이 놓이는 자리를 턱을 이루도록 굴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성벽의 최하단석이 밖으로 밀리는 문제를 방지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다.

두 번째 방법은 기반토가 아닌 암반이 노출되는 구간에서 확인된다. 성벽통과 지점에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 암반을 제거하지 않고 성벽을 암반 위에 그대로 축조하였다. 특히 성벽이 통과하는 지점을 암반에서 턱이 있는 지점을 선택하거나, 암반을 그랭이하여 성벽의 최하단석이 밖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기반토가 노출되는 구간의 기저부 조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다.⁶¹

세 번째 방법은 능선을 통과하는 지점의 지반이 연약한 구간에서 확인된다. 지반이 연약한 구간은 산자갈이 포함된 잡석과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성벽의 최하단석이 놓이는 위치까지 다져 정지한 후 성벽을 축조하였다.

네 번째로 계곡부를 통과하는 지점의 기저부 조성방법이다. 문경 고모산성의 서쪽 성벽 계곡부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확인된 방법으로 뿔층 위로 비교적 큰 석재와 목재 등을 비교적 영성하게 채운 후 그 위로 체성벽을 축조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성벽 하부에 영성하게 채운 석재 사이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배수될 수 있는 구조로서 계곡부 성벽을 수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충북지역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삼년산성 동쪽과 서쪽 계곡부 성벽 등 곡부를 통과하는 성벽이 이와 같은 기저부 조성방법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1 두 번째 기저부 조성방법인 암반에 턱을 주어 성돌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백제산성의 대표적인 기저부 조성방법으로 주장되기도 하였다.(김호준, 2007, 『한성 백제시대 산성 축조방법에 대하여』, 『학예지』 14,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pp.20~23)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고구려에서는 착암기초법으로 고구려의 기저부 조성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서길수, 1999, 『고구려 축성법 연구(1)』, 『고구려산성과 방어체계』, 고구려연구회). 또한 삼년산성과 온달산성, 충주 남산성 등 대표적인 신라 석축산성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삼국 공통의 기저부 조성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9 김호준, 2013, 『美湖川 中上流의 百濟土城 現況과 特徵』, 『百濟學報』 10, 百濟學會.

60 고구려축성설과 백제축성설이 있다.



① 삼년산성



② 삼년산성



③ 충주 남산성



④ 삼년산성



⑤ 고모산성



⑥ 충주 남산성



⑦ 양성산성



⑧ 온달산성

사진 1. 성벽 기저부 조성방법

마지막으로 기단보강석축을 축조한 후 체성벽을 축조하는 방법이다. 기단보강석축이 확인되고 있는 산성은 양성산성과 충주 남산성, 온달산성이 대표적이다. 이 방법은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 암반과 암반 사이가 떨어져 있어 기저부가 불안정한 지형 등 곧바로 체성벽을 축조하기 어려운 지점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기단보축성벽과 차이점은 기단보축성벽이 체성벽과 분리되어 있는 반면 기단보강석축은 체성벽과 맞물려 있는 구조라는 점이며, 또한 성벽의 기울기가 기단보강석축의 경우 체성벽의 기울기와 동일한 반면 기단보축성벽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2) 성벽 축조방법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삼국시대 석축산성의 체성벽 축조는 편축법과 협축법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 내외협축 성벽은 내측과 외측성벽이 기저부로부터 동시에 축조하기 시작하여 전체적인 성벽이 사다리꼴을 이루도록 축조하는 방법이다. 성벽이 계곡부를 통과하는 지점에 주로 적용되는 기법이다. 삼년산성 동쪽 수구 주변의 계곡부 성벽, 남문지 북쪽 계곡부 성벽⁶² 온달산성 북쪽성벽 등이 대표적이다. 내외협축 성벽은 성벽의 상단부가 대부분 지표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편축기법은 외벽만을 축조하고 별도의 내벽을 축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로 능선부를 통과하는 지점에 주로 적용된다. 그러나 편축기법만을 적용하여 축조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하단부는 편축기법, 중단 이상은 협축기법을 적용하여 축성하는 경우가 많다. 능선을 통과하는 석축산성의 대부분이 편축기법과 협축기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축조하고 있다. 기반암을 L자 또는 계단상으로 정지한 후 성벽 기저부로부터 외벽만을 축조하다 일정한 높이에 이르러 내벽을 축조하여 내외협축을 이루도록 하였다.

석축산성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점은 적심시설이다. 적심시설은 삼년산성의 붕괴된 성벽 단면에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성벽은 내·외측 성벽만을 석재로 축조한 것이 아니라 적심 또한 면석과 동일한 석재를 이용하여 내·외측 성벽과 동일한 공정으로 한층 한층 축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벽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너비 20~30cm, 길이 100~150cm에 이르는 심석을 적심 중간 중간에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놓고 있어 성벽의 견고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적심을 면석과 동일한 석재로 井자형으로 축조함으로써 면석이 풍화되어 탈락하여도 성벽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심석을 이용하여 적심하는 방법은 편축성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62 고모산성은 삼년산성과 비슷한 성벽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성으로 5세기 후반 신라의 복진 거점성으로 축조된 산성이다. 삼년산성과 고모산성은 15~20m에 이르는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대표되는데, 이에 대해 축성 당시에는 이보다 작은 규모로 축성된 것이며, 높은 성벽은 통일신라시대 수축된 성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심정보, 2010, 『신라산성의 특징』, 『경주 남산성』, 경주시).

초축국가에 논란이 있는 장미산성의 경우 성벽 적심에 있어 신라 석축산성이 성벽을 축조한 석재와 동일한 석재가 사용된 반면 장미산성은 마치 석재를 채워 넣듯이 축조한 구간이 확인되는 등 적심에 차이⁶³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벽 축조 방법은 이천 설봉산성과 설성산성 등 백제의 초축으로 주장되는 산성의 성벽 축조기법⁶⁴과 닮아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① 삼년산성

② 온달산성



③ 온달산성

④ 충주산성



⑤ 부모산성

⑥ 상당산성

사진 2. 성벽 축조기법

63 국강고고학연구소, 2018, 『忠州 薔微山城』.

64 김호준, 2017,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과 성격』, 『경기도 백제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충북지역에서 신라와 백제의 석축성벽 축조방법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산성은 부모산성이다. 부모산성에 대한 조사 결과 산성은 6세기 중엽 이후 신라에 의해 축성된 후 백제가 수축하여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백제가 수축한 성벽은 서쪽 성벽의 내측 성벽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서문지를 중심으로 초축 성벽의 내측으로 또 다른 내측 성벽을 덧붙인 구조이다. 1차 성벽의 경우 내외협축으로 적심은 모두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반면 내측의 수축성벽은 1차 내측 성벽과의 사이에 토축으로 다진 후 바깥으로만 석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내측 성벽은 내측 선단부가 곡면⁶⁵으로 처리된 서문지 3차문지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문지 3차문지와 주변의 내측성벽은 백제에 의해 수축된 것이라 할 수 있어 신라와 백제 석축 성벽의 축조방법의 차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축성된 것으로 알려진 망이산성 외성은 외벽은 장방형으로 잘 치석된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구간에서 내벽을 축조하지 않고 내탁공법으로 축조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들어 성벽축조 기법이 변화된 양상을 알려준다.

(3) 기단보축성벽

기단보축성벽은 양주 대모산성의 북문지 외측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이래 삼국시대 신라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산성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현문식 성문구조와 함께 신라산성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벽구조물로 인식⁶⁶되어 왔다.

기단보축성벽은 개별 성곽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성벽 전체 구간의 외측성벽 하단부에 축조된 산성(삼년산성)과 일부 계곡부와 성문 주변 등에서만 확인되는 경우(충주 남산성, 온달산성, 부모산성 1차 보축 등)로 구분된다. 또한 성벽의 면적에 비해 입면이 부정형을 이루는 석재의 사선으로 채석된 모서리를 맞추어 들여쌓기 없이 축조하는 방법(삼년산성, 충주 남산성, 양성산성 등)과 성벽에 사용된 성돌과 비슷한 장방형의 석재를 이용하여 5~10cm 정도씩 들여쌓기하여 축조하는 방법(대모산성 북쪽 성벽 구간, 부모산성 북문지 부근 구간)으로 구분되며, 단면형태는 삼각형과 부채꼴의 장방형으로 구분⁶⁷된다.

65 車勇杰, 2008, 『韓國 古代山城 城門構造의 變化』, 『中原文化財研究』 2, 中原文化財研究院.

66 기단보축성벽이 고구려의 굽다리식 기법에서 채용된 것으로 신라산성의 특징이 아니라 삼국이 공히 사용된 기법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 신라산성의 특징으로 인식하는 대표적인 논고로 박종익, 1993, 『삼국시대 산성에 대한 일고찰』,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5, 『성곽유산을 통해 본 신라의 한강유역진출』, 『기전고고』 5, 기전문화재단연구원 ; 차용걸, 2008, 『신라 석축 산성의 성립과 특징』, 『석당논총』 41,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 심광주, 2012, 『양주 대모산성의 축조방법과 축성시기』, 『양주 대모산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전문가 학술회의』, 한림대학교 박물관 ; 2013, 『청주 부모산성과 주변 보루의 축성기법』,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 2013, 『축성기법을 통해본 대전리산성과 그 주변 성곽의 역사적 위상』, 『대전리산성, 매초성인가』, 경기문화재단 등이 있으며, 삼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기법이라는 대표적인 논고는 심정보, 1999, 『고구려 산성과 백제산성과의 비교검토』, 『고구려 산성과 방어체계』, 제5회 고구려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고구려연구회 ; 2004, 『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 2010, 『신라산성의 특징』, 『경주 남산성』, 경주시 ; 조효식, 2005, 『낙동강중류역 삼국시대 성곽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67 안성현은 경남지역 성곽의 기단보축성벽을 연구한 결과 단면 삼각형은 6세기 초반에서 8세기, 단면 방형 내지 장방형은 6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까지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안성현, 2007, 『경남지역 고대 석축산성 축조기법에 관한 연구-기단보축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11, 한국성곽학회).



① 삼년산성

② 삼년산성



③ 부모산성

④ 온달산성



⑤ 충주 남산성

⑥ 양성산성

사진 3. 기단보축성벽 모습

기단보축성벽의 구조가 가장 남아 있는 산성은 삼년산성이다. 삼년산성의 기단보축은 외측 성벽 하단부에 1겹으로 축조된 구간과 2겹으로 축조된 구간으로 구분된다. 2겹으로 축조된 구간은 남쪽 성벽 계곡부와 서남곡성에서 확인되고 있다. 조사결과 서남곡성의 경우 2번째 보축성벽이 남쪽 성벽의 첫 번째 보축성벽과 이어지고 있어 곡성의 체성벽을 축조한 후 동시에 2겹의 보축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남쪽 성벽의 계곡부에서 확인되는 2번째 보축성벽은 서남곡성 주변의 성벽이 무너진 후 1차 보축성벽에 덧붙여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단보축성벽의 규모는 구간마다 일정하지 않으며, 계곡부를 지나는 성벽 하부의 기단보축성벽을 높게 축조하고 있다. 기단보축성벽은 체성벽 높이의 약 1/3 정도 높이까지 단면 삼각형으로 축조되었다.

이후 6세기 중반 이후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온달산성, 적성산성, 충주 남산성 등에서는 성벽 전체 구간에서 기단보축성벽이 확인되지 않고 곡부와 문지 등 일부 구간에 한정하여 기단보축성벽이 확인되는 예가 많으며, 규모가 삼년산성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다. 또한 기단보축성벽의 적심을 삼년산성과 고모산성의 경우 모두 석재를 이용하여 채우는 반면 6세기 중엽 이후에 축조된 산성의 기단보축성벽의 경우 온달산성과 같이 점토와 부정형의 석재로 채우기도 한다.

한편 충주 남산성 남문지 주변에서 확인된 기단보축성벽은 체성벽의 수축단계에서 새로이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일부구간에만 기단보축성벽이 축성된 산성의 경우 기단보축성벽의 축조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치성과 적대

치성은 일반적으로 성벽에 접근한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일반적으로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성벽을 돌출시킨 구조물을 말한다. 이러한 성곽 방어시설인 치성은 고구려·백제·신라 산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삼년산성에서 곡면치성, 온달산성에서 방형치성, 장미산성과 남성골산성에서 목책치성이 확인되었다.

곡면치성은 삼년산성을 비롯하여 고모산성⁶⁸·명활성⁶⁹·정양산성⁷⁰·여주 파사성⁷¹·계족산성⁷² 등 신라에 의해 축성된 산성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독특한 구조물이다. 삼년산성에는 성문과 성벽이 회절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모두 9개소에서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곡면치성은 체성벽 및 기단보축성벽이 결구된 양상으로 확인되어 산성의 초축시에 체성벽과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삼년산성의 곡성은 한쪽은 체성벽과 결구된 반면 한쪽은 결구되지 않아 성벽 축성의 공사단위로 추정된 바 있다⁷³.

5세기 후반에 삼년산성과 고모산성에서 축조되기 시작한 곡면치성은 이후 정양산성에서 확인되듯 모서리가 말각으로 처리된 방형치성, 모서리가 직각으로 처리된 방형치성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즉, 정양산성에서는 모서리가 말각으로 처리된 치성이 곡성이 붕괴된 위에 축조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온달산성의 경우 치성의 체성은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나 외측 하단부의 기단보축성벽의 모서리가 곡면을 이루고 있어 곡성으로부터 변화된 양상임을 알 수 있다⁷⁴.

68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聞慶 姑母山城 1-南門·南東曲城 發掘調査』.

69 계림문화재연구원, 2017, 『명활성』.

70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영월 정양산성 II』.

71 한성문화재연구원, 2018, 『驪州 婆娑城 IV』.

72 중원문화재연구원, 2016, 『대전 계족산성 곡성부 발굴조사 현장설명자료』.

73 조순홍, 2007, 『보은 삼년산성의 곡성 축조방법 검토』, 『충북사학』 19, 충북대학교 사학회.

74 차용걸, 2009, 『삼년산성 곡성형식 비교연구』, 『인문학지』 38,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최관호, 2016, 『5세기 후반 신라 북진거점 석축산성의 구조와 성격』,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① 삼년산성 곡성

② 삼년산성 곡성



③ 온달산성 치성

④ 삼년산성 적대

사진 4. 치성과 적대

성벽의 한쪽만을 직각으로 돌출시켜 적대를 마련한 것은 삼년산성 동문지 북쪽 회절부와 고모산성 남문지 서쪽 회절부 성벽에서 확인된다. 삼년산성의 동문지 적대는 당초 성벽 외측으로 크게 돌출되어 있어 곡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조사 결과 성벽이 직각을 이루는 적대 시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적대 시설은 치성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성에서 한쪽만을 직각으로 돌출시킨 적대시설은 확인된 바 없다. 한편 이 적대시설의 체성부는 직각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하단부의 기반보축성벽은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어 온달산성의 북쪽 치성과의 연관성을 짐작케 한다.

(5) 여장시설

석축산성에서 여장시설은 1986년 충주 남산성 북쪽성벽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충주 남산성 동쪽성벽과 남쪽성벽, 삼년산성 동쪽성벽, 남쪽성벽에서 조사 예가 증가하고 있다. 충주 남산성에서 확인된 여장시설은 체성벽 상면을 두께가 일정한 판석을 성내측으로 약간 경사지도록 놓아 편평하게 마무리한 후 성벽 외측 체성벽에서 미석 없이 동일한 크기의 성돌을 이용하여 여장의 외벽을 축조하였다. 내벽은 외벽에 비해 비교적 작은 석재로 축조하였다. 타의 구분이 없는 평여장이다. 여장의 규모는 너비 100~115cm, 잔존 높이 70~80cm이다. 잔존 높이가 최대 80cm에 불과하나 여장의 중상단부에서 수축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여장의 높이는 100cm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년산성에서 조사된 여장시설은 충주 남산성과 같이 미석이 없으며, 타의 구분이 없는 평여장으로 규모는 너비 100~110cm, 잔존 높이 40~80cm로 확인되어 충주 남산성의 여장시설과 규모와 형식에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⁷⁵.



① 충주 남산성

② 충주 남산성



③ 삼년산성

④ 삼년산성

사진 5. 여장시설

여장시설은 최근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전반에 신라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알려진 영월 정양산성에서도 동일한 구조의 여장이 확인⁷⁶되었다. 따라서 신라에 의해 축조된 산성은 체성벽의 축조를 마무리한 후 성벽 상면의 외연을 따라 평여장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75 삼년산성 수구지 부근의 성벽에서 확인된 여장시설에 대하여 수구를 비롯한 주변 성벽이 통일신라시대 수축된 성벽으로 성벽 상면에 시설된 여장 또한 삼국시대가 아니라 통일신라시대라는 견해(심정보, 2010, 『신라 산성의 특징』, 『경주 남산신성』, 경주시)가 있으나 동일한 구조의 여장시설이 동문지 북쪽성벽, 남문지 동쪽성벽에서 확인되고 있어 삼년산성의 여장시설은 초축 당시에 성벽과 함께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6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영월 정양산성 II』.

2) 성문의 구조

지금까지 충북지역에서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고대산성의 성문은 삼년산성 서문지⁷⁷와 망이산성 서문지, 남동문지⁷⁸를 제외하고 모두 현문식이 확인되었다. 현문식의 성문구조⁷⁹는 외측 성벽 하단부의 기단보축성벽과 함께 신라 석축산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거론되어 왔다. 현문은 체성벽을 일정한 높이까지 축조한 후 성문의 개구부를 마련하는 성문의 형식으로 통행을 위해서는 사다리나 조교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문식 성문의 구조는 통행의 편리함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구조로 이해되고 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진 삼년산성과 고모산성·정양산성의 현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문이 설치되는 높이는 성벽 높이의 약 1/2지점 이상에 개구부를 개설하여 성내로의 통행이라는 측면과 산성의 방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통행과 방어에 적합한 위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⁸⁰.

한편 삼년산성 남문과 동문, 부모산성 북문, 충주 남산성 북문에서 확쇠와 성문결구용 철정, 부모산성 서문, 온달산성 북문에서 철정이 출토되었다. 충북지역 외에서는 고모산성 서문⁸¹과 대모산성 동문⁸² 경주 명활성 북문⁸³ 출토품이 있다. 확쇠는 성문의 회전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 출토지점에 따라 개구부내 성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5세기 후반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진 삼년산성 남문과 고모산성 서문의 경우 개구부의 외측으로부터 2/5지점에서 출토된 반면 개축된 삼년산성 동문 2차 문지를 비롯하여 충주 남산성 북문, 대모산성 동문 등은 개구부의 외측으로부터 4/5 지점으로 이동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문 위치의 이동은 개구부에서 성문에 이르는 공간에 호구를 마련하여 보다 방어에 유리하게 변화된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성문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통하여 성문 바닥의 하인방목을 고정하였던 하인방석렬이 확인되고 있다. 삼년산성 동문 2차문지, 청주 부모산성 서문, 충주 남산성 남문 2차문지에서 확인된 인방석렬은 삼국시대 현문식 성문의 성문구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77 忠淸北道·報恩郡, 1980, 『三年山城 西門址 調査概報-1980年度-』. 삼년산성 서문지의 경우 80년 발굴조사를 통하여 석재를 결구한 하인방석 등이 확인되고 문지방석에 수레흔이 확인됨에 따라 개거식의 성문구조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하인방석의 구조와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개축된 성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세하게 검토하겠다.

78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79 현문식 성문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최근 차용결은 문헌기록을 검토하여 개거식의 경우에도 현문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입면 꺾자형의 개구부를 가진 성문을 현문이라 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문이란 개구부의 구조가 아닌 문구부의 여닫는 성문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하였다(차용결, 2012, 『신라 산성의 현문식 성문구조』, 『한국성곽학회』 21, 한국성곽학회). 타당한 지적이나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입면 꺾자형의 성문에 적당한 용어가 논의된 바 없고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80 최관호, 2016, 위의 논문, pp.29~32.

81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문경 고모산성 2차 발굴조사 완료약보고서』.

82 翰林大學校 博物館, 2002, 『양주 대모산성』.

83 계림문화재연구원, 2017, 『명활성』.



① 삼년산성 동문



② 삼년산성 동문 세부



③ 삼년산성 남문



④ 충주 남산성 동문



⑤ 충주 남산성 북문



⑥ 부모산성 북문



⑦ 온달산성 북문



⑧ 온달산성 동문

사진 6. 현문식 구조의 성문

이러한 신라 석축산성의 현문식 구조 성문에 대하여 차용결은 성문 내측의 내용벽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즉, 내측에 내용벽 시설이 없는 삼년산성 남문 및 고모산성의 서문 유형 및 고모산성 남문과 충주 남산성 북문처럼 현문 양식으로 문도 내측에 성문의 문도로 들어오면서 가로막히는 내용벽을 가지는 구조, 충주 남산성의 동문처럼 개구부 양측 측벽 내측 양단과 내용성을 연결한 폐쇄구조로 분류하고 있다⁸⁴. 내용벽의 기능은 일종의 내용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설물로 성내 진입을 감시하고 방어할 수 있다. 또한 충주 남산성 동문처럼 양쪽의 내용벽을 연결한 폐쇄구조를 가진 경우 성내 통행은 더욱 어렵게 된다.

기본적으로 충북지역에서 조사된 성문은 일부 개거식의 성문이 존재하기는 하나 통행보다는 방어에 중점을 둔 현문식의 성문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성 내측으로 내용벽을 시설하고 성문을 개구부의 내측에 위치시킴으로써 방어력을 극대화한 성문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3) 배수 및 집수시설

성내에서 식수원을 비롯한 용수를 확보하는 것과 집중호우 등 성내로 유입된 우수를 배수하는 시설은 산성을 경영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하겠다. 따라서 산성에서는 다양한 집수시설과 배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성곽유산의 배수시설은 최근 활발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조사예가 증가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배수시설은 성벽 중간부를 통과하는 성벽통과식 수구가 삼년산성 동쪽 성벽, 충주 남산성 동쪽 성벽, 온달산성 북쪽 성벽, 부모산성 북쪽 성벽, 양성산성 동쪽 성벽, 망이산성에서 확인되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엽의 신라 북진기의 산성에서 확인되는 수구는 모두 성벽통과식 수구로 입수구와 출수구의 높이 차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성내의 유수가 배수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하여 망이산성에서 확인된 수구는 입수구와 출수구의 높이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통일신라 말에 이르면 성벽의 축조 양상의 변화와 함께 수구의 구조도 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집수시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⁸⁵를 통하여 보면 신라 석축산성의 집수시설

은 평면 원형, 단면 계단형에서 평면 방형 내지 장방형, 단면 사선형으로 변화하며, 계단형의 평면원형 집수시설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 초기, 사선형의 평면 방형 내지 장방형의 집수시설은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말기까지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충주 남산성, 부모산성, 온달산성, 망이산성 등에서 집수시설이 조사된 바 있다. 삼국시대 집수시설은 평면원형 내지 다각형으로 단면은 계단상을 이루고 있으며, 온달산성에서 확인된 집수시설은 평면 방형으로 단면은 사선형이다. 이에 비해 망이산성에서 확인된 집수시설은 장방형으로 벽면의 축조기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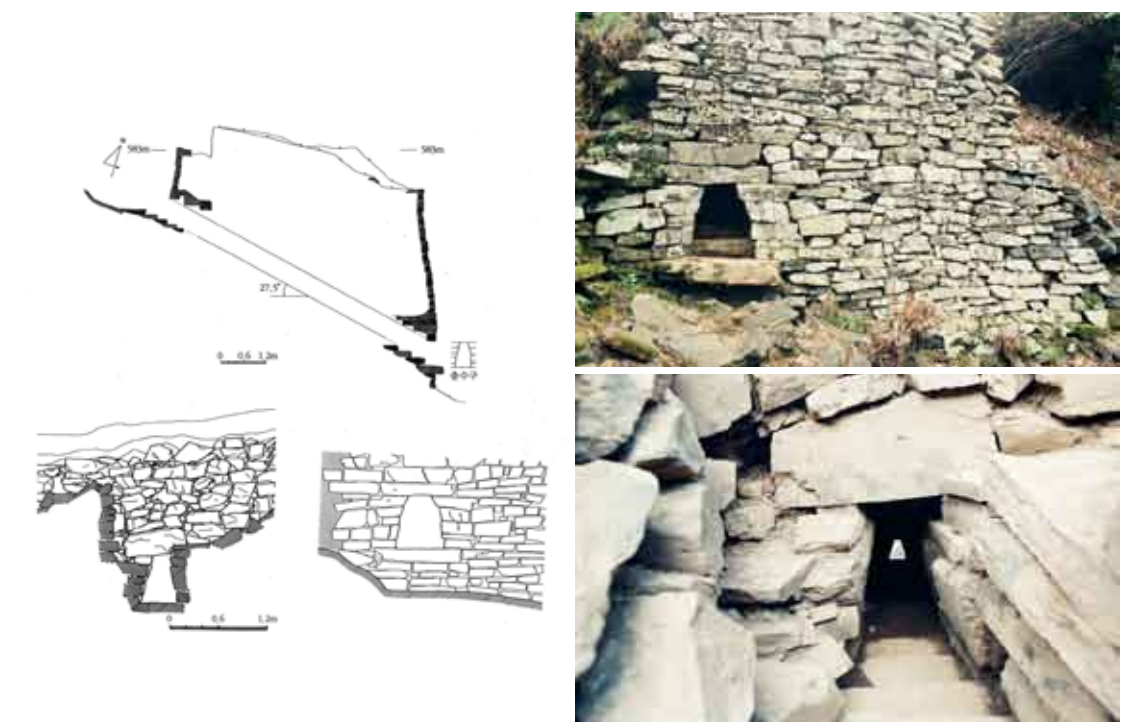


사진 7. 충주 남산성 성벽통과식 수구



사진 8. 성내 저수시설(충주 남산성, 단양 온달산성)

최병화, 2010, 「백제산성 용수시설에 대한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69, 한국상고사학회.
전혁기, 2017, 「고대 성곽 집수시설의 성격과 변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4 車勇杰, 2008, 「韓國 古代山城 城門構造의 變化」, 『中原文化財研究』 2, 中原文化財研究院.

85 삼국시대 집수시설에 대한 연구가 참고 된다.

김윤아, 2007, 「고대산성의 집수시설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승연, 2007, 「신라 산성지의 기능과 전개」, 『경문논총』 창간호, 경남문화재연구원.

이재욱·토전순자, 2007, 「대전 계족산성 저수지의 구조」, 『백제연구』 4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정인태, 2009, 「삼국·통일신라시대 산성 집수지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호, 2009, 「백제 집수시설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충청북도 지역 성곽유산의 보존·정비방향

성곽유산은 고분자료와 함께 고대국가의 영역확장과정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고고유적이며, 국난극복의 상징물이다. 특히 성곽유산은 영역확장과정은 물론 당대의 방어체계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이다. 충청지역은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축조된 성곽이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다.

성곽유산은 다른 문화유산과 달리 지상에 거대한 형적을 남기고 있어 우리에게 역사교육의 장이 되며, 현재 문화재 향유의 주요한 대상이다. 나아가 원형을 보존하여 후손들에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요구에 의하여 성곽유산에 대한 정비·복원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대상 성곽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정비·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한다. 본 장에서는 그동안의 정비·복원의 문제점⁸⁶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의 성곽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비지정 성곽유산의 보존대책 수립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 비지정 성곽유산에 대한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충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유산 중에서 국가사적 및 명승,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성곽은 모두 20개소이다. 이중 명승을 포함하여 국가사적은 9개소로 삼년산성(제235호)을 비롯하여 온달산성(제264호), 적성산성(제265호), 장미산성(제400호), 상당산성(제212호), 정북동토성(제415호), 미륵산성(제401호), 증평 추성산성(제527호)이며, 탄금대토성이 위치하고 있는 탄금대 전체가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성곽은 제천 덕주산성을 비롯하여 11개소⁸⁷이다.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로 지정된 성곽유산은 문화재보호법의 관리를 받고 있고, 성곽의 보존과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훼손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 할 수 있다.

86 중원지역의 성곽유적에 대한 보존·정비의 문제점은 백종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는 비지정 성곽의 훼손, 학술조사 부재인 정비·복원, 관리단체의 이원화 문제, 문화재지정 범위 문제를 지적하였다(白種伍, 2010, 『中原의 城郭遺蹟』, 『중원문화재의 발굴 100년 회고와 전망』, 충주대학교 박물관).

87 남성골산성은 충청북도기념물 제130호로 지정되었으나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20개소의 성곽 외에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비지정 성곽유산의 경우 자연적·인위적인 훼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60~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성벽의 일부가 잘려나간 옥천 삼양리토성을 제외하더라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인위적인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충주 견학리토성은 80년대 초까지 성벽의 일부가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전체 윤곽은 남아 있는 상태⁸⁸였다. 그러나 92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서벽이 모두 훼손되었으며⁸⁹, 다시 2002년 2차 발굴조사 당시에는 북벽과 남벽의 일부가 추가적으로 훼손된 것이 확인⁹⁰되었다. 매곡산성은 1998년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삼국시대 신라에 의해 축조된 산성으로 성벽의 일부가 잘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성내 농경지로 농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성벽을 크게 훼손한 사건⁹¹이 있었다. 이렇듯 정밀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곽의 존재와 성격이 일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지정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훼손에 그대로 방치되기도 하였다.

충주 탄금대토성은 최근 명승으로 승격되었으나, 70~80년대 탄금대가 우록이 가야금을 연주하였던 장소, 임진왜란 당시 신립장군이 배수의 진을 치고 일본군과 일전을 벌였던 전적지로 부각되면서 탄금대에 이와 관련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탄금대토성의 서쪽성벽이 신립장군 순절비각이 건립되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옥천 이성산성은 삼년산성과 함께 개축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굴산성으로 추정되는 산성이다. 최근 정밀지표조사가 진행되어 다행히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성벽을 비롯한 성내 지형에 대한 훼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특히 2011년 성벽에 인접하여 주택신축을 위해 성벽이 훼손되면서 석축성벽이 노출⁹²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축성벽에 덧대어 축조한 석축성벽이 모두 붕괴⁹³되었다.

이외에도 청주 저산성은 성내에 단군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성벽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진천 도당산성은 성내에 산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유신장군의 사당인 길상사가 들어서면서 동벽과 동문지, 수구시설이 파괴되었고, 청주 목령산성은 성내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성내 지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옥천 이원리성은 성벽 주변의 민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성벽의 일부를 파괴한 사례도 있다. 또한 직접적인 훼손은 아니지만 신라가 옥천지역에 진출하여 치소성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산성은 계곡부를 통과하는 서쪽성벽의 바로 아래로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터널이 통과하기도 하였다.

88 車勇杰, 1984, 『方形土城의 二例』,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89 忠北大學校博物館, 1992, 『中原 見鶴里土城』.

90 忠北大學校博物館, 2002, 『忠州 見鶴里土城(II)』.

91 충청일보, 2018.03.19, 『1천500년전 축조된 '매곡산성' 훼손』.

92 옥천신문, 2011.10.07, 『"산계리토성, 또 훼손됐다』.

93 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옥천 산계리 굴산성(이성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① 매곡산성



② 이원리성



③ 이성산성(산계리토성)

사진 9. 비지정 성곽유산의 훼손사례

이처럼 비지정 성곽유산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민간 또는 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훼손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2009.05.22)을 제정하여 지정문화재는 물론 비지정 성곽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및 활용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옥천 이성산성의 훼손사례에서 보듯이 비지정 성곽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보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충북지역 소재 성곽유산의 현황 파악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성곽유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국의 시·군에 대한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작성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산성들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산성의 경우 대부분 광역지표조사를 통하여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산성의 현황 및 성격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산성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관할이 이관된 성곽을 제외하더라도 219개소가 된다. 이중 정밀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를 통하여 성곽의 현황이 파악된 산성은 46개소에 불과하다.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산성은 대부분 도심에서 인접하였거나, 비교적 규모가 큰 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 시군의 재정형편, 시장이나 군수의 관심도에 따라 산성에 대한 조사는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⁹⁴. 일례로 최근 일부 산성에 대한 지표조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도내 가장 많은 분포밀도가 있는 옥천·영동의 경우 최근까지 그 현황이 정확히 파악된 산성은 영동읍성과 황간읍성, 옥천 이성산성에 불과하며, 나머지 산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재정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성곽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별 시군과 도 그리고 국가가 협의하여 재정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재정적으로 개개 산성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몇 개의 산성 또는 군단위, 분포양상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산성을 묶어서 연차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내에서는 제천시의 관내 소재 산성에 대하여 2~3개소의 산성을 묶어 연차적인 지표조사 실시⁹⁵, 청주시 부용면 소재 10개소 산성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⁹⁶ 예가 있으며, 다른 시군의 사례로는 대전광역시에 분포하고 있는 산성에 대한 분포조사⁹⁷, 여주시 소재 성곽에 대한 조사⁹⁸, 신안군에 소재한 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⁹⁹ 등이 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산성에 대하여 각 산성이 가지는 역사적인 중요성과 산성의 규모와 잔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한 산성과 그렇지 않고 그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산성 등을 구분하여 성곽유산의 보존과 정비를 위한 기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94 증평군의 경우 군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추성산성에 대하여 모두 8차에 걸친 정밀발굴조사를 통하여 시도 기념물이었던 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승격시켰으며, 산성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추성산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95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堤川 德周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0, 『堤川 城山城·臥龍山城·吾峙烽燧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4, 『堤川 黃石里山城·齊飛郎山城·大德山城 I 地表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堤川 紺巖山城·鶴城山城·肩支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96 中原文化財研究院, 2005, 『淸原 芙蓉面地域 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97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대전의 산성 분포조사』.

98 大韓文化財研究院, 2014, 『麗水의 關防遺蹟』.

99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7, 『新安郡의 山城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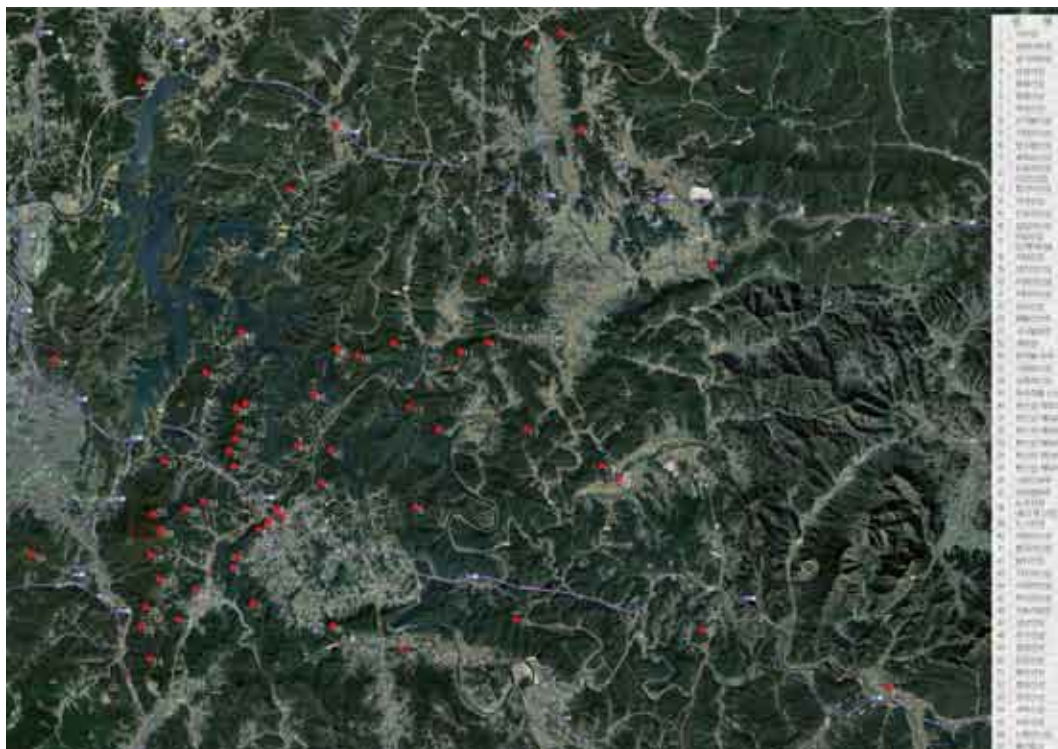


사진 10. 옥천동부지역 산성분포도(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옥천 산계리 굴산성(이성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원색사진 9 전제)

3)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산성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산성에 대해서는 개별산성을 중심으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대상유적의 선정은 유적의 중요성, 접근성, 활용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90년대까지 성곽유산에 대하여 성벽복원을 비롯한 정비사업은 대부분 학술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다. 아무런 고증 없이 진행된 성벽복원은 이질적인 성돌의 문제, 성돌의 치석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또한 전국적으로 복원된 성벽이 붕괴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인 지적이 이어져 성곽유산에 대한 복원·정비에 앞서 개별 산성에 대하여 성벽 축조기법, 성문의 구조, 성내 시설물의 현황 등을 밝히는 발굴조사와 성벽을 비롯한 성내 시설물에 대한 정비, 산성의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충북지역의 경우에도 삼년산성·충주 남산성·덕주산성·추성산성·적성산성·온달산성 등 주요 산성에 대한 장·단기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수립된 종합정비계획대로 실행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충분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점도 있으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주관하는 단체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상이하게 나타나 는 것에서도 기인한다. 즉, 학술단체에서 수립된 정비계획에는 발굴조사 등 학술적인 부분

에 비중을 둔 계획이 수립되는 반면, 건축사사무소 등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복원과 정비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발굴조사기관,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무분별한 성벽복원 지양

무분별한 성벽에 대한 복원이 지양되어야 한다. 최근 주 5일제의 시행 등으로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건강에 대한 의식이 향상, 문화재 향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도심 인근에 인접한 성곽유산이 여가활동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도심 인근과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성곽유산을 중심으로 성벽복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벽을 복원함에 있어 정밀한 발굴조사가 동반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발굴조사 결과가 정확히 복원작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단양 적성산성은 2011년 종합정비계획이 수립¹⁰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 없이 성벽이 지속적으로 복원되고 있으며, 충주산성 동쪽성벽과 북쪽성벽, 온달산성 서쪽성벽의 복원이 대표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무런 고증 없이 복원된 성벽의 적심시설이다. 충북지역 성벽복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삼국시대 산성의 경우 성벽은 편축과 협축기법으로 축조되었다. 협축기법은 물론 편축의 경우에도 성벽의 내·외측 성벽만을 석재로 축조한 것이 아니라 적심 또한 면석과 동일한 석재를 이용하여 내·외측 성벽과 동일한 공정으로 한층 한층 축조하여 성돌이 서로 맞물리도록 하였으며, 중간 중간 길이가 긴 심석을 놓아 성벽의 견고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오랜 시간동안 성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비밀이다. 그러나 복원된 성벽은 붕괴된 성벽의 내측 성벽을 확인도 하지 않을뿐더러 성벽을 사면으로 해체하고 외측 성벽만을 축조한 후 적심은 외측성벽을 축조하고 남은 막돌을 채워 넣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복원된 성벽은 내구성을 상실하고 복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붕괴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단양 온달산성, 적성산성, 충주산성의 복원된 성벽의 붕괴는 모두 이러한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무조건 성벽을 복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성곽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붕괴의 위험이 많지 않은 성벽에 대해서는 탐방로 우회 또는 펜스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100 충주대학교박물관, 2011, 『단양 赤城 종합정비기본계획』.

될 수 있다. 예로 삼년산성의 경우 10~20m에 이르는 거대한 성벽도 커다란 볼거리지만 성벽이 붕괴된 구간의 경우 그 성돌이 거대한 붕괴사면을 이루고 있는 장관도 또 다른 볼거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성벽 복원을 지양하고 성벽 주변의 수목을 제거하여 잔존성벽과 붕괴된 성벽 구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매년 성벽 주변의 잡목제거, 칩 등 덩불만 제거하여도 붕괴된 성벽의 장관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목관리는 더불어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성벽이 파괴되는 현상을 줄여주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5) 관리감독체계의 개선과 강화

성벽 복원의 관리감독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성벽의 복원과정을 보면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발굴조사 결과가 산성의 복원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충주 남산성 동문지의 경우 98년 발굴조사를 통하여 현문식의 성문구조와 폐쇄구조의 내용벽, 그리고 성문 바닥에서 3개의 배수로가 높이를 달리하여 확인되었다. 물론 이들 3개의 배수로는 동시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최소 3차례에 걸친 동문지의 수·개축 과정에서 각각 문지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이다. 1차 배수로는 남쪽 측벽에 인접하여 가장 낮은 위치에서 확인되며, 2차 배수로는 이와 반대로 북쪽 측벽에 인접하여, 그리고 마지막 배수로는 1차와 2차 배수로의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아주 짧게 확인¹⁰¹된 바 있다. 그러나 복원된 배수로는 배수로의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높이도 다르게 복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예는 전국적으로 허다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원구간에 대한 설계심사의 강화와 함께 시공과정에 대한 감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성벽에 대한 복원과정에는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와 이를 감리·감독하는 감리단이 있다. 그런데 감리단의 경우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또 다른 시공업체가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감리단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 중에서 성곽 전공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성벽 복원과정에서 자문위원의 구성에 있어 일부 발굴조사단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성벽복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단 또는 성곽전공자가 상시적인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01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忠州山城 東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5. 맺음말

성곽유산은 고분자료와 함께 고대국가의 영역확장과정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고고유적이며, 국난극복의 상징물이다. 특히 성곽유산은 영역확장과정은 물론 당대의 방어체계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이다. 충북지역은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축조된 성곽이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다.

충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성곽유산은 227개소로 지역별로 남한강유역과 금강유역, 그리고 금강의 최대지류인 미호천유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남한강유역에는 4세기 대 한성백제의 충주지역 진출 및 철생산과 관련된 성곽, 6세기 중엽 이후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을 알려주는 성곽, 고려시대 이후 험준한 산줄기를 중심으로 입보농성을 위한 피난성이 축조되었다. 미호천유역의 성곽유산은 대부분 백제와 신라에 의해 축조되었는데, 한강유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남성골산성은 목책성으로 고구려의 금강 유역 진출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다. 미호천을 제외한 금강본류와 지류에는 신라의 북진정책의 거점인 삼년산성이 있으며, 부강면에서 영동, 옥천 대전 지역에 산줄기를 따라 소규모로 축성된 산성은 삼국시대 말 금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신라와 백제의 치열한 공방을 보여주고 있다.

성곽유산은 다른 문화유산과 달리 지상에 거대한 형적을 남기고 있어 우리에게 역사교육의 장이 되며, 현재 문화재 향유의 주요한 대상이다. 나아가 원형을 보존하여 후손들에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요구에 의하여 성곽유산에 대한 정비·복원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대상 성곽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정비·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한다.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유산에 대한 보존과 정비방향으로 먼저 비지정 성곽유산의 보존대책 수립, 충북지역 소재 성곽유산의 현황 파악, 개별 성곽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이행, 무분별한 성벽복원 지양, 성벽 복원과정의 관리감독체계의 개선과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글에서 지적한 성곽유산의 보존과 정비의 문제점은 비단 충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에 걸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곽전공자를 비롯하여 문화재청 담당자, 지방의 문화재 행정 담당자,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소중한 문화유산인 성곽유산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여야 한다.

강민식·윤대식, 2010, 「충주 견학리 토성과 중부지역의 판축 토성」, 『한국성곽학보』 18, 한국성곽학회.

김진형, 2017, 「영월 정양산성 변천과정 검토」, 『고대성곽의 수축과 개축』, 한국성곽학회.

김호준, 2012, 『高麗 對蒙抗爭期の 築城과 立保』, 忠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_____, 2013, 「美湖川 中上流의 百濟土城 現況과 特徵」, 『百濟學報』 10, 百濟學會.

_____, 2017,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과 성격」, 『경기도 백제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노병식, 2007, 「남한강유역 석축산성군의 성격」,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 선정 학술회의 발표집』, 한국성곽학회.

_____, 2009, 「고려 괴산 미륵산성의 구조와 성격」, 『한국성곽학보』 16, 한국성곽학회.

_____, 2010, 「새로이 찾은 충주지역의 성곽」, 『한국성곽학보』 17, 한국성곽학회.

_____, 2014, 『新羅 國原小京과 西原小京의 防禦施設 變遷』, 忠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_____, 2016, 「음성 수정산성의 성격」, 『한일 성곽의 새로운 인식』, 한국성곽학회.

박종익, 1993, 「삼국시대 산성에 대한 일고찰」,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 2005, 「성곽유산을 통해 본 신라의 한강유역진출」, 『기전고고』 5, 기전문화재연구원

박중균, 2013, 「충주 부모산성 출토 토기」, 『충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_____, 2016, 「남성골산성의 構造와 性格」, 『韓日 城郭의 새로운 認識』, 한국성곽학회.

白種伍, 2010, 「中原의 城郭遺蹟」, 『중원문화재의 발굴 100년 회고와 전망』, 충주대학교 박물관.

서영일, 2008, 「남한강 수로가 중원문화 형성에 미친 영향」, 『중원과 한강』, 충주대학교 박물관.

심광주, 2007, 「중부내륙지역 고대산성의 성격과 특징」,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 선정 학술회의 발표집』, 한국성곽학회.

_____, 2013, 「충주 부모산성과 주변 보루의 축성기법」, 『충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심정보, 2010, 「신라산성의 특징」, 『경주 남산성』, 경주시.

심중훈, 2015, 「충주 호암동토성의 성격과 특징」, 『한국성곽의 최근 조사 성과』, 한국성곽학회.

안성현, 2007, 「경남지역 고대 석축산성 축조기법에 관한 연구-기단보축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11, 한국성곽학회.

梁秉模, 2018, 「三國時代 丹陽 溫達山城의 築造와 運營」, 忠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전혁기, 2017, 「고대 성곽 집수시설의 성격과 변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순흠, 2007, 「보은 삼년산성의 곡성 축조방법 검토」, 『충북사학』 19, 충북대학교 사학회.

_____, 2007, 「금강 상류지역의 산성군과 그 성격」,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 선정 학술회의 발표집』, 한국성곽학회.

_____, 2008, 「충주 탄금대토성 발굴조사 개보」, 『중원문화 정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방향』,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車勇杰, 1984, 「方形土城의 二例」,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_____, 1997, 「高麗末 1290年の 淸州山城에 대한 豫備的 考察」, 『郷土史學論叢』, 修書院.

_____, 2001, 「서원소경의 위치와 구조」,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

_____, 2003, 「서원 남성골 고구려 성책 유적」, 『성곽학회 창립학술대회』, 한국성곽학회.

_____, 2007, 「중부내륙지역 옛 산성군의 성격과 특징의 검토」,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 선정 학술회의 발표집』, 한국성곽학회.

_____, 2008, 「韓國 古代山城 城門構造의 變化」, 『中原文化財研究』 2, 中原文化財研究院.

_____, 2008, 「신라 석축 산성의 성립과 특징」, 『석당논총』 41,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_____, 2008, 「중원지역 성곽 연구의 성과와 과제」, 『중원문화 정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방향』,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_____, 2009, 「삼년산성 곡성형식 비교연구」, 『인문학지』 38,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_____, 2012, 「신라 산성의 현문식 성문구조」, 『한국성곽학보』 21, 한국성곽학회

최관호, 2016, 「5세기 후반 신라 북진거점 석축산성의 구조와 성격」,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沃川 己城山城』.

_____, 2018, 『忠州 薔薇山城』.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14, 『忠州 薔薇山城 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

_____, 1999,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안성 망이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8, 『忠州 虎岩洞 複合遺蹟Ⅴ』.

報恩郡, 1979, 『報恩 三年山城 基礎調査 報告書』.

_____, 1987, 『三年山城-城壁構造 및 西北雉 調査概報』.

詳明大學校 博物館, 1997, 『忠州 大林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3, 『堤川 德周山城 -北門址 東側 城壁 基底部 試掘調査 報告書』.

_____, 2005, 『鎭川 都堂山城-地表·試掘調査 報告書-』.

_____, 2005, 『淸原 芙蓉面地域 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_____, 2006, 『忠州 薔薇山城 -1次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6, 『報恩 三年山城 -2004年度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8, 『報恩 三年山城 -2006年度 內側 城壁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8,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_____, 2008, 『忠州山城 -北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8, 『淸州 父母山城-북문지·수구부 일원-1, 2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_____, 2009, 『忠州 彈琴臺土城Ⅰ』.

_____, 2009, 『報恩 三年山城 -南門址 內側 및 西南曲城 發掘調査-』.

_____, 2009, 『堤川 紺巖山城·鵲城山城·肩支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_____, 2009, 『陰城 望夷山城Ⅰ -충북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1, 『증평 이성산성Ⅰ -南城 南水門址-』.

_____, 2012, 『증평 이성산성Ⅱ -北東門址』.

_____, 2013, 『淸州 井北洞土城Ⅲ-北門址 發掘調査-』.

_____, 2013, 『陰城 望夷山城Ⅱ -충북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3, 『曾坪 二城山城Ⅲ -南城 1·2·3次 發掘調査 綜合報告書-』.

_____, 013, 『報恩 三年山城 -東門址 2次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13, 『淸州 上黨山城 -運籌軒址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14, 『曾坪 柵城山城-4次(北城 1次)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15, 『옥천 산계리 굴산성(이성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_____, 2016, 『曾坪 柵城山城-5次(北城 2次)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16, 『淸州 上黨山城 -北鋪樓址 및 西壁 水口址 發掘調査-』.

_____, 2017, 『曾坪 柵城山城-6次(南城 4次)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18, 『忠州 南山城 -南門址 發掘調査-』.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2, 『陰城 水精山城 試掘調査 報告書』.

_____, 2003, 『水精山城 2次 試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 『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_____, 1982, 『上黨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_____, 1983, 『三年山城-추정연못터 및 수구지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1992, 『中原 薔薇山城』.

_____, 1992, 『中原 見鶴里土城』.



_____, 2002, 『忠州 見鶴里土城(Ⅱ)』.

_____, 2003, 『溫達山城 - 北門址·北雉城·水口 試掘調査 報告書』.

_____, 2004,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_____, 2014, 『清州 父母山城 - 西壁區間 및 母乳井·第1堡壘』.

_____, 2016, 『清州 父母山城 Ⅱ -西壁區間 및 集水址, 第1堡壘, 鶴天山城』.

_____, 2018, 『청주 정북동토성Ⅳ-해자터 발굴조사』.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堤川 德周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_____, 1999, 『忠州山城 東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1999, 『清州 父母山城-地表調査報告書-』.

_____, 1999, 『清州 井北洞土城 I -1997年度 發掘調査報告書』.

_____, 2000, 『堤川 城山城·臥龍山城·吾峙烽燧 地表調査 報告書』.

_____, 2001, 『清原 壤城山城』.

_____, 2002, 『忠州 彈琴臺』.

_____, 2002, 『望夷山城-忠北區間 地表調査 報告書』.

_____, 2002, 『上黨山城』, 『韓國의 近世山城』.

_____, 2002, 『清州 井北洞土城Ⅱ-2000年度 發掘調査報告書』.

_____, 2003, 『薔薇山城 -整備 豫定區間 試掘調査 報告書-』.

_____, 2004, 『堤川 黃石里山城·齊飛郎山城·大德山城 I』.

_____, 2005, 『忠州山城 -東門 南側 貯水池 試·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5, 『報恩 三年山城 -2003年度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5, 『清原 壤城山城 圓池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06, 『堤川 德周山城』.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89, 『丹陽 溫達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_____, 1996, 『槐山 彌勒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_____, 1997, 『上黨山城-西將臺 및 南門外 遺蹟址 調査報告-』.

忠州工業專門大學 博物館, 1984, 『忠州山城 綜合地表調査 報告書』.

_____, 1985, 『忠州山城 및 直洞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忠州産業大學校 博物館, 1995, 『忠州山城 2次 發掘調査報告書』.

_____, 1998, 『陰城 水精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忠清大學博物館, 1997, 『曾坪 二城山城』.

忠清北道·報恩郡, 1980, 『三年山城 西門址 調査概報-1980年度-』.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충주 호암동유적』.

_____, 2013, 『괴산 미륵산성 서문지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4, 『온달산성 - 2012년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6, 『음성 망이산성 -2014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6, 『음성 수정산성-2013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7, 『온달산성 - 2015년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8, 『온달산성 - 2016년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교통대학교 박물관, 2013, 『단양 온달산성 - 서문지 일원 발굴조사 보고서』.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4, 『上黨山城 -城壁補修區間 內 試·發掘調査 報告書』.

한성문화재연구원, 2017, 『단양적성』.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5, 『청주 우암산성 I』.

〈충청북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방향〉에 대한 토론문

노병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성곽은 우리 모두 지켜 나아가야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곽유산에 대한 정비·복원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성곽 유산의 보존·정비방향은 우리나라 성곽유산 관리, 정비·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의 성곽유산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존·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성곽유산 연구현황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역 성곽유산 조사현황을 밝히고, 충북지역 성곽유산의 특징에서 석축성벽의 구조와 성문의 구조·배수 및 집수 시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지역 성곽 유산의 보존·정비방향에서 비지정 성곽 유산의 보존대책 수립, 충청북도 지역 소재 성곽유산의 현황파악,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무분별한 성곽복원 지양, 관리 감독체계의 개선과 강화를 설명해 주시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충청북도 지역의 대표적인 산성에 대한 조사현황과 특징은 특히 우리나라 고대 석축산성의 이해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발표하신 내용에 언급한 성곽의 상당 부분은 보존이라는 명분하에 정비를 마치었거나 정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들 대표적인 성곽 가운데 정비사례를 곁들여 설명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토론을 맡은 입장에서 발표자의 견해에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울러 발표문에서 지적한 성곽유산의 보존과 정비의 문제점은 전국에 걸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존·정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발표하신 주제 가운데 IV장에서 밝힌 성곽 유산의 보존·정비방향을 살펴보면 비지정 성곽 유산의 보존대책수립, 성곽유산의 현황파악은 보존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무분별한 성곽복원 지양, 관리 감독체

계의 개선과 강화는 정비 및 복원의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곽유산에 대해 그 동안의 정비·복원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의 성곽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가장 큰 토론 주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곽유산에 대해 보존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정과 비지정으로 구분하여 지정된 성곽유산은 훼손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 할 수 있고, 비지정 성곽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민간 또는 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훼손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서 비지정 성곽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보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곽유산의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정비가 필요한 산성과 그렇지 않고 그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산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성벽 복원을 지양하고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성벽이 파괴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성벽 주변의 수목을 제거하여 잔존성벽과 붕괴된 성벽 구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시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존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성곽유산의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곽유산은 일부 도시와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거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던 것들이 무분별하게 정비·복원된 것을 제외하면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산속에 입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 비교적 안전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표하신 주제 가운데 보존 및 관리적인 측면은 원론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큰 문제는 정비·복원이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곽유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화재 지정 및 현황파악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보다 정비·복원의 문제점을 더 내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성곽유산의 정비·복원의 문제점을 유발시킨 가장 큰 원인은 대략 언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관련 사례가 있다면 보충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성곽유산의 정비·복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개별 성곽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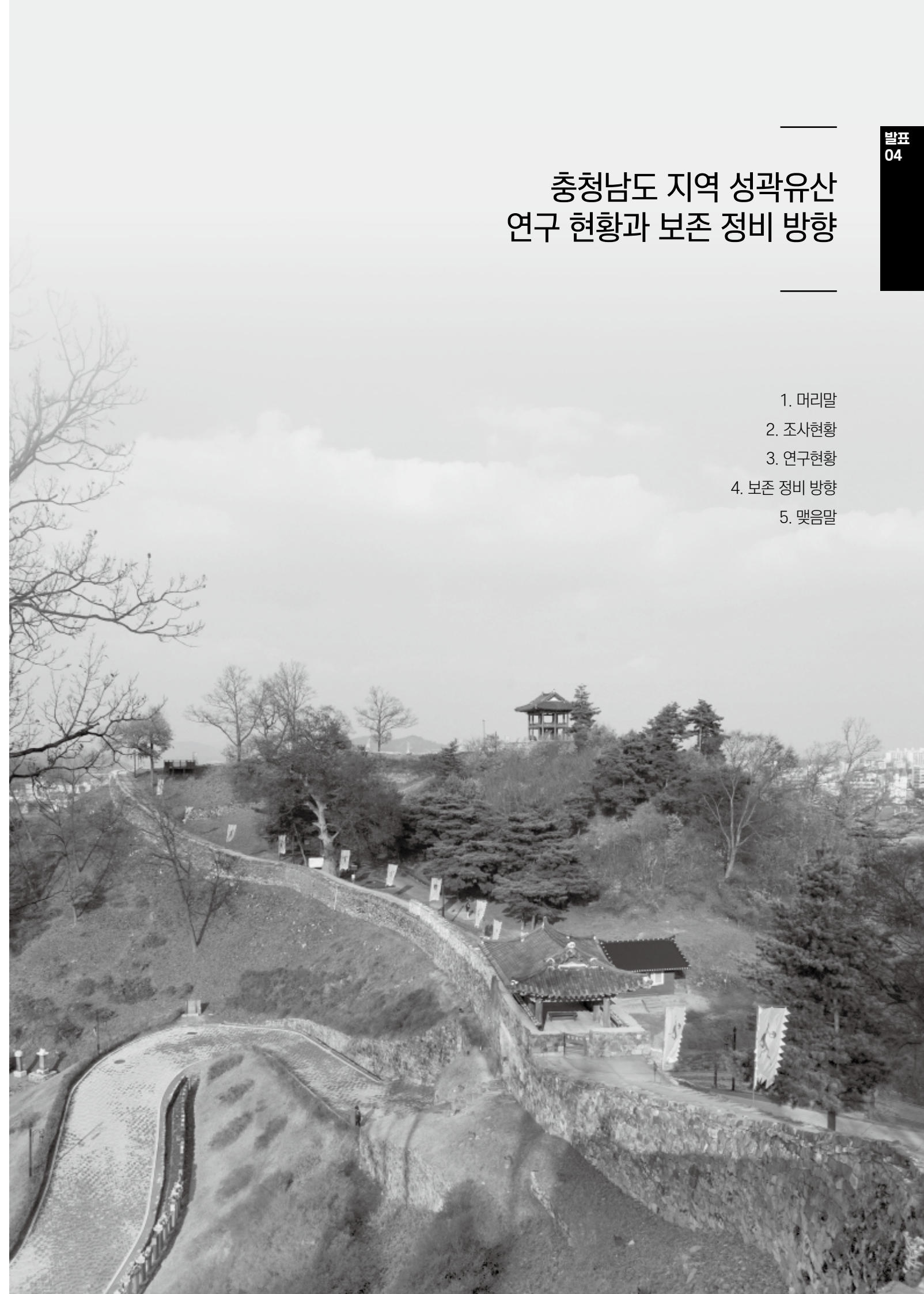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종합정비계획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발굴조사기관·설계사·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성곽 복원을 지양하고, 관리 감독체계의 개선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정비·복원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감독체계의 개선과 강화를 위해 감리단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 중에서 성곽 전공자가 전문인 실정이므로 발굴조사단 또는 성곽전공자가 상시적인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해 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충청남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1. 머리말
2. 조사현황
3. 연구현황
4. 보존 정비 방향
5. 맺음말



충청남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서정석 · 국립공주대학교

IV
충남



1. 머리말

성곽은 고분, 사찰과 더불어 역사를 연구하는 핵심적인 고고학 자료다. 고총·고분과 더불어 고대국가가 성립된 징표라고 알려져 있으며, 고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는 지방통치의 핵심적인 근거지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일찍부터 성곽의 조사와 연구, 그리고 정비와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사실 성곽은 고분이나 사찰과 달리 지상에 드러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성곽의 입지나 축성법, 그리고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굳이 발굴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발굴조사를 거치더라도 최소한의 조사만으로도 축조 시기나 목적, 축성법의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곽 연구 수준은 고분이나 사찰에 비해 여전히 부진한 편이며, 그에 따라 정비·복원 또한 고분이나 사찰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성곽의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충남지역은 백제 웅진기와 사비기의 도읍지가 있던 곳이며, 통일신라 때에는 熊川州(熊州)가 설치되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牧, 조선시대에는 충청 감영이 있던 곳이다. 아울러 서쪽으로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다란 서해안을 끼고 있어 고려시대 이래로 삼남의 조운이 충남 서해안을 지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여말선초에는 왜구가 출몰하는 요충이기도 하였다.¹ 자연히 백제, 통일신라, 조선시대의 성곽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주로 내륙에는 백제~통일신라 때의 성곽이 자리하고 있는 반면에 해안가에는 조선시대 읍성이나 鎭城이 자리하고 있다.²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성곽을 대상으로 연구 성과와 함께 보존 정비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조사현황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지금까지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성곽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전·세종·충남지역 성곽 시(발)굴조사 현황표

번호	지역	시(발)굴조사 된 성곽
1	대전	계족산성, 보문산성, 월평동산성, 구성동토성
2	세종	운주산성, 금이성
3	천안	백석동토성, 동성산성, 위례산성, 목천토성, 사산성
4	아산	신창학성, 기산동토성
5	당진	면천읍성
6	서산	북주산성, 서산읍성, 해미읍성
7	태안	백화산성, 안흥진성
8	예산	임존성, 산성리산성
9	홍성	석성산성, 신금성, 홍주읍성
10	공주	공산성, 옥녀봉산성, 수촌리토성
11	청양	우산성
12	보령	충청 수영성
13	논산	황산성, 노성산성
14	부여	부소산성, 부여 나성, 청마산성, 성흥산성, 석성산성, 대봉산성
15	서천	남산성, 건지산성, 서천읍성, 장암진성
16	금산	백령산성

충남도내 전체에 걸쳐 골고루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역적인 편차는 있어서 6개소의 성곽이 조사된 곳이 있는가 하면 1개소 밖에 조사 사례가 없는 곳도 있다.

아울러 서해안 일대에서는 읍성, 진성 등이 조사된 반면에 내륙에서는 산성이 조사되어 대조를 이룬다. 시기적으로는 고대와 조선시대에 편중되어 있다. 다만 고대 산성의 경우 축조 시기를 놓고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논란이 성곽 문화유산의 연구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9, 「태안군」, 형승조 “海寇往來之衝”.

2 심정보, 1995, 『韓國邑城研究』, 학연문화사.

이 밖에 충남지역은 백제 웅진기와 사비기의 도읍지가 있었던 곳인 만큼 이러한 도읍지를 대상으로 도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⁶

이렇게 충남지역의 성곽 연구는 크게 보면 백제를 중심으로 한 고대 성곽에 대한 연구와 서해 연안의 읍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성곽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고대 성곽에 대한 연구는 충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점점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나 성곽의 수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의 깊이가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남지역의 고대 성곽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조 시기에 대한 의견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백제 성곽이나 신라 성곽이나를 놓고도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진 성곽 연구의 경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원재, 1995,『百濟 加林城 研究』,『百濟論叢』5,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윤무병, 1987,『木川土城の版築工法』,『東アジアと日本』(考古美術編), 吉川弘文館.
- 권태원, 1988,『蛇山城考』,『馬韓百濟文化』11, 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서정석, 1998,『論山 魯城山城에 대한 考察』,『先史와 古代』11, 한국고대학회.
- 서정석, 1999,『泰安 安興鎭城에 대한 一考察』,『역사와 역사교육』3·4합집, 웅진사학회.
- 서정석, 1999,『羅州 會津土城에 대한 再檢討』,『百濟文化』28,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 이남석, 1998,『天安 白石洞土城의 檢討』,『韓國上古史學報』28, 한국상고사학회.
- 이남석, 1999,『禮山 鳳首山城(任存城)의 現況과 特徵』,『百濟文化』28.
- 박순발, 2000,『鷄足山城의 國籍 : 신라인가, 백제인가』,『충청학연구』1집, 한남대 충청학연구센터.
- 성정용·이성준, 2001,『大田 九城洞土城』,『百濟研究』34, 忠南大百濟研究所.
- 박태우, 2006,『월평동산성 성벽 축조 기법과 시기에 대한 검토』,『百濟文化』35.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1,『면천읍성연구』.
- 이한상, 2016,『대전 월평산성의 축성 주체와 위상』,『百濟研究』63.
- 김길식, 2017,『대전 월평산성 출토유물과 점유세력의 변화』,『百濟文化』57.
-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輕部慈恩, 1971,『熊津城考』,『百濟遺跡の研究』, 吉川弘文館.
 - 성주탁, 1980,『百濟 熊津城과 泗沘城研究』,『百濟研究』11, 충남대백제연구소.
 - 홍재선, 1981,『百濟 泗沘城研究』,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주탁, 1982,『百濟 泗沘都城 研究』,『百濟研究』13, 충남대백제연구소.
 - 성주탁, 1984,『百濟 城址 研究』,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주탁, 1997,『百濟 熊津城研究 再叀』,『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 백제연구소.
 - 성주탁, 2000,『泗沘都城과 百濟의 城郭』,『사비도성과 백제의 성곽』, 서경.
 - 田中俊明, 1990,『王都로서의 泗沘城에 대한 豫備的 考察』,『百濟研究』21, 충남대백제연구소.
 - 유원재, 1993,『百濟 熊津城 研究』,『國史館論叢』45, 국사편찬위원회.
 - 윤무병, 1994,『百濟王都 泗沘城 研究』,『學術院論文集』33.
 - 김용민, 1997,『扶蘇山城의 城壁 築造技法 및 變遷에 대한 考察』,『韓國上古史學報』26.
 - 이남석, 1999,『百濟 熊津城인 公山城에 대하여』,『馬韓百濟文化』14,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이남석, 2002,『熊津時代의 百濟考古學』, 서경.
 - 이남석, 2010,『공주 공산성』, 공주대학교 박물관.
 - 박순발, 2000,『泗沘都城의 構造에 대하여』,『百濟研究』31, 충남대백제연구소.
 - 박순발, 2010,『백제의 도성』, 충남대학교출판부.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편, 2000,『사비도성과 백제의 성곽』, 서경문화사.
 - 서정석, 2002,『百濟의 城郭』, 학연문화사.
 - 서정석, 2004,『百濟 泗沘都城의 構造』,『國史館論叢』104.
 - 심정보, 2000,『百濟 泗沘都城의 築造時期에 대하여』,『사비도성과 백제의 성곽』, 서경.
 - 심정보, 2003,『웅진도성의 구조와 방어체제에 대하여』,『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서경.
 - 김대영, 2017,『百濟 熊津城 城郭 築造 過程에 대한 研究』,『先史와 古代』52.
 - 이현숙, 2017,『百濟 熊津城의 構造와 築造時期』,『古文化』89.

3. 연구현황

지금까지 충남지역의 성곽에 대한 연구는 크게 보아 백제 성곽을 중심으로 한 고대 성곽에 대한 연구와 조선시대 읍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읍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축조 시기와 목적, 그 과정이 문헌기록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 그러한 기록과 실제 남아 있는 읍성과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고대 성곽에 대한 연구는 이렇다 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만큼 고고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고대 성곽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연구가 전개되어 왔다. 하나는 충남지역에 분포하는 성곽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³ 다른 하나는 충남지역의 일정지역, 즉 市나 郡 단위별로 분포하는 산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며,⁴ 다른 하나는 개별 성곽 하나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다.⁵

- 이러한 유형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洪思俊, 1971,『百濟城址研究』,『百濟研究』2, 忠南大百濟研究所.
 - 尹武炳·成周鐸, 1977,『百濟山城의 新類型』,『百濟研究』8, 忠南大百濟研究所.
 - 車勇杰, 1988,『百濟의 築城技法』,『百濟研究』19, 忠南大百濟研究所.
 - 徐程錫, 1992,『忠南地域 百濟山城에 關한 一研究』,『百濟文化』22, 公州大百濟文化研究所.
 - 孔錫龜, 1994,『百濟 테피식山城의 型式分類』,『百濟研究』24, 忠南大百濟研究所.
 - 金英心, 2000,『忠南地域의 百濟城郭 研究』,『百濟研究』30, 忠南大百濟研究所.
- 이러한 유형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성주탁, 1974,『大田附近 古代 城址考』,『百濟研究』5, 충남대백제연구소.
 - 성주탁, 1977,『錦山地方城址調査報告書』,『忠南大人文科學論文集』4-3,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 성주탁, 1986,『百濟城址와 文獻資料』,『百濟研究』17, 충남대백제연구소.
 - 안승주·이남석, 1989,『全義地域 古代山城 考察』,『百濟文化』18·19합집,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 심정보, 1983,『百濟復興軍의 主要 據點에 關한 研究』,『百濟研究』14, 충남대백제연구소.
 - 심정보, 1989,『大田의 古代山城』,『百濟研究』20, 충남대백제연구소.
 - 심정보, 1993,『한밭의 城郭』,『大田의 城郭』, 대전시.
 - 심정보, 1995,『韓國邑城의 研究』, 학연문화사.
 - 서정석, 1994,『牙山地域의 山城』,『滄海朴秉國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 서정석, 1995,『공주지역의 산성연구』,『공주의 역사와 문화』, 공주대박물관.
 - 서정석, 2001,『公州地域의 山城』,『國立公州博物館紀要』창간호, 국립공주박물관.
 - 정해준, 2000,『예산지역의 산성 연구』,『역사와 역사교육』5집, 웅진사학회.
 - 동방문화재연구원, 2017,『당진의 성곽』.
- 지현영, 1972,『豆良尹城에 對하여』,『百濟研究』3, 충남대백제연구소.
 - 성주탁, 1975,『百濟山城研究』,『百濟研究』6, 충남대백제연구소.
 - 성주탁, 1984,『大田 甲川流域 百濟城址考』,『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 성주탁, 1985,『百濟 新村縣 治所의 位置比定에 關한 研究』,『百濟論叢』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성주탁, 1991,『百濟 所比浦縣城址(一名 德津山城) 調査報告』,『百濟研究』22, 충남대백제연구소.
 - 심정보, 1984,『雨述城考』,『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 심정보, 2000,『계족산성의 지정학적 위치와 그 성격』,『충청학연구』1집, 한남대 충청학연구센터.
- 유원재, 1985,『保寧 鎭唐山城에 대한 研究』,『公州敎大論文集』21.
- 유원재, 1987,『百濟 古良夫里縣 治所의 位置』,『公州敎大論叢』23-2.
- 유원재, 1992,『百濟 湯井城 研究』,『百濟論叢』3, 백제문화개발연구원.

토성과 통일신라토성의 축조 기법이 밝혀진 이상 그 동안 백제산성으로 이해되어 왔던 직산 蛇山城이나¹⁷ 공주 公山城 동벽(土城址)¹⁸ 역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천 건지산성은 오랫동안 백제 周留城으로 이해되어 왔던 산성이다. 금강 하구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이 산성도 테피식과 포곡식이 결합된 이른바 복합식 산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 더더욱 백제산성으로 오해되어 왔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여말 선초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¹⁹

부여 홍산의 태봉산성은 둘레 440m의 소규모 테피식토성인데,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⁰

이렇게 충남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토성 중에서는 백제 성곽으로 확인된 것은 부소산성이 유일하다. 공산성 성벽에도 분명 백제 때 축조한 성곽이 남아 있을 터인 만큼 그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충남지역의 고대 석성에 대해서는 토성보다 조사 사례가 훨씬 더 많고, 그에 따라 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석성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다보니 그 이후의 논의는 그야말로 백가쟁명식으로 서로 다른 주장만 이어지고 있다.

대전을 포함한 충남지역 석성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대전 계족산성이 아닌가 한다.

계족산성은 대덕구 장동 계족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는 석축 산성인데, 일찍부터 백제 부흥운동기에 등장하는 甕山城으로 비정되면서²¹ 주목을 받아 왔다. 뒤이어 계족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서문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어지면서, 이때 수습된 와당이 백제 와당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²² 백제 甕山城일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진 셈이다.

그런데 계족산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축성 시기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일게 되었다. 계족산성내의 건물지와 저수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6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신라~통일신라기의 유물만 출토될 뿐 三足土器와 같은 백제 특유의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계족산성의 축성 시기를 재검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어찌보

충남지역에 있는 고대 성곽은 크게 보아 토성과 석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먼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토성이다.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토성으로는 부소산성, 목천토성 등을 들 수 있다. 목천토성은 목천면 남화리에 자리하고 있는 성곽인데, 발굴 결과 성벽의 기저부 내외면에 석렬을 놓고 그 사이를 판축하여 토루를 형성한 토성으로 확인되었다.⁷ 아울러 성벽을 축조하기 위한 판축은 한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8m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축조된 것이 밝혀졌다.

목천토성의 성내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유물만 출토되었지만 성벽 축조에서 보이는 판축기법 및 주변지역의 역사지리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백제토성으로 편년되었다.⁸ 따라서 이러한 편년을 근거로 백제토성의 축조 방법 중 하나로 이 목천토성의 판축기법이 거론되기도 하였다.⁹

그런데 이러한 편년은 선입관에 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곧 밝혀졌다. 예컨대 흥성 神衿城이 조사되고,¹⁰ 백제의 판축공법에 대한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백제의 판축기법과 통일신라시기의 그것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¹¹ 그 결과 목천토성과 같은 판축기법은 실은 백제시대가 아닌 통일신라시기에 해당되는 9세기 경의 판축기법인 것이 확인되었다.¹² 이러한 사실은 비슷한 축조 기법과 입지조건을 보이고 있는 나주 會津土城의 존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으로,¹³ 지금은 모두가 통일신라기의 축성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선입관에 의한 잘못된 편년은 부여 부소산성에서도 있었다. 부소산성은 부소산 정상부에 두 개의 테피식산성이 자리하고 있고, 이러한 테피식산성과 이어지는 포곡식산성이 북쪽 골짜기로 이어져 있어 한때 테피식산성과 포곡식산성이 결합된 복합식 산성의 하나라고 보았던 것인데,¹⁴ 이러한 복합식 산성이 곧 백제산성 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¹⁵ 발굴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았던 테피식산성은 통일신라 때와 여말 선초에 축조된 것이고, 나중에 쌓았을 것으로 생각해 왔던 포곡식산성이 실은 백제성곽임을 알게 되었다.¹⁶

이로써 백제토성의 축조 기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다만 백제

7 윤무병, 1984, 『木川土城發掘調査報告書』, 충남대학교 박물관.

8 윤무병, 1984, 위의 보고서.

9 차용걸, 1988, 『百濟의 築城技法』, 『百濟研究』 19, 46쪽.

10 이강승·박순발·성정용, 1996, 『神衿城發掘調査報告書』, 충남대학교 박물관.

11 최맹식, 1996, 『百濟 版築工法에 관한 研究』,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531~ 564쪽.

12 이강승·박순발·성정용, 1996, 앞의 보고서, 278~281쪽.

13 서정석, 1999, 『羅州 會津土城에 대한 檢討』, 『百濟文化』 28, 67~69쪽.

14 성주탁, 1982, 『百濟 泗沘都城 研究』, 『百濟研究』 13, 26쪽.

15 윤무병·성주탁, 1977, 『百濟山城의 新類型』, 『百濟研究』 8, 21~22쪽.

16 金容民, 1997, 『扶蘇山城의 城壁 築造技法 및 變遷에 대한 考察』, 『韓國上古史學報』 26, 114쪽.

이와 달리 扶蘇山城의 初築을 東城王 8년, 즉 486년 경으로 보고, 遷都를 즈음해서는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심정보, 2000, 『百濟 泗沘都城의 築造時期에 대하여』, 『사비도성과 백제의 성곽』 서경문화사, 95쪽).

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²³

이렇게 계족산성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오히려 축성 시기가 더 혼란스럽게 되었다. 축성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축성 주체가 백제나 신라냐로 갈라지면서 백제 석성, 혹은 신라 석성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은 계족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임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산 임존성은 대흥면 봉수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석성인데, 일찍부터 백제 부흥운동기에 등장하는 임존성으로 비정되어²⁴ 사적 제 90호로 지정되어 있는 산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과 달리 현재의 임존성은 입지나 규모, 축성법으로 볼 때 백제 석성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통일신라 때 쌓은 산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⁵ 현재의 임존성은 해발 460m의 山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일반적인 백제산성이 해발 250m 정도의 山峰에 자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차이가 있다.

입지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벽의 둘레도 지나치게 크다. 즉 현재의 임존성은 둘레가 약 2,400m 정도에 이르는데, 백제산성으로서는 지나치게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중국 『翰苑』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정도의 크기면 백제 王城의 크기에 해당된다.²⁶ 임존성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백제 당시 西方城에 해당될 터인데, 당시 서방성의 크기는 약 1,100m였다. 당시 임존성이 속해 있던 方城보다도 두 배 정도 더 큰 셈이다.

축조법에 있어서도 벽돌처럼 얇고 길쭉하게 가공한 성돌을 이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성돌을 가공하여 축성하는 것은 백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신라성곽의 축성법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홍성 석성산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홍성 석성산성은 백제 부흥운동기에 등장하는 周留城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발굴조사 결과 실제로 백제 주류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는가 하면,²⁷ 반대로 9세기대의 통일신라 산성이라는 주장도 나와 서로 팽팽히 맞서 있다.

이렇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백제성곽인지 신라성곽인지에 대해 설왕설래 하는 것은 몇몇 사례가 더 있다. 금산의 백령산성 역시 마찬가지다. 성곽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축성 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성 시기를 알기 위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발굴조사한 성곽이 웅진기 것인

지 사비기 것인지, 거기서 더 나아가 6세기 것인지 아니면 7세기 것인지에 대한 편년은 고사하고, 그것이 백제 것인지 신라 것인지와 같은 근본적인 의견 대립은 충남지역에 분포하는 산성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만큼 성곽에 대한 연구도,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한 연구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성곽 연구는 성곽이 엄연히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유적 자체가 갖는 특징에 주목하기 보다는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더 관심을 기울여 왔고, 편년 또한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기준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어떤 유적이든 거기서 출토된 유물이 편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도 또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성곽으로 치자면 유적 자체가 갖는 입지와 구조, 축성법, 성벽의 둘레, 성내 시설물 현황 등이 그것이다.

성곽의 편년은 이렇게 성곽 자체가 갖는 특징과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함께 고려하면서 편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편년은 유적과 유물을 함께 고려하기 보다는 유물 일변도로 편년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물의 편년이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유물만으로 편년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백제성곽의 경우 성내에 출토되는 유물의 대부분을 이루는 토기와 기와의 편년이 아직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유물에 의해서만 편년을 내리다보니 의견이 대립되고, 그것을 해소할 마땅한 방법도 찾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 못지않게 성곽 자체가 갖는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충남지역의 일부 성곽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즉 부여 나성, 성흥산성과 같은 석성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가 성돌의 가공수법이다. 여기에서 보면 面石을 장방형이 되도록 가공하여 축성에 사용하고 있다.²⁸ 이러한 성돌 가공수법과 축성법은 신라의 석성에서 발견되는 특징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三年山城이나 丹陽 赤城 같은 것은 대표적인 신라 석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돌을 구들처럼 얇고 널찍하게 가공하거나 벽돌처럼 얇고 매끈하게 가공하여 축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돌의 가공수법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벽의 정비 복원시 참고해야할 중요한 특징이라 판단된다.

23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 『鷄足山城 發掘調査略報告』.

24 심정보, 1983, 「百濟 復興軍의 主要 據點에 關한 研究」, 『百濟研究』 14, 160~162쪽.

25 이남석, 1999, 「禮山 鳳首山城(任存城)의 현황과 특징」, 『百濟文化』 28, 205~230쪽.
서정석, 2012, 「홍성지역의 산성과 백제의 郡縣」, 『百濟文化』 47, 65쪽.

26 『翰苑』 권 30, 「蕃夷部」 백제.

27 상명대박물관, 1996, 『洪城石城山城 建物址發掘調査報告書』.

28 서정석, 2002, 『百濟의 城郭』, 학연문화사.

4. 보존 정비 방향

성곽의 보존은 곧 보존 관리를 뜻한다. 그런 점에서 성곽의 보존관리 및 정비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성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가치를 알기 쉽게 나타내고, 유지한다는 의미가 된다.²⁹

성곽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보존 관리 계획의 행정적 요소(보존 관리의 시행 및 책임), 법률적 요소(보존 관리의 근거), 그리고 재정적인 요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³⁰ 충남지역 성곽의 경우 행정적 요소는 분명하지만 법률적 요소나 재정적인 요소는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성곽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간은 「문화재보호법」에 둘 수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당연히 지자체에서 성곽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조례」나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단하지 않다.

더 심각한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성곽(16%)보다 비지정 성곽(84%)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비지정 성곽은 당연히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비지정 성곽이라고 해서 결코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성곽사적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성곽이 갖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성곽사적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특정 성곽이 갖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성곽사적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이 그 주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그 성곽이 파괴·훼손되는 사례는 충남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충남지역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성곽은 다른 유적과 달리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에 일관성이 없다. 어떤 것은 성내 전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서산 해미읍성)된 반면에 성벽 기반을 중심으로 내외로 20m까지만 지정된 것도 있고, 50m까지만 지정된 것도 있다. 성곽의 경우 성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내가 더 중요

하고, 그러한 성내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이 축조된 것임에도 성벽만 지정하고 성내가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곽유적이 갖는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비도 마찬가지다. 정비는 보통 보수·복원사업과 같은 말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성벽과 성곽 내부를 모두 정비한 경우(공주 공산성, 서산 해미읍성)가 있는가 하면, 성벽만 복원한 경우도 있고, 성벽 조차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그 각각을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도 원칙이 없다.

성벽의 복원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각각의 성곽은 축성법에 일정한 특징이 있다. 백제 석성은 백제 석성으로 특징이 있고, 통일신라 석성은 통일신라 석성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 읍성 역시 마찬가지다. 성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그 성곽이 축조된 시기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루어진 성벽의 복원 모습을 보면 원래 그 성벽이 갖고 있던 특징을 제대로 살린 경우는 거의 없다.

제대로 된 성벽 복원을 위해서는 축성 재료가 일치해야 한다. 아울러 성돌의 가공수법이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가공한 성돌을 쌓아 올리는 축성법이 원래의 성벽과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진 성벽 복원을 보면 삼국시대 산성이건 조선시대 읍성이건 간에 축성 시기나 축성법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여 복원된 성벽은 거의 없다. 원래의 성벽 축성법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벽 복원은 복원이라 할 수 없다. 21세기에 새로이 축조한 축대에 불과할 것이다.



복원한 임존성 성벽(①·②)과 잔존되어 있는 원래의 임존성 성벽(③·④)

29 김철주, 2013,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 놀와, 12쪽.

30 이준근, 2007, 「중부지역 산성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략」,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 UNESCO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 선정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한국성곽학회, 7쪽.

5. 맺음말

대전·세종·충남지역은 백제의 王都가 있던 곳이고, 통일신라 때에는 熊州가 설치되었던 곳이며,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監營이 있던 곳이다. 따라서 백제 성곽과 통일신라 성곽, 조선시대 성곽이 혼재해 있다. 특히 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조선시대 邑城과 鎭城이 자리하고 있다. 고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성곽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충남지역의 성곽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그에 따라 다른 시대에 비해 성곽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곳 중의 하나다.

이 지역의 성곽은 크게 보아 고대 성곽과 조선시대 성곽이 조사와 연구의 중심을 이루어 왔는데, 고대 성곽은 토성과 석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대의 토성은 곧 백제의 토성이 되겠는데, 초창기에 조사가 이루어진 천안 목천토성이나 부여 부소산성, 공주 공산성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막연하게나마 백제 토성으로 알려져 왔던 곳이다.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백제 토성으로 한동안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조사 사례가 증가하고, 홍성 神衿城과 같은 통일신라 때 토성이 조사되면서 종래에 백제 토성으로만 이해해 왔던 토성이 실은 재검토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기단부에 석렬이 놓여진 목천토성이나 부소산성의 테피식 성벽은 백제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었다. 그런 점에서 종래에 백제 토성으로 이해해 왔던 공산성 동벽부분(토성벽)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제 석성은 토성에 비해 조사 사례가 많지만 조사된 성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백제 성곽이나 신라 성곽이냐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 계족산성, 예산 임존성, 금산 백령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외의 석성들도 크고 작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성곽이라는 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부분만을 조사하고 축조 시기를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지만, 축조 시기를 알기 위해 발굴조사를 하고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그 자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유적 자체에 대한 관심 보다도 성곽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유적 자체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유적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단순히 성곽의 축조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정비·복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성곽 복원을 보면 성벽 복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성내 시설물은 도외시한 채 성벽만 복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성벽 조차 축조 시기와 무관하게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앞으로는 성벽에 반영된 특징, 즉 성돌의 가공 수법과 그러한 성돌을 쌓아 올리는 축조 기법에 유의하여 정확한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성벽 복원을 할 경우, 무너진 상태를 중심으로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너지기 전의 원래의 상태를 기준으로 복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충청남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방향〉에 대한 토론문

이천우(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유적 자체의 특징에 주목하자.

격하게 공감하는 내용이다. 성곽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축조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라성과 백제성은 성벽의 축조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더 많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두 지역의 수구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역적 특색이 강하게 나타난다.

성곽도 무너지는 구조물이다.

우리나라 성곽문화재의 보수 복원 현실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근래의 성벽 보수는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석(뒷부리가 긴돌)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심석이 사용된 성곽도 있다. 그러나 심석의 뒷길이가 과도하게 길다. 이것은 분명 축조법의 변경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석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성곽을 한번 쌓으면 천년만년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공업체와 관계공무원 자문하는 학자들까지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석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게 암묵적 현실이다. 모든 구조물은 사용기한이 있다. 심지어 콘크리트도 사용연한이 있다. 모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들의 생각부터 바뀌야한다. 그래야만이 제도를 바꿀 수 있다.

21세기의 축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결과물이다.

과거 복원된 성벽이 축성법의 특징을 무시하고 복원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이다. 성곽 특히 석성의 축조법을 보면 하나의 쌓기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다. 물론 짧은 시기만 사용하고 폐성되어 동일한 축조법을 가진 성곽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성은 시기를 달리하며 무너진 것을 보수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축조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초축된 성벽이 무너진 경우 보수할 때는 그 시기의 기술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중첩이다. 임존성 또한 하나의 쌓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성곽을 전공하는 인재를 늘리자.

성곽의 잘못된 복원을 말할 때 필자는 포천 반월산성의 치성 복원을 사례로 자주 쓴다. 분명 여러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잘못 복원된 이유는 그 당시까지 치성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한다. 성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고 특히 축조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포천 반월산성 치성(좌 : 발굴 전경, 우 : 복원된 전경)

경상북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1. 성곽 현황 및 조사성과
2. 보존·정비의 현황과 방향
3. 보존관리 방향



경상북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김찬영 · 계정문화재연구소



1. 성곽 현황 및 조사성과

1) 개요

성곽이란 ‘어떤 특정한 집단이 그 집단의 보호를 목적으로 유형의 공간을 확보해 겹쌓는 건축구조물로 안쪽의 것을 성城, 바깥쪽 것을 관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쌓은 방어시설물을 가리켜 성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성상 산악지대가 많아 이를 이용한 군사적인 성격의 산성과 고을을 지키는 행정·군사적 성격의 읍성을 축조해 왔다.

삼국시대 성곽은 주로 당시 국경지방이었던 거점지역에 산성을 많이 축조하였고, 도읍지에는 도성과 주변의 산지에는 대피성을 축조했다. 고려시대에는 초기에 거란과 여진에 대비하는 북방지역의 여러 성곽의 축조와 천리장성, 후기에는 산성과 읍성을 축성해 왜구와 홍건적에 대비했다. 조선시대에는 도성과 산성, 삼남지방의 내지 및 연해안에 다수의 읍성과 진관체제하의 진·보성 및 북방지역에 일정지역을 차단하는 행성이 주로 축조되기도 했다.

임진·병자호란 이후로는 변화된 무기·전술 및 운영체계에 대응한 산성이 전국 각지에 수·신축되어 운영되기도 했다.

경상북도는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한다. 기원전 삼한 중 진한, 삼국시대 신라·가야, 통일신라의 역사·문화가 꽃피웠던 중심 지역이기도 했다. 고려 전기에 소백산맥의 큰 고개 이남에 위치해 영남嶺南, 후기에 경상도라 한 뒤 1896년(고종 33) 을미개혁으로 경상북도라 이름 붙여졌다. 도내 성곽은 대구·경북 지역에 존재했던 소국의 거점성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왕성 및 주변 방어성곽과 주변 지역간 교통로상의 거점지역에 축조된 산성이 있다. 신라는 이북·이서 등 주변 국(고구려·백제·가야)으로 진출 또는 접경지에 전초기지를, 대가야는 왕성 및 신라와의 접경지에 전략적 방어거점성을 주로 축조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왕경 수비를 위한 외곽 방어체제로 주요 교통로상에 토·산성을 2~3중으로 축조했다. 고려 말에는 이전 시대의 성곽을 개·수축해 재사용하거나 대왜대비책으로 산·읍성이 축성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지역 거점에 입보용 기존 산성을 수축하고, 동해안 및 내륙 대도시에는 읍성과 동해안에는 추가로 수군 영진보성이 축성되었다. 임진·병자의 양란 이후로는 하삼도에 산성 축성이 집중될 때, 대왜방비책으로 낙동강 및 중로(영남대로)와 주요 거점지역에 기존 산성을 수축 또는 신축해 피란·피병용 산성, 관방 교통요충지에 신축한 산성, 치소를 산성 내에 둔 산성 등 변화된 전술과 방어전략, 축성기술, 운영체계에 따라 영남관방의 거점 산성으로 경영되었다.

2) 조사현황

지금까지 경북지역(대구지역 일부 포함)에서 이루어진 성곽 학술조사의 현황 및 조사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대구·경북지역 성곽 조사현황 및 성과

명칭	시대	조사연도	조사기관	보고서	성과
경주 월성 (사적16)	삼국	1979~198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동문지 발굴조사』	동문지(1×2칸), 성벽 토층, 석축해자 확인
		1984~198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월성 해자 시굴조사』	인골(15구), 목간, 토기, 기와 등 확인
		1985~200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월성 해자 발굴조사』	다구역 1~5구역 조사
		2003~200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월성 주변 지표조사』	초석, 우물지 등 확인
		200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월성 내부 지하레이다 탐사』	지하 유구 확인
		201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월성 보존정비정책연구 종합보고서』	발굴조사 계획, 유적정비현황 연구 등
		2014~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월성 해자 발굴조사』	서성벽 및 문지, 중앙건물지(C지구), 해자지구 발굴

명칭	시대	조사연도	조사기관	보고서	성과
부산성 (사적25)	삼국	1978	국립경주박물관·경주사적관리사무소	『월성군 부산성내 유적조사 결과보고』 1978	길이 8.23km, 경내 탐색조사에서 체성 폭을 제외한 20~30m와 문지, 보루지, 봉수대, 우물, 유물 분포 지역 확인
		2011~2012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부산성 학술 및 실측 조사』 2012	체성 길이는 9.47km, 왕경 방어용 포곡식 석축성, 문지 3개소, 건물지는 경작지로 이용
명활산성 (사적47)	삼국	1990	경주고적발굴조사단	『명활성 긴급 발굴조사 보고서』 1990	내외협축의 체성에 외벽 및 보강석축, 수구 2개소 확인
		2012	계림문화재연구원	『명활산성 정비복원 I 구간 시굴조사』 2014	북문지 및 주변 체성과 기저부 보축 확인
		2013~2014	계림문화재연구원	『북문지 발굴조사』 2016	문지, 치성, 화식 등 확인
관문성 (사적48)	삼국	2016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관문성기초조사용역』 2016	위치, 축조수법, 훼손현황 파악, 장성 문지 6개소, 건물지 11개소 파악
고령 주산성 (사적61)	삼국	1996	국립대구박물관	『주산성 지표조사보고서』1 1919	협축 성벽, 반원형 치 8개소, 못 1개소, 가야토기, 6~9세기 와편 등 확인
		2012	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주산성 I (주정 남문지/주변성벽)-고령 주산성 정비복원 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14	외성 남문지 및 주변 성곽 발굴조사에서 성벽은 편축+경사보축, 체성 상단에 성벽 관통 배수구, 남문지는 미확인, 출토유물로 보아 6세기 초축 확인
		2014~2015	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주산성 II』 2017	성벽은 3차에 걸쳐 축조(1차 외성, 2차 내성, 3차 고려시대 이후)확인. 저장시설(목곽고) 확인
대구달성 (사적62)	삼국	1914~1917	국립대구박물관	『대구 달성유적 I -달성 조사 보고서』 2015	1914, 1917년 도리이 류조의 시굴조사 자료정리, 출토토기 5~6세기
		1968~1970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경상북도 구미시	『대구 달성 성벽조사』, 『고고미술』9-11, 1972 『달성 유적에 관한 고고학적 조사』 2007	달성 남축 부분 발굴조사, 4개층 중 3층에서 토성 흔적 확인, 타날문 토기편·신라 초기 토기편 수습
가산산성 (사적216)	조선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칠곡 가산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9	문헌 및 고지도 검토, 규모와 성곽시설 현황조사
		201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칠곡 가산산성 암괴류 학술 조사 보고서』 2012	가산산성 내 암괴류 조사 및 천연기념물 지정 권고
		201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칠곡 가산산성 외성 사적지정 조사보고서』 2012	3중곽(내·외·중성) 중 미지정외성을 사적지정하기 위한 조사
		201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칠곡 가산산성 성곽실측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2013	기조사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성곽 실측, 합리적인 보존·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2013~201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칠곡 가산산성 공해지 발굴(1, 2차) 약보고서』 2016	가산 정상에 4차에 걸쳐 중복 건축된 장대지 확인, 공해지 구역에는 건물지 23기(관아·객사 등), 담장지 14기, 석축, 계단지, 와편 등을 확인
		2014~201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칠곡 가산산성 공해지 발굴조사(3차) 약보고서』 2016	건물지 10기, 채석장 2곳, 우물 2개 등 생활·공공유적(산성마을) 확인
		201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정비사업에 따른 칠곡 가산산성 수문④』 2016	수문은 봉괴유실, 양측의 협축성벽(보축·제형 등성 시설 등), 통수부 축벽 및 세굴방지용 바닥석, 도수 시설 등 확인
		201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칠곡 가산산성 성곽실측조사(3~5)·19~21구간』	성곽 실측조사 실시
천생산성 (경북기념물12)	삼국? 조선	201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칠곡 가산산성 4수문지 유구 보존 계획수립』 2017	발굴조사된 4수문지의 유구보존 및 보완 계획 수립
		201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칠곡 가산산성 탐방로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조성(내성)』 2018	내성 내 탐방로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1993	대구대학교박물관	『선산 천생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3	낙동강변에 테뫼식 석성, 둘레 약 1.3km에 내·외성의 이중성곽을 갖춘, 내성은 편·협축 체성과 4대문, 암문·수문 각 1개소, 외성은 군기고지, 만자암지 등
		2013	동국문화재연구원·구미시	『구미 천생산성 암문지』 2016	내성 동쪽성벽의 평거식 암문(문비설치)과 계단시설, 내탁부에 선축의 배수구(입수구) 2기, 석화 2기 확인

명칭	시대	조사연도	조사기관	보고서	성과
견훤산성 (경북기념물53)	삼국	1996~1997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상주 견훤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7	내외협축 테뫼식 석성, 둘레 717m, 치성 2개소, 문 지 2개소, 성등지 2개소, 건물지 3개소, 배수구와 수 구지 확인
		2010	세종문화재연구원	『상주 견훤산성(추정 동문지) 유적』, 2012	동쪽 체성과 치성을 연결하는 협축 성벽과 기저부 에 보축시설 확인, 동문 유구는 미확인
금오산성 (경북기념물67)	고려 조선	1985	경북대학교 고고인 류학과	『금오산성기초조사보고서』, 1985	현황 및 3대문(중·남·서문지) 조사, 외성은 복문지, 성벽과 수구 실측조사, 성벽 보수를 위한 축조형식 과 구조 고찰
		1994	안동대학교	『금오산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1994	현황조사
		2015~2016	동국문화재연구원	『금오산성 정밀지표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2016	측량 결과, 둘레 외성 4,370m, 내성 5,510m에 포곡 식 석성, 4대문, 건물지 5개소, 연지 4개소, 사지 1개 소 확인. 양란이후로 용도와 치가 축조
남미질부성 (경북기념물96)	삼국	1993	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	『남미질부성 지표조사보고서』, 1993	삭도 및 내외협축 성벽, 곡성, 문지 5개소, 성내 5~6 세기대 고분 존재, 폐성 후 흔해습성과 관련
독용산성 (경북기념물105)	고려 조선	1992	대구대학교박물관	『성주 독용산성 지표조사보고 서』, 1992	편·협축의 포곡성 석성, 둘레 7.4km, 4대문, 암문지 3개소, 수구문 1개소, 곡성 2개소, 망루, 포루 확인. 성내 건물지와 5기의 비, 못 4개소, 천 3개소 잔존
금돌성 (경북문화재 자료131)	삼국	2000~2001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상주 금돌성 지표조사보고서』 , 2001	내·외성의 포곡식 석성, 둘레 6.183km. 체성부는 편· 협축식, 망대 12개소, 문지 4개소, 망대 12개소, 망루 3개소, 건물지 6개소 등 확인
경산 용산산성 (경북기념물134)	삼국	1993	대구대학교박물관	『경주 용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3	테뫼식 산성으로 둘레 1.481km, 협·편축법으로 축조, 4대문, 신라말~조선시대 와편 확인
가야산성 (경북기념물143)	조선	1999~2000	성주군	『성주 가야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0	협축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 7.404km, 4대문, 암문 6 개소, 치성 9개소, 망루지 2개소, 장대지 2개소, 천 정 8개소, 사지 1개소, 암자터 2개소가 확인
팔거산성 (대구기념물6)	삼국	1999	대구대학교박물관	『대구 팔거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9	포곡식 석·토석혼축 편·협축성, 둘레 1.136km. 문지 2개소(서·동문), 천 2개소, 수구문 1개소, 치성 7개소 확인
		2015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구암동고분군 및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비봉산성	삼국	1985~1991	국립문화재연구소	『순흥 비봉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1998	테뫼식 토축·토석혼축 성, 둘레 1.35km. 3곳의 문지 (남·동·서문지(1×1칸)), 체성은 하부에 외축내탁+상 부에 협축법 확인
청도 백곡산성	삼국 조선	2013	영남문화재연구원	『청도 백곡산성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산성 지표조사 및 보존대책 수립
죽변성	?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죽변, 둘레 780m
장산성	삼국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죽변, 토성, 둘레 2,200m
산내성	고려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죽변, 토성벽 둘레 1,000m,
고현성	고려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울진읍, 토성벽, 둘레 420m
고읍성	고려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울진읍, 토성벽, 둘레 550m
고산성	조선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울진읍 석성, 둘레 1,150m, 문지 2개소, 망루지·장대 1개소, 우물 1개소 조사
안일왕산성	삼국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서면, 테뫼식, 토석혼축성, 둘레 1.1km, 문지 2개소, 망루 2개소
왕피리산성	고려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서면, 토석혼축성, 잔존둘레 330m
성산성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근남면, 토성, 내외성
기성읍성	고려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기성면, 토석, 잔존둘레 700m
평해읍성	조선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평해읍, 석성, 잔존둘레 810m

명칭	시대	조사연도	조사기관	보고서	성과
월성 만호진	조선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평해읍, 협축 석성, 잔존 30m
백암산성	삼국 고려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온정면, 편·협축 포곡식 석성, 내·외성, 4대문지, 망 루지 2개소, 수구문지 1개소
고모산성	조선	1998	대구대학교박물관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함미산성, 온정면, 테뫼식 석성, 내·외성, 서문지, 망 루 1개소
청량산성	고려	1980	영남대학교박물관	『경상북도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II』(안동·동해문화권), 1981	청량산성 지표 및 현황조사 실시
		2003	중원문화재연구원	『봉화 청량산성 I -동문지- 밀성대 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5	성벽(외벽 수직 기둥 홈)의 축조수법, 등성시설, 치 성, 석환무지 확인, ‘城子’명 파편 수습
		2005~2006	중원문화재연구원	『봉화 청량산성 II -밀성대- 충용봉 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8	성벽의 축조수법, 용도 1개소, 복문 1개소가 확인
고모산성	삼국	1998	문경문화원	『문경 고모산성』	고모산성 지표 및 현황조사
		2001	충북대학교 중원문 화연구소	『문경 석현성-진남루터 발굴조 사 및 석현성 지표조사』, 2003	3×2칸 진남문 유구와 협축성벽, 등성시설, 배수시 설 확인
		2004	중원문, 화재연구원	『문경 고모산성 지표조사 보고서-고모산성·고부산성· 신현리고분군·주막거리·토천』, 2004	고모산성은 둘레 1.3km, 포곡식 내외협축 석성, 문지 4개소, 곡성 2개소, 치성, 수구 확인. 고부산성은 둘 레 585m, 편·협축 석성 확인
		2004~2005	중원문화재연구원	『문경 고모산성 I -남문, 남동 곡성 발굴조사』, 2007	남문은 신라의 전형적인 현문 구조, 성외→보축→개 구부 부석시설→문구부→성내 옹벽·계단시설→등성 시설→성내 출입
		2004~2005	중원문화재연구원	『문경 고모산성-서문지·남문지 일원 발굴조사』, 2005	서·남문지는 현문 형태의 성문 확인, 서문지 바닥에 확쇠 2점, 철제못 40점 출토, 서문지 일원에 체성벽 중단부를 관통하는 제형 수구 2개소 확인
		2005~2006	중원문화재연구원	『문경 고모산성 II -문경 고모 산성 서문지 2차 발굴조사』, 2006	선·후대 저수지 2개소(제형), 우물 2개소, 제형의 수 구 확인
임당 토성	삼국	1995~1996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산 임당유적 I -F·G지구 및 토성-』, 1998	임당·조영동 고분내 해발 60~66m에서 장·타원형 평면(남북 350m, 동서 120m)과 영정주혈 등 확인
		2016	한빛문화재연구원	『경산 임당토성시(발)굴조사』, 약보고서	남쪽 경계부 조사, 성벽 너비 11m, 높이 0.2~1m 확 인. 토성 내부 바닥면에 주혈 23기, 소혈흔 등 확인
관호산성	삼국	2013	한빛문화재연구원	『관호토성 학술조사 용역- 정밀지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3	낙동강변에 테뫼식 이중 석축성. 둘레 내성(석축) 1,034m, 외성(토축) 818m 확인. 체성부는 편축식에 4대문, 건물지, 망대, 내환도, 추정 채석장 등이 확인
		2015	한빛문화재연구원	『칠곡 관호산성공원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2015	
		2015	한빛문화재연구원	『칠곡 관호산성공원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2017	
		2017	가온문화재연구원	『칠곡 관호산성공원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 (4차)』	
		2017	대동문화재연구원	칠곡 관호산성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5차)』, 2017	
		2018	영남문화재연구원	『칠곡 관호산성공원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2018	
		2018	영남문화재연구원	『칠곡 관호산성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6차)』, 2018	
초곡산성	삼국	2004~2005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달성초곡산성-양리고분군』, 2005	현황 및 보수(복원)기본계획 수립. 테뫼식 편·협축의 석성, 둘레 1.683km, 4대문, 암문 2개소, 망대 2개소, 건물지 3개소, 성내 고분 존재 확인

명칭	시대	조사연도	조사기관	보고서	성과
오례산성	조선	200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오례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09	포곡식 석축성, 둘레 4.65km, 문지 2개소, 봉수대, 망루, 창고지, 샘 등 확인
		200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오례산성 보수 정비 및 관광자원화 기본기획수립 용역 보고서』	탐방로 및 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
		2014	한빛문화재연구원	『청도 오례산성 문화재 지표 조사 보고서』, 2014	성곽 실측조사 및 측량
백암산성	통일신라 고려	2003~200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울진 백암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04	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방안 제시. 내·외성을 갖춘 편·협축의 포곡식 석성, 둘레 1.617km. 내성에 3대문, 수문지, 건물지, 외성은 문지, 암문, 망대 등 확인
병풍산성	통일신라 고려	200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상주 병풍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05	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방안 제시. 내·외성을 갖춘 편·협축의 포곡식 석성, 둘레 1.864km. 시설은 북·남문지 2개소, 망대·치성 6개소, 샘 1개소
성황당 토성	통일신라	2003~2004	안동대학교박물관	『안동의 산성-성황당·신석·선성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4	용상동 서낭당굴과 치굴에 축조된 포곡식 토성, 성벽은 토축과 석토구간, 건물지, 문지 3개소, 삼국~고려 와편
신석산성	고려 이전	2003~2004	안동대학교박물관	『안동의 산성-성황당·신석·선성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4	남선면 신석리에 토축·석축·석토로 축조, 둘레 3.1km 확인
선성산성	삼국	2003~2004	안동대학교박물관	『안동의 산성-성황당·신석·선성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4	도산면 서부동 선성산에 포곡식 석성, 둘레 535m. 편·협축에 문지 2개소, 수구 2개소, 건물지 등
		201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선성현문화단지 조성사업부지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2012	산성 지표조사 실시
		2018	동국문화재연구원	『선성현문화단지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선성산성 발굴조사학술자문 회의 자료집』, 2018	북문지 내측에 건물지 6동, 각루지(중층) 등이 확인, 추가조사에서 현문식 북문지와 체성에 단면 삼각형 보축, 배수시설 등 확인
노고산성	삼국 조선	1994	국립대구박물관·고령군	『주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6	고령군 덕곡면 노리, 둘레 600m, 성벽은 석축+토축, 우물, 집수시설 1기
도진리토성	삼국 조선	1994	국립대구박물관·고령군	『주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6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테뫼식 둘레 800m, 문지 1, 우물지 1, 망대 1곳 확인
망산성(금산성)	조선	1994	국립대구박물관·고령군	『주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6	고령읍 장기리, 둘레 600m, 테뫼식 토석혼축성
무계리산성	삼국 조선	1994	국립대구박물관·고령군	『주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6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테뫼식 석성, 둘레 500m. 망대 2개소, 봉수대, 건물지 등 확인
본관리산성	삼국	1994	국립대구박물관·고령군	『주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6	고령읍 본관리, 내·외성 석성 둘레 800m
예리산성	삼국 조선	1994	국립대구박물관·고령군	『주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6	고령군 덕곡면 예리, 테뫼식 석성.
운라산성	삼국	1994	국립대구박물관·고령군	『주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6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내·외성 둘레 1km.
경주읍성 (사적96)	고려	1999	한국문화재재단	『경주시 동부동 159-1번지 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한국담배인삼공사 경주지점 사옥 신축부지』	부지 남편(일승각)과 북편(금학헌) 건물지 2개소, 행랑지, 석렬, 배수로, 추정담장지, 보도, 연못, 우물 등 조선시대 관아 유구를 확인
		2002	경주시	『경주읍성수리·보수보고서』, 2002	
		2002	대구대학교박물관	『경주 서부동 건물신축예정지 발굴조사보고서』, 2004	동쪽 성벽의 개략적인 축조상태와 사향을 파악
		2015	한국문화재단	『경주읍성 I, 경주읍성 복원 정비사업부지(3.4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17	동벽의 중앙부(3구간) 및 북쪽 지역(4구간) 조사. 경주읍성 동벽(동문지 및 웅성·체성(토성→석성)) 축성방법 확인
		2015	한국문화재단	『慶州毬城 II -경주읍성 복원 정비사업부지(우회도로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17	석성 이전의 토성 및 기저부의 축조양상 확인. 석성은 토성의 바깥면인 외피토루를 중심토루의 외측 기저부 석렬 상부까지 절개하고 외벽만 돌로 쌓은 편축성으로 확인

명칭	시대	조사연도	조사기관	보고서	성과
장기읍성 (사적386)	고려 조선	199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장기읍성 지표조사보고서』, 1991	1110년 축조한 토성을 1439년에 석성으로 개축. 둘레 3,664척, 높이 12척, 성문 및 웅성 3개소, 치성 12기, 못 2개, 우물 4개, 해자 확인
		2005~2006	성림문화재연구원	『포항 영일 장기읍성 동문지 유적』, 2008	북문지의 육축, 개구부, 반원형 편문식 웅성 확인. 성문의 구조·형태는 알 수 없음. 유물은 15~18세기 자기편과 崇祿'명문와 등 확인
		2011	계림문화재연구원	『포항 영일 장기읍성 북문지 유적』, 2013	외측내탁의 체성과 내외협축의 반원형 편문식 웅성이 확인됨. 북문지의 내벽쪽으로 3.2m 간격 문지도 리석 확인. 건륭44년명(1777) 명문와 확인
청도읍성 (경북기념물103)	조선	2004~200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청도읍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05	청도읍성 현황조사 및 보수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200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청도읍성 보수(북면) 기본 계획』, 2005	청도읍성의 합리적인 보수 및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06~200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청도읍성 동·북문루 구역외 유적』, 2009	동문루는 도로개설로 멸실, 북문루는 중복된 3×2칸 규모와 문지도리석 2매 확인과 반원형 편문 웅성, 동문루 결 방형 적대 확인
		2009~2010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청도읍성 북쪽성벽 치성, 성내지, 남문지, 형옥지 발굴조사』, 2012	북쪽성벽 체성과 동시에 축조한 방형 치성, 후대 조성된 성내지, 남문지에는 성벽 체성부만 확인 됨
		2014~201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청도읍성 서문지 발굴조사, 2017	초·개축의 체성부 확인, 서문루는 멸실됨이 확인, 후대 개축 체성부와 함께 반원형 편문식 웅성 확인
		2015~201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청도읍성 서쪽성벽 치성 및 각루 발굴조사』, 2018	서쪽성벽 치성 및 각루 미확인, 북·서쪽 체성부에서 초·개축 중복 축조 확인
		201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청도읍성 동쪽성벽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6	기초부(3단 기초와 외벽 밖 보축부), 내외협축+보축의 체성부 확인, 치성, 후대 축조된 폐문루 확인
		201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청도읍성 동쪽성벽(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기초부(계단식)와 보축 및 내외협축+보축의 체성부 확인
성주읍성	고려 조선	200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성주읍성 지표조사보고서』	문헌, 고지도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읍성 범위 및 잔존 유구·시설 확인
		200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성주도시계획도로(소로3-6호선) 사업구간내 성주읍성』, 2011	초축의 토성 서쪽구간에서 석렬 기초 및 판축성벽과 후대 석축 내탁 유구가 확인됨
상주읍성	고려	2010~2011	영남문화재연구원	『상주 왕산역사공원 조성공사 사업부지내 상주 관아유적』, 2013	왕산 주변 관아영역에서 연못 3기, 도로 2기, 건물지 2동, 수혈 4기, 우물 2기 등 확인
영천읍성	조선	201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영천읍성 정비·복원을 위한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영천읍성 관련 문헌·지도 검토, 현장조사를 통한 범위, 정비·활용방향 제시
영덕읍성	고려 조선	200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영덕 하수관거정비(BTL) 처리시설 부지내 문화유적 발(시)굴조사』, 2009	영덕읍성 성벽 기초부 및 성내 암거 시설 등 확인
오포진	조선	200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영덕 하수관거정비(BTL) 처리시설 부지내 문화유적 발(시)굴조사』, 2009	강구면 오포리에 문헌상 오포진의 구지 확인(외측 내탁식 체성부 등)
경산읍성	조선	2014	한빛문화재연구원	『경산읍성 복원 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15	평지 석성, 방형에 둘레 약 1,278m, 3대문(동·서·남), 공해, 못 확인. 성벽은 도시화로 훼손,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대구읍성	조선	2014	세종문화재연구원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부지(북성로 구간)내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2014	도로 공사 입회시 읍성 체성 기저부 및 와편 및 자기편 확인
		2017	세종문화재연구원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부지(북성로 구간)내 대구읍성 북성벽 유적』, 2017	ㄴ자형을 굴착해 기초부를 두고 그 위에 지대석, 면석을 축조한 체성부(4.2m)와 체성부와 직교한 암거 시설 등이 확인

경상북도·대구지역의 성곽유적 중 각종 문헌·지도 및 학술조사활동을 통해 확인된 성곽은 약 250개소¹에 이른다. 이중 국가·시도지정문화재는 10% 정도이고, 그 외는 비지정문화재이다.² 성곽 중에 읍성 수가 적은 것은 근·현대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거의 멸실·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1990년 이후 특히, 각 시도에 시·군별로 제작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많은 성곽유적이 조사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대표 성곽에 대한 학술·정밀 지표조사가 일부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된 것은 60여개소 정도이다. 이중에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축조시기, 축성기술, 시기적 특성이 밝혀진 경우는 산성 11개소, 읍성 6개소이다. 다만, 시·발굴조사의 목적이 대개 복원·정비 및 보존활용(관광자원화)을 위한 고증조사 차원이었고, 구체 및 순수 학술조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물론 순수 학술조사 결과, 문헌을 뒷받침하는 유구, 유물 출토로 시기·지역적 특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복원·정비를 추진한 경우도 많다. 학술조사를 기초로 복원·정비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이를 잘못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성곽의 지표조사는 시·군별 및 지역·시기별로 대표할 만한 비지정 성곽을 선정해 현황 및 추후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수는 많지 않다. 반면에 시·발굴조사는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복원·정비 및 보존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고증조사 차원에서 주로 시행되었다. 다만, 시·발굴조사의 대상은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위주이다. 그 이유는 성곽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시설들로 인해 장기간,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불가피하게 국·도비지원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보존관리 및 복원·정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곽은 타 유적과 달리 험한 산지에 대규모이며, 다양한 시설이 존재한다.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타 유적에 비해 조사 및 활용적 여건도 그리 여의치 않다. 또 성곽의 전공자 및 관계자도 많지 않아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성곽을 보수·정비한 경우는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로 어느 정도 역사적 가치가 알려져 있고 잔존 상태도 양호한 것을 대상으로 시·발굴조사 후 복원·정비하여 관광자원화내지 활용이 가능하다 판단된 것 들이다. 이런 현실적 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비지정 성곽은 학술조사 및 보존관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함에 따라 자연방치 및 훼손, 파괴가 거듭되고 있다. 더욱이 읍성은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 상당수가 확인되나 현존 읍성 수는 많지 않다. 치소를 에워싸며 축조된 읍성은 후대 도시화 및 시가지화로 학술조사없이 대부분 멸실·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각종 개발사업이 따른 구체조사에서 대구읍성, 영덕읍성,

오포영의 위치 및 축성기술이 일부나마 확인되는 정도이다.

이처럼 산성은 타 유적에 비해 험준한 산지에 대규모 공정과 기술로 축조된 탓에 학술조사 및 보존관리 및 정비에는 전문성 및 장기간 소요, 엄청난 경비, 산악고지대에 입지해 접근과 활용성이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읍성은 도시화로 대개 멸실·훼손되어 조사 뿐만 아니라 규모와 시설, 축성기술마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성곽은 시기별 축성의 동기와 목적, 운영에 따라 축성기획 및 축성자그리고 당시 군사적 전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상까지 파악할 수 있어 그 가치는 크다 하겠다.

3) 조사성과

앞서 <표 1>에서 확인된 주요 성곽의 조사성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명활산성³ : 북문지 정비복원 학술조사

조사결과, 북문지, 체성(경사 보축)과 치성을 확인했다.



명활산성 북문지 및 치성

북문지 겹 반원형 치성

북쪽성벽 체성 외벽 및 보축

② 고령 주산성⁴ : 정비복원 및 보존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학술조사

조사결과, 추정 남문지 및 주변 성벽 조사에서 편축식 석축성에 남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등성시설 1곳과 배수시설 3기를 확인했다. 동편 경계부에서 선축의 성벽을 확인하였다. 성벽은 다양한 축조방식의 기초부 위에 체성부의 외벽 면적은 부분적으로만 지대석을 사용해 잔돌끼움이 많은 허튼층쌓기했다. 배수로는 체성의 상단부에 경사지게 통과하는 암거형이며, 성 밖에는 낙수받이를 설치했다. 특히, 체성의 하단부에는 신라 석성처럼 30° 정도의 단면 삼각 형태로 덧댄 보축이 일부 구간에서 확인했다. 또 집수시설에서는 백제지역 및 신

1 대구·경북 각 지역별로 제작된 『문화유적분포지도』 및 지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성곽. 문화재청, 『한국 성곽용어사전』, 2007.

2 국가지정문화재가 11개소(산성 8개소, 궁·읍성 3개소), 시도지방문화재 17개소(산성 16개소, 읍성 1개소)이다.

3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명활산성 정비복원 I 구간 시굴조사』. 계림문화재연구원, 2016, 『북문지 발굴조사』.

4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고령 주산성 I (추정 남문지/주변성벽)-고령 주산성 정비복원 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대동문화재연구원, 2017, 『고령 주산성 II』.

라의 문경 고모산성에서 확인된 지하 목곽 저장시설과 유사했다. 대가야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산성이란 점에 큰 의의가 있었다. 다만, 추후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체성축조 기법과 출토유물을 통한 시기별 축조자 및 축조양상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외성 성벽, 보축

외성 중복양상

보축 축조 양상

③ 칠곡 가산산성⁵ : 정비복원 및 보존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수문4, 공해지, 장대지, 산성촌 학술발굴조사
조사결과, 수문4 및 주변 성벽과 성내 공해지 및 장대지 구역을 발굴조사했다. 수문4에서는 수문 축벽, 도수시설, 쇄굴방지용 바닥석이 확인되었고, 주변 성벽은 협축식에 기초보축과 제형 등성시설이 확인되었다. 수문4는 유구 보존조치한 상태이다. 공해지에는 관아(진아) 및 객사영역에서 건물지 23기, 석축, 계단, 담장지 등이 2~3차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장대지에는 가산 정상에 4차에 걸쳐 규모와 좌향을 달리해 지은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조선후기 양란이후에 영남제일관방으로 성곽내 칠곡도호부를 두어 경상감영 직할 산성으로 운영했으며, 낙동강 너머 금오산성과 함께 조선후기 영남관방의 거점성 역할을 담당했다.



공해지구역

장대지구역

수문4 및 성벽 발굴전경



공해지 구역 객사영역 시설

공해지구역 관아(진아) 시설

수문4 전경

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칠곡 가산산성 공해지 발굴조사(1,2차) 약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칠곡 가산산성 공해지 발굴조사(3차) 약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정비사업에 따른 칠곡 가산산성 수문④』.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7, 『칠곡 가산산성 4수문지 유구보존 계획 수립』.

④ 구미 천생산성⁶ : 보수정비구간 학술조사

조사결과, 평거식 암문과 성 안팎에 계단시설, 하부에 암거식 배수구 등을 확인했다.



암문지 위치

성벽 및 암문지

암문지 계단 및 하부 암거시설

계단시설 하부 암거시설 중복

⑤ 순흥 비봉산성⁷ : 순흥리벽화고분과의 관계확인을 위한 학술조사

조사결과, 체성은 외축내탁식에 상단은 내외협축식이며, 외벽 하단부에는 단면 삼각형의 보축으로 축조했다. 대문은 3문(남·동·서문) 중 계곡부에 위치한 남문은 안쪽에 수구, 저수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동·서문지는 3차 중복 설치된 흔적과 함께 두 문 모두 3차에 걸친 단칸 규모의 초석이 확인되었다.



비봉산성 축성도

체성 외벽 축조양상

동문지 중복

서문지 중복

⑥ 상주 견훤산성⁸ : 동문지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조사

조사결과, 동문은 확인되지 않아 현문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동쪽 체성과 치성을 연결하는 협축 성벽과 기저부에 삼년산성, 고모산성과 유사한 단면 삼각형의 보축시설을 확인하였다.



견훤산성 위치도

동문지 위치

동문지 발굴 항공사진

6 동국문화재연구원·구미시, 2016, 『구미 천생산성 암문지』.
7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순흥 비봉산성 발굴조사보고서』.
8 세종문화재연구원, 2012, 『상주 견훤산성(추정 동문지) 유적』.



동문지 및 체성 외벽과 보축1

동문지 및 체성 외벽과 보축2

동문지 체성 내벽

⑦ 봉화 청량산성⁹ : 복원정비 학술조사

조사결과, 동문지-밀성대 구간에서는 나말여초의 쟁패기에 충북·강원·경북 북부지역에 한정해 나타나는¹⁰ 체성 외벽의 수직 기둥 홈과 등성시설, 치성, 석환무지 등이 확인되었다. 밀성대-축융봉 구간에서는 성벽은 협축의 석축, 편축의 토축, 협축의 토석혼축, 자연지형 이용구간 등 다양한 축조수법이 확인되었다. 북문은 2차에 걸쳐 축조된 유구와 용도를 확인했다.



남문지

남문지 평면도

동문지-밀성대 구간 체성 외벽 수직홈

⑧ 문경 고모산성¹¹ : 성벽 복원정비 학술조사

조사결과, 남문은 신라의 전형적인 현문 구조의 성문과 체성벽 외측면의 보축 성벽, 반원형 곡성, 제형 암거 수구를 확인했다. 특히 확인된 확쇠 2점은 보은 삼년산성, 청주 부모산성 처럼 바닥에서 확인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서문지 일원에서 저수지 2개소, 우물 2개소, 집수시설이 확인되었다. 특히, 저수지의 2차 조사에서는 충남의 백제지역에서 주로 확인된 5세기 후반의 지하 목곽 저장시설¹²이 신라시대 유적으로는 처음이자 현재까지 발견된 유구 중 가장 큰 규모에 완벽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9 중원문화재연구원, 2005, 『봉화 청량산성 I -동문지-밀성대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봉화 청량산성 II -밀성대-축융봉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10 조순홍, 2007, 『한국 중세의 흙을 가진 석축산성의 성벽에 대한 연구』, 문학석사학위 논문.

11 중원문화재연구원, 2005, 『문경 고모산성-서문지-남문지 알원 발굴조사』.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문경 고모산성 2차 발굴조사』.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문경 고모산성 I -남문, 남동곡성 발굴조사』.

12 지하목곽고와 유사한 구조는 공주 공산성, 대전 계족산성, 이천 설성산성, 금산 백령산성, 대전 월평동 유적 등 백제권역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고모산성 위치도

남문지 및 남동곡성

남문지 체성 외벽 및 보축



성내측 입수구 및 수로

남동곡성

서문지 내부 지하 목곽 및 석축 시설

⑨ 칠곡 관호산성(백포산성)¹³ : 지표조사 및 주변 정비

조사결과, 낙동강변 백포산에 내·외성을 갖춘 테피식 석축성으로 둘레 약 1.8km이다. 산성은 지역 거점성, 북방 전진기지, 강안 물류기지의 복합적 성격의 삼국~통일신라시대 산성으로 신라시대 이서지역에서 확인된 대표 강안성으로 확인되었다. 성벽은 내성이 편축식에 장방형 석재를 잔돌과 함께 바른층쌓기했고, 외성은 용도처럼 토석혼축으로 돌출되게 축조했다. 문지 4개소, 치성 및 건물지 등이 내·외성에서 확인되었다.



위치도

성벽 체성 외벽1

성벽 체성 외벽, 보축

⑩ 안동 선성산성¹⁴ : 공원조성을 위한 구제발굴

조사결과, 안동을 거쳐 영동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배후에 위치한 방어 및 행정 목적의 치소성으로 추정되는 산성이 처음 확인되었다. 성내 건물지 구간에서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5동, 각루 건물지 2동, 서·북쪽 체성벽에서 삼국시대 초축성벽과 기단보축을 확인됐

13 한빛문화재연구원, 2013, 『칠곡 관호산성공원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1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선성현문화단지 조성사업부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동국문화재연구원, 2018, 『안동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선성산성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다. 이후 통일신라~일제강점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북문지와 이와 연결된 체성벽도 확인되었다.



㉑ 경주읍성¹⁵ : 정비복원 및 보존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학술조사

조사결과, 동문지의 동벽 중앙부와 그 북쪽 구간에서 통일신라시대 왕경대로(너비 20m 내외)와 읍성관련 토성과 석성, 동문지, 웅성, 치성, 등성시설을 확인했다. 고려시대에 토성 축조시 왕경대로를 기초로 사용했고, 고려(1378) 때 토성을 편축석성으로 개축했음이 확인되었다. 동문지는 후대 파괴된 상태였고, 웅성은 동문이 조성된 후 체성 외벽에 반시계방향의 말각장방형으로 축조해 덧붙였다. 치성은 동문지 북쪽 55m에 말각방형으로 성벽 외벽에 덧대어 축조했다. 석성 내탁부(토성)의 경사면에는 계단지로 추정되는 등성시설(하동읍성 치성 내벽에 계단시설이 확인)이 확인되었다. 한편, 남쪽 우회도로 구간의 토성에는 영정주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내·외측에 기저부 석열을 축조한 뒤 다양한 크기의 석재로 채웠음을 확인했다. 석성은 기초상에 지대석을 놓고 안으로 조금 들어 외벽석을 놓았으며, 지대석 밖으로는 퇴박석을 깔았음이 확인되었다.

㉒ 포항 장기읍¹⁶ :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조사

조사결과, 동문지는 확인된 것이 없어 육축의 폭과 너비로 보아 개거식·평거식의 단층 문루로 추정했다. 웅성은 체성과 동시에 시계방향으로 축조한 반원형 편문식이며, 적대는 확

1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7, 『경주읍성 I-경주읍성 복원정비사업부지(3.4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7, 『경주읍성 II-경주읍성 복원정비사업부지(우회도로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6 성림문화재연구원, 2008, 『포항 영일 장기읍성 동문지 유적』
계림문화재연구원, 2013, 『포항 영일 장기읍성 북문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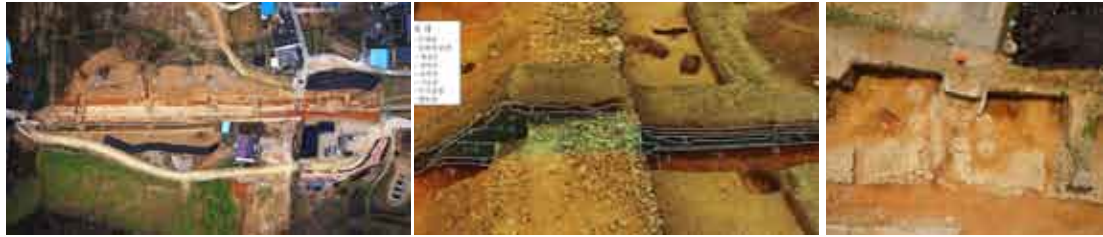
인되지 않았다. 북문지는 외측내탁식의 체성에 육축은 내외협축이 확인되었고, 문지 통로부에는 문지도리석이 확인되었다. 웅성의 내외협축 기법, 반원형 편문식은 동문지 웅성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㉓ 청도읍성¹⁷ :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학술조사

조사결과, 동문지는 신작로 및 도로 개설로 멸실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북문지는 2차례 중 복된 3×2칸 개거·홍예식 문루가 확인되었다. 체성은 동·북쪽성벽 구간에서 초축은 내외협축+내탁식, 북쪽·서쪽성벽 구간에서는 초·개축이 외측내탁식의 축조수법이 확인되었다. 치성과 웅성은 체성과 동시에 동일 축성기술로 축조했다. 다만, 치성은 동·북쪽성벽 구간에서만 비등간격으로 확인된 점, 웅성은 북문에만 초축 때 축조되었고 서문 웅성은 후대 성벽 개축 때 신축된 것임이 확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조선 전·후기의 과도기적 축성기술의 시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1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청도읍성 동·북문루 구역의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청도읍성 북쪽성벽 치성, 성내지, 남문지, 형옥지 발굴조사』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청도읍성 동쪽성벽 발굴조사 약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청도읍성 동쪽성벽(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7, 『청도읍성 서문지 발굴조사』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8, 『청도읍성 남문지 시굴조사 전문가검토회의 자료집』



동쪽성벽 발굴 현황

동쪽성벽 체성 단면 현황

동쪽성벽상 폐문루

⑭ 성주읍성¹⁸ : 도로 개설구간 구제발굴조사

조사결과, 서문지 남쪽의 서쪽성벽 구간으로 추정되는 구릉지에서 줄기초 석렬 위에 여러 흙으로 수평 다짐한 토루가 전·후로 확인되었다. 이는 1520년 석축으로 개축하기 이전에 축성된 고려 말의 초축 토성을 확인했다.



서쪽성벽 토성 및 석성 축조 단면

토성 및 석성 중복 축조 단면 상세

토성 기저부 석렬 상세

⑮ 영덕 오폭진¹⁹ : 하수관거 매설에 따른 구제발굴

조사결과, 강구면 소월리 오폭들에서 오폭영이 16세기에 이설하기 전 구지에 축조된 외축 내탁의 진성 체성 일부를 확인했다.



오폭영 위치

외축내탁식 체성 외벽석 상세

오폭영내 석렬

1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성주도시계획도로(소로3-6호선)사업구간내 성주읍성』고려 말, 경산부로 승격시 토성을 축조하고 조선 중종 15년(1520)에 석성으로 개축, 선조 24년(1591)에 대규모 수리가 있었다.

1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영덕 하수관거정비(BTL) 처리시설 부지내 문화유적 발(시)굴조사』.

⑯ 대구읍성²⁰ : 사업에 따른 입회조사 및 구제발굴조사

조사구역은 1906년 읍성의 북쪽성벽이 헐리고 신작로가 난 북성로 구간에서 체성의 기초부와 외축내탁 축조수법과 암거시설을 처음 확인했다.



북쪽성벽 체성 잔존 외벽석

성벽 하부 암거시설

⑰ 상주읍성²¹ : 왕산역사공원 부지 조성에 따른 구제발굴

조사결과, 상주읍성의 중심구역인 왕산 주위에 대한 첫 발굴조사로 객사가 불타 관아시설을 왕산주변으로 이설하기 전의 연못지 3개소, 건물지 2개소, 도로유구를 확인했다. 2015년 입수한 일본강점기 우편엽서에는 읍성내 시가지 및 4대문 사진, 2016년에 입수한 일본강점기 우편엽서 자료에는 왕산에서 바라 본 주요 관아시설 사진이 있어 읍성 연구에 주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성주읍성과 발굴지

발굴 유구 항공사진

연못지 항공사진

20 세종문화재연구원, 2014,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부지(북성로 구간)내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부지(북성로 구간)내 대구읍성 북성벽 유적』.
문헌에 대구읍성은 선조 23년(1590)에 토성으로 축조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후 영조 12년(1736)에 석성으로 개축, 고종 7년(1870)에 증·개축했다.

21 영남문화재연구원, 2013, 『상주 왕산역사공원 조성공사 사업부지내 상주 관아유적』.
문헌에 상주읍성은 우왕 7년(1381)에 처음 축성한 뒤 동왕 11년(1385)에 석성으로 보강해 완공했다. 그 이후 기록이 없어 증·개축 여부는 알 수 없고 1912년 훼손되었다. 당시 둘레 1.7km, 4대문, 암문 2개소가 있었고, 1924년 남문이 철거되면서 완전 훼손되었다.

2. 보존·정비의 현황과 방향

대구·경북지역에서 240여개소의 산성과 10여개의 읍성이 알려져 있다. 산성 중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경주 명활산성, 고령 주산성, 칠곡 가산산성, 구미 천생산성, 상주 견훤산성, 순흥 비봉산성, 봉화 청량산성, 문경 고모산성, 임당 토성, 칠곡 관호산성, 안동 선성산성 등이 고, 나머지는 문헌조사나 지표조사가 실시된 정도이다. 읍성에 구제·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경주읍성, 포항 장기읍성, 청도읍성, 성주읍성, 영덕읍성, 대구읍성, 상주읍성 등이다.

시·발굴조사의 목적은 대개 국가·지방지정문화재로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사전 고증 학술조사적 측면에서 추진되었고, 일부 비지정문화재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구제 발굴조사이었다. 앞서 성곽의 각종 조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보존·정비의 현황과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술조사 동기 및 목적

① 학술조사 동기 및 목적에 따라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활용방안 검토

- ㉠ 구제발굴
- ㉡ 학술발굴

② 학술발굴

- ㉠ 산성 : 경주 명활산성, 경주 관문성, 구미 금오산성, 구미 천생산성, 상주 견훤산성, 상주 금돌성, 봉화 청량산성, 문경 고모산성 등
- ㉡ 읍성 : 경주읍성, 청도읍성, 장기읍성 등

③ 학술조사(시·발굴조사 등) 없이 복원·정비한 경우 : 구미 금오산성, 상주 금돌성 일부 구간 등

- ㉠ 복원·정비 전에 학술조사가 선행된 산성이라도 성벽 및 주요시설의 특정구역만 발굴조사한 뒤 이를 근거로 나머지 구간을 복원·정비하는 사례가 많았다(시기적 축성법 및 변화양상을 고려치 않음).
- ㉡ 학술조사없이 복원근거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역사테마파크 및 재현사업의 일환으로

성벽과 성문을 복원·재현했거나 ‘종합정비계획수립’ 없이 복원·정비된 사례도 있다.

- 상주읍성 :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조성(상주시 북룡동 165-4번지 일원, 65,114㎡, 읍성 및 관아시설 재현 계획), 토지보상, 공사 추진 중
- 성주읍성 : 역사테마파크조성(성주읍 예산리·백전리 일원, 성주읍성 북문과 주변 성벽, 사직단, 성주사고 재현 등), 2016년 조성기본계획수립, 성벽 및 북문루 사업 추진 중
- 선산읍성 : 남문(낙남루) 2002년 2월 중창
- 안동읍성 : 읍성과 별개로 시 외곽 도로에 4대문 복원, 안동시 동부동 옹부공원 조성(2002~2006년, 동헌, 대동루 복원)



상주 경상감영공원 조성계획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계획



안동 옹부공원 조성

④ 학술조사는 복원·정비를 위한 통과의례로 인식

- ㉠ 보존·정비 시행 절차상(지표·종합정비계획수립·토지매입·고증조사, 시·발굴조사 등, 학술심포지움·복원·정비사업 시행 등)에 존재
- 학술조사 여부가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기준에 하나의 지표로 잘못 이해 및 적용
- 지자체의 역점 사업을 위해 학술조사가 악용
- 실제 학술조사 결과와 다르게 보존·정비되는 사례가 많음

⑤ 학술조사와 복원정비의 선후관계 차이



견훤산성 동문지(성벽 복원 후)



천생산성 암문지(성벽 복원 후)



독용산성(학술조사없이 복원정비)



장기읍성(성벽 복원 후 동·북문지 발굴)

⑥ 방향

- ㉠ 지정 및 비지정 성곽 구분없이 동일한 조사 및 보존관리·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
- 지정문화재에만 보존관리 및 정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제고
 - 문헌 및 역사기록(축성·개축 기록 등)이 명확하고,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만을 대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인식 고려
 - 문헌 및 역사기록이 명확하지 않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은 고증조사(발굴조사 등)를 통해 입증하려는 경향
 - 동일 지역에 특정 목적을 위해 신·수축한 산성(대가야와 신라 접경지역 산성, 임진왜란때 신·수축한 산성 등) 및 동시기 및 동일한 축성기술과 구성체계를 보이는 비지정 산성들도 지역 및 권역으로 묶어 지정, 보존·관리하는 방안도 필요
 - 다양한 고증자료 확보 필요(일제강점기 우편엽서 등)
- ㉡ 학술조사는 목적, 구간 및 범위,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성곽의 고증 및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종합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제시
 - 목적 : 보존·정비를 위한 학술조사, 축성 시기 및 지역별 역사성과 정체성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성곽 문화재활용을 위한 학술조사 등
 - 구간 : 보존구간, 보수구간, 보강구간, 복원구간으로 명확히 구분, 단 구간별 세부 정비방안 매뉴얼 수립이 필요
 - 대상 : 표본성곽(현재 잘 남아 있는 성곽 중에 원형이 될 만한 성벽구간), 보수성곽(보수·보강·복원이 필요한 성벽 구간)
 - 학술조사를 보존·정비를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지양
- ㉢ 복원·정비는 명확한 목적, 구간, 대상에 따른 학술조사 결과대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성곽 보존·정비에 발굴자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발굴결과에 따라 합리적·현실적 보존 및 정비 방안 마련 : 무리한 정비 지양(축조수법, 규모, 구간 등)
- ㉣ 보수성곽(보수, 보강, 복원구간)에 따른 학술조사 방법, 범위 등 매뉴얼, 지침 마련 필요

2) 학술조사 결과 및 문화재청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복원·정비사업 추진

① 학술조사는 ‘종합정비계획수립’에 근거해 대개 복원·정비를 위한 일련의 선행 고증조사 단계로 이루어짐

② 발굴조사 결과와 다르게 복원·정비하는 사례가 많다(문경 고모산성, 포항 장기읍성 등).

㉠ 학술조사 및 복원정비 관계자의 소통 부재

복원·정비사업 추진에는 발굴조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전문가 및 자문위원 등 관계자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들 산성 복원·정비 관계자(기관)간에 상호 협의·소통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굴결과와 전혀 다르게 복원·정비가 이루어져 역사성과 정체성이 부족하다.

• 문화재청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등

- 감독관(지방자치단체) : 복원·정비의 목적과 범위, 방향 설정, 예산수급 및 토지보상,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공사 전반의 지원 및 감독, 교육·활용 홍보, 공사사업자 선정 등

- 발굴자 : 감독관의 복원·정비의 목적과 범위, 방향 설정에 근거한 고증조사 구간에 시·발굴조사 실시, 축조범위 및 수법, 잔존 범위, 선·후축 여부와 축성기술 확인, 발굴 유구의 현황 실측, 출토유물에 따른 축조시기 및 초·수축 범위와 특성 검토, 발굴자 선정 방법 - 수의계약 및 입찰

- 설계자 : 연혁 및 축성기법 조사, 현황 측량 및 실측, 복원·정비의 목적과 범위, 방향 설정과 고증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복원 설계도서 작성(성곽 축조기술 및 사용재료, 크기와 형태, 가공수법 등 충분히 검토 후) 등(설계자 선정 : 수의계약 및 입찰)

- 시공자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진행 및 관리, 재료 수급 및 가공, 축성, 기술 인력관리 등(시공자 선정 방법 : 수의계약 및 입찰)

- 감리자 :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3억 이상)

- 자문단(설계·시공) : 성곽의 역사, 지역, 기술적 가치 등을 해석하여 보수, 복원의 특이사항 조언,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상 문제해결 및 조언 등

㉡ 발굴결과와 설계도서간의 차이, 설계도서와 시공과의 차이

- 축조기술 및 사용재료, 형태, 구조 차이 등

- 성돌 수급 문제(대부분 외부 반입 석재사용, 채굴, 채석과 채석장 선정 및 운영 등)와 규모·형태에 사업 구간별 차이

- 성돌 가공 문제(인력 가공, 기계 가공 등)와 기존 성벽과 이질감 유발

- ㉞ 보존·정비구간(보존, 보수, 보강, 복원구간)별 구분없이 학술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
- ㉞ 복원·정비시 기존 체성 및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복원·정비하는 예가 많다. 발굴조사는 기록보존 또는 복원·정비를 위한 고증조사의 일련의 절차 또는 단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③ 학술조사 후 보존, 정비방안 사전 검토 후 발굴조사 필요

예산 계획 미비 및 고증자료 미확보로 인한 복구·복토(조사 전, 정비계획 및 예산계획, 보존관리 방안 검토 후 추진)



고령 주산성 발굴조사 후 복토

칠곡 가산산성 수문4, 보존조치

④ 방향

- ㉞ ‘종합정비계획수립’ 후 학술조사 결과 및 제반 주변여건을 검토해 피드-백 및 수정·보완이 필요
- ㉞ 보존·정비구간(보존, 보수, 보강, 복원구간)을 명확한 구분해 사업 추진
 - 현상보존, 안전대책 수립 후 개방, 수습부재 활용 방안, 수리·복원 등 세부적으로 보존·정비를 구분하고 각 사항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필요
 - 보수 : 고증을 통해 유실된 성돌을 수습하여 재활용해 기존 성곽에 동일 축조방식으로 수리하는 것
 - 보강 :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성곽은 현황 실측조사 후 문제 구역을 일정부분 해체한 후 고증을 통해 보강하고 기존 축조방식대로 수리하는 것
 - 복원 : 원형 고증이 가능한 범위에 한해 잔존 성벽이 남아 있고, 유실·멸실 부분의 원형고증이 가능한 경우로 보수와 보강보다 큰 범위로 시행하는 수리
- 학술조사가 보존관리 및 정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책이라는 인식은 지양
- 성곽 보존관리 및 정비의 관계자(감독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자문단 등) 상호 의견 수렴 및 수시 현장 점검과 특이사항 조언이 필요

3) 보존·정비의 한계성

- ① 성곽의 보존·정비는 단계별로 추진사항(고증조사, 종합정비계획수립, 토지매입, 예산신청 및 승인, 공사 입찰 및 사업자선정, 석산개발, 공사, 감리, 보존관리 방안 등)이 복잡하고, 장기간에 엄청난 소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 ② 따라서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구간도 일부 특정 구간 및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주요 성벽 구간 및 성문 등 특정 시설과 구간에 집중해 추진되었다.
 - ㉞ 성곽 보존·관리 및 정비에 소요 예산 확보에 유리한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만 대상으로 추진
 - ㉞ 성곽의 복원·정비는 대개 성벽(성문, 응성, 치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 성벽은 모두 석축조, 성문은 모두 홍예식 문루
 - 지역, 시기별로 역사성과 정체성을 갖는 성곽의 축성기술 및 시설적 특성없이 전국千篇일률적인 구조·형태로 복원 또는 재현되고 있음
 - ㉞ 비지정 및 미조사 성곽은 상대적으로 관심소홀, 보존관리 및 정비에 재정적 여력이 없어 방치된 경우가 많음
- ③ 사업자 선정 및 감독의 한계
 - ㉞ 사업건 마다 전자입찰방식으로 업체 선정(기술력 및 경험 판단 부재, 축성법의 일관성 부족)
 - 동일 성곽 보수정비에 기존 및 신규사업 구간별로 축성법(석산 개발, 기술자 수준 등)이 달라 문화재의 진정성 훼손 및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한다(문경 고모산성, 포항 장기읍성 등)
 - ㉞ 잦은 공사감독관의 교체 및 전문성 부족(보수담당자와 학예사간에 업무분장)
- ④ 학술조사 방법의 문제점
 - ㉞ 학술조사(발굴조사) 전에 명확한 동기 및 목적, 조사 후에는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방안 검토수립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발굴 후 예산부족 등으로 복구, 복토 등 조치, 유구 훼손)
 - 성곽의 축성시기 및 축성자, 시기적 변화양상을 밝힐 주요한 고증조사이다. 학술조사의 명확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토유물 수습 위주의 학술조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 ㉞ 성곽 복원정비의 시점 설정이 필요하다.
 - 성곽은 초축이후로 대개 시기를 달리하며 수 차례 수·개축해 재사용된 경우가 많다. 초·개축 구분이 명확치 않는 경우와 성곽 및 시설이 중복 확인된 경우에 명확

한 복원·정비 시점 및 근거자료 없이 편의·성과주위로 정비를 추진(석성 위주로, 잘 남은 표본성곽을 중심으로)하는 경우가 많음

- 후대 상층 유구는 실측 및 사진 등으로 기록은 남기지만, 선대 유구 확인을 위해 최종 멸실되므로 복원정비의 범위 및 대상을 정해 신중한 조사범위와 방법, 정비 시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청도읍성 북쪽성벽 체성의 선축과 후축 외벽 전경



철곡 가산산성 내성

철곡 가산산성 외성

철곡 가산산성 중성

- 성과위주의 보존·정비 계획에 편승한 잘못된 조사방법 및 방향설정은 지양
- 학술조사 후 고증자료가 미확인 및 불충분할 경우에 무리한 복원·정비는 지양하고, 합리적인 사후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한 뒤 보존조치하는 방안도 필요(가산산성 수문④, 낙석방지망으로 유구 훼손방지 및 보존 등)
- 지하 레이더 탐사 등 과학적 조사방법도 병용해 검토할 필요성

㉞ 발굴조사로 인해 성곽 및 시설의 구조적 성능 저하 유발

- 성곽은 오랜 시기에 걸쳐 퇴적층에 묻혀 있던 경우, 일시적으로 퇴적층을 전부 걷어 낼 경우에 구조적 성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붕괴, 균열, 부동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성내 지하 저장시설(지하 목곽저장시설 등)의 경우에 내부 퇴적토를 걷어 내고, 외부에 노출된 뒤 현장 보존조치한 경우에 유구의 성능은 크게 저하된다. 시굴조사시 유구 확인시에 사후 보존관리 및 보존조치, 활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발굴조사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고모산성 남문지 주변 복원 전

고모산성 남문지 주변 복원 후

고모산성 남쪽성벽 복원 전

고모산성 남쪽성벽 복원 후



고모산성 체성 외벽 퇴적양상

선성산성 북쪽성벽 체성 외부 퇴적양상

고모산성 지하 목조 및 석축 저수시설

⑤ 보존과 개발의 첨예한 대립관계

- ㉠ 성곽 내·외부로 토지소유관계상 사유지가 많아 보존과 개발의 첨예한 대립관계가 많다.
 - 국가 및 지방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시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이 자주 발생되기도 함
 - 사유지와 개발로 인해 성곽이 훼손, 고립, 왜소화되는 경향(포항 남미질부성 및 읍성 등)
 - 문화재 추가지정 및 토지매입, 보존정비사업 추진(예산확보)에 어려움(가산산성 외성 등)
- ㉡ 도시화·시가지화가 진행된 읍성의 경우에 보존·관리 및 정비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무리한 복원·정비·재현은 지양하고, 현재의 도시문화와 연계한 역사문화적 스토리텔링 등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 필요
- ㉢ 성곽이 국립 및 도·시립공원에 위치한 경우에 성곽의 유해수목을 제거 및 보존정비에 자연환경 보존적 측면에서 관리주체와 협의 및 제약이 많음



가산산성 지정현황

가산산성 외성 추가지정

남미질부성과 개발부지

남미질부성과 개발부지 경계

⑥ 방향

- ㉠ 학술조사는 성곽 보존·정비의 명확한 동기, 목적, 대상과 조사 후 조치사항 및 방향 설정 후 추진
 - 조사 전, 고증자료 및 예산확보 여부에 따른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상세히 검토 필요
- ㉡ 성곽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구분없이 동일한 조건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적용
 - 기존 지정문화재 우선의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할 필요

- ㉔ 성곽 보존·관리의 역사적 가치를 지역민에게 적극적인 이해·홍보, 교육 필요
 - 성곽 주변 잡목 제거 및 탐방로 정비·설치 등
 - 유적 및 시설 안내판 설치, 안전관리용 배수로 및 낙석방지 설치 등
 - 성곽이 지역개발 및 재산권행사에 방해자가 아니라 문화자산이라는 적극적 이해, 홍보 필요
- ㉕ 학술조사 결과에 따라 보존·정비를 시행하기 보다는 명확한 보존·정비 방향설정에 따라 학술조사를 추진하되, 고증조사 개념으로 적용(시굴조사를 우선 시행한 후 중복 유구확인 시 보존·정비 방향을 재검토한 후 사업 추진)
 - 복원·정비구간 및 대상에 한해 학술조사 실시, 학술조사에 한해 복원·정비사업 추진
 - 성곽 시설(건물지, 못, 저장시설 등)에 대한 추후 예산확보 여부 및 보존 및 관리방안, 활용 등 세부 매뉴얼 마련 후 학술조사 실시
 - 학술조사 후 구조적 약화(장기 퇴적층 제거 등)를 고려한 학술조사 사전 검토 및 구조 검토 등 보완 방안 필요
- ㉖ 성곽 시설 중 못, 샘 등은 습지화가 된 경우에 합리적인 보존·정비방안이 필요(기존 기능을 복원시킬 것인지, 습지 못을 자연생태공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㉗ 유해수목 제거시 관계기관(국립 및 도립공원관리사업소 등)과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
- ㉘ 발굴조사가 새로운 유구, 유물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양(사전에 발굴조사 후 유구의 보존관리 및 보존조치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
- ㉙ 중복유구 구역은 시굴조사 및 지하 레이다 탐사 실시 후 조사방법 및 범위 재검토 후 발굴조사

4) 보존·정비후 그 결과를 기술한 수리보고서 보완이 필요하다

- ① 현행 수리보고서의 작성 항목이 너무 간략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관련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 ② 보존·정비의 공사일정 및 관계자, 공정별 적용 기술과 공법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한 수리보고서를 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동종 사업 및 관련 보존·정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동종 사업의 방향 설정 및 고증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보존관리 방향

- (1) 「성곽의 보존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준수
 - 성곽 보수정비시 관계자(발굴조사자·설계·시공·감리자·감독관·자문위원) 업무 지침 마련
- (2) 성곽을 보존, 보수, 복원, 보강구간으로 명확히 구분해 보존·정비 실시
 - 학술조사 명확한 동기 및 목적에 따른 학술조사와 그에 따른 보존·정비
- (3) 성곽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비지정 성곽의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관리 방안 마련
 - 지정 성곽의 보수정비 데이터 구축, 지역별, 시기별 성곽 자료집 발간 및 활용방안 검토
- (4) 성곽의 상시관리 체제 구축
 - 성곽 관리 주체 지정 필요(국립 및 도·시립공원내 성곽의 경우)
 - 상시 관리자 체제 구축
 - 상시 관리자 지정과 활용 전문가 교육, 양성 : 학예연구사 등 업무분장에 따라 보수 담당자가 주로 보존·정비 담당
 - 관련 전문가 및 기관에 정기 관리 및 조사실시 : 전문기관에 위탁 등
 - 성곽 보존관리
 - 성벽 위 탐방로 정비(관람대, 전망대 설치, 훼손지 보존방안 마련 등) 및 노선 조정 필요
 - 수목 정비(조경수는 존치) : 성곽 본연의 기능과 주변 자연환경의 적절화 및 조화성 도모
 - 기록 보존 : 성벽 실측조사 등
 - 위험구간 : 낙석방지망 설치 등
 - 성내 시설 관리
 - 일상관리 : 제초, 수목정비
 - 건물지 : 훼손방지 등 일상적 관리
 - 못, 샘 : 습지화 방지 및 일상적 관리

- 정기관리 : 주변 편의시설, 유적 안내(설명)판, 이정표, 배수로 정비 등
 - 현재 운영 중인 ‘문화재돌봄사업단’을 적극 활용 : 일상적 관리 및 정기관리
- 안전관리
- 위험구간 관리 : 낙석방지망 및 안전펜스 등 정비
 - 붕괴 구간에 한해 표본·시축성곽으로 정비해 관리

(5) 활용방안

-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 개발
- 성곽 개별 특성을 살필 유적 탐방
- 인근 성곽의 연계 탐방을 통한 지역 관방 탐방 등
- 시기·지역별 성곽의 탐방 등

〈경상북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에 관한 토론문

조효식(국립대구박물관)

성곽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은 아마 현재의 성곽유산에 대한 연구, 그리고 관리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유적을 대하는 시선, 그리고 접근방법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주제인 경상북도 성곽 연구 현황과 성과는 표와 조사 개요 등으로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후반부 보존 및 관리방안도 상당수 구체적이었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상북도 지역 성곽의 조사 성과가 그리 많지 않기에 오늘 이 논의는 향후 성곽 연구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은바 책무인 토론에서는 발표문의 비판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지역 성곽들을 답사하면서 느꼈던 의문점 등에 기초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사된 성곽 가운데 대부분이 복원·정비 및 보존활용을 위한 것이고, 구제 및 순수 학술조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순수 학술조사가 많으면 성곽 보존과 정비에 도움이 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지역 성곽 250곳 가운데 본고에서 언급한 60여 곳을 제외하면 절반이상이 아직 기초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 미조사 성곽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는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용 가운데 조사가 특정 성곽에 편중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사적(9곳)	경주 월성(7회), 부산성(2회), 명활산성(3회), 관문성(1회), 경주읍성(5회), 고령 주산성(3회), 대구 달성(2회), 가산산성(10회), 포항 장기읍성(3회)
대구, 경상북도 기념물(11곳)	구미 천생산성(2회), 상주 견훤산성(2회), 상주 금돌성(1회), 김천 금오산성(2회), 포항 남미질부성(1회), 성주 독용산성(1회), 성주 가야산성(1회), 경산 용산산성(1회), 대구 팔거산성(2회), 청도 청도읍성(9회), 달성 초곡산성(1회)
비지정(17곳)	영주 비봉산성(1회), 봉화 청량산성(3회), 문경 고모산성(7회), 칠곡 관호산성(7회), 청도 오례산성(5회), 백곡산성(1회), 울진 백암산성(1회), 상주 병풍산성, 경산 임당토성(2회), 안동 선성산성(3회), 성주읍성(2회), 상주읍성(1회), 영천읍성(1회), 영덕읍성(1회), 오포진(1회), 경산읍성(1회), 대구읍성(2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또 상당수 연구가 잘 남아 있고 잘 알려진 유적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로 선정된 유적들이 어떻게 사적과 기념물로 선정되었을까요? 그 분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타 성곽들이 지정문화재로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정비 복원의 문제점도 다각도로 언급하였습니다. 저 역시 발굴조사 결과와 다르게 복원·정비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정비 복원이 아니라 신축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복원 정비 사업의 개선 방법으로 발굴조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전문가 및 자문위원 등 관계자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하셨는데 어떠한 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초·개축 성곽 및 시설이 확인된 경우 명확한 복원·정비시점의 근거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정비를 추진(석성 위주로, 잘 남은 표본성곽을 중심으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해결법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현재 조사 진행중인 경주 월성의 경우 어느 시기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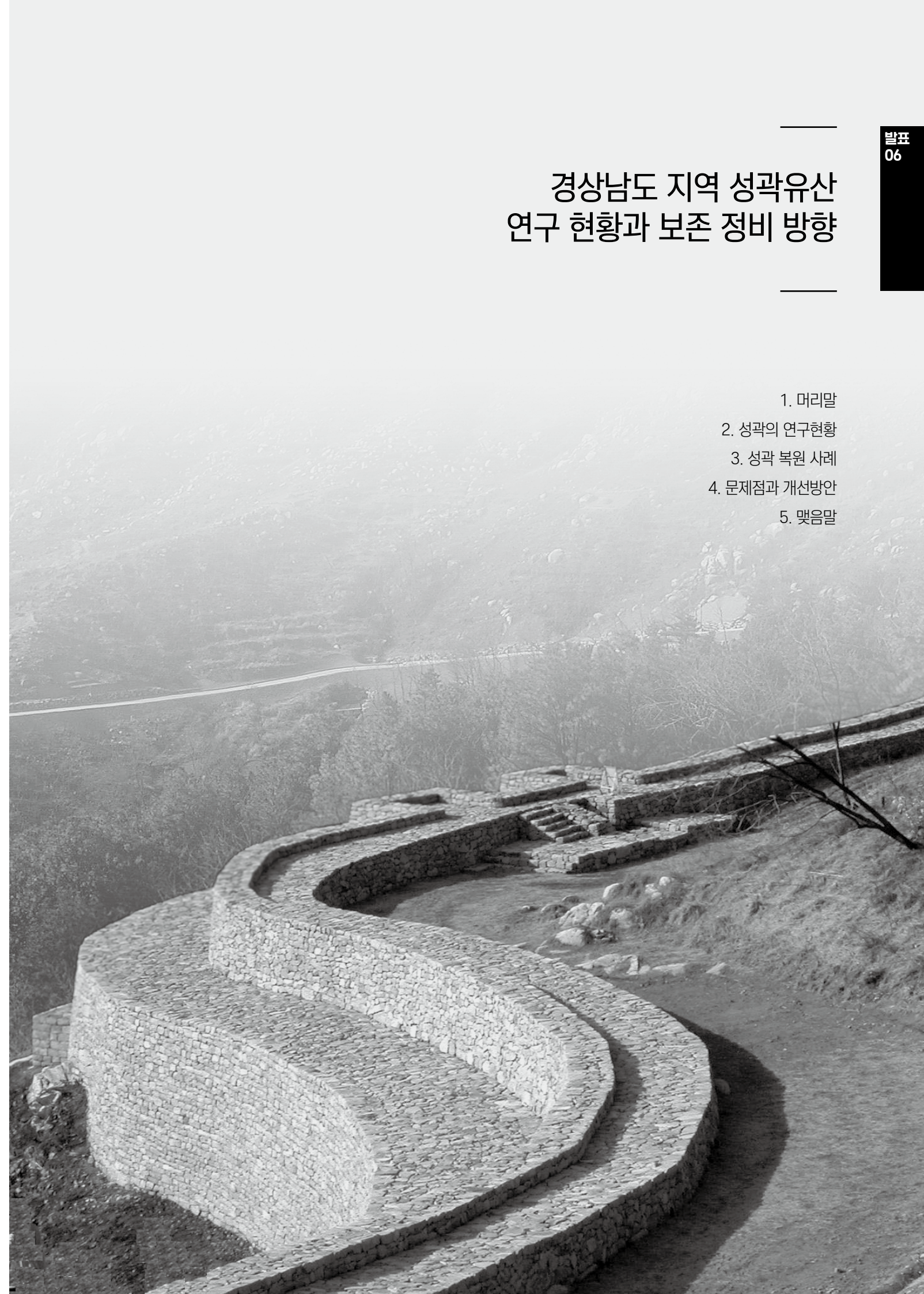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성곽을 연구하고 대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상시관리자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잘 알다시피 성곽 조사는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이 기피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러기에 관련 전문가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정비 복원에 앞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관련 전공자 또는 연구자들의 육성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1. 머리말
2. 성곽의 연구현황
3. 성곽 복원 사례
4.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맺음말



경상남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홍성우 · 경상문화재연구원

VI
경남



1. 머리말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수많은 성곽이 남아 있다. 높은 산에는 산성, 야트막한 구릉에는 토성, 평지에는 읍성이 있다. 조선 세종 때 양성지梁誠之가 우리나라를 ‘성곽의 나라’라고 한 것도 삼국시대 이래 다양한 형태의 성곽이 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적인 영향과 잦은 왜침으로 인한 역사적 경험에서 산성山城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2년 발간한 『한국고고학사전 성곽·봉수편』에는 우리나라 성곽 1,880여개가 보고¹되어 있으며, 이 중 산성은 1,200여개로 전체 성곽의 63.8%에 해당한다.

외침이 많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성곽은 국가의 중요한 하부구조인 동시에 축성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의 역사 전반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며, 또한 해당 지

1 1990년 『한국의 성곽과 봉수』에는 1,448개, 1995년에서 1997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담은 『문화유적총람』에는 2,137개, 2012년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성곽·봉수편』에는 1,880개 등 통계에 차이가 있다. 필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파악한 『한국고고학사전 성곽·봉수편』의 성곽수를 따랐다.

역의 역사나 지리적인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곽은 기본적으로 삼국~조선시대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필요에 따라 중복 사용하거나, 폐기를 반복하는 특수성을 가진다.² 성곽의 구조 또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성곽에는 방어시설, 생활시설, 도로시설 등 다양한 유구가 갖추어져 있다. 방어시설로는 성벽·성문·여장·옹성·치성·적대·해자·수구(문), 생활시설로는 건물지·집수지·우물·샘터·경작지, 생산시설로는 가마터·제철로, 도로시설로는 도로유구가 있다. 이처럼 성곽은 점點적인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면面적 개념의 복합 문화재로 볼 수 있다.³ 이로부터 성곽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으며, 복원·정비 역시 입체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방법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성곽의 조사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의 성곽, 특히 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 천 년의 세월 동안 필요에 따라 중복 사용하거나, 폐기를 반복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성곽 안에 동일시기의 유구와 유물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곽이 오랜 세월 사용되다 보니 초축과 증·개축시점이 다르고 그와 관련된 유물의 증명은 조사의 필연적 과제이다. 이 관계가 명확하게 검증되어야만 축성세력과 점유세력, 초축과 증개축 시점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성곽의 역사성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성곽의 입체적 복원도 가능하다. 문화재 조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경남지역 성곽연구 현황과 성곽 복원·정비 실태를 살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작성되었다. 하지만 필자의 전공이 복원 관련 분야도 아니고, 복원·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일일이 되짚어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할뿐더러,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필자의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지식이나마 아래와 같이 전개하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경남지역 성곽의 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남지역(부산과 울산 포함)에는 316여개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70여개의 성곽이 시·발굴조사 되어 성곽의 축성시기, 축조기법, 출토유물 등이 알려져 있다.⁴ 지금까지 성곽연구는 신라산성을 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 가야산성이 조사되면서 조금씩 연구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경향을 정리하였다.

3장은 경남지역 성곽 중 산성을 대상으로 복원·정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남지역 316개 성곽 중 복원·정비가 이루어진 성곽은 49개 정도이다. 이번 발표회가 남한산성의 보

다 나은 복원·정비를 위한 자료수집의 목적도 있으므로, 산성을 대상으로 복원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지금까지 삼국시대 산성이 주로 조사되었고 복원·정비도 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산성으로 삼국시대 산성과는 축조기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 산성의 복원·정비 현황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4장은 경남지역 성곽 복원·정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성곽 복원·정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성곽 복원·정비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고용규, 2016, 「성곽 보수정비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곽·보존 관리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3 복합문화재와 비슷한 개념으로 유구복합체 또는 유물복합체라는 용어는 취락고고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지역에서 한 시기에 사용되었던 유구와 유물을 복합적으로 지칭한다'로 이해하고 있다. 막연한 유적 개념을 대신하여 유구와 유물을 결합한 개념이다.

4 발굴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여 뽑은 것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성곽의 연구현황

1) 성곽 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2년 발간한 『한국고고학사전 성곽·봉수편』에는 거제시 23개, 김해시 14개, 밀양시 8개, 사천시 12개, 양산시 10개, 진주시 3개, 창원시 27개, 통영시 9개, 거창군 20개, 고성군 17개, 남해군 22개, 산청군 5개, 의령군 9개, 창녕군 14개, 하동군 14개, 함안군 19개, 함양군 9개, 합천군 25개, 부산광역시 31개, 울산광역시 25개 등 모두 316개의 성곽이 있고 이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전국성곽(남한) 1,880여개의 16.8%에 해당한다.⁵

경남지역 성곽 수는 『문화유적분포지도』, 『경남의 성곽』, 『한국고고학사전 성곽·봉수편』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대부분 위치나 잔존현황만 언급되어 성곽의 축성기법, 축성시기, 축성주체는 거의 알 수가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⁶ 경남지역 성곽 316개 중 시·발굴조사 된 성곽은 70개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지역 전체 성곽 중 22.1%에 해당한다. 시·발굴조사 된 성곽 70여개 중 시대별로 살펴보면, 삼국~통일신라시대 성곽 34개, 고려~조선시대 성곽 36개이고 성격별로는 산성 32개, 평지성 7개, 읍성 21개, 진성 7개, 왜성 3개로 구분된다. 산성과 읍성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 경남지역(부산·울산포함) 성곽 중 시·발굴조사 성곽

지역\현황	성곽수	학술조사(시·발굴조사) 성곽	
거제시	23	6	고현성지, 오양성지, 옥포진성, 둔덕기성, 사등성, 옥산성지
김해시	14	8	분산성, 봉황토성, 김해고읍성, 김해읍성, 나전리토루, 양동산성, 신기산성, 마현산성
밀양시	8	2	추화산성, 밀양읍성
사천시	12	2	선진리토성, 사천읍성
양산시	10	1	순지리토성
진주시	3	2	진주성, 전 송대산성
창원시	27	6	구산성지, 웅천읍성, 진례산성, 합포성지, 창원읍성, 회원현성지

5 지금도 성곽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성곽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한 예로 '강주토성'은 2017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6 함안 성산산성은 처음에는 아라가야의 고도에 위치하여 가야의 산성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장기간 집중적인 발굴조사 결과 산성 내에서 출토된 명문목간과 체성 구조 등을 통하여 그 축성시기를 6세기 중반으로, 축성주체는 신라로 판명되었다. 지표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지표조사만으로는 축성시기나 축성주체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현황	성곽수	학술조사(시·발굴조사) 성곽	
통영시	9	1	통영성지
거창군	20	2	거열산성, 정장리토성
고성군	17	3	고성읍성, 소울비포성지, 거류산성
남해군	22	3	대국산성, 금오산성, 임진성
산청군	5	0	-
의령군	9	3	벽화산성지, 미타산성, 호미산성
창녕군	14	1	화왕산성
하동군	14	3	하동읍성, 고성산성, 정안산성
함안군	19	3	성산산성, 칠원산성, 칠원읍성
함양군	9	2	사근산성, 황석산성
합천군	25	4	미송산성, 대야성, 전 초팔성, 성산리토성
부산광역시	31	12	천성진성, 금단곶보성, 당감동성, 기장읍성, 기장산성, 배산성지, 동래읍성, 동래고읍성, 경상좌수영성지, 죽도왜성, 두모리진성, 죽성리왜성
울산광역시	25	6	개운포성지, 언양읍성, 화산리성지, 울산병영성, 울산왜성, 반구동토성지
합계	316	70	

표 2. 경남지역 시기별 시·발굴조사 성곽

성벽분류	성곽명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산성(27)	거제 둔덕기성, 거제 옥산성지, 거창 거열산성, 김해 양동산성, 김해 분산성, 김해 마현산성, 김해 신기산성, 고성 거류산성, 남해 대국산성, 밀양 추화산성, 부산 배산성지, 부산 기장산성, 울산 화산리성지, 의령 벽화산성지, 의령 호미산성, 진해 구산성지, 창녕 화왕산성, 창원 진례산성, 하동 고소성, 하동 정안산성, 함안 성산산성, 함안 칠원산성, 함양 황석산성, 함양 사근산성, 합천 미송산성, 합천 대야성, 합천 전 초팔성
	평지성(7)	거창 정장리토성, 김해 봉황토성, 김해 나전리토루, 사천 선진리토성, 양산 순지리토성, 울산 반구동 토성지, 합천 성산리토성
고려~조선시대	산성(5)	남해 금오산성, 남해 임진성, 의령 미타산성, 진주 전 송대산성, 하동 고성산성
	읍성(21)	거제 고현성, 거제 사등성, 거제 오양성, 기장읍성, 경상좌수영지, 김해고읍성, 김해읍성, 고성읍성, 동래읍성, 동래고읍성, 마산 회원현성지, 밀양읍성, 부산 당감동성지, 사천읍성, 언양읍성, 울산병영성, 웅천읍성, 진주성, 통영성지, 하동읍성, 함안 칠원읍성
	진성(7)	거제 옥포진성, 고성 소울비포성지, 마산 합포성지, 부산 금단곶보성, 부산 천성진성, 부산 두모리진성, 울산 개운포성지
	왜성(3)	죽도왜성, 죽성리왜성, 울산왜성

2) 성곽 연구

경남지역 성곽은 산성의 축성시기와 축성주체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산성은 신라산성을 대상으로 면석상태·기단보축·수구시설 등의 성벽 축조기법, 집수지·목곽고 등 운영시설, 출토유물을 통한 축성시기 등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야산성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가야산성에 대한 연구도 차츰 이루어지고 있다. 가야산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가야산성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연구자가 많아졌다. 경남지역 신라산성과 가야산성의 연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신라산성

경남지역 신라산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성은 21개⁷ 정도이며, 거창 거열산성, 함양 사근산성, 거제 둔덕기성, 함안 성산산성, 김해 분산성, 남해 대국산성, 창녕 목마산성, 김해 양동산성이 대표적이다. 신라산성은 빠르면 삼년산성이 축성되는 5세기 후반이나 늦어도 6세기 전반 경에는 축성기법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신라산성의 특징은 첫째, 성벽 외측 하부에 단면 삼각형의 보축을 동반한 내외겹축으로 축조한 성벽을 가진다. 둘째, 성벽에 부가된 치성은 반원통형의 곡성을 특징으로 성립된 후, 그 형태가 말각방형을 거쳐 장방형으로 변천되었다. 셋째, 성문은 성문 개구부 선단이 직각을 이루며, 현문양식과 옹성을 가진 것이 많다. 넷째, 성내에는 층단을 이루며 깊어지는 못과 원통형의 우물이 마련되고, 수구는 성벽을 관통하도록 만들어진 사례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산성의 규모 변화와 함께 점차 변화되어 10세기 경 이후로 한국 중세 석축산성의 모태가 되었다.⁸

경남지역에서 신라산성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대에 많이 축성된다. 외벽 면적은 두께:길이가 1:5의 비율을 보이는 세장방형과 1:3의 비율을 보이는 장방형으로 구분되는데 석재의 재질과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세장방형 석재를 사용한 산성들은 대부분 내륙지역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이며 점판암 또는 니암층으로 형성된 지질대에 분포된 특징이 있다. 반면 장방형 석재를 사용한 산성들은 강안 또는 해안가에 위치하면서 화강암이나 사암층의 지질로 형성된 지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신라산성 외벽 쌓기는 품자형 쌓기, 1열 수평 쌓기나 2열 수평 쌓기의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2열 수평 쌓기는 함양 사근산성, 거창 거열산성, 김해 분산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함양 사근산성의 경우 20여 구간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각 구간 내에서 품자형 쌓기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⁹

외벽 기저부 보강석축은 외벽의 기저부를 보강하는 시설로 단면 삼각형과 방형으로 구분된다. 단면 삼각형과 방형의 하단 너비에서도 차이가 관찰되는데, 전자의 경우 후자에 비해 좁은 하단 너비를 보인다. 보축은 대부분 점토 등이 표면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석축이 지상에 드러나지 않는 구조였을 것을 생각된다.

집수지는 평·단면 부정형 집수지와 단면 계단식 집수지로 대별되며, 후자는 평면 형태에 따라 원형과 방형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규모가 대형으로 포곡식산성인 성산산성에서

만 확인되었으나 계곡부의 물을 통제하는 시설임을 감안한다면, 대규모 집수지는 계곡부를 포함하는 포곡식산성의 특성상 성벽이나 문지 주변에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자료의 축적이 기대된다. 한편, 후자는 단면 계단식의 형태를 보이며, 평면 원형과 방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평면 원형의 구조는 거제 둔덕기성, 거제 다대산성, 남해 대국산성, 함양 사근산성 등에서 확인되며, 평면 방형의 구조는 고소성만 확인된다.

(2) 가야산성

가야성곽 또는 가야산성은 그 실체의 논란이 아직도 있지만 최근 학술조사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경남지역 가야산성은 김해 봉황토성, 김해 나전리보루, 김해 신기리산성 목책, 합천 성산토성, 함안 안곡산성, 함안 아라가야 왕궁지가 있고 경북 고령지역의 주산성과 봉화산산성도 가야산성으로 보고 있다. 경남지역 가야산성은 거점성(왕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작은 산성이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창녕, 창원, 함안지역 정도라 할 수 있다. 왕성의 경우 야트막한 구릉 정상과 사면을 두르므로 내부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다. 이에 반해 산성들의 대부분은 내부가 협소하거나 암괴가 노두 된 경우에 이를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므로 장기적인 농성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아직 신라산성과 가야산성의 구조적인 차이를 명백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가야산성의 특징으로 ① 신라성에 비해 성 전체의 규모가 작다. ② 체성의 축조에 있어 흙과 석재를 이용한 토석 혼축으로 쌓았다. ③ 암괴가 노두된 경우 이를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④ 장기농성이 불가능하다 등으로 볼 수 있다.¹⁰

경남 합천지역 성곽을 검토하여 가야성곽으로 비정한 연구도 있다. 합천지역 성곽의 특징으로 평야를 끼고 있는 구릉지대의 산마루와 기슭에 고분군을 두고 인근 높은 산에 산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테피식의 평면 플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 체성의 둘레는 1,400m이상 되는 것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400~500m 내외의 것들이 많다. 축조기법에서도 정연한 품자형 쌓기나 절석가공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성벽의 축조에서도 협축보다는 편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지의 축조 역시 신라성곽에서 보이는 현문식과 같은 방식의 축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양상은 신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원인력과 기간 등 제반여건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방통치체제의 미확립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¹¹

최근 조사한 안곡산성도 가야산성으로 보고 있다. 시굴조사 결과, 부정형 할석과 점토를

7 신라산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성은 거제 둔덕기성, 거제 다대산성, 김해 분산성, 김해 양동산성, 김해 마현산성, 김해 신기산성, 밀양 추화산성, 진해 구산성지, 창녕 외동 성산산성, 창녕 화천리 성지, 창녕 진례산성, 거창 거열산성, 고성 거류산성, 남해 대국산성, 창녕 목마산성, 하동 고소성, 하동 원동산성, 함안 성산산성, 함양 사근산성, 부산 배산성지, 울산 관문성 등 이다.

8 차용길, 1998, 『신라 석축 산성의 성립과 특징』, 『석당논총』 41집, 석당전통문화연구원.

9 심종훈, 2010, 『경남지역 삼국통일기 석축산성 연구』, 『한국성곽연구의 새로운 관점』, 한국성곽학회 초대회장 심봉근박사 퇴임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10 안성현, 2017, 12, 『함안지역의 가야산성』, 『아라가야 산성, 보존과 활용』, 함안·창원대학교 경남학센터.

11 노재현, 2007, 『합천지역 성곽에 대한 소고』, 『한국성곽학보 제11집』, 한국성곽학회.

경사면에 덧대어 외벽을 조성하고, 내벽은 편축으로 할석과 점토를 활용한 축조기법을 보인다. 이는 가야성으로 알려진 함안 칠원산성 및 합천 전 초팔성과 상당히 유사한 축조기법이다.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기대편과 고배 대각편 등은 아라가야 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는 말이산 고분군의 6호분(5세기 후반)에서 출토된 토기편과 동일형식으로 추정된다. 안곡산성이 위치하는 칠서지역은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쪽 가까이에 위치하며, 아라가야의 북동쪽 경계에 해당한다. 즉 남강과 낙동강 건너편의 정치세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군사적 중요지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마산 내서의 광려산에서 발원하여 낙동강에 합류하는 광려천을 바로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로상에 입지하는 가야산성으로 이해된다.¹²

(3) 고려 및 조선시대 산성

경남지역 고려 및 조선시대 산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남지역 산성 중에 고고학적 조사나 연구 성과로는 고려시대 산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조사가 미흡하고, 고려시대 성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고학적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고려 조선시대 성곽의 특징이나 고려후기의 관방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

안성현¹³은 부산 당감동토성, 부산 구량동유적, 창원 완포현고산성, 마산 합포성지, 마산 회원현성지, 하동 금오산성, 진주 전 송대산성, 합천 악견산성, 합천 미송산성, 함양 황석산성, 의령 미타산성 등을 고려시대 축성 성곽으로 보았다. 이외에 고려시대 이전에 축성된 성곽도 고려시대에 재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고려시대 축성된 성곽의 형태는 평지성과 산성으로 나뉘어진다. 이중 평지성은 바다와 근접한 지역에,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산성이 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성곽의 규모는 200m 미만부터 3,000m 이상까지 다양한데 이는 성곽의 축조 목적에 따라 규모를 달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산성의 축조기법은 기저부 조성과 외벽 축조기법이 다양하여 정형성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전 시기보다 성벽의 규모가 작아진다. 또한 석성의 성벽은 암괴가 노두 되거나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에서는 성벽을 쌓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이 시기에 축성된 다른 지역 성곽과 동일하며, 축성에 들어가는 공력을 최소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심중훈, 2017, 12, 『함안지역 가야산성 조사신례-안곡산성 시굴조사-』, 『아라가야 산성, 보존과 활용』, 함안·창원대학교 경남학센터.
13 안성현, 2012, 『고려후기 경남지역 성곽연구』, 『한국중세사연구 제34호』, 한국중세사학회.

3. 성곽 복원 사례

1) 복원 현황

경남지역 316여개 성곽 중 복원·정비가 이루어진 성곽은 49여개로 전체의 15.5%에 해당한다. 성곽 316개 중 국가지정문화재 16개, 지방지정문화재 85개, 나머지는 비지정문화재이다. 지금까지 보수·정비된 성곽 49여개 중 국가지정문화재 14개, 지방 지정문화재 34개, 비지정문화재 1개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복원·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곽은 양산 신기리산성(사적 제97호)¹⁴, 양산 북부동산성(사적 제98호)이 있다. 비지정문화재이지만 복원·정비된 성곽은 김해읍성이 있다.

경남지역 복원된 성곽은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성곽이다. 거제시와 울산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복원·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경남지역 복원 현황

지정현황	복원 성곽명
사적 (16/14)	거제 둔덕기성, 김해 분산성, 부산 금정산성, 언양읍성, 울산병영, 울산 관문성, 진주성, 창녕 목마산성, 창녕 화왕산성, 하동 고소성, 하동읍성, 함안 성산산성, 함양 사근산성, 함양 황석산성
시도 기념물 (59/28)	거제 고현성, 거제 사등성, 거제 오량성, 거제 옥산성지, 거제 구조라진성, 거창 거열산성, 김해 양동산성, 김해 마현산성, 고성 소울비포성지, 남해 대국산성, 남해 금오산성, 남해 임지성, 동래읍성, 마산 회원현성지, 밀양읍성, 밀양 추화산성, 부산진성, 사천읍성, 영산읍성, 의령 미타산성, 의령 벽화산성지, 울산 개운포성지, 웅천읍성 진해 구산성지, 창원 진례산성, 통영 당포성지, 통영성지, 합포성지
시도 문화재자료 (19/6)	고성 거류산성, 사천 각산산성, 사천 선진리왜성, 울산 서생포왜성, 울산왜성, 창녕 고곡산성
지정없음 (1)	김해읍성

복원 성곽 중 지표조사 또는 현황조사만으로 복원된 성곽이 12개, 시굴조사 후 복원된 성곽이 7개, 발굴조사 후 복원된 성곽이 30개소이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거나 발굴 중인 성곽이라도 발굴 전에 복원이 이루어진 성곽도 많이 있다. 복원 성곽을 성격별로 살펴보면, 산성 25개, 읍성 15개, 진성 6개, 왜성 3개가 있다. 산성 25개 중 고대산성이 20개, 고려·조선시대 산성이 5개이다.

14 신기리산성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며, 북부동산성은 신기리산성 정비복원 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표 1. 복원성곽 문화재조사 현황

문화재조사 현황	성곽명	
지표조사(12)	산성(8)	김해 마현산성, 남해 금오산성, 사천 각산산성, 부산 금정산성, 울산 관문성, 창녕 고곡산성, 창녕 목마산성, 함양 황석산성
	읍성(2)	영산읍성, 진주성
	진성(2)	거제 구조라진성, 통영 당포성지
시굴조사(7)	산성(5)	고성 거류산성, 밀양 추화산성, 의령 미타산성, 창원 진례산성, 하동 고소성
	읍성(2)	거제 오량성, 밀양읍성
발굴조사 (30)	산성(12)	거제 둔덕기성, 거제 옥산성지, 김해 양동산성, 김해 분산성, 거창 거열산성, 남해 대국산성, 남해 임진성, 의령 벽화산성지, 진해 구산성지, 창녕 화왕산성, 함안 성산산성, 함양 사근산성
	읍성(12)	거제 고현성, 거제 사등성, 거제 오량성, 김해읍성, 동래읍성, 마산 회원현성지, 사천읍성, 언양읍성, 울산병영성, 웅천읍성, 통영성지, 하동읍성
	진성(4)	고성 소울비포성지, 마산 합포성지, 부산진성, 울산 개운포성지
	왜성(3)	사천 선진리왜성, 울산 서생포왜성, 울산왜성

표 2. 복원성곽 성격별 분류

분류	성 곽 명	
산성(25)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거제 둔덕기성, 거제 옥산성지, 거창 거열산성, 김해 양동산성, 김해 분산성, 김해 마현산성, 고성 거류산성, 남해 대국산성, 밀양 추화산성, 울산 관문성, 의령 벽화산성지, 진해 구산성지, 창녕 화왕산성, 창녕 목마산성, 창녕 고곡산성, 창원 진례산성, 하동 고소성, 함안 성산산성, 함양 황석산성, 함양 사근산성
	고려~조선시대	남해 금오산성, 남해 임진성, 부산 금정산성, 사천 각산산성, 의령 미타산성
읍성(15)	거제 고현성, 거제 사등성, 거제 오량성, 김해읍성, 동래읍성, 마산 회원현성지, 밀양읍성, 사천읍성, 언양읍성, 영산읍성, 울산병영성, 웅천읍성, 진주성, 통영성지, 하동읍성	
진성(6)	거제 구조라진성, 고성 소울비포성지, 마산 합포성지, 부산진성, 울산 개운포성지, 통영 당포성지	
왜성(3)	사천 선진리왜성, 울산 서생포왜성, 울산왜성	

2) 삼국시대 산성

(1) 거제 둔덕기성

- 소재지 : 경남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 95번지 일원
- 문화재 지정현황 : 사적 제509호(2010. 08 .24)
- 현황과 조사

둔덕기성은 고려 익종 24년(1170) 정중부의 난으로 왕이 폐위되어 이곳에 피신해 머물렀다고 하여 폐왕성으로 널리 알려진 성이다. 2010년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둔덕기성으로 바뀌었다. 둔덕면과 사등면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야산 정상(해발 326m)의 남서 사면을 중심으로 축성된 테포식 석축산성이다.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고 성의 둘레는 526m, 높이 5.5m, 초축 너비 6.5~6.9m 이다.

발굴조사결과 3차례의 수축이 이루어진 단면 계단형의 원형 석축 집수지가 확인되었고, 동문은 현문식이며, 개구부, 육축부, 문지 외벽 기저부의 단면 방형기단, 기단과 외벽 접지면

의 2중 기단보축 등이 확인되었으며, 2016년 발굴조사에서 많은 건물지와 내부 수혈에서 석 환무지가 출토되었다. 삼국시대에 처음 쌓고(7세기) 고려시대에 보수된 성벽 등은 축성법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산성조사가 복원·정비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성벽 및 문지 조사에 국한되어 왔으며, 성곽 운용의 주체와 관련된 성내시설에 대한 조사는 등한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둔덕기성은 성내시설까지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산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밝혀냄에 큰 의의가 있고 이를 토대로 복원·정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1. 둔덕기성 조사 및 복원사진

• 산성 복원 (성벽+집수지)

둔덕기성은 성벽 일부와 집수지가 복원되어 있다. 둔덕기성은 1999년 처음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후 2001년 전체 성벽 둘레 526m 중 남동쪽 56.5m를 복원하였다. 성벽 복원 이전에 성벽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표조사 또는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원하였다. 복원 구간의 성벽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로 구분되어 있다. 삼국시대 성벽은 바른층쌓기법을 적용하여 복원하였고 고려시대에 허튼층쌓기법으로 삼국시대 성 밖으로 새로 확장하여 쌓은 성아 복원하였다. 삼국시대 바른층쌓기법과 고려시대 허튼층쌓기법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성벽 복원 이후 2004년부터 시·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2007년 집

수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2008년 집수지에 대한 복원·정비가 이루어졌다. 전쟁 시 성을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석환군이 전시되어 있다.

(2) 남해 대국산성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산 184번지 일원
- 문화재 지정 : 경상남도 기념물 제19호(1974.12.28)
- 현황과 조사

대국산성은 대국산(해발 370m) 정상부와 9부 능선을 두르는 테뫼형 석축산성인 내성과 내성의 동쪽 계곡을 감싸 안은 외성인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성은 평면형태가 북쪽이 오목한 제형이며, 둘레는 약 540m이다. 남문지 외 외벽 기저부에서 기단보축이 확인된 바 있으며, 현문의 남문과 내부 능선 정상부에서 원형의 석축집수지(3단의 계단상 호안, 직경 12.5m, 깊이 5m)가 확인되었다. 외성은 내성인 석성의 동쪽 계곡부를 두른 토성으로 남문지에서 동쪽으로 약 12m 지점에서 내성과 외성이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내성과 외성은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출토된 유물 등으로 7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문지 조사(출처: 경남문화재연구원)



집수지 조사(출처: 경남문화재연구원)



성벽 복원



집수지 복원

사진 2. 남해 대국산성 조사 및 복원 사진

• 산성 복원(성벽+집수지)

대국산성은 성벽 둘레 전체와 집수지가 복원되어 있다. 1995년 대국산성에 대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복원이 이루어져 왔다. 지표조사보고서에는 ‘초축성벽과 수축성벽으로 나누어지며, 바른층쌓기의 초축성벽 위에 허튼층쌓기의 수축성벽이 올려져 있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성벽은 바른층쌓기법으로만 복원되어 있다. 성벽 복원 전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복원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시·발굴조사는 2003년부터 실시되었다. 남문지 및 집수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1년 집수지 복원이 이루어졌다. 이후 더 이상의 복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3) 김해 분산성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산 9번지 일원
- 문화재 지정현황: 사적 제66호(1963.01.21)
- 현황과 조사

분산성은 김해시가지의 북동쪽에 위치한 분산(해발 326.9m)의 정상부를 감싸는 테뫼식 석축산성으로 낙동강 하류에 형성된 넓은 평야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성벽의 둘레는 929m, 체성 너비 약 8m, 최대 높이 6m 정도이다.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 분산성과 봉수대로 인하여 그 기록들이 잘 남아 있다. 현존하는 석성은 남북의 긴 타원형 모습이며, 성내 정상부에는 다소 평탄한 면이 있다. 문지는 북문지, 동문지를 비롯하여, 암문, 봉수대, 우물 등이 있다.

1998년의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1999년 서쪽 체성부에 대한 시굴조사, 2001년 북서쪽 체성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초축 성벽과 기단보축, 건물지 등의 현황이 파악되었고, 2011년 동문지 복원정비에 앞서 정확한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동문지 조사결과 초축단계의 체성은 외벽부만 조사되었으나, 경사가 매우 급한 지역으로 기저부에 기단보축과 굽도리형 기단을 설치하였다. 장방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하고 있으며, 2열 수평쌓기 축조기법이 확인된다. 출토된 단각고배 대각부편, 주름무늬 병편, 단판선문 기와편 등의 유물로 보아 초축시기는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초기로 추정된다. 동문지는 계곡부의 급한 경사면에 문지를 개구하기 위해 축대를 조성하였는데, 총 3단의 축대로 최하단부터 들여쌓기 수법으로 하고 마지막 축대의 상면에 문지를 개구하였다. 동문은 여말선초에 개구된 이래 최소 1차례 이상의 수·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산성 복원(성벽)

분산성은 성벽의 90% 정도가 복원되어 있다. 1999년 지표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으므로 그 이후 2002년부터 성벽 복원이 진행되었다. 시·발굴된 복문지 조사(경남문화재연구원 2002), 동문지 조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를 토대로 문지 및 성벽이 연차적으로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복원 성벽 중 잔존하는 복합적인 상황(삼국시대~조선시대까지의 성벽)을 복원해 놓은 곳도 있다. 어느 한 시기의 성벽이 아니고, 처음의 성벽 모습부터 마지막 성벽의 모습까지 전체적으로 복원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재 복원된 모습의 이해를 위해 복원근거를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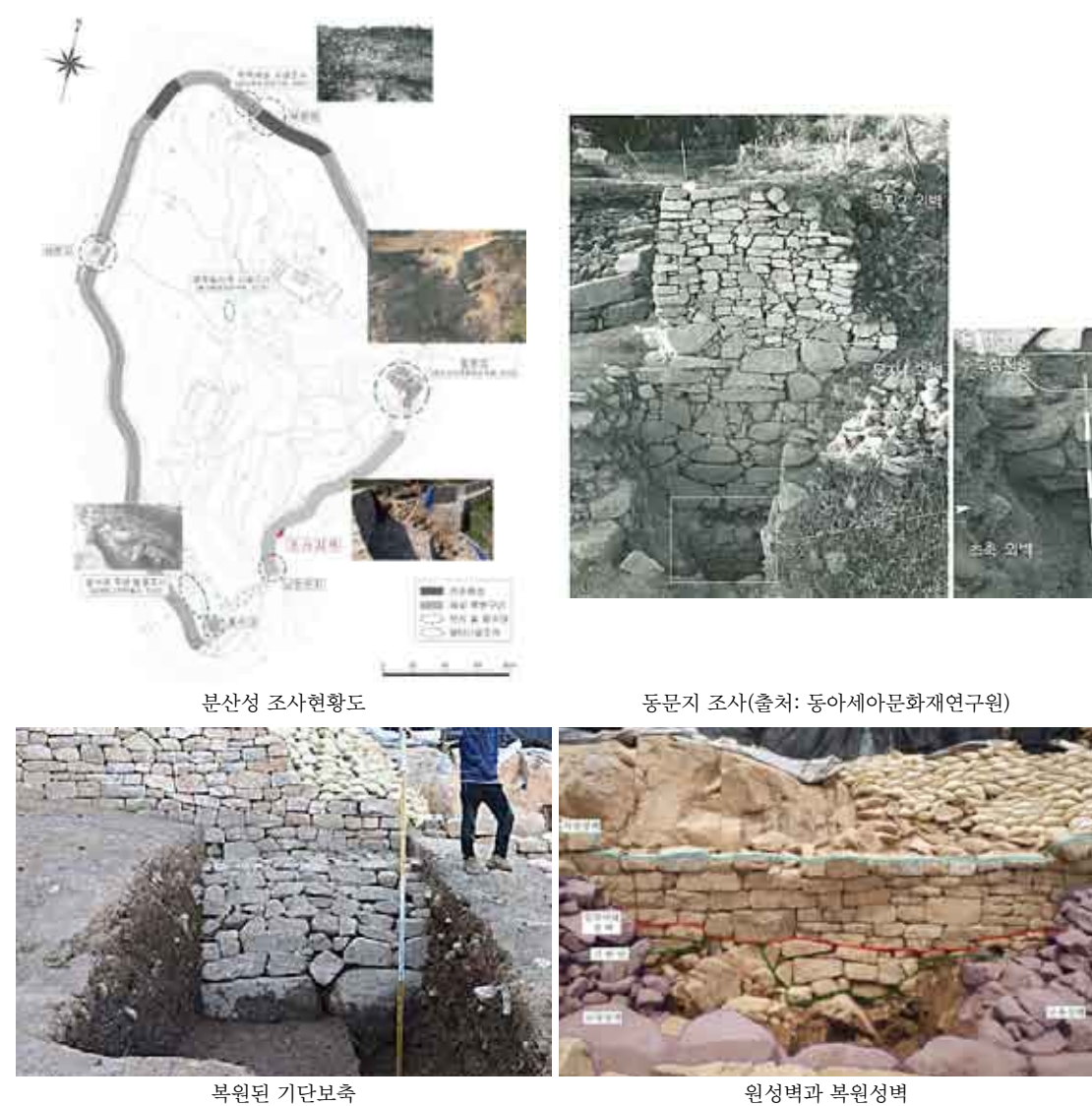


사진 3. 김해 분산성 조사 및 복원 사진

2011년 복원 성벽 중 2016년 2월 14일 동벽쪽 일부가 붕괴되었다. 여기는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다. 성벽의 붕괴 원인을 찾고 성벽 복구 방안을 수립하고자 2017년 붕괴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결과, 성벽은 붕괴되어 남아 있지 않으나 기반보축은 온전한 상태였다. 이 또한 2011년 복원할 때 만든 것이다, 원 기반보축은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존재하지 않거나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수리보고서를 참고하면 복원 전 성벽은 13~21단까지 잔존해 있었으며, 삼국시대 성의 축조기법 중 하나인 2열 쌓기와 바른층쌓기법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저부 3단까지만 원래의 성벽이 남아 있고, 그 상부로는 복원된 성벽이었다. 복원 외벽 기반석은 암반층 위를 장방형의 석재와 할석으로 정지한 후 기울기 80° 내외로 성벽을 쌓았고, 단면형태 ‘C’자형으로 배부름현상이 확인되었다. 붕괴원인은 크게 2가지로 추정된다. 첫 번째는 지하수의 유입으로 성벽 보강석이 지속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추가로 배부름현상이 일어난 것, 두 번째는 성벽 내부의 암반으로 보강석이 고정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복원 성벽의 붕괴도 문제지만, 원성벽과 다르게 복원한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된다. 발굴조사 후 복원하였다면, 축적된 자료를 통해 재복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도 어렵게 되고 복원 진정성을 의심 받게 된다.

(4) 창녕 화왕산성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2번지 일원
- 문화재 지정현황 : 사적 제64호(1963. 01.21)
- 현황과 조사

화왕산성은 창녕의 진산인 화왕산(해발 756.6m)의 정상부를 두르는 테피식 석축산성이며, 둘레 약 2,671m로 매우 큰 규모이다. 초축연대가 확실하지 않고 가야성으로 전해지기도 하나 알 수 없다.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조선시대 전기까지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재우 장군을 중심으로 의병의 근거지로 활용하였다고 전해진다. 창녕 내의 주변 성곽에서 화왕산성이 바라보이고 화왕산성에서도 주변의 산성들이 바라보이는 조망권을 형성하고 있다. 성벽의 축조기법은 대부분 허튼층쌓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북쪽 등의 경사가 매우 급한 곳에는 석축을 두르지 않고 서·남·동쪽으로 석축을 쌓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성내에는 건물지가 들어서기 적합한 평탄지가 서쪽을 중심으로 여러 곳 확인되고 있고, 성 중심부에는 주변의 높은 지형을 통해 흐르는 물을 이용하기 위한 집수시설 등이 확인되고 있다. 화왕산성은 성 밖에서는 성내를 볼 수 없고 성내에는 주변 관측이 용이하며,

테피식 산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확보가 용이하다. 문지는 북쪽을 제외한 3면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남문과 동문은 현재 일부 체성과 함께 복원된 상태이며, 남문에는 성내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배수시설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서문지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서문지로 추정되는 부분과 토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벽과 기저부에서 5세기대 토기가 출토되었다.

연지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방형의 저수시설(호안석축 규모 14×14×2.4m)이 확인되었고, 특히 내부에서 호랑이 뼈 일부가 수습되었다. 서문지 조사에서 문주석 등의 발견으로 문지의 위치, 형태를 등을 추정할 수 있지만, 산성 내부에 있는 많은 주혈들과 관련된 시설물, 건물지 등은 성격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진 4. 창녕 화왕산성 원성벽 및 복원성벽

• 산성 복원(성벽+집수지)

화왕산성은 동문지, 서문지, 남문지, 성벽 일부, 집수지가 복원되어 있다. 복원은 동문지 일대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체성의 축조방법은 대부분 허튼층쌓기로 쌓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 남서쪽과 동쪽의 체성을 복원한 것은 바른층쌓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동문지 및 동문지 주변 성벽은 시·발굴조사 없이 복원한 경우이다. 이후 2005년 집수지 발굴조사 후 복원이 이루어졌고, 2011년 서문지 일대 발굴조사 후 서문지와 그 주변 성벽이 복원되어 있다.

3) 조선시대 산성

(1) 함양 황석산성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 153-2번지 일원
- 문화재 지정현황 : 사적 제322호(1987.09 18)
- 현황과 조사

황석산성은 함양군 안의면과 서하면의 경계를 이루는 황석산(해발 1,190m) 정상에서 좌우로 뻗은 능선의 커다란 계곡을 감싸고 있는 포곡식산성이다. 2002년 처음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2017년에 성벽에 대한 선별적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안의현의 서쪽 25리에 있고, 둘레가 1,087보이며 군창이 있어서 함양군의 군창까지도 이 산성에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 산성은 인근 고을의 주민들이 전란이 있을 때마다 이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서편 능선에 남아 있는 성벽으로 볼 때, 성의 축조기법은 능선의 지세를 이용하여 가로 20~30cm, 세로 20cm 정도의 할석을 1.5~3m 정도의 높이로 들여쌓기 했음을 알 수 있다. 성내에는 건물지, 우물, 문지 등의 흔적이 있으며, 서쪽과 북쪽 곳곳에 석축의 흔적이 있지만, 남문지 주변에 비교적 석축이 양호하게 남아 있다.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단부분은 내탁하고 상부는 체성의 외벽으로 치우쳐 협축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는데, 기단부는 4m, 상부는 2m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대높이는 2.7m 정도로 남아 있고 성의 둘레는 3.3km에 달하는 대형 산성이다. 황석산성은 최소한 고려시대에 축조된 후 조선시대에 수축되어 임진왜란 당시에 크게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 산성의 복원(성벽)

황석산성의 전체 둘레 3.3km 중 501.4m가 복원되었다. 1992년 지표조사가 실시된 이후 1993년부터 2002년까지 8차례에 걸쳐 남문지, 동문지, 동북문지 주변으로 선별적인 복원이 이루어졌다. 황석산성에 대한 복원은 학술조사가 선행된 후 시행됨이 바람직하나 지표조사 외에 별도의 학술조사 없이 바로 시행되어 성벽 원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황석산성의 진행방향과 높이, 축조방식, 성벽 뒤채움, 성 상부 마감 등 성벽 원형에 대한 제대로 된 고증 없이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복원성벽의 진행방향이 성 밖으로 잘못 복원되었다. 2차 복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 성벽과 진행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복원 성벽 일부를 해체해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차 복원·정비구간은 발굴조사를 시행 후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7년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성벽 전체 현황(출처: 두류문화재연구원)

잔존 성벽(출처: 문화재청)



성벽 복원1(출처: 함양군청)

성벽 복원2(출처: 함양군청)

사진 5. 함양 황석산성 원성벽 및 복원성벽

(2) 남해 임진성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남면 상가리 291번지 일원
- 문화재지정현황 : 경상남도 기념물 제20호(1974. 12. 28)
- 현황과 조사

임진성은 남해 상가리의 작은 봉우리(해발 108m)에 위치한 석축의 테피식 석축산성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임진년에 왜구 방비를 목적으로 군관민이 협력하여 구축한 성이라 하여 ‘임진성’ 혹은 ‘민보성’이라 부른다. 성의 평면은 타원형이며, 둘레 286.3m, 잔존 높이 4~6m, 동·서문지가 남아 있다.

2014년 발굴조사 결과 집수지는 기반토를 굴착하여 바닥에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 다짐 후 4단의 호안 석축을 축조하였다. 규모는 직경 약 9m, 잔존 깊이가 약 2.6m이다. 바닥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 무문과 선문이 타날된 기와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에 수축 및 재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혈주거지는 아궁이와 고래시설이 확인되며 내부에서 통일신라시대 토기가 출토되었다.

2015년 발굴조사 결과 또한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축성되어 이후 고려시대에 수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임진성 내에는 통일신라시대 수혈건물지와 수혈유구,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석축열이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석환이 출토되었다.

북쪽 체성은 초축 당시에는 내·외벽의 면석을 수직으로 쌓은 협축식으로 너비는 약 3m이다. 내벽부에서는 기반토(암)를 경사지게 굴착하여 성토한 토축부가 확인되었다. 토축부는 성벽 내부로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석축 성벽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한 축조기법으로 판단된다. 내벽의 토축부 상부에는 투석용 무기인 석환이 깔려 있는데, 체성 내벽의 초축과 관련된 토축부 상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 성벽을 축조한 후 성을 방어하기 위한 투석 무기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외벽은 기반암 위에 수직으로 쌓았으며, 성벽을 따라 외환도로 추정되는 너비 약 1.2m의 석축시설이 축조되어 있다. 바른층쌓기 기법과 출토 유물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축성되어 이후 고려시대에 수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진성 전경

잔존 원성벽



성벽 복원

서문지 복원

사진 6. 남해 임진성 조사 및 복원

• 산성 복원

임진성 전체 둘레 283m 중 남쪽 동문지와 서문지 사이의 173m가 복원되어 있다. 성벽 복원은 1979년부터 진행되었다. 시·발굴조사 없이 복원이 이루어진 경우이며, 당시 지표조사나 현황조사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이 후 2014년 시굴조사가 처음 실시되었고 2015년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임진왜란이 일어난 임진년에 축성했다고 알려져 온 임진성은 통일신라시대 처음 축조됐으며, 이후 고려시대에 수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복원은 고려시대의 허튼층쌓기식으로 되어 있다. 일부 성벽에 대한 원형이 남아 있으므로, 복원이 필요하다면 이를 토대로 학술조사 후 복원이 요구된다.

(3) 사천 각산산성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대방동 산 40번지 일원
- 문화재지정현황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5호(1983. 12. 20)
- 현황과 조사

각산산성은 대방동 해안가 각산의 작은 봉우리(해발 332.2m)를 감싸는 테피식 석축산성이다. 각산 정상부에는 각산봉수대가 위치한 것으로 보아 봉수대와 산성의 선후 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일정 기간 같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산봉수대 위성사진(출처: googleearth)

성벽 복원1



성벽 복원2

망대 복원

사진 7. 사천 각산산성 복원

각산산성의 평면 형태는 말각삼각형이며, 둘레는 282m 정도이다. 성문은 동쪽과 남쪽에 2개소를 설치하였는데, 모두 평거식이다. 이 중 남문 북쪽의 평탄한 대지에 건물지가 복원되어 있으므로 정문일 가능성이 높고, 동문은 봉수대와 연결된다. 성벽은 두께가 얇은 판석형 할석으로 허튼층쌓기를 하였으며, 빈틈은 잔돌을 끼워 견고성을 높였다. 잔존높이는 3~4m 정도이다. 각산이라는 지명과 산성의 위치 및 축성기법을 들어 삼천포의 각산산성이 삼국시대 백제산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산성의 위치, 규모, 축성기법 등으로 고려할 때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 산성 복원

성벽은 전체 둘레 약 242m가 복원되어 있다. 지표조사나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복원에 대한 기초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벽을 복원할 당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어 복원당시 상황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2014년 남서쪽 성벽 일부가 무너져 최근에 복원하였지만 원성벽을 복원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는 복원 진정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설계도와 사진 등 관련 자료가 확실히 남아 있는 산성의 경우 복원 진정성에 문제가 없지만, 각산산성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붕괴성벽의 복원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앞장에서 경남지역 성곽연구 현황과 성곽복원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 또는 복원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곽 전체에 대한 복원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이 이루어져 왔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원한 성곽 중 대표적인 예로 수원화성이 있다.¹⁵ 수원화성은 『화성 성역의궤』라는 10권에 달하는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 도면까지 남아 있어 복원에 신 중할 수가 있었다. 세밀하게 기록한 창건 당시의 공사보고서에 의거한 복원공사는 수원화성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완벽한 설계도면이 남아있어 비록 후대에 훼손되었을지라도 원래의 모습을 되살릴 수 있는 복원의 계기가 된 것이다.

원형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로 도면, 사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발굴조사 보고서도 원형을 추정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앞의 사례로 든 산성들은 지금 복원되어 있지만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성곽은 한번 복원하면 되돌릴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복원을 할 경우에는 문헌자료나 기록화 또는 관련 사진 및 성곽의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성곽의 규모 및 축성기법 등이 고증된 후 복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는 복원 성곽의 진정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최근 경남지역에서 복원된 성곽이 허물어져 다시 쌓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천 각 산산성의 경우 학술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성곽 복원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붕괴 후 재복원 시에도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잔존 원성벽의 도면과 사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5 수원화성은 1796년 정조의 계획으로 완공된 성곽도시로 총 길이 5.6km에 달한다. 성곽의 규모나 시설면에서 위용을 자랑하였으나 이후 무문별한 도시화와 한국전쟁 등으로 성벽이 헐리고 문루가 소실되는 등 훼손이 심하게 된 유적이다. 그러나 수원화성 복원에 따른 근거자료는 충분하였다.

둘째, 성벽 내부시설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곽조사가 복원·정비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성벽 및 문지 조사에만 국한되어 왔으며, 성곽 운영의 주체와 관련된 성내시설에 대한 조사는 등한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성내시설까지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산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성곽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성곽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다.

셋째, 복원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 대부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성곽복원은 지양해야한다. 등산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역축제와 연계 등 많은 복원 이유가 있겠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성곽의 역사적 사실과 성곽의 진정성을 목적으로 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곽일 경우 시·발굴조사를 거쳐 국가문화재 지정 목적에 맞게끔 복원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지정문화재도 그 지정 목적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성곽 복원은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해 훼손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정비하는 것이다.

넷째 성곽 학술조사와 성곽 복원의 일원화된 실질적인 지침이 미흡하다. 성곽조사가 성곽 복원의 기초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학술조사 목적에 있어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복원을 전제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발굴조사와 복원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예로 발굴조사와 복원을 같이 발주하여 연계성을 가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한다. 발굴조사 시 복원 설계를 같이하는 것이다.

다섯째, 성곽 보존관리의 환경 대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존관리 환경은 자연환경에 크게 지배를 받는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등산로 이용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 복원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연구와 기초조사 미비, 성곽 보존 전문인력의 양성, 복원 정비 후의 활용 문제 등이 도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복원에만 집중 투자한 면도 있다. 복원 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복원 전에 계획해야할 것이며, 이는 복원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여섯째, 접근성과 안전의 문제이다. 복원된 성벽의 상단부는 대부분 걸어 다니기에 매우 불편하다. 잔존 성벽이 상단부가 대부분 허물어져 그 형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부단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한 예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원 상단면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상면이 제자리를 잡지 않고 큰 돌, 작은 돌 등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어 걷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이러한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 중 하나다.

2) 개선방안

이상으로 성곽복원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성곽 복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각 광역자체단체에는 문화재 복원을 담당할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성곽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광역단체의 전문인력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이 복원 초기부터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지정문화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학예직·시설직 등 전문직이 많이 채용되고 있으나, 성곽 복원은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성곽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광역단체의 복원·정비 담당의 고정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성곽의 복원·정비는 최소한의 구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구간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들여 투입하여 보수·정비하는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 불가피하게 전 구간을 발굴조사 하였다고 하여 모든 구간을 복원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유실되거나 훼손된 구간은 추정 복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곽을 찾는 방문객이나 교육·연구 목적상 필요한 구간만 일부 추정 복원하고, 나머지 구간은 원래의 상태로 보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성곽을 정비 보수하는 것 자체도 훼손일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성곽 훼손을 막기 위한 예방적 관리가 더 필요하다. 성곽이 훼손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물과 나무이다. 물이 성벽으로 스며들 경우 토압이 발생되어 성벽의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고 면석의 붕괴로 성벽이 훼손된다. 또한 나무가 성벽 주변, 특히 성벽 위에 위치할 경우 나무뿌리로 인하여 성벽이 이완되어 훼손되기도 한다.

셋째, 성곽의 복원 정비가 필요하다면, 체계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복원 롤모델이 필요하다. 문화재조사, 설계도면 작성, 자문회의, 복원공사, 사후 관리 등을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본이 되는 성곽이 필요하다. 복원은 최소한으로 하되 복원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체계적면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복원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일시기의 성벽과 내부시설이 복원되어야 한다. 큰 규모의 성곽에 대한 일부구간의 발굴조사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전체적인 조사가 진행된 후 복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성곽 전체를 발굴하는 것은 발굴비용과 조사기간이 많이 들고 정확한

조사의 어려움도 따른다. 그러나 성벽은 삼국시대 성벽으로 복원하였으나, 건물지는 고려시대 건물지를 복원하였다면 성벽과 내부건물의 시대성이 맞지 않는다. 성벽과 내부시설을 같이 조사하여 전체적인 복원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 최근에 복원된 성곽 중 성벽이 붕괴되어 다시 복원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남산신성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3년의 보증기간을 확보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여러 집단이 책임을 지고 축성하던 옛 모습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성벽의 복원에는 충분한 고증과 자문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복원 성벽도 옛 성벽 각자성석刻字城石처럼 복원의 진정성, 책임감, 훌륭한 복원 사례 등을 알리기 위해 복원된 구간의 성돌 일부분에 작은 동판을 만들어 복원연도와 복원담당 기관과 업체를 밝혀 두면 좋을 것 같다. 이는 복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좀 더 성곽복원공사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한다.

여섯째, 성곽 복원에 따른 관계전문가회의에 반드시 성곽연구자가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 건축분야 전문가와 함께 성곽연구자도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은 감이 있다. 성곽의 입지나 지역, 시대에 따른 차이점들이 그 특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리는 것이 복원 핵심이 된다. 이를 위해 복원 시 성곽연구자, 건축전문가, 발굴 담당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제대로 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원형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설정 등 규제가 불가피한데, 이는 문화재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과의 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 따라서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곽의 발굴조사나 복원·정비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때 제시된 의견이 성곽 복원·정비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5. 맺음말

경남지역에는 316여개의 성곽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문화재조사 즉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성곽은 70개 정도로 대부분 산성과 읍성이다. 이 중 복원까지 이루어진 성곽은 49개이다.

경남지역 성곽은 산성의 축성시기와 축성주체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산성은 신라산성을 대상으로 면석상태·기단보축·수구시설 등의 성벽 축조기법, 집수지·목곽고 등 운영시설, 출토유물을 통한 축성시기 등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야산성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가야산성에 대한 연구도 차츰 이루어지고 있다. 가야산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가야산성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연구자가 많아졌다. 고려 및 조선시대 성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자도 적을 뿐 아니라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고려 및 조선시대 성곽 조사가 절실하다.

문화재는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특히 산지에 있는 성곽 유적은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성곽의 복원·정비도 중요하지만 남아 있는 유적의 원형 보존 관리가 우선일 것이다.

경남지역의 복원 성곽은 49개로 국가지정문화재 14개, 지방지정문화재 34개, 비지정문화재 1개가 있다. 대부분 산성과 읍성 위주로 복원이 이루어져 왔다. 삼국시대 산성과 고려·조선시대 산성을 중심으로 복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복원 문제점으로는 복원자료의 축적 부족, 내부시설에 대한 조사 미흡, 복원 목적 결여, 학술조사와 복원의 연계성 부족, 사후 관리의 미계획, 안전성 대책 미흡 등을 들었다. 그리고 복원 문제점의 개선안으로는 복원 전문 컨트롤타워 구성, 복원정비의 최소화, 복원 롤모델 필요, 동일시기 시설물 복원, 복원 책임제, 복원 시 성곽연구자 및 발굴 담당자의 지속적 참여, 문화재보존구역의 의견 수렴 등을 제시하였다.

이 글을 통하여 앞으로 남한산성 또는 그 외 산성 유적지 복원·정비가 추진될 경우 효과적인 계획 수립, 학술조사, 보수정비 사업이 진행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남고고학연구소, 1999, 『분산성 지표조사보고서』.
경남문화재연구원, 2001, 『분산성 시굴조사 약보고서』.
_____, 2002, 『분산성 북문지주변 시굴조사』.
_____, 2005, 『남해 대국산성-남문지 및 연지-』.
_____, 2009, 『창녕 화왕산성내 연지』.
경상문화재연구원, 2012, 『남해임진성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_____, 2013, 『창녕 화왕산성 서문지』.
_____, 2017, 『김해 분산성 성곽하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김해시, 1999. 1 『분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_____, 2007, 『분산성 종합정비계획』.
남해군·경남문화재연구원, 2011, 『남해 대국산성』.
두류문화재연구원, 2017년, 『함양 황석산성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동서문물연구원, 2016, 『남해 임진성Ⅱ(1차 발굴) -집수지, 건물지 등-』.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6. 9, 『거제폐왕성지 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9, 『거제 폐왕성집수지』.
_____, 2011, 『거제 둔덕기성 동문·건물지』.
_____, 2013, 『김해 분산성 동문지』.
_____, 2017, 『거제 둔덕기성』.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창녕 화왕산성 벽상초소지 시·발굴조사』.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창녕 화왕산성 내 집수시설』.
함양군, 1992.7, 『함양 황석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경남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에 대한 토론문

노재현(국방문화재연구원)

발표자께서는 가장 일선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자로 경남지역의 성곽에 대해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남지역의 성곽에 관한 무한한 관심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 역시 성곽의 연구와 더불어 정비·복원이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경남지역의 300여기의 성곽 중 시·발굴조사 된 성곽과 정비·복원된 성곽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 또는 복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조사내용과 정비·복원에 관한 자료,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발표문에 크게 의의가 없을 것이다. 본 토론자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자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크게 다른 의견은 없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성곽의 정비·복원에 있어서 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성곽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표자도 지적하였듯이 성곽은 성벽, 해자, 옹성 등의 방어시설과 더불어 생활시설, 생산시설 등의 다양한 성격의 유구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발굴현장에서는 단기간에 성곽조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시간 및 비용 문제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조사자는 선택적으로 일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토론자 역시 이점이 항상 답답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가 생각하는 성곽 조사에 있어 올바른 방향 또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조사 및 복원성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2. 성곽의 정비·복원에 있어 최종적인 목적은 해당 성곽을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발표자는 현재 대부분의 성곽의 복원목적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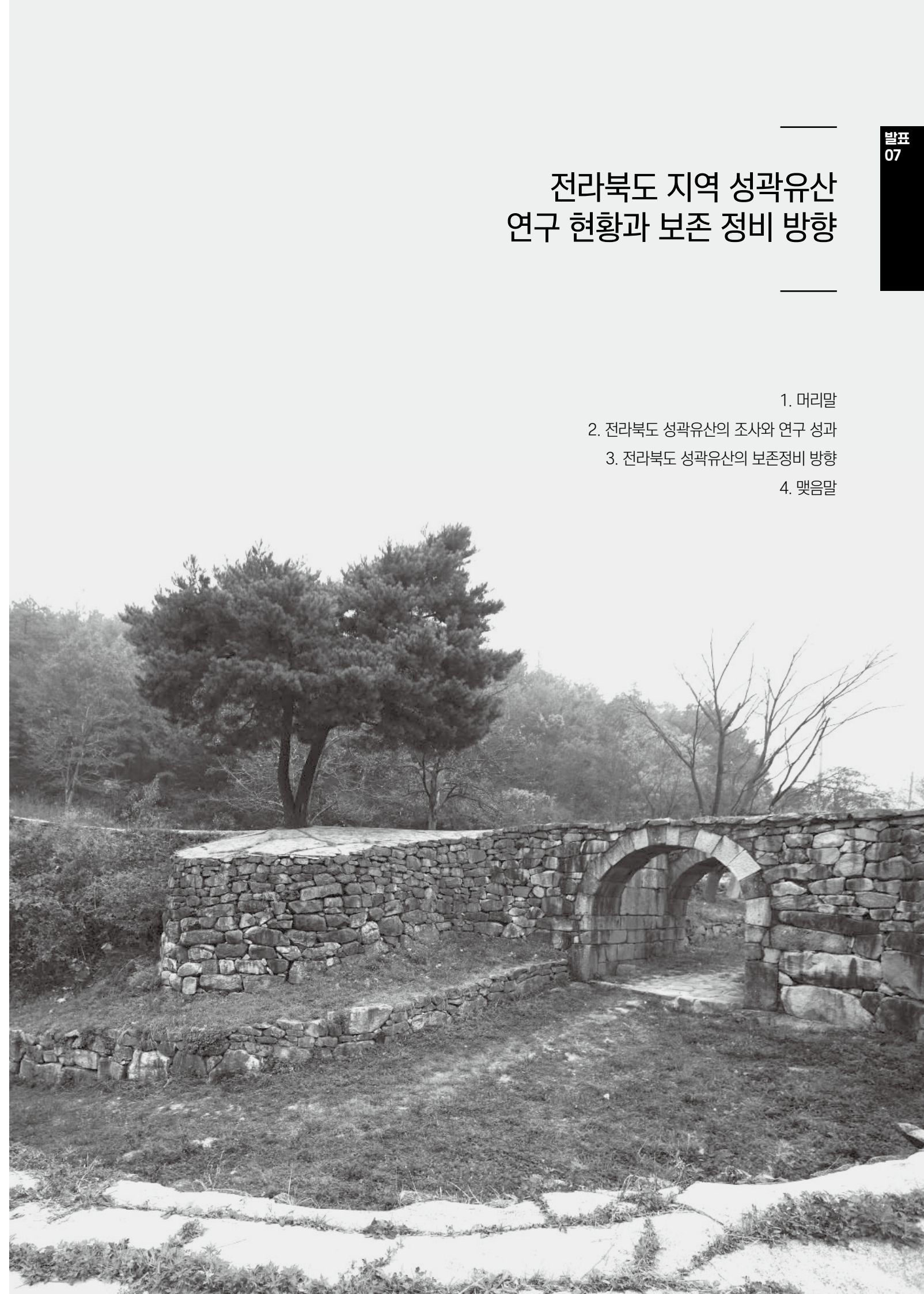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성곽의 역사적 사실과 성곽의 진정성을 목적으로 한 복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곽을 정비·복원하는 주체인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다.

3. 발표자는 성곽의 정비·복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성곽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였다. 발표자가 언급하였듯이 성곽은 초축 이후에 시기를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었다가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구가 확인되며, 같은 성격의 시설에서도 시기를 달리하여 잔존현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발표자 역시 이러한 점을 정비·복원 단계에서 파악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비·복원안을 제시한다면 어떠한 기준(시기 및 형태 등)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4.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성곽 복원에 있어 롤모델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성곽의 조사 및 정비·복원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롤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전라북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1. 머리말
2.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조사와 연구 성과
3.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정비 방향
4. 맺음말



전라북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박영민 · 전라문화유산연구원

VII
전북



1. 머리말

전라북도 성곽은 현재까지 13개 시군 171개소가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발굴조사를 통해 개략적인 축조기법과 시기가 파악된 성곽은 24개소로 14%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 또는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성곽은 모두 31개소이고, 이 가운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성곽은 16개소에 불과하다. 그 만큼 전라북도 성곽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아직까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진안군, 완주군, 부안군 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수행하면서 이들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곽을 현지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인 조사를 통해 정읍시와 김제시, 전주시에 산재하는 성곽 또한 대부분 답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성곽의 개략적인 성격과 보존,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고는 필자가 현지답사를 통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나머지 자료는 기존의 보고서와 연구자료를 참조하였다.

전라북도 성곽의 조사와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60년대에 故 전영래 박사에 의해 전라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바 있다. 당시 지표조사는 국토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기 이전이었고, 우리나라의 산림이 황폐화되었던 시기여서 현재에 비해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성곽자료를 조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라북도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약 70개소 성곽의 위치와 현상, 개략적인 실측, 문헌기록 검토 등을 통해 성곽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지표조사 결과는 2003년에 전라북도 고대 성곽조사보고서로 출간된바 있다¹. 이 보고서는 현재까지도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조사와 연구 성과 가운데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가장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지표조사의 특성상 성곽의 축조시기를 주로 삼국시대로 파악하였고, 토단목책지로 추정한 일부 성곽은 성곽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전라북도 성곽은 1980년대 전주 동고산성과 익산 오금산성의 발굴조사 이후 학술자료와 정비복원의 기초자료 확보 등 학술발굴조사를 목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고는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조사와 연구 현황,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정비와 보존방향 등 크게 두 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인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조사와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전라북도 성곽의 조사와 연구를 크게 5개 주제로 분류한 후 그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정비 방향은 전라북도 전체 성곽유산의 시군별 목록을 추출하고 이들 성곽유산이 현재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기초자료는 기존 성곽유산의 보고자료(문화유적분포지도)와 비교하여 주소, 위치, 형태, 범위 등이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아울러 현재의 보존 현황이 어떠한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보존과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전영래, 2003, 『전북 고대산성조사보고서』, 한서고대학연구소.

2.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조사와 연구 성과

전라북도 성곽유산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었다. 물론 머리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960~1970년대부터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곽유산의 지표조사는 이미 진행된바 있다. 그동안 진행된 전라북도 성곽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백제성곽유산의 조사와 연구, 익산지역 백제 고도자료의 확보, 읍성의 보존과 정비복원 자료의 축적, 후백제 도읍자료의 획득, 전라북도 동부지역 성곽유산의 정체성 확보 등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백제성곽유산의 조사와 연구

전라북도 성곽유산 가운데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제의 성곽으로 추정된 자료는 많지만 실제 발굴조사 결과 백제 성곽으로 밝혀진 자료는 많지 않다. 현재까지 발굴조사 결과 백제때 축성된 성곽으로 밝혀진 사례는 전주 동고산성, 순창 홀어머니산성, 임실 성미산성, 정읍 고사부리성, 익산 낭산산성, 김제 성산성, 완주 배매산성·구억리산성·삼례토성, 진안 와정토성 등이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전주 동고산성, 순창 홀어머니산성과 임실 성미산성, 정읍 고사부리성, 익산 낭산산성은 石城이고 김제 성산성, 완주 배매산성·구억리산성·삼례토성, 진안 와정토성 등은 土築山城이다.

전라북도 성곽 가운데 백제 성곽으로 밝혀진 최초의 사례는 순창 홀어머니 산성이다. 순창 홀어머니산성은 순창군소제지의 서남쪽 약 1km지점의 낮은 산봉을 감싸고 있는 포곡식산성이다. 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산봉의 해발고도는 183m내외지만 산봉우리 주변 평지의 해발고도가 100m내외에 불과 때문에 실제 표고는 80m 정도이다. 발굴조사는 2001~2002년, 2005년,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고, 북문지와 북문지 주변의 성벽, 남문지 주변 성벽 등이 조사되었다. 북문지는 어긋문의 형태이고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대문지가 백제때 축조된 문지이다². 백제산성, 특히 석성의 문지가 어긋문인 점은 정읍 고사부

2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淳昌 大母山城』.

리성에서도 확인된바 있는데, 석성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형식으로 알려졌다³. 성벽은 성벽이 축조될 경사면을 기반층까지 굴착하고 별도의 기단석 없이 곧바로 성벽을 축조하였다. 성벽 외벽 하단부는 할석을 이용해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고, 상단부와 중단부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에 가까운 전상할석을 얹혀쌓기로 축조하였다. 중단쌓기는 보이지 않지만 상단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축조하였다. 성벽외벽 하단에는 점토를 단면 삼각형의 형태로 비스듬하게 쌓아 성벽을 보강하였다⁴. 순창 홀어머니산성의 축성방법은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연하게 다듬은 석재로 ‘品’자 쌓기로 축성한 정읍 고사부리성의 축성방법과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발굴조사 이후 복문지와 북성벽 구간은 정비복원이 이루어 졌다.

임실 성미산성은 성미산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성곽 남편의 대지와 추정 수구를 대상으로 2007년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발굴조사 결과 백제때 초축된 성벽과 성벽 안쪽 대지에서 2기의 원형집수시설, 다수의 구들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성벽은 지반을 ‘L’자형으로 굴착한 후 별도의 기단석 없이 장방형으로 치석된 석재로 수평쌓기로 축조하였다. 발굴조사 남아 있는 초축성벽은 1~2단 정도에 불과해 정확한 축조기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 성벽의 폭은 약 400cm내외이다. 성벽과 집수시설 등에서 다량의 백제기와가 출토되었는데, 백제 인장와의 출토량이 많은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성미산성은 발굴조사 전 성벽의 동벽구간이 이미 정비복원이 이루어진바 있는데, 복원 성벽의 폭이 발굴조사된 성벽보다 훨씬 넓어 기존 복원이 원형과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읍 고사부리성은 고부면소재지의 뒷산 성황산 정상에 감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이다. 순창 홀어머니산성과 유사하게 두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마안형이다. 당초 이 성곽은 성내부의 조선시대 건물지 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관아의 정비복원 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002년 성내부 누정건물이었던 민락정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3년 성벽과 성내부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 졌고, 그 이후 5차례의 발굴조사, 2017년 정비복원을 위한 성벽 시굴조사가 꾸준히 이루어 졌다. 성내부에서 현재까지 백제와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백제때 초축된 성벽만 확인되었다. 성벽은 최초 석축성벽이었으나 조선시대에 토성으로 개축하였다. 백제 초축성벽은 기반층을 암반면까지 굴착하고 자연암반에는 별도의 기단 없이 성돌을 자연암반에 밀착하도록 다듬어 축조하는 그랭이기법을 사용하여 후축성하였다. 성벽은 장방형으로 정연하게 치석한 석재를 사용해 ‘品’자 쌓기로 축조하였는데, 성돌과 성돌이 서로 접합되는 곳은 밀착되는 면의 석재에 맞게 치석하여 빈틈없이 축조하였다. 또한 상단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점차 들어쌓는 들어쌓기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벽 기단 외측은 점토와 할석을 섞어 보강하였다. 발굴조사 이후 서문지와 남문지구간의 성벽은 정비복원이 이루어졌다⁵.

익산 낭산산성은 익산시의 북쪽 낭산면의 해발 162m의 낭산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는 테뫼식 석성이다. 2006년 남문지와 수구지를 대상으로 한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성벽은 시기와 축조방법을 달리하여 축조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선대 성벽은 성돌을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얹혀 쌓았고, 성외벽은 하단에 성토층을 성토한 후 그 위에 석축성벽을 축조하였다. 선대 성벽과 관련된 토층에서는 백제기와와 토기만 출토되어 선대성벽의 축성시기를 백제때로 비정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전주 동고산성은 복문지 초축 성벽이 순창 홀어머니산성과 매우 유사해 백제 때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된바 있다⁶.

이상과 같이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백제성곽 가운데 석축산성은 정연한 장방형의 가공석재와 견치석을 사용하고, 축성시 그랭이기법을 사용한 고사부리성과 장방형이나 방형의 할석을 이용해 별도의 기단석 없이 수평쌓기를 주로 사용한 순창 홀어머니산성·익산 낭산산성·임실 성미산성의 축성기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정읍 고사부리성의 축성기법은 부여 가림성의 축성기법과 매우 유사해 백제 도성주변의 석축산성 축조기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지역의 백제 토성은 진안 와정토성과 완주 배매산성 발굴조사를 통해 그 축조기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진안 와정토성은 진안 용담댐수몰지역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 성곽은 금강의 상류이며, 백제의 수도와 금강상류와 섬진강유역을 서로 연결하는 최단 교통로에 입지하고 있다⁷. 발굴조사 당시에는 목책토성으로 판단하였으나⁸ 최근 영정주를 이용한 판축기법으로 축조하였고, 표토블럭이 성토재로 이용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⁹. 완주 배매산성은 성곽의 축성기법 파악을 목적으로 2017년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고, 축성기법에 대한 보강조사가 올해(2018년)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발굴조사 결과 기반층을 계단식으로 굴착한 후 영정주를 이용한 판축기법으로 축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성곽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성내부와 성외부가 서로 다른 재료와 축조기법으로 성토하였음도 아울러 파악할 수 있었다. 진안 와정토성은 축성시기가 5세기 중엽, 완주 배매산성은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고 있어 백제 중앙세력의 전북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최인선, 2014, 『호남지역의 백제산성』, 『한국 성곽학보 제26집』, 한국성곽학회.

4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4, 『순창 홀어머니산성』.

5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정읍 고사부리성 시굴조사 약보고서』.

6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전주 동고산성 서문지 발굴조사보고서』.

7 郭長根, 2008, 「백제간선교통로의 재편성과 그 의미 -섬진강유역을 으로-」, 『백제문화』3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8 군산대학교박물관·전북대학교박물관, 2001, 『臥亭遺蹟』.

9 이혁희, 2014, 「鎭安臥亭土城의 構造와 性格再檢討」, 『호서고고학 31』, 호서고고학회.

이외에 완주 구덕리산성¹⁰과 삼례토성¹¹은 한차례 시굴조사를 통해 백제때 축성된 토성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 김제 성산성은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성벽 하단에 백제 판축토성이 선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김제 성산성에서 확인된 백제 판축토성은 남서성벽 일부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성벽의 초축시기 파악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¹². 전북지역의 백제토성은 현재까지 만경강의 중상류지역인 완주군 삼례읍과 용진을 주변에 밀집 분포하고 있어 향후 백제의 만경강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완주 배매산성에서 관찰되듯 전북지역 백제토성의 축성기법은 판축기법을 이용해 축성하여 중부지역 백제토성의 축성기법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안 우금산성은 백제의 주류성으로 비정되고 있으며¹³ 이의 자료 획득을 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 결과 삼국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¹⁴. 남원 교룡산성 역시 백제때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룡산성은 남원시의 진산인 북쪽의 교룡산에 축성된 둘레 3,120m의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발굴조사는 보존정비의 기초자료 확보와 학술자료의 획득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과 2016년 발굴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2014년 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에 개축한 상층의 조선시대 문지와 옹성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2016년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문지 하층에 존재하고 있던 통일신라시대의 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축시기로 추정되는 삼국시대의 유구는 유물만 출토되었을 뿐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다¹⁵.

이와 같이 삼국시대 유물은 다수 출토되었지만 유구는 발견되지 않는 양상은 교룡산성 내부 건물지 발굴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교룡산성 내부의 군기터로 알려진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고려시대에 걸쳐 축조된 대형 초석건물지가 확인된바 있으며¹⁶, 통일신라~고려시대 유물외에도 삼국시대의 인장과, 백제토기편, 가야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유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구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¹⁷.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라북도 백제 성곽 조사는 백제성곽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지만 유물만 백제 유물이 출토되었을 뿐 백제유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성곽유구의 존재가 확인될 것으로 여겨진다.

2) 익산지역 백제 고도자료의 확보

익산지역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제석사지와 같은 대규모 사찰과 궁성유적이 존재하고 있고, 대동지지¹⁸나 관세음응험기¹⁹에 백제의 도읍이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 백제의 별도였다는 학설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제기되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료의 확보를 위한 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익산 왕궁리유적²⁰, 제석사지, 미륵사지 등이 궁성과 사찰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적이며, 성곽유적으로는 보덕성 또는 오금산성으로 부르는 익산토성, 저토성으로 불리던 익산도토성, 기준성으로 알려진 미륵산성 등이 있다.

오금산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덕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고구려 멸망 후 문무왕은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보덕왕으로 삼고 금마에 거주케 하였는데, 당시 안승이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 보덕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금산성은 금마면의 서쪽 약 1km 지점의 해발 125m인 오금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익산의 성곽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1980년과 1984년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특히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남문지 구간은 정비가 이루어 졌다. 발굴조사는 남문지와 남문지 주변성벽, 남문지 안쪽 평탄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정연한 석축열, 석축열이 있는 성벽, 판축성토층 등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다량 출토된 백제기와와 토기를 근거로 초축시기를 7세기 무렵인 백제로 비정하였고, 구조는 목천토성과 비교하였다²¹.

익산도토성은 저토성으로도 불리는데 오금산성의 북동쪽 약 1km 지점의 해발 87m내외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당초 발굴조사는 문지의 확인을 위해 추정 남문지, 추정 서문지, 추정 동문지를 대상으로 탐색트렌치조사와 트렌치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문지와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성벽조사에서 주공과 석축열이 있는 판축성벽이 확인되었고, 다량의 백제기와, 백제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성벽을 산사면의 풍화암 반층을 계단식으로 절토한 후 그 전면에 목주를 세우고, 목주 안쪽에는 호석을 놓고 협판을 댄 후 판축기법으로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².

미륵산성은 고려사에 기준이 축성했다하여 기준성으로 불린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후 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고려사의 기록을 따라 기준성으로도 불리고 있다. 성곽

10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완주 구덕리산성 시굴조사 약보고서』.

11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12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김제 성산성』.

13 전영래, 2003, 『전북 고대산성조사보고서』, 한서고대학연구소.

14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7, 『扶安 禹金山城』.

15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남원 교룡산성 북문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남원 교룡산성 북문지 추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6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남원 교룡산성 군기터 문화재시굴조사 약보고서』.

17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남원 교룡산성 군기터 문화재발굴조사 약보고서』.

18 鎭山郡:본래는 백제의 금마지(金馬只)인데, 무강왕(武康王) 때에 성을 쌓고, 별도(別都)를 두어 금마저(金馬渚)라 칭했다.

19 관세음응험기는 관세음보살의 영험함을 담은 자료를 모아 중국 육조시대에 편찬한 자료이다. 이를 1050년경 모사한 모사본이 1953년 일본 교토 소재의 천태종 사찰인 청련원(靑蓮院)의 수장고에서 발견되었다. 백제의 익산 천도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百濟 武廣王 遷都枳慕蜜地 新營精舍, 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 冬十一月 天大雷雨遂災 帝釋精舍 佛堂七級浮圖 乃至廊房 一皆消盡.... (백제 무강왕은 지모밀지로 도읍을 옮기고 새로운 절을 지었다. 정관13년(639년) 기해년 겨울 동짓달 하늘에서 큰 벼락과 비가 내려 제석정사를 불 태웠다. 불당과 칠층석탑 회랑과 방이 모두 타 없어졌다...)

20 발굴조사 이후 왕궁리유적 명칭이 부여되었지만, 전라북도 기념물 제 1호로 지정될 당시의 명칭은 모질메산성이었다.

2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5, 『익산 오금산성 발굴조사보고서』.

2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익산 저토성 시굴조사보고서』.

은 익산 미륵사지 북편에 솟아 있는 해발 430m의 미륵산 정상부와 북쪽의 봉우리, 동쪽 꼭 부를 포함하고 있는 포곡식 석축산성이며 둘레는 1,776m로 익산지역에 규모가 가장 큰 성곽이다. 발굴조사는 1990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동문지 일원을 대상으로 처음 이루어 졌다²³. 이후 2003년 내부 평탄지와 남문지²⁴, 2015년 산성의 정상부의 장대지와 서남치성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동문지와 동문지 옹성, 동문지 주변의 성벽, 남문지, 건물지, 치성 등이 조사되었다. 성벽은 지형에 따라 내탁기법과 협축기법으로 축성하였는데, 성벽의 너비는 7~9m내외이다. 또한 성벽은 바닥에 얇은 지대석을 깐 후 안쪽으로 한단 정도 들어쌓기를 하였다. 또한 성벽은 두께 20cm내외로 다듬은 전상할석을 평적하였다. 동문지는 수차례에 걸친 개보수가 있었는데, 최초 3칸이었으나 최후에는 1칸으로 축소되었고, 가장 늦게 옹성으로 개축되었다. 유물은 백제토기외에도 통일신라시대의 명문기와와 함께 나말여초기의 토기류가 다량 출토되어 현재의 성벽이 통일신라시대에 대대적으로 개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익산지역 백제 고도자료의 확보를 위해 조사된 성곽의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해보았다. 세 곳의 성곽 가운데 미륵산성은 석축산성이고 익산도토성과 오금산성은 축성구조가 유사한 토성이다. 세 유적에서 현재까지 뚜렷하게 백제때 축성된 성곽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80년대에 처음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던 오금산성의 경우 보고자는 백제토성으로 보고하였지만, 1991년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던 익산도토성(저토성)의 보고자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석축이 가미된 토성을 백제때 유구로 확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남한지역 토성내에 잔존하는 석축구조가 후대에 개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²⁵를 고려하면 익산도토성과 오금산성은 백제때 초축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대규모 개축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석축산성인 미륵산성 또한 최근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백제로 확정할 만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사이호四耳壺가 연기 송원리 백제고분 출토품과 유사하다는 보고자의 견해를 고려하면²⁶ 백제때 유구의 존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2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익산 미륵산성 -동문지주변 발굴조사보고서-』.
24 원광대학교박물관, 2008, 『익산 미륵산성 -건물지 및 남문지 발굴조사보고서-』.
25 안성현, 2016, 『남한지역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제25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6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7, 『익산 미륵산성』.

3) 읍성의 보존과 정비복원 자료의 추적

읍성은 지방의 주요 거점지역에 축조하여 군사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기능을 함께 담당하도록 했던 성곽이다. 조선시대에 읍성이 활발하게 축조되었는데, 새롭게 축조된 것도 있지만 기존의 성곽을 개축하여 읍성으로 이용한 것도 있다. 읍성의 수는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조선시대 성종대 행정구역수는 330개소이고, 읍성은 190여개소로 알려졌다²⁷. 그 가운데 전북지역에 설치된 읍성은 정읍 고부읍성, 고창읍성, 고창 흥덕읍성, 고창 무장읍성, 군산 옥구읍성, 군산 임피읍성, 김제 만경읍성, 남원읍성, 부안읍성, 익산 용안읍성, 전주읍성 등 모두 11개소이다. 읍성이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주로 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읍성 중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읍성은 고창 모양성, 고창 무장읍성, 남원읍성, 정읍 고사부리성 등 모두 4개소이며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고창읍성은 성내부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만 이루어졌으므로 본 논고에서 논의는 제외한다.

남원읍성은 평지에 축조된 방형의 협축성으로 전북지역 읍성 가운데 가장 먼저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남원읍성에 대한 조사는 1995년 남원 의총로 개설공사의 일환으로 서성벽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997년 서성벽과 치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당시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에 축성된 성벽의 기단부와 치가 노출되어 남원읍성의 축조기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²⁸. 이후 남원시내 전선의 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읍성의 남성벽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조사 결과 아스팔트 포장도로 아래에서 온전하게 남아 있는 석성의 기단부와 치성의 기단부가 노출되었다²⁹. 이 발굴조사 이후 현재 아스팔트 포장도로 아래에 남성읍성의 기초부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원읍성 북성벽은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구 남원역 일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다. 역시 조선시대에 축조한 북성벽의 기단부가 확인되었다. 성벽은 다듬은 할석을 이용해 기초를 마련하였고 그 위에 다듬은 대형 석재를 놓아 성벽의 기단을 축조하였다. 성벽안쪽은 토석으로 혼축하였다³⁰.

2011년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은 남원 도시가스관로 매설공사의 일환으로 남원읍성 서문지 인근의 성벽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포장도로 아래에서 조선시대에 축조한 서성벽의 기단부가 확인되었다. 성벽은 다듬은 석재를 한 단정도 놓아 기초부를 조성하였고, 그 위에 대형 석재를 올려놓아 성벽의 기단부를 축조하였다. 조선시대 성벽 기단부는

27 손영식, 1987, 『한국의 성곽연구』,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28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9, 『남원 의총로 개설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9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남원시 구도심권 전선 지중화사업부지 시굴조사』.
30 군산대학교박물관, 2010, 『남원성 북벽 일대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기존에 조사된 성벽과 매우 유사한 형태였다³¹. 당시까지 남원읍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모두 조선시대에 축성된 성벽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바 있으며, 성벽의 구조는 대체로 유사한 형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다 2014년 남원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의 일환으로 북성벽 일부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시굴조사 결과 기존 배수관로 공사로 인해 성벽의 대부분이 훼손되었지만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되었던 성벽관련 시설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유구의 규모와 형태는 파괴가 심해 명확하지 않지만 잡석과 점토를 이용해 조성한 안정된 성토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성토층은 기존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던 남원읍성의 북서성벽과 북문지 인근의 성벽을 잇는 북성벽의 진행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고자는 남원읍성이 처음 축조될 무렵인 통일신라시대 읍성의 기초시설로 추정하였다³².

2014년 군산대학교박물관은 남원읍성 북문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문지좌우의 성벽과 문지 기초부가 확인되었다. 성벽은 협축식이며 내벽과 외벽, 측벽 모두 장방형으로 다듬은 할석을 사용하여 기초부를 마련한 후, 그 위에 길이 1m 내외의 대형 석재를 쌓아 축조하였다. 성벽의 뒷채움은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흙과 석재를 사용하여 막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의 개구부는 폭 6m 가량으로 중앙부에 폭 3m 내외의 보도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보도시설은 서측벽과 동측벽에서 각각 1.5m의 간격을 두고 납작한 천석을 깔아 조성하였다³³.

남원읍성에 대한 조사는 성벽외에도 양마장과 해자의 조사가 이루어 졌다. 양마장과 해자의 조사는 2016년 전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북성벽 서쪽 끝 부분의 북쪽 외측부분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양마장은 10~30cm크기의 강돌을 부석하여 축조하였지만 시굴조사 범위가 협소하여 정확한 규모와 형태는 파악할 수 없었다. 해자는 양마장의 내측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층위상 양마장보다 선행한 유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자는 1단의 외벽석 축만 확인되었고 양마장과 마찬가지로 시굴조사 면적이 협소하여 정확한 규모와 형태는 파악되지 않았다³⁴.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남원읍성의 성벽과 외부 방어시설인 양마장 및 해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자료가 추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고창 무장읍성은 조선 태종 17년(1417) 무송현과 장사현을 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현에 축조한 읍성이다. 해발 60m의 사두봉을 중심으로 구릉성 야산을 장방형으로 에워싸고 있는 둘레 약 1,200m의 평지읍성으로 협축기법과 내탁기법을 혼합해 축조하였다. 발굴조사는 무장읍성의 학술적인 가치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정비복원의 기초자료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

로 이루어 졌으며, 2005년 처음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6년까지 모두 7차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대상지역은 성벽 뿐 아니라 성내부 건물지, 해자시설까지 성벽과 성내부, 성외측 방어시설 등 전 범위에 걸쳐 있다. 성벽은 협축기법과 내탁기법을 혼용해 축조했지만 주로 석축과 점토를 혼용한 내탁기법을 축조에 활용하였다. 내탁기법으로 축조한 성벽은 성벽이 축조될 구릉을 ‘L’자형으로 굴착한 후 기단석을 놓고 한단 정도 안쪽에서 성돌을 축조하였다. 성돌의 크기는 외벽석은 비교적 큰 석재를 이용한 반면 내벽석과 석축내부는 보다 작은 돌로 축조하였다. 또한 성외벽의 석축시설을 축조함과 동시에 내벽석에 덧대어 점토를 이용해 내탁부를 형성하였다. 대체로 외성벽은 석축을 이용해 수직을 쌓았고, 내탁부는 점토로 비스듬하게 축조하였다³⁵. 성벽의 폭은 외부석축 구간이 3.3m, 내부 내탁구간이 4.4m내외이다. 해자는 서성벽 구간의 경우 체성부 외벽 기단에서 해자 내벽 호안석축까지의 거리는 2.4m, 해자의 너비는 9.2m, 깊이는 3.5m를 이룬다. 한편 무장읍성 발굴조사 이전 남성벽 일부 구간과 남문으로 추정되는 진무루가 복원이 완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복원성벽의 안쪽에서 본래의 성벽이 노출되었다³⁶. 결국 발굴조사 이전에 복원된 성벽은 성곽의 원형에 맞지 않게 복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발굴조사 이후 성벽(북벽, 남벽, 서벽)의 일부와 건물지인 읍취루의 복원이 이루어 졌다. 무장읍성은 연차적인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인 정비와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성곽으로 조선시대 전기 읍성의 축조와 배치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정읍 고사부리성은 당초 성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관아건물의 정비와 복원을 목적으로 2003년 처음 시굴조사가 이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보다 선행하는 백제 석축성벽이 발견되면서 학술적인 가치가 크게 증대되었고, 이를 토대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494호로 지정된바 있다. 발굴조사 결과 최초 백제시대 석성으로 축조되었고,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크게 개축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토성으로 피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⁷. 특히 2017년 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에 피복한 토축성벽이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백제 석축성벽 외측 하단에 3~4단 정도로 쌓은 석축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 내부에서는 객사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건물지가 분포하고 있었다. 다만 조선시대 건물지는 후대 훼손이 심하고 건물지간 중복이 심해 정확한 규모와 형태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³⁸. 한편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읍성인 전주부성은 전주 남문인 풍남문을 제외하고 그 형태가 남아 있는 성벽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선시대의 고지도 등

31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남원 하정동유적』.

32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남원 하정동유적』.

33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5, 『남원성 북문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34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6, 『남원읍성(사적 제298호) 해자(양마장) 발굴조사 약보고서』.

35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고창 무장읍성 V』.

36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창 무장읍성 I』.

37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정읍 고사부리성 -종합보고서(1~5차 발굴조사)-』.

38 (재)전북문화재연구원, 『井邑 古阜 舊邑城 I』.

을 기초로 일제강점기때 모두 헐리고 사라진 전주부성의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계획이 올해 (2018년)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4) 후백제 도읍자료의 획득

삼국사기에 따르면 견훤이 892년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900년 스스로 백제왕이라 칭하고 오월에 사신을 보내니, 오월왕이 검교태보의 관직을 내렸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전주는 견훤이 세운 백제(고려사에는 ‘백제’, 삼국사기에는 ‘후백제’)의 도읍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으며, 그 도읍의 후보로 일찍부터 전주 동고산성이 지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동고산성 외에도 고지도와 항공사진 자료를 토대로 견훤성이 동고산성이 아닌 전주 구시가지 곳곳에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존재한다³⁹. 전주 동고산성, 전주 오목대토성, 인봉리 추정 성벽 시굴조사 등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전주 동고산성은 전주시 남방의 승암산(295.6m)과 그 주변 일대의 봉우리와 골짜기를 감싸고 축조된 둘레 1,574m의 포곡식 산성이다. 특히 성의 남·북·동쪽에는 날개모양의 익성을 설치하여 다른 성곽과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를 띤다. 일찍부터 고 전영래 박사에 의해 후백제 도성터로 알려진 곳이다. 1980년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1990년 1차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7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특히 2007년의 북문지조사인 5차 발굴조사와 2009년 남성벽과 동문지에 대한 6차 발굴조사 결과 동고산성의 성벽 구조와 축조시기, 문지의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7년 5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북문지는 크게 3차에 걸쳐 개축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최초의 문지인 1차 문지는 어긋문의 형태로, 동쪽 측벽은 협축식, 서쪽 측벽은 외벽만 편축식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은 기반층을 ‘L’자형으로 굴착한 후 대형 장방형석재를 놓아 성벽의 기반부를 조성한후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평줄쌓기 방식으로 축성하였다. 문지 통로부 입구쪽의 너비는 600cm내외이다. 문지 통로부의 길이는 후대 개축되어 파악할 수 없었다⁴⁰.

6차 발굴조사인 동문지는 2009년 남성벽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 졌다. 동고산성 동문지는 북문지와 달리 성벽 중간부에 통로를 만든 현문식의 형태였다. 문지 통로 안쪽은 석축으로 차벽시설을 만들었고, 차벽시설 좌우에 성안쪽으로 출입하는 계단이 축조되어 있었다. 문지 통로부의 길이는 460~490cm로 북쪽 측벽이 약간 길며, 너비는 400cm내외이다. 남성벽은

하단부는 내탁기법을 이용해 성내외벽의 높이를 어느정도 맞추었고, 그 위는 협축기법으로 축성하였다. 축성에 이용된 성돌은 정교하게 다듬은 장방형이며, 수평줄쌓기 방식으로 평적(品字形)하였다. 이와 같이 다듬은 석재로 정교하게 축성하였기 때문에 성돌사이의 틈이 매우 적고 켜기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유물은 안정된 층위에서 인화문토기 등 편년을 파악할 수 있는 토기류가 출토되었고, 보고자는 이를 토대로 동고산성의 초축시기를 7세기 후엽으로 편년하였다⁴¹.

동고산성 7차 발굴조사는 서문지와 주변 성벽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 졌다. 조사결과 서문지는 양쪽 성벽이 단절된 너비 6.3m의 개거식 문지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성벽은 크게 2차 걸쳐 축조되었는데, 1차 성벽은 2차 성벽의 하층에서 선행하고 있는 성벽으로 판석형할석으로 축조되어 있었다. 성벽 축조 재료나 축조기법으로 보아 1차 성벽은 통일신라시대 성벽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통일신라시대 완산주 설치 당시의 성벽으로 추정하였다. 2차 성벽은 수평줄쌓기, ‘品’자형쌓기, 퇴물림쌓기. 그랭이기법 등의 축성기법이 특징적인데 이와 같은 축성기법은 백제의 석축산성인 정읍 고사부리성의 축성기법과 매우 유사함을 지적하며 백제의 축성기술을 계승한 후백제의 축성기법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2차 성벽 축조시 사용한 성돌 가운데 일부는 매우 정교하게 다듬은 화강암제 견치석으로 백제 석성의 축성에 사용된 견치석일 가능성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보고자는 특히 5차 조사에서 확인된 어긋문 형태의 북문지가 백제때 축성된 성벽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⁴².

이와 같은 동고산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고산성의 문지는 정읍 고사부리성, 순창 흙어머니산성과 같은 백제양식의 석축 어긋문 양식이 등장하는 북문지 1차 문지가 7세기 무렵 백제때 축조되었고, 이후 통일신라 문지의 양식을 계승한 현문식이 동고산성 동문지에서 이어지는데 이 시기는 대체로 전주의 완산주 설치와 관련된 시기, 마지막 동고산성 서문은 평문식으로 후백제 견훤과 관련이 있다는 논고⁴³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주 동고산성은 7차에 이르는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고, 백제때 초축되어 견훤의 후백제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전주 오목대 인근의 성벽조사는 역시 후백제 도성벽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2015년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 지역은 1992년 전영래 박사에 의해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된 지역인데, 일제강점기 전라선 철도의 개통과 1985년 전주 기린로 개설공사로 상당부분이 유실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현 오목대 동쪽의 사면과 남서쪽 능선에서 길이 261m, 너비 8m, 높이

39 유병하·나병호, 2015, 『궁예도성과 견훤도성』,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국립전주박물관.

곽장근, 2015, 『후백제 왕궁과 도성체제』,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국립전주박물관.

40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전주 동고산성』.

41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전주 동고산성』.

42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전주 동고산성 서문지 발굴조사보고서』.

43 강원중, 2016, 『동고산성 성문의 형식변화에 대한 검토』, 『호남고고학보 54』, 호남고고학회.

3~5m 규모의 토석+와적 혼축의 성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조사단은 성곽의 축성방식이나 출토유물 등이 후백제 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순천 해룡산성과 매우 유사해 후백제와 관련된 성벽으로 추정하였다⁴⁴. 이외에도 후백제 도성지로 추정했던 중노송동(인봉리)의 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시굴결과 성벽으로 추정되었던 유구는 과거 저수지였던 인봉지의 제방으로 확인되었다⁴⁵. 다만 제방 하층에 후백제 관련 문화층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전주시 일원은 후백제 도성과 도성 방어체계를 찾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연차적인 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점차 그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시기로 판단된다.

5) 전라북도 동부지역 성곽유산의 정체성 확보

전라북도 동부산악지대는 1988년 남원 건지리와 1989년 남원 두락리고분 발굴조사 이후 가야와 연관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1995년 장수 삼고리고분 발굴조사 이후 가야의 영향권에 있음이 보다 분명해 졌다. 뿐만 아니라 2013년 두락리 34호분 발굴조사를 통해 당시 가야세력이 백제 중앙세력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음도 아울러 밝혀졌다. 이와 같이 남원, 장수, 임실, 진안 등 전라북도 동부지역은 가야문화와 백제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문화적 접이 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최근 이들 지역은 가야고분유적 발굴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성곽유산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장수 합미산성과 침령산성이다. 이 두 성곽은 과거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모두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바 있다. 또한 2005년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성곽의 외형과 개략적인 축성기법 등이 파악되었다⁴⁶.

합미산성은 장수군의 서쪽 자연경계를 이루는 금남호남정맥의 고봉인 팔공산(해발 1147.6m)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 능선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산성은 협소한 계곡부를 감싸고 있는 포곡식 석성으로, 둘레는 430m 내외이다. 성벽의 축조는 외벽과 내벽을 모두 쌓아 올리는 협축기법이 적용되었으며, 성석은 할석을 납작한 전상할석의 형태로 치석한 석재를 주로 이용하였다.

성곽의 부속시설로는 3개소의 치성과 2개소의 문지가 확인되며, 내부시설은 우물지, 건물지 등이 남아있다. 발굴조사는 성의 남쪽 평탄대지와 남성벽을 대상으로 2014~2015년 진행

되었다. 조사결과 2기의 집수시설과 건물지 관련 축대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남성벽의 축성기법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호 집수시설은 한 변의 길이가 1.5m 내외의 소형으로, 2~3단의 석축이 남아있었다. 내부에서 개, 배, 호 등의 토기류와 기와류가 출토되었는데, 대체로 6세기 중엽 백제의 유물로 추정하였다. 2호 집수시설 또한 한 변의 길이가 3m 내외, 깊이는 1.5m 내외로 소형이며, 다듬은 석재를 계단식으로 쌓는 방법으로 축조되었다. 내부에서 백제유물과 함께 나말여초기의 토기류가 출토되어 9세기 경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성벽은 잘 남아 있는 남성벽에 대한 탐색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벽은 자연암반층 위에 축조되었는데, 벽석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암반에 홈을 판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지표층을 파내고 성벽을 쌓은 다음, 비교적 점성이 강한 흙을 사용하여 성벽 2단 가량의 높이로 보강되었다. 보고자는 보강층 내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하단부의 성벽은 초축 성벽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⁴⁷.

침령산성은 전체적인 형태가 북쪽이 좁고 남쪽이 넓은 사다리꼴과 유사한데, 능선의 지형을 따라 축조되어 형태가 정연하지 않다. 성곽은 북쪽의 고지를 정점으로 남쪽의 계곡부를 크게 아우르는 포곡식 산성이다. 산성의 둘레는 497m로 장수군에 분포되어 있는 고대 산성 중 최대 규모이다. 성벽의 일부 구간이 붕괴되었지만, 성벽과 문지, 치 등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남쪽 성벽 구간의 경우 높이 7m 내외의 성벽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성곽시설로는 문지 3개소와 치 2개소가 있으며, 내부시설로는 계단식의 건물대지와 집수시설(담수지) 등이 남아있다. 발굴조사는 성내부 북쪽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집수시설과 그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집수시설의 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하단부의 직경이 7m 내외이다. 집수시설의 내부에서는 기와와 토기편 등의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출토된 유물이 대체로 나말여초기의 속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토기 중에는 9세기 이후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각편병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를 토대로 침령산성의 집수시설은 9세기 무렵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⁴⁸.

이상과 같이 장수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성곽인 합미산성과 침령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 초축되어 나말여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출토유물이 6세기 중엽 백제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 지역 가야계 세력과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44 국립전주박물관, 2015, 『오목대 후백제 도성벽 유적 -발굴조사 팸플릿-』

45 국립전주박물관, 2015, 『전주 인봉지 시굴조사보고서』

46 2005, 전북문화재연구원, 『장수 합미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47 군산대학교박물관, 2017, 『장수 합미·침령산성 I -장수군관내 산성봉수 발굴(시굴)조사보고서-』

48 군산대학교박물관, 2017, 『장수 합미·침령산성 I -장수군관내 산성봉수 발굴(시굴)조사보고서-』

3.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정비 방향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정비 방향은 현재까지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정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보존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곽유산의 보존 정비방향은 현재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전라북도 각 시군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기반으로 전라북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주소지와 시대, 1945년 해방이후 항공사진과 문화유적 분포지도의 형태와 범위 비교, 현 보존현황, 문헌자료, 발굴여부 등을 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정비 현황 및 실태

아래의 표는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정비 현황을 시군별로 요약한 자료이다⁴⁹.

전주시 성곽유산 보존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도			
전주부성	완산구 전동 83-4	조선	미확인	미표기	풍남문 잔존	읍석성(세)	
견훤성	인후동1가 산 209-2	미상	1954	미표기	멸실		
고토성	진북동 322-320	미상	미확인	미표기	멸실	고토성(동)	
오목대토성	교동 산1-11	고려	1954	미표기	부분잔존		시굴
동고산성	대성동 산25	삼국	1954	-	정비복원	성황사중창기	발굴
남고산성	동서학동 산228	조선	1954	-	정비복원	고덕산석성(세)	발굴
서고산성	효자동3가 산 96	삼국	1954	-	보존/남벽관통	고적조사자료	
원당산성	원당동 산87	삼국	미확인	-	보존	고적조사자료	

49 고전기록 칸의 괄호안 약자는 다음과 같다.
세:세종실록지리지, 동:동국여지승람, 신(신증동국여지승람), 문:문헌비고, 대:대동지지

군산시 성곽유산 보존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도			
옥구읍성지	옥구읍 상평리 산129	조선	1948	-	남성벽(읍내) 구간결실	읍석성(세)	
대산산성지	옥구읍 수산리 산33-2	조선	-	-	보존	-	
도청산성지	나포면 나포리 산157-1	삼국	1947	서측구간 미표기	보존		
관원산성지	서수면 관원리 132-1	삼국	1966	-	보존		
오성산토성지	성산면 성덕리 산38-14	삼국	-	-	멸실	고적조사 자료	
창안토성지	성산면 창오리	삼국	1954	범위 오류	보존	진성창성지(문)	시굴
박지산성지	옥산면 옥산리 산99-9	미상	-	동측구간 미표기	보존	박지산고성(동)	
성산토성지	옥서면 옥봉리 115-11	미상	현재		보존	고적조사자료	
남산산성지	임피면 보석리 산63-1	미상	1954	서측구간 미표기	보존		
임피읍성지	임피면 읍내리 산46-2	삼국	1954 1937	읍내구간 미표기	북동성벽/읍내구간 멸실	읍석성(세)	
용천산성지	임피면 축산리 523	조선	1954		보존	예산고성(대)	
회미현성지	회현면 고산리 산234	고려			보존	회미고현성(대)	

익산시 성곽유산 보존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도			
어래산성	웅포면 입점리 산136-1	삼국	1954		보존	함열읍지	
함라산성	함라면 함열리 산 46-1	삼국	1966		보존		
낭산산성	낭산면 낭산리 산 48	삼국	1966		보존/인근채석장	익산군지	발굴
선인봉산성	여산면 제남리 산82	삼국	미확인		보존		
용화산성	금마면 신용리 산48	미상	미확인		보존		
금마도토성	금마면 서고도리 산14	삼국	1954		정비복원	고적조사자료	발굴
익산토성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	삼국	1967		정비복원	보덕성(동)	발굴
당치산성	여산면 여산리 산 7	미상	1967		보존		
천호산성	여산면 호산리 산9	미상	1967		보존	고적조사자료	
학현산성	왕궁면 동룡리 산52	삼국	1954		보존		
미륵산성	금마면 신용리	통·신	1967		정비복원	미륵산석성(세)	발굴

※익산시 성곽 보존현황은 익산의 성곽(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2016)을 기초로 작성

김제시 성곽유산 보존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도			
성산성	교동 262-4	삼국	1954		보존	김제군지	발굴
월성토성	월성동 474-1	삼국	미확인		멸실		
난산성	난봉동 224-21	삼국	-	위치오류	훼손심각		주소 오류
만경읍성	만경읍 만경리 산22	조선	1954	위치오류	남성벽 멸실	읍석성(동)	주소 오류
만경고성	만경읍 만경리 산 20-1	미상	1954	목록없음	보존	읍토성(세)	필자확인
금구산성	금구면 선암리 산28	삼국	미확인		보존	금구읍지	
금산사성지	금산면 금산리 산 19	나말	미확인		훼손심각		부분발굴
상두산성	금산면 선동리 산67	삼국	1954		보존		정읍시 접경
명금산성	부량면 신두리 산22	삼국	1966		보존		정읍시 접경
성덕산토성	성덕면 남포리 298-1	삼국	1954	위치오류	보존/훼손심하		주소오류
사창산성	용지면 구암리 420-4	삼국	1954		보존/내부훼손		
동지산리토성	청하면 동지산리 440	삼국	1966		보존		

정읍시 성곽유산 보존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포			
죽림동산성	연지동 산8	삼국	1976		내부훼손		
초산성	시기동 산67	삼국	1966		보존		
고사부리성	고부면 고부리 산1	삼국	1954		정비복원	읍석성(세)	발굴
두승산성	고부면 입석리 산23	미상	1954		보존	두승산석성(동)	
우덕리산성	덕천면 우덕리 산6	삼국	1966		보존		
평사리산성	산외면 평사리 산71	삼국	1970		보존		
상두산성	산외면 상두리 산 356-1	삼국	1954				김제시접경
백산리산성	신태인읍 백산리 산 21	통·신	1970			인의고현성(동)	
수성리 수성	영원면 앵성리 693	삼국	1954		훼손		
금사동산성	영원면 은선리 산 65	삼국	1954	범위오류	보존		
은선리토성	영원면 은선리 193	삼국	1954		보존		
산성리산성	웅동면 산성리 산 79	삼국	1954		보존		
용호리산성	웅동면 용호리 산 42	미상	미확인		-		성곽여부 불명
외칠리산성	웅동면 칠석리 산8	삼국	미확인				성곽여부 불명
대산리산성	정우면 대산리 135-54	삼국	1954		보존		
무성리산성	칠보면 무성리 산 4-1	미상	1970		-		성곽여부 불명
행단산성	칠보면 시산리 산 30-2	미상	미확인		보존		

남원시 성곽유산 보존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포			
남원읍성	동충동 364-1	통일 신라	1948	시내구간 미표기	북성벽 잔존		성벽발굴
교룡산성	산곡동 16-1	삼국	미확인		보존	교룡산석성(세)	북문발굴
신정동토성	왕정동 신정마을	조선	미확인	-	멸실	용성지	풍수제방
신기리토성	운봉읍 신기리 408-1	미상	미확인		부분 잔존		
가산리산성	운봉읍 가산리 산45	미상	1970	-	보존	고적조사자료	
황산토성	운봉읍 가산리	미상	미확인		멸실		
음지산성	운봉읍 준항리 산34	삼국	미확인		보존		
양지산성	운봉읍 준항리 산33	삼국	미확인		보존		
노치산성	운봉읍 주촌리 산8	삼국	미확인		보존		
성시리산성	보절면 성시리 산119	삼국	1954	목록없음	보존		봉서리산성
하황토성	산내면 백일리 313-1	미상	1954		잔존	도	
성산산성	산동면 식련리 산1-1	삼국	1954	범위오류	보존	고적조사자료	기존 태평리
흑송리산성	송동면 흑송리 21-2	삼국	1954		보존	고적조사자료	
짓재토성	아영면 성리	삼국	미확인		잔존		
아막성	아영면 성리 83	삼국	1970	형태오류	보존		
이산산성	아영면 아곡리 산51-1	삼국	미확인		보존		
장교리산성	운봉읍 장교리 산108	삼국	1970		보존	고적조사자료	
고남산성	산동면 부절리 산20-1	고려	1970		훼손심각		
척문리산성	이백면 척문리 244	삼국	1970	범위오류	보존		
성내토성	인월면 유곡리 산10	삼국	1954	범위오류	보존		
비룡산성	주생면 내동리 산57-1	삼국	1954	목록없음	보존		
할미산성	주촌면 덕치리 산28	미상	미확인		보존		
함미산성	함양읍 죽림리 산308-2	삼국	1970	위치오류	보존		함양읍 관내

고창군 성곽유산 보존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포			
고창읍성	고창읍 읍내리 산9	조선	1954		보존	읍성(동)	내부발굴
예지리토성	고수면 예지리 산52-1	삼국	1954	범위오류	보존	고성(문)	-
성남리산성	대산면 성남리 산55	고려	1954	범위오류	확인불가	-	-
무장읍성	무장면 성내리 155	조선	-	-	정비복원	읍석성(세)	전면발굴
창내토성	부안면 검산리 산71	미상	1954	범위오류	보존/인근 채석장	-	-
장사성지	상하면 하장리 산63	고려	1966		잔존	고장사석성(동)	
고산성지	성송면 암치리 164	미상	1966	범위오류	잔존	고산성(동)	장성군 접경
서산산성	아산면 하갑리 산1	삼국	1954		잔존	서산성(대)	
왕촌리성지	해리면 왕촌리 산43-1	미상	1966		확인불가	고적조사자료	성곽여부 불명
흥덕읍성	흥덕면 흥덕리 산2-1	조선	1966		잔존	읍석성(세)	

※고창군의 성곽은 영산강유역 고대산성(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13) 자료를 참조함

무주군 성곽유산 보존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포			
주계고성	무주읍 대차리 산53	미상	1970		부분훼손	-	
지성리산성	무풍면 지성리 산14	미상	1954	범위오류			
적상산성	적상면 괴목리 산184	조선	1954		보존	상산석성(세)	

부안군 성곽유산 보존 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포			
부안읍성	부안읍 선은리 336-1	조선	1966	읍내구간 미표기	동성벽 잔존	읍석성(동)	
상소산성	부안읍 동중리 산4-2	삼국	1966	범위오류	보존	읍석성(세)	
수문산성	계화면 창북리 336-4	삼국	미확인		보존		
염창산성	계화면 창북리 산50-1	조선	1966		서성벽 일부 결실/ 채석장		
부곡리토성	보안면 부곡리 산13-7	미상	1954		보존/북서구간 부분 결실/도로	고적조사자료	
영전리토성	보안면 영전리 476-23	조선	1954	위치오류	보존/훼손심각	고적조사자료	주소오류
유천리토성	보안면 유천리 산10-18	고려	1954		부분잔존	고적조사자료	훼손 심각
우금산성	상서면 감교리 산99	조선	1954		잔존	우금성(대)	발굴
사산리산성	주산면 사산리 산47	미상	1966		잔존		
소산리산성	주산면 소산리 산34	미상	1954		잔존		
장동리토성	출포면 장동리 406-40	삼국	1954		잔존	고적조사자료	
역리토성	행안면 역리 산135-1	고려	1966		잔존	고읍성(동)	
용화동토성	계화면 창북리 711-21	-	-	-	-	-	성곽여부 불명
용정리토성	계화면 공안리 산44-1	-	-	-	-	-	〃
구지리토성	동진면 당상리 883-9	-	-	-	-	-	〃
반곡리토성	동진면 안성리 424-1	-	-	-	-	-	〃
백산성	백산면 용계리 산8-1	-	-	-	-	-	발굴완료 성곽아님

순창군 성곽유산 보존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포			
대모산성	순창읍 백산리 산55	삼국	1948		정비복원	대모산 석성(세)	발굴
함미성	동계면 신흥리 산51	미상	1970		보존		
오교리산성	유등면 오교리 산3	미상	1954		보존	고적조사자료	
옥출산성	풍산면 대가리 산 86-1	미상	1954			고성(대)	

완주군 성곽유산 보존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포			
배매산성	봉동읍 용암리 772	삼국	1954		절반 결실		발굴
봉실산성	봉동읍 은하리 산110	삼국	1954		보존	고적조사자료	
삼례토성	삼례읍 삼례리 1478-61	삼국	미확인		보존/훼손심각		시굴
구역리산성	용진읍 구역리 산77-1	삼국	1954	-	보존/민묘훼손	고적조사자료	시굴
상삼리산성	용진읍 상삼리 산161-4	삼국	1954	범위오류	보존/내부민가	고적조사자료	
백현리산성	고산면 서봉리 산27-1	고려	1954			고적조사자료	
소향리산성	고산면 소향리 산88	삼국	1954		보존/남쪽도로	-	
읍내리산성	고산면 읍내리 산1-1	삼국	1954		보존/서벽관통	고적조사자료	관동리산성
용북리산성	경천면 용북리 산84/실지번:운주면 구제리 산105	미상	미확인	범위오류		-	
대아리산성	동상면 대아리 산43-4	미상	1968			고적조사자료	
백도리산성	비봉면 백도리 산148	미상	1973			고적조사자료	
이전리산성	비봉면 이전리 산107	삼국	1954		보존/동벽결실	고적조사자료	
만마관성지	상관면 용암리 176-5	조선	미확인		동성벽 잔존		
위봉산성	소양면 대흥리 산1-22	조선	1954		정비복원	문헌비고	시굴/발굴
화심리산성	소양면 화심리 130-1	삼국	1954		보존/남벽관통		
용계산성	운주면 금당리 산79	삼국	1968			동국여지승람	
산북리산성	운주면 산북리 산100	삼국	1968			고적조사자료	고종리산성
저구리산성	운주면 산북리 산109	미상	미확인				
종리산성	화산면 종리 산4-4	미상	1968			고적조사자료	
고성산성	화산면 화평리 산26-2	미상	1968			고적조사자료	

장수군 성곽유산 보존 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포			
함미성	장수읍 식천리 177-1	삼국	1978	-	보존	성적산성(동)	발굴
용계리성지	장수읍 용계리 산96	미상	미확인	-	-		성곽여부 불명
침령산성	계남면 침곡리 산73-2	삼국	1970		보존	침치고성(대)	발굴
대곡리산성	번암면 지지리 산15	삼국	미확인		보존		
명덕리산성	장계면 명덕리 산154-1	삼국	미확인		보존		
삼봉리산성	장계면 삼봉리 산66	삼국	1948		보존	고적조사자료	

임실군 성곽유산 보존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포			
용요산고성	임실읍 두곡리 일대	미상	미확인	미표기	미확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사필요
성미산성	관촌면 덕천리 산24	삼국	1947	-	정비복원	고적조사자료	발굴
방현리산성	관촌면 방현리 산2-5	삼국	미확인	-	-보존		
슬치리산성	관촌면 슬치리 산141	미상	미확인	-			
장암리성지	덕치면 장암리 산161	미상	미확인	-	-		
장암리 성미산성	덕치면 장암리 산278	미상	미확인	-	-		
덕계리성지	삼계면 덕계리 산20-1	미상	미확인	-	-		
삼계리산성A	삼계면 삼계리 산2	미상	미확인	-	-		
삼계리산성B	삼계면 삼계리 산47	미상	미확인	-	-		
삼은리성지	삼계면 삼은리 산95-1	미상	미확인	-	-		
세심리산성	삼계면 세심리 산12	미상	미확인	-	-		
홍곡리산성	삼계면 홍곡리 산100	미상	미확인	-	-		
월평리산성	성수면 월평리 산33	삼국	1954	범위오류		고적조사자료	
대리산성	신평면 대리 390-17	삼국	1954			고적조사자료	
석두리산성	청웅면 석두리 607	삼국	1970	범위오류	내부/남성벽 훼손		

진안군 성곽유산 보존 현황

명칭	소재지	시대	위치/범위 비교		보존현황	고전기록	비고
			항공사진	분포지포			
성미산성	진안읍 군하리 34	삼국	1954		동성벽 결실		
성산리산성 (천반산성)	동향면 성산리 산122 (주소오류)	통일 신라	1968	위치오류	보존		정여립설화
평지리토성	마령면 평지리 549	미상	1968		남/동성벽/성내부 훼손		
함미산성	마령면 강정리 산24	삼국	1968	범위오류	보존		
강정리산성	마령면 강정리 산3	미상	-		보존		잔존 불량
환미산성	부귀면 황금리 산43	삼국	1970	범위오류	보존/성벽관통		
옥거리산성	용담면 옥거리 산71-4	미상	미확인	-	보존	-	분포지도
와룡리산성	용담면 와룡리 산79	조선	미확인	-	흔적만 잔존		분포지도
와정토성	용담면 월계리 210-3	삼국	1954	범위오류	수몰		전면발굴
성남리산성	용담면 월계리 산62-15	삼국	1968		보존	용담고성(동)	
성재산성	주천면 대불리 산86/ 실제 완주 신월리 산56-4	미상	1954	범위오류	보존		진안군 관내 미포함
운봉리산성	주천면 운봉리 산76	미상	1968	범위오류	보존	-	분포지도
용덕리산성	주천면 용덕리 산18	조선	미확인	-	기초부 잔존	-	금산군 접경

위 표를 검토하면 전라북도 성곽유산은 보존정비에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크게 1) 실제와 다르게 주소지와 위치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2) 1948년 이후 항공사진과 비교하면 성곽의 범위가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경우, 3) 성곽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은 경우, 4) 부분적으로 훼손 경우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정비 현황표를 참고하여 위 네가지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위치와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성곽유산

현재의 문화재청 GIS시스템은 각 시군별로 실시했던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기반으로 보완과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시 성곽유산의 위치와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경우 그 오류는 현재까지 수정되지 못하고 있고, 결국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성곽유산은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김제 난산성, 김제 만경읍성, 김제 성덕산성, 부안 영전리토성, 진안 성산리산성(천반산성)의 5개 성곽은 실제와 다른 곳에 성곽의 위치와 주소지가 표기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문화재청 인트라넷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이 5개 성곽 가운데 부안 영전리토성과 진안 성산리산성은 보고서를 검토하면 보고자가 내용 설명은 제대로 했지만 지도상에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구릉에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나머지 성곽은 성곽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아 기존 보고서를 그대로 따르면서 오류가 수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5개 성곽의 정확한 위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위치와 주소가 다르게 표기된 성곽의 실제 위치

성곽명칭	현재 주소	실제주소	실제 위치
김제 난산성	난봉동 산34-1	난봉동 224-21	북쪽 500m 지점의 도리봉에 있음
김제 만경읍성	만경리 산17-1	만경리 산22	만경읍 만경리의 뒷산이 아닌 현 만경향교를 포함한 읍내 일대가 읍성지임/분포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읍성지는 세종실록지리지의 읍토성/동국여지승람의 고성지로 추정됨
김제 성덕산성	성덕리 산58	남포리 298-1	남서쪽 약 2.2km지점의 남포리 뒷산
부안 영전리토성	영전리 208-1	영전리 476-23	북서쪽 300m지점 보안면사무소 북측구릉
진안 성산리산성	성산리 산116-1	가막리 산9-1	천반산 정상이 아닌 서쪽 850m지점 산봉

이 가운데 만경읍성의 위치를 고지도와 현재의 지형을 비교해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분포지도상의 만경읍성의 위치이다. 현재 만경읍의 뒷산인 두산의 정상부 평탄지에 읍성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도상에 10번으로 표기된 곳은 만경향교이다.

표 2. 만경읍성의 위치비교



우측의 고지도는 만경읍성이 잘 표기되어 있는 1872년 제작된 조선시대 만경읍성의 지방지도이다. 지도의 우측 성내부에 향교가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향교와 관아가 모두 읍성 내에 위치해 있고, 성곽의 남쪽은 산의 아래쪽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872년 고지도와 현재의 지형, 기록에 등장하는 읍성의 규모 등을 비교해 만경읍성을 복원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도면으로 복원할 수 있다. 현재 만경읍성으로 추정되는 읍내의 뒷산에는 읍성의 북성벽으로 추정되는 성벽구조물이 잔존하고 있다. 한편 동국여지승람에는 읍성성의 동쪽에 고성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만경읍성의 북성벽 외곽 북쪽에는 토성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 토성벽의 진행방향과 지형을 고려하면 현재 김제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그려진 만경읍성의 범위는 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하는 만경고성, 세종실록지리지상의 읍토성으로 추정된다⁵⁰.



도면 1. 고지도와 비교하여 복원한 만경읍성의 위치와 범위

(2) 1948년 이후 항공사진과 비교시 범위가 다르게 표기된 성곽유산

각 시군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대체로 2000년대 중반경에 제작된 경우가 많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방이후 항공사진이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아 성곽유산의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다. 전북지역은 전영래 박사에 의해 약 70여개소의 성곽에 대한 기초 측량자료가 존재하고 있어 분포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성곽의 범위가 실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성곽, 특히 산성은 지표조사시 성곽 전체에 대한 답사가 없으면 전체 윤곽을 표기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분포지도 작성시 조사를 수행했던 기관별로 지도상 표

50 이와 관련해 본 연구원이 발간한 다음 자료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김제 만경 능제 생태관광지조성사업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기의 기준이 다른 점도 문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1948년 이후 항공사진과 분포지도를 비교해 성곽의 범위가 다르게 표기된 주요 사례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지도상에 성곽의 범위가 잘못 표기된 사례

성곽명	지도표기 내용	실제 성곽 범위
군산 도청산성지	서측구간 미표기	서쪽에도 나머지 구간이 존재함
군산 창안토성	범위 오류	지도표기 보다 북쪽으로 더 넓은 범위에 분포
군산 남산산성지	서측구간 미표기	서쪽에도 나머지 구간이 존재함
군산 임피읍성	읍내구간 미표기	북쪽 산성구간만 표기되어 있음. 지형을 고려하면 남쪽과 동쪽에도 성곽 구조 잔존 예상
정읍 금사동산성	범위오류	지도표기 보다 북서쪽으로 더 넓은 범위에 분포
남원 함미산성	위치오류	실제보다 남쪽에 존재함
고창 예지리토성	범위오류	실제보다 넓은 범위를 표기함/동쪽 산봉에만 존재
고창 창내토성	범위오류	지도표기 보다 북쪽으로 더 넓은 범위에 분포/성 북서쪽외곽에 채석장이 존재/정확한 위치표기 필요
부안읍성	읍내구간 미표기	북쪽 산소산성만 표기되어 있음/부안읍성은 본래 부안읍 시기를 감싸고 있음/읍성 동벽이 현재도 잔존함
완주 용복리산성	범위오류	남서쪽으로 봉우리까지 확장해야 함
임실 석두리산성	범위오류	너무 넓은 범위까지 표기되어 있음
진안 환미산성	범위오류	북서쪽 구간까지 온전하게 표기가 필요함

(3) 성곽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은 성곽유산

전라북도 성곽유산 가운데는 실제 성곽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다. 현장을 답사해도 뚜렷한 성곽구조물이 없어 성곽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실제 부안 백산성은 성곽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발굴조사 결과 성곽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전영래 박사가 토단목책지로 명명한 성곽은 현장을 답사하다보면 성곽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 자연지형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변에서 다량의 원삼국-삼국시대 토기류가 산포하고 있어 그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임실지역의 성곽은 과거 임실군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를 참고하였고, 현장을 답사하지 않았던 경우가 더러 있다. 1945년 해방이후 항공사진과 비교하면 성곽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래의 <표 4>는 기존 성곽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실제 성곽여부가 불분명한 사례이다.

표 4. 성곽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성곽자료

성곽명	위치	내용
정읍 용호리산성	용동면 용호리 산 42	답사 및 항공사진 검토 결과 구조물을 확인하지 못함
정읍 외칠리산성	용동면 칠석리 산8	항공사진 검토결과 뚜렷한 구조물을 확인하지 못함
부안 용화동토성	계화면창북리 711-21	답사 및 항공사진 검토 결과 구조물을 확인하지 못함
부안 용정리토성	계화면 공안리 산44-1	답사 및 항공사진 검토 결과 구조물을 확인하지 못함
부안 구지리토성	동진면 당상리 883-9	답사 및 항공사진 검토 결과 구조물을 확인하지 못함
부안 반곡리토성	동진면 안성리 424-1	답사 및 항공사진 검토 결과 구조물을 확인하지 못함
완주 용복리산성	범위오류	남서쪽으로 봉우리까지 확장해야 함
임실 석두리산성	범위오류	너무 넓은 범위까지 표기되어 있음
진안 환미산성	범위오류	북서쪽 구간까지 온전하게 표기가 필요함

(4) 부분적으로 훼손된 성곽유산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대부분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이고 대부분 개인이나 문중의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다. 설사 국가지정이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범위가 넓고 산중에 입지하고 있는 특성상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아래의 <표 5>는 전라북도 성곽유산 가운데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정리하였다.

표 5. 부분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성곽사례

성곽명	훼손지역	훼손사유
전주부성	전체범위	도시개발로 풍남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곽 멸실
전주 견훤성	전체범위	도시개발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멸실
전주 고토성	전체 범위	아파트 건축으로 멸실
전주 서고산성	남성벽	도로개설로 남성벽 관통됨 등반로 이용되고 있음
전주 원당산성	성내부 및 남성벽	남성벽 끝은 도로개설로 멸실/성내부는 개간으로 훼손
군산 옥구읍성	남성벽	도시개발로 남성벽 멸실
군산 임피읍성	북동성벽 및 남성벽	학교건축으로 북동성벽 멸실/남성벽은 도시개발로 멸실
익산 함라산성	북서성벽	등반로 개설로 성벽 훼손
김제 난산성	전체	개간으로 급격하게 훼손진행
김제 만경읍성	남성벽	도시개발로 멸실
정읍 은선리토성	전체	개간으로 훼손진행중
남원읍성	성내부	도시개발로 성내부 멸실
고창 창내토성	북서성벽	북서성벽외곽에 채석장 존재/훼손위험 존재
홍덕읍성	전체	개발 및 개간으로 훼손 진행중
부안읍성	전체	도시개발로 대부분 멸실/동성벽 잔존-별도의 보존대책 없이 훼손 진행중
부안 유천리토성	서성벽	유천리도요지 사적지내에 위치하지만 진입로개설로 서성벽 절반이 종방향으로 절개됨
완주 구덕리산성	남성벽	문중묘지 조성으로 부분 훼손/외곽개발로 성외부 훼손
완주 읍내리산성	성내부/서성벽	도로개설 및 민묘조성으로 서성벽 관통
완주 이천리산성	북동성벽/성내부	채석장으로 북동성벽 멸실/개간으로 성내부 훼손 진행
완주 화심리산성	성내부/남성벽	문중묘 조성으로 성내부 훼손/진입로 남성벽 관통
임실 석두리산성	성내부/남성벽	개간으로 성내부 훼손/진입로개설로 남성벽 훼손
진안 성미산성	동성벽	체육시설 조성으로 동성벽 멸실
진안 평지리토성	남/동성벽/성내부	도로개설 및 채토로 남성벽 및 동성벽 훼손/성내부는 경작으로 심하게 훼손됨
진안 환미산성	남서성벽/성내부	문중묘조성으로 내부 훼손 및 진입로 개설로 성벽 관통

위에 제시한 <표 5>는 훼손되고 있는 성곽유산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석성은 자연적인 붕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간과 문중묘의 조성으로 성내부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읍성은 지방의 행정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먼저 심하게 훼손된 특징이 있다.

2)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정비 방향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정비 방향은 첫째, 기초자료의 조사, 둘째, 성곽유산의 원형을 고려한 보존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성곽유산의 기초조사는 위 보존정비 현황표에서 제시했듯 성곽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 훼손 정도를 시급하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전라북도 성곽유산은 실제와 달리 전혀 다른 곳에 보고된 사례, 성곽의 범위가 제대로 표기되지 못한 사례가 많고, 축조시기도 대부분 삼국시대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로 표기된 다수의 성곽은 실제 답사해보면 삼국시대 유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성곽 자료는 고대 정치세력의 교섭과 이동을 설명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성곽축조시기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완주군 관내의 성곽 가운데 고성산성, 종리산성, 백도리산성 등은 답사 당시 유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성곽의 축조기법이나 축성재료를 고려하면 축성시기가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성곽의 범위도 보다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성곽은 잔존상태가 양호한 석성이나 석성은 비교적 그 형태를 파악하기 쉽지만 토성은 형태 뿐 아니라 성곽인지 자연 지형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확한 성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는 성곽 전공자나 성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는 조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라북도 성곽유산 가운데 측량과 지번파악, 수습유물,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고서는 아직까지 익산시가 유일하며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야 완성되었다⁵¹.

둘째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정비는 원형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실 성미산성과 고창 무장읍성은 발굴조사 전 성벽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복원이 진행된바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임실 성미산성은 실제 성곽의 너비보다 복원된 성곽의 너비 훨씬 넓어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성곽으로 복원되었다. 무장읍성은 기 복원된 성곽의 안에서 본래의 성곽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발굴조사를 수반하지 않은 성곽유산의 선부른 정비는 자칫 원형과 동떨어진 결과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고창 무장읍성은 이후 연차적인 발굴조사 후 꾸준한 정비복원이 진행되고 있어 발굴조사와 원형을 고려한 정비복원의 바람직한 사례를 구축하였다.

전라북도 성곽유산 가운데 대규모 정비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로는 전주 남고산성, 익산 미륵산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성곽도 연차적인 보존정비계획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정비복원이 이루어진바 있다. 익산 미륵산성 종합정비계획은 지난 2014년에야 완성되었고⁵², 전주 남고산성의 종합정비계획 또한 비교적 최근에야 완성되었다. 이 가운데 익산

미륵산성은 동문지일대와 내부 평탄지, 남문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만 이루어 졌지만 남문지 동쪽에서 동문지 북측까지의 구간이 이미 정비복원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기 정비복원이 구조물의 안정성을 감안 복원을 고려하더라도 성곽의 원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는 보다 명확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미륵산성은 축성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현황조사에서 밝혀진바 있다⁵³. 따라서 향후 보존정비시 구간별 다양한 축성방법을 고려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익산 미륵산성 축조기법 1



익산 미륵산성 축조기법 2

전주 남고산성은 서문지와 암문지일대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고,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루어진바 없다. 그러나 남성벽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대부분이 이미 정비복원이 이루어 졌다.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5년 처음 진행된바 있다. 발굴조사는 성의 남동우각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좁은 범위에도 불구하고 성벽의 축성기법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남고산성 성벽 기반석축



남고산성 성벽 축조기법

즉 성벽의 하단부는 장방형의 석재를 놓혀쌓기로 정연하게 축조한 반면 상단부는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석재로 불규칙하게 축조하여 시간적인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성벽의 기반부도 일부 지역은 암반층에 한단 정도 기단을 놓고 안쪽으로 들인 후 수직으로 쌓은 반면 일부 지

5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익산의 성곽』, 익산시.

52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익산시, 2015, 『미륵산성 종합정비계획』.

53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익산시, 2015, 『미륵산성 종합정비계획』.

역은 높이 80cm 정도의 기단석축을 쌓은 후 그 위에 성벽을 축조하였다. 반면 기존 정비복원 구간은 남고산성의 이러한 다양한 축조기법을 살펴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이외에도 남고산성은 기록에 따르면 성내부에 연못 4곳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연못의 위치는 현재 남고산성 내부에 있는 관성묘 앞 골짜기와 늪지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현재 임의로 수변공원이 조성중에 있다. 이러한 정비방향은 원형유지 원칙, 고증을 통한 원칙에 어긋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정읍 고사부리성은 꾸준한 발굴조사 이후 서문지와 남문지 서쪽 구간에 대한 정비복원이 이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고사부리성 정비복원은 원형에 맞게 이루어졌음에도 성돌의 선택과 축조기법이 원형과 벗어나 있어 복원성벽이 원성벽과 그 형태가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정읍 고사부리성은 백제때 축조된 석성으로 성돌은 정연한 장방형이고 그랭이기법을 사용해 축조하였다. 특히 성돌과 성돌이 접합되는 지점도 접합되는 지점의 곡률을 고려하여 치석하였고, 모서리부분도 정교하게 짜 맞추었다. 마치 퍼즐을 맞춘 것처럼 정교하게 축조한 점이 고사부리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원된 성벽은 고사부리성벽의 이러한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로 반듯하게 자른 석재로 축성하여 원형과 동떨어진 복원이 이루어 졌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고사부리성 성벽 원형과 같은 석재를 구해 축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정비복원시 석재구입 단가 또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읍 고사부리성 백제성벽

정읍 고사부리성 복원 성벽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성곽유산 가운데 정비복원이 이미 이루어진 성곽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성곽은 다른 문화재와 달리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고, 오랫동안 점유되어 왔으며 축조시 시대별로 다른 축조기법이 동원된다는 특징이 있다. 성곽유산의 보존정비는 성곽유산의 이러한 특징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철저한 발굴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곽유산의 정비복원에 이용되는 석재의 선택시 원형 복원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연구현황과 보존정비 방향을 살펴보았다. 전라북도 성곽유산은 1960년대 약 70개소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1980년대 이후 보존 및 정비·복원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각 시군 문화유적 분포 지도나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상의 성곽유산은 시군별로 중복되어 있거나 보고서별로 성곽에 대한 명칭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성곽유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본 논고는 시군별 중복된 성곽을 최대한 배제하였고, 최근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새롭게 알려지고 있는 성곽유산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라북도 성곽유산은 모두 171개소 내외로 추산되었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숫자이며, 각 시군별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와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고적조사 자료를 검토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진행된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조사와 연구는 백제 성곽유산의 조사와 연구, 익산지역 백제 고도자료의 확보, 읍성의 보존과 정비복원 자료의 축적, 후백제 도읍자료의 획득, 전라북도 동부지역 성곽유산의 정체성 확보 등 크게 다섯 가지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백제 성곽유산과 후백제 도읍자료, 읍성의 조사와 연구는 전라북도 전역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존 및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익산지역 백제 고도자료는 역시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전라북도 동부지역 성곽유산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연구는 장수와 순창, 남원 등을 중심으로 최근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성곽유산은 대부분 초축 이후 꾸준히 활용되었고, 다양한 정치세력을 거치며 시대와 지역, 성격에 맞게 변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중첩되어 있는 성곽유산의 초축시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성곽유산 또한 꾸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초 목표했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꾸준한 조사와 다양한 연구방법이 제시되어야만 성곽유산의 본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전라북도 성곽유산은 극히 소수만이 꾸준한 보존과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별다른 보존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정, 비지정 가리지 않고 다수의 성곽이 급격한 훼손이 진행중이며, 위치와 소재지, 성격 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성곽유산의 훼손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데, 읍성이나 治所로 이용된 중요한 성곽일수록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훼손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치소관련 성곽이 도시나 도시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확장이나 개발과 함께 급속도로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읍성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도시개발과 상충되는 문제로 지자체에서 보존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의 조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훼손 위기에 있는 성곽유산의 보존을 위한 전국단위의 대책이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성곽유산의 정비는 그동안 별도의 발굴조사가 없거나 극히 일부의 발굴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원형과 다르게 정비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향후 성곽의 유산의 보존과 정비는 보다 철저한 발굴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보다 철저한 발굴조사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은 성곽유산에 대한 매장문화재조사 대가기준의 개정, 성곽유산의 정비시 원형에 부합하는 정비를 위한 정비복원 대가의 현실화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문화재청의 성곽 보존과 관리에 관한 지침의 변경은 성곽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북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에 대한 토론문

조명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이번 발표는 전라북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성곽을 대상으로, 백제 성곽의 조사와 연구, 백제 고도자료의 확보, 읍성의 보존과 정비·복원자료의 축적, 후백제 도읍 자료의 획득, 전북 동부지역 성곽유산의 정체성 확보라는 5가지 테마를 선정하여 그간의 조사 및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조사 자료와 현지답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의 정리·분석을 통해 전북지역 성곽유산의 보존·정비 실태와 향후 방향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충분치 않은 시간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한 발표자의 노고에 관방유적을 공부하는 후학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바이기에, 큰 이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생긴 의문사항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Ⅱ-2절 익산지역 고대 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익산 오금산성을 도토성과 유사한 축성 구조를 보이는 토성으로 인지하고, 백제 때 축성된 성곽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실시된 3차례의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오금산성의 성벽 구조는 토축보다는 오히려 내탁식에 의한 석축일 가능성이 커 보이며, 조사과정에서 ‘首府’명 기와를 비롯한 백제유물이 다량 출토된 바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에 부연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오금산성은 현재 국가 사적 9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식 등록 명칭이 ‘익산토성’으로 되어 있지만, 토성인지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익산토성’이라는 명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산성의 증·개축시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북지역 내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산성들은 대체로 삼국시대 때 초축된 후, 통일신라시대 증·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최근 토론자가 산성에 출토된 유물을 검토해 보니, 몇몇을 제외하고는 삼국시대 초축된 후, 얼마간의 공백기를 거치다가 9세기 이후에 증·개축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통일신라 말에 산성의 대규모 증·개축이 이루어진 시대적 상황이 무엇인지, 또는 증·개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점 듭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읍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고창읍성, 무장읍성, 남원읍성, 고부읍성의 사례를 통해 전라북도 내 읍성의 조사와 정비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시된 읍성들은 모두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다른 읍성들에 비해 그나마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읍성의 보존·정비에 있어 문제가 되는 곳은 문화재로 지정·관리되지 않는 곳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요지에 제시되지 않은 전북지역 내 읍성들 중 보존·정비가 시급한 유적이 있다면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 보존·정비방향에 대한 소견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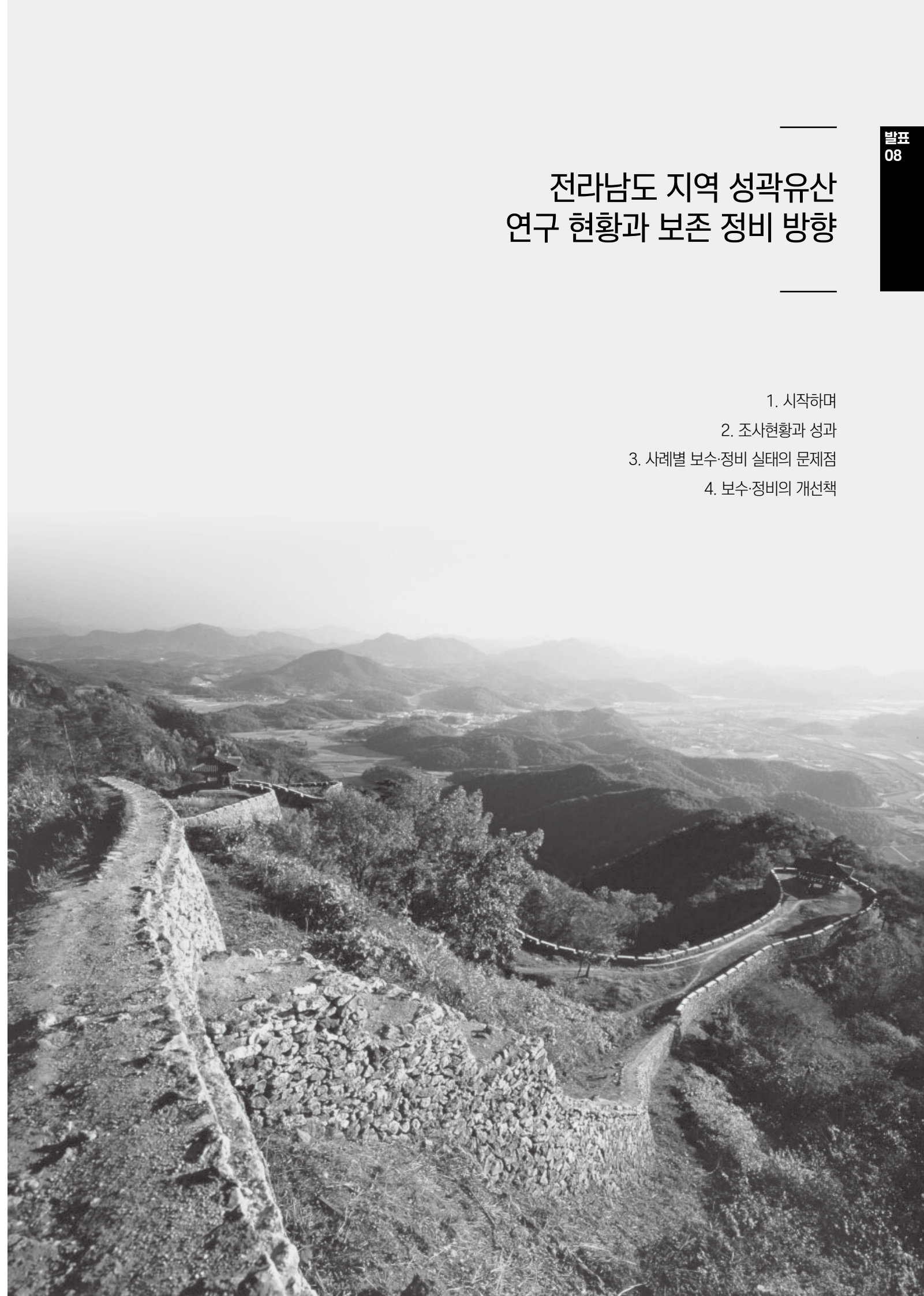
네 번째로, 발표자께서는 전북지역 내 성곽 보존·정비의 문제점을 크게 위치표기의 오류, 범위 파악의 오류, 성곽인지 불분명한 경우,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 등 크게 4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곽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토론자가 파악하기에는 4가지 문제점 외에도 성곽의 지도상 표기 방법에 따른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성곽 조사의 기초가 되고 있는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재GIS인트라넷 시스템 등을 보면, 어떤 성곽은 도형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성벽 라인만 선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성벽과 성곽 내부가 모두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쉽게 인식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성곽 내부 시설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훼손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성곽이 두 곳의 행정구역 경계에 위한 경우, 성곽의 위치와 범위가 상이하게 표기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에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성곽이 보존·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활용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술적 가치가 높고, 잘 보존된 유적이라 할지라도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한다면 그 중요성이 반감될 것이며, 학술조사 및 정비·보존에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곽은 그 특성상 주변 경관과 조망권이 좋은 곳에 위치하기에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기본적인 진입로조차 확보되지 못한 곳이 대다수입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성곽의 활용가치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1. 시작하며
2. 조사현황과 성과
3. 사례별 보수·정비 실태의 문제점
4. 보수·정비의 개선책



전라남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고용규 · 고대문화재연구원

1. 시작하며

성곽은 국가가 군사적인 목적을 갖고 국방이나 교통의 요지에 설치했던 군사시설이다. 양성지梁誠之가 ‘성곽의 나라’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래 다양한 형태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적인 영향과 잦은 왜침으로 인한 역사적 경험에서 산성山城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헌이나 지표조사 등 각종 조사를 통해 밝혀진 우리나라 성곽은 2,137개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성곽조사와 연구는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점차 활기를 띄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성곽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전남지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산성山城을 비롯하여 읍성邑城과 영진보성營鎭堡城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類型의 성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시·발굴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학술발굴조사 자료는 수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성곽은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필요에 따라 계속 수·개축되거나, 폐기를 반복하는 등 특수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처음 축조 당시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몸체 부분인 성벽(體城) 뿐만이 아니라 이에 딸린 성문·옹성·여장·치·적대·해자·수구(문) 등 각종 부대시설과 건물지,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집수지·연못·우물·샘 등 식수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점적點的

인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면적面的 개념의 복합유적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이로부터 성곽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으며, 보존·정비 역시 입체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 글은 전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유산의 조사현황과 보존·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전남지역 성곽 가운데 시·발굴조사된 사례만을 간추려 조사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조사가 진행된 백제 산성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를 짚어보았다. 다음으로는 조사를 통해 정비·복원되어 있는 성곽 가운데 문제가 드러난 성곽의 사례를 간추려 보고, 간략하게나마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전남지역 성곽 조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여러 시대에 걸친 다종다양한 모든 성곽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뿐더러 필자의 능력 역시 이에 미치지 못한다. 부족한 부분은 널리 의견을 구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2. 조사현황과 성과

전남지역의 성곽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을 목적으로 산성과 고분, 불교유적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때 전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에 대한 기초자료도 확보되었다.(조선총독부, 1942) 그 후 1970년대에 문화재관리국은 일제강점기의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읍성과 영진보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전남지역 성곽의 전반적인 분포현황이 파악되었다. 1980년 중반 이후에는 대학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각 시·군별 지표조사를 통해 전남지역 성곽의 전반적인 분포현황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가 시·군을 단위로 한 지표조사에 그쳐 성곽의 구조와 축성기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표 1>

표 1. 전남지역 시·군별 성곽 분포수

행정구역	유형별 조사건수			분포수	참고문헌
	군현성	영진성	산 성		
목포시		2		2	김경옥 1995
나주시	1		8	9	배종무 1989c, 강봉룡 1999
순천시	5	1	7	13	조원래·박광석 1992, 최인선 2000a
여수시		4	12	16	박형관 1988, 박준범 2000, 최인선·조근우 1998a
광양시	1	1	3	5	박광석 1993, 최인선·이동희 1998
영광군	2	1	4	7	임영진·조진선 1993b
함평군	1		3	4	최성락·고용규 1993
무안군	1	2	2	5	배종무 1986a, 최성락·고용규 2000
신안군	1	3	8	12	배종무 1987b
진도군	3	3	4	10	배종무 1987a
해남군	4	5	10	19	배종무 1986c
영암군	1		7	8	배종무 1986b
강진군	1	2	4	7	배종무 1989a
완도군		2	2	4	최성락·고용규 1995
장흥군	4	1	4	9	배종무 1989b
장성군	2		6	8	고용규 1999a
담양군			2	2	임영진·조진선 1995
화순군	1		5	6	임영진의 1998, 박형관 1999
곡성군	1		3	4	임영진·양해웅 1996
고흥군	3	5	4	12	배종무·고용규 1991
보성군	3	1	8	12	임영진 1992
구례군	1	1	3	5	최성락·고용규 1994
백분율	36(20%)	34(19%)	109(61%)	179	

표에서 창성倉城과 조선 후기에 설치된 수군진의 경우는 성곽이 축조되지 않았던 관계로 표에서 제외시켰다. 초축 및 사용·폐기시기 등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지만 전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체 성곽 가운데 산성의 비율은 61%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 같은 비율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므로 전남지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하겠으며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성곽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성곽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수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1942년 조사기록에는 모두 10개소의 성곽유적이 보고(조선총독부 1942)되어 있으나 1988년 조사보고에는 4개소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인선·조근우 1998a). 이 같은 결과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파괴되어 버린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조사기관의 사전준비 소홀과 형식적인 현장조사에서 비롯된 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고문헌과 고지도, 기존 조사기록 등의 참고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현장 조사과정에서도 형식적인 조사로 이어져서 그 결과가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게다가 성곽을 전공한 연구자가 없는 현재의 상황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막론하고 성곽조사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비로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등장과 함께 발굴조사 역시 활성화 되었다. 대상 성곽 역시 산성 위주의 조사에서 읍성과 영진보성 등으로 다양화 되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한정된 조사에 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90년대 후반 순천대학교박물관에서는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 남해안지역의 성곽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순천 검단산성, 여수 고락산성, 광양 마로산성 등 10여 개소가 넘는 산성이 백제 말기 변경지역에 축조된 석축산성으로 밝혀졌다.(최인선·이동희, 1997·1998; 최인선·조근우, 1998; 최인선·변동명 외 2001; 최인선·박태홍, 2003). 뿐만 아니라 성문, 집수지, 치성, 건물지 등 산성 부대시설의 전모가 확인되면서 접경지역에 축조된 백제 산성의 특징과 산성 내부공간의 활용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 2. 전남지역 백제산성 현황

일련번호	유적명	조사내용	조사기관, 보고서
1	순천 검단산성	성벽, 문지, 건물지, 우물 등	순천대학교박물관 2004, 『순천 검단산성 I』
2	여수 고락산성	성벽, 문지, 건물지, 우물 등	순천대학교박물관 2003~4, 『여수 고락산성 1~II』
3	광양 마로산성	성벽, 문지, 건물지, 우물 등	순천대학교박물관 2005~2012, 『광양 마로산성 I~V』
4	고흥 백치성	성벽, 문지, 건물지, 우물 등	전남문화재연구소 2017, 『고흥 백치성 자문회의 자료』
5	장성 진원성	성벽, 문지, 건물지 등	전남문화재연구원 2018, 『장성 진원성』
6	곡성 당동리산성	성벽, 문지, 건물지, 집수지 등	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현장설명회자료』

이들 산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1) 전남 동부지역 백제 영역화 과정 연구

최인선은 백제 산성의 특징을 크게 7가지로 정리하였다.<표 2> 성벽의 축조기법과 암키와의 내면 승석흔은 백제 중앙지역과 차별화된 地方色(地域色)임을 강조하였다. 반면 체성 너비의 규칙성과 각종 출토유물 등은 축성에 백제가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산성들은 지방통치체제가 완전히 정비된 백제 후기에 이르러 정형성을 나타내며 축성된 것으로 보았다.

표 3. 전남 동부 남해안지역 백제 산성의 특징(최인선, 1999·2000·2001·2002·2003·2004·2006·2008·2014)

구분	내용		
입지조건	• 입지 : 시계의 양호함을 優先視 • 형식 : 태외식(山腹式 혹은 山頂式)	규모	• 250~1,050m(소·중규모) 해당
사용시기	• 백제 후기에 국한(신라 편입 후 폐성)	축성재료	• 모두 石材 (국경 방어시설에 심혈을 기울임)
축조기법	• 대부분 협축식 구조, 체성 너비의 규칙성(500m) 내외 →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통제한 결과임 • 성벽은 기단 없이 거의 수직으로 축조, 외벽 기저부는 점토나 석비레로 다짐, 기단보축시설 無		
문지	• 계곡방향 또는 능선 정상부에서 약간 비켜선 지점에 입지 • 문지 개구부 외벽 선단은 곡면, 내벽은 직각 처리함, 마로산성 남문지는 모두 곡면 처리		
수원문제	• 수원 확보를 위한 집수지 축조		
출토유물	• 암키와의 내면에 繩文과 모골흔 확인- 地域性, 문양은 繩文, 繩蓆文, 格子門, 無文 등 고식 형식임 • 승문 기와 출토지 : 대전→익산→남원→섬진강 하류지역(백제의 섬진강유역 진출경로 상정) • 印章瓦, 출토, 호자·녹유대부원은 백제중앙과의 관계를 보여줌		

박태홍(2004·2012)은 郡·縣에 따라 입지와 규모를 달리하며, 6세기 중엽 백제에 의해 계획적인 방어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성벽 축조방법과 기와에서 보이는 고구려적인 요소는 4~5세기경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백제 산성 이후 이 지역에 축조된 성곽을 대상으로 시대별 방어체계의 변화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동희(2005·2008)는 산성의 축조방법이 중앙에 비해 조잡한 점을 들어 6세기 전엽 백제가 가야와 신라에 대비해 접경지역인 섬진강 하구와 남해안 일대에 급하게 축성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제작이 용이한 내면 승석문 기와의 주된 분포지이나, 막새가 보이지 않는 점은 국경지대 여건상 백제의 상위층 문화가 변형 또는 略式化되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했다.

최권호(2009)는 삼국시대 馬老縣의 치소였던 마로산성의 유구와 유물을 검토하여 각 단계별 운영주체와 활용방법을 살펴보았다. 1단계는 6세기 전엽 백제가 전남 동부지역에 진출

한 후 축성하여 광양만 일대를 통제하면서 경남 서부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기지, 2단계는 삼국통일 이후~8세기 대로 신라의 영향 아래 광양읍의 치소와 광양만 일대를 경계하는 거점지, 3단계는 9세기 대로 산성이 지역 호족 세력에 의해 운영되었고, 후백제의 주요한 건국세력으로 판단하였다.

문안식(2007)은 마로산성이 백제가 임나 4현을 차지한 512년 이후에 지방세력 통제 및 가야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마련되었으며, 관산성 전투(554) 이후에는 검단산성과 함께 신라의 해상 공격 방어와 해로 감시 역할을 하였고, 무왕과 의자왕대에는 백제의 병참기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심규훈(2016)은 백제 故地에서 발굴조사된 성곽을 대상으로 입지와 축조 기법을 검토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다양성을 밝히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2) 부대시설에 대한 연구

부대시설은 성벽관련시설인 문지와 치성, 산성 내부시설인 집수지와 건물지로 구분된다. 각 시설에 대한 대체적인 연구경향은 유구에 대한 분석 및 분류를 통해 구조적 특징과 시대별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축성 주체의 양식적 속성으로 귀결시켜 축조 주체간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다.〈표 4〉 또한 최근까지의 조사 사례를 종합하여 각 부대시설의 특징과 조사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김병희·이규근·김호준 외, 2011;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3)

표 4. 부대시설에 관한 연구경향

	연구자	주요 내용
城門	윤선영 (2005)	• 성문의 구조를 현문식과 개거식으로 구분, 현문식은 방어적으로 한 단계 진보된 형태 • 주변국가에서보기어려운 독창 적구조이며, 규모가 크고, 지리적거점에위치한성곽에서 잘 나타남
	차용걸 (2008b)	• 백제 석축산성 문지의 특징으로 轉角 曲面을 이룬 開口部 側壁을 지목 • 왕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전남 동부지역에서 유행한 것으로 이해
	구형모 (2013)	• 차용걸이 제시한 문지의 특징을 弧狀側壁 으로 命名 하고 고구려 석축성에서 기원 제시 • 백제 : 도성 방어 및 교 두 보 방어성격의 석축성에 설치, 가야 故地 의 석축성 : 재지 세력의 특징
	최병화 (2015)	• 백제 석축산성 성문의 발달 과정을 입지, 출입구 형태, 축벽 선단부의 구조에 따라 8단계로 설정 • 증평 추성산성, 임천 성흥산성 성문은 백제 석축산성 가운데 가장 이른 형태로 파악
雉城	차민호 (2013)	• 구조적 특징과 시대적 배경을 통해 삼국의 치성 발생과 변천, 전파 과정 검토.
集水池	정의도 (2006-2007)	• 집수지에서 지역집단 단위의 제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제시(성황신앙 관련, 조선시대 鑛山) • 집수지에 象徵性 및 儀禮性을 부여하여 祭場으로서 산성의 기능을 증명
	김윤아 (2007)	• 발전단계 : 수혈 → 목조 → 석축으로 이해, 석축 구조 수직쌓기 → 들어쌓기 → 계단식 들어쌓기로 변화 • 평면형태는 원형 → 방형 → 다각형(수· 개축 영향)으로 변화
	정인태 (2008)	• 삼국~통일신라시대 산성 집수지의 형식 분류를 통해 시간성, 지역성 및 입지별 특성을 파악

	연구자	주요 내용
集水池	이명호 (2009)	• 백제 집수시설에 대한 구조와 축조방법을 분석하여 식수, 농업, 조경용으로 구분 • 고구려·신라 집수시설과의 비교를 통해 집수시설 성격 파악
	오승연 (2009)	• 신라 산성 집수지의 분류안을 토대로 백제 산성 집수지와 비교 연구 • 집수지를 통해 산성의 군사적 기능과 행정 제의적 기능을 구분
	최병화 (2010)	• 백제 용수시설을 우물, 집수지, 저수조로 구분, 대부분 집수지와 저수조가 사용
	황대일 (2014)	• 남한지역 고대 산성 석축집수지의 구조적 특징 검토 • 출토유물과 산성의 축조 시기를 종합하여 4단계 변화과정 제시

3) 출토유물에 관한 연구

백제의 호남 동부지역 진출 과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고고학 자료는 내면 승석문·모골흔 평기와, 印章瓦(印刻瓦)가 있다. 이 유물들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어 공급된 것으로(송미진, 2004; 심상욱, 2005; 김영심, 2007; 龜田修一, 2013; 이병호, 2014), 특히 인장와는 인장의 형태와 내용이 중앙에서 사용되는 것과 확연히 구분되고, 개별 유적 간에도 다른 인장을 사용하고 있어 유적 내에서 자체적 또는 필요에 따라 한정적으로 생산·공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환희, 2014). 반면 地域色을 나타내는 유물뿐만 아니라 중앙 물질문화의 존재를 피력한 견해도 있다. 권오영(2006-2010)은 중앙식 건축문화인 壁柱建物·印刻瓦·煙家, 고급스런 귀족문화를 의미하는 綠釉器·虎子, 지식관료층의 존재를 알리는 벼루는 왕경인의 이주와 정착을 의미하며, 백제 중앙의 지방지배 방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았다.

이후 통일신라~조선시대의 성곽가운데 조사된 성곽은 다음과 같다.

표 5. 통일신라~고려시대 조사현황

시대	유적명	조사내용	조사기관/보고서
통일신라	나주 회진성	성벽, 문지 등	전남대학교박물관, 1993, 『회진토성 I -1993년도 발굴조사-』; 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나주 회진성』
	순천 홍내동토성	성벽	순천대학교박물관, 2002, 『순천 해룡산성』
	완도 청해진성	성벽, 문지, 건물지, 목책 등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2, 『장도청해진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II』
	무안 봉대산성	성벽, 치 등	목포대학교박물관, 2007, 『무안 봉대산성』; 2017, 『봉대산성 II』
	신안 대성산성	성벽, 문지 등	전남문화재연구소, 2016, 『현장설명회자료』
	곡성 설산산성	성벽, 건물지 등	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현장설명회자료』
고려	진도 용장성	성벽, 문지 등	목포대박물관, 2006, 『진도 용장산성』; 2017, 『진도 용장성 왕궁지-발굴조사 중간보고 II』
	해남 금쇄동산성	성벽, 문지 등	마한문화연구원, 2016, 『해남 윤선도유적』
	해남 금강산성	문지, 건물지 등	고대문화재연구원, 2018, 『금강산성 현장설명회자료』
	장성 입암산성	성벽, 문지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 『장성 입암산성-남문지-』
	담양 금성산성	건물지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담양 금성산성』

표 6. 조선시대 읍성 및 영진보성 조사현황

일련번호	유적명	조사내용	조사기관
1	광주읍성	성벽, 건물지 등	전남문화재연구원(2006~2007)
2	나주읍성	성벽, 문지 등	호남문화재연구원(2003) ;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2007·2010) ; 영해문화유산연구원(2017) ; 대한문화재연구원(2017)
3	영암읍성	성벽	전남문화재연구원(2009)
4	해남읍성	성벽, 치, 해자	마한문화연구원(2018)
5	강진읍성	성벽, 치 등	전남문화재연구소(2018)
6	순천읍성	성벽, 해자 등	대한문화연구원(2011)
7	낙안읍성	문지	마한문화연구원(2016) ; 고대문화재연구원(2017)
8	광양읍성	성벽, 해자 등	마한문화연구원(2011)
9	강진 전라병영성	성벽, 문지, 건물지, 해자 등	명지대학교 한국건축연구소(2005) ; 마한문화연구원(2011) ; 한얼문화재연구(2016~2018)
10	영광 법성진성	성벽, 치, 건물지 등	마한문화연구원(2007) ; 전남문화재연구원(2017)
11	목포 목포진성	성벽, 건물지	목포대학교박물관(2011)
12	해남 전라우수영	성벽, 치, 해자	명지대학교 한국건축연구소(2004) ; 마한문화연구원(2016) ; 한얼문화재연구원(2018)
13	진도 남도진성	성벽, 문지, 옹성, 선소, 건물지 등	명지대전통건축연구소(1999) ; 전남문화재연구원(2006) ; 목포대학교박물관(2011) ;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2014) ; 고대문화재연구원(2016)
14	진도 금갑진성	성벽, 문지, 치, 건물지 등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2008) ; 전남문화재연구소(2015)
15	장흥 회령진성	성벽 등	대한문화연구원(2011)
16	고흥 녹도진성	성벽 등	순천대학교박물관(2014)
17	고흥 발포진성	성벽, 문지, 건물지, 우물 등	전남대학교박물관(1984)
18	여수전라좌수영성	성벽, 문지, 건물지 등	순천대학교박물관(2002) ;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2011) ; 전남문화재연구원(2017~2018)
19	여수 방담진성	성벽, 문지 등	남도문화재연구원(2007)

3. 사례별 보수·정비 실태의 문제점

1) 축성 재료를 무시한 보수·정비 사례(석성→토성)

순천 검단산성은 전체길이 약 430m, 외벽 높이 1~3m, 내벽 높이 2m이상, 폭 5m 규모로서, 돌로 쌓은 백제시대 테피식 산성이다. 내벽과 외벽 모두 산의 경사면을 L자로 절개한 후 여기에 의지하여 지대석이 없이 성벽을 거의 수직으로 쌓아올렸다. 외벽은 20~80m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여 켜기돌로 고정해가면서 허튼층쌓기로 쌓았다. 외벽 하단부 3~4단까지는 적갈색 점토와 잡석들로 다짐하여 보강하고 있다. 내벽 역시 외벽과 동일한 양상이나 석축 후 흙으로 다짐처리하여 되메꿈으로써 사용면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자연경사면의 석비레층 위에 30~50cm까지 흙을 다져서 채우고 다시 그 위에 잡석을 채워 성벽을 마무리하였다.



순천 검단산성 남문지



순천 검단산성 남문지

문지 3개소, 건물지 3개소, 대형우물지 1개소, 저장공 2개소 등의 시설과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경의 기와류와 토기 및 철기류, 목기류, 석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검단산성은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백제시대의 석축산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나 성벽은 토성으로 보수·정비되었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석축산성으로 바로잡는 절차를 밟고 있다.

2) 축조법을 무시한 보수·정비 사례(내탁식 석성 ⇒ 협축식 석성)

(1) 순천 낙안읍성

낙안읍성은 1394년(태조 3) 무렵에 낙안고을 출신의 전라도절제사였던 김빈길(金賓吉)이 처음 토성으로 축조하였다. 그러나 토성의 규모가 작고 낮았던 까닭에 석축 읍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1424년(세종 6) 9월에 축조하기 시작하여 한 달 만인 10월에 완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후 정유재란 때 순천 왜성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들에게 함락당하면서 파괴되었던 것을 1628년(인조 6) 무렵 낙안군수 임경업(林慶業)이 복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 둘레 1,410m로서 남벽의 길이가 북벽에 비해 긴 사다리꼴의 평면형태를 이룬다. 일찍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고 보수·정비가 실시되었으나 조선시대의 내탁식 석축성이 아닌 아래 폭 약 8m, 위 폭 약 4m 정도의 협축식 성벽으로 복원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읍성 및 영진성이 모두 내탁법으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보수·정비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순천 낙안읍성 항공사진



순천 낙안읍성 북벽 상단



순천 낙안읍성 북벽 내벽

(2) 진도 남도진성

1438년(세종 20) 정월에 남도포만호진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 1500년(연산군 6)을 전후한 시기에 수군진보성을 축조하였다. 1555년(명종 10) 5월의 을묘왜변과 1597년(선조 30) 9월 명량해전 때 왜구들에게 함락 당하여 불에 타고, 조선 후기에도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평면 장방형의 수군진보성으로 둘레 610m, 높이 5.1m이며 편마암으로 쌓은 석성이다.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일찍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나 조선시대의 내탁식 석축성이 아닌 폭 2.5~3m 가량의 협축식 성벽으로 보수·정비되었다. 평지에 입지하고 있어 성벽은 높는데 반해 폭은 좁고, 내탁부(성벽 안쪽에 2~3단 정도의 층단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그 상부에 토사로 축조한 내탁부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됨)가 없기 때문에 장마철의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자주 성벽이 무너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진도 남도진성 항공사진



진도 남도진성 북벽 붕괴상태



진도 남도진성 북벽 복원상태



진도 남도진성 남벽 내벽(협축)

진도 남도진성 서벽 내벽(협축)



진도 남도진성 북벽 배부름현상

진도 남도진성 기단 보축

3) 원형을 무시한 부실시공 사례(지대석, 축성기법, 상부 마감처리)

담양 금성산성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동절기와 장마철 우수에 의해 성벽이 붕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보수·정비 이후 노후화 및 보수·정비의 여건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시공 한데 따른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담양 금성산성 항공사진



담양 금성산성 지대석(무)

담양 금성산성 내성 붕괴상태



담양 금성산성 내성 붕괴상태

담양 금성산성 내성 상단부 복원상태

- ① 외벽쪽 경사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지대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내부 압력 및 상부 하중으로부터 취약한 형태로 정비 복원됨
- ② 지대석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대석에서 들여쌓지 않거나, 지대석의 외면에 맞추어 곧바로 외벽을 쌓아올림
- ③ 면석은 상·중·하부간 크기의 차이가 없고, 켜기돌은 손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이탈할 정도로 면석을 지지해 주거나 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④ 뒷채움부는 급경사지 등 입지조건을 무시하고 심석이 없이 잡석으로만 채워져 있어 지력이 약함
- ⑤ 성벽 상단부는 10cm 내외의 토사로 마감처리 후 잔디가 식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성벽 상단부로부터 빗물이 유입되기 쉬운 상태임
- ⑥ 특히 곡부를 이루는 부분과 급경사지에 입지한 성벽에서는 내부 압력과 상부 하중에 취약한 상태로서 곳곳에서 배부름현상이 관찰되고 있어 붕괴 위험이 상존해 있음

4) 지자체에 의한 임의적인 보수정비

전라남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성곽의 경우 학술조사를 통해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없이 복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발굴조사에 따른 예산을 신청하더라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비복원 예산만 책정되기 때문에 비롯한 문제이다. 정비복원 후 과도한 크기의

성돌 사용, 썰기돌의 과다 사용, 조선시대 성벽의 경우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성돌이 점차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붕괴우려만을 고려, 무작정 큰 돌로 정비복원하는 등 문제로 제기된다. 더불어 성돌을 괴이던 썰기돌이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목격되고 있다. 평지에 들어서 있는 전라병영성의 경우에서도 동벽은 3단의 층단식 석축 후 내벽과 석축 상단부에 흙과 잡석으로 내탁하였고, 서벽의 경우에는 2단의 층단식 석축 위에 내탁한 형식이다. 하지만 현재도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보수·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5) 축성 재료의 문제

해남 이진진성, 장흥 회령진성의 보수·정비는 규격보다 큰 성돌로 시공하였는데 특히 문의 측벽에서 이러한 사례가 눈에 띈다. 진도 남도진성에서는 신재와 구재의 부조화와 강도의 차이로 인해 배부름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성벽 진행방향의 경사가 심할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재로 전부 보수·정비한 구간에서도 강도의 차이로 인해 성돌이 깨지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해남 이진진성 항공사진



해남 이진진성 서벽 복원 전경

해남 이진진성 서벽 복원 후 세부

6) 부대시설의 보수·정비 문제

진도 남도진성의 옹성은 선단부가 성벽과 평행하지 않고 바깥쪽은 넓고 안쪽이 좁은 사선형태로 방어에 중점을 둔 형식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성벽과 평행한 형식으로 보수·정비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문 옹성의 경우는 성벽 위를 오르내리는 계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서문 안쪽의 원래의 객사, 동헌, 내아터 자리에는 현재 객사 외에도 동헌과 내아가 한 공간에 복원되어 있어 잘못 보수·정비된 상태로 남아있다. 동문과 주변 체성은 통과선과 폭이 좁게 정비복원됨으로서 성문을 정비복원하려 했을 때 문제가 되었다. 결국 발굴조사 후의 결과를 토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나주읍성 북문은 개거식과 홍예식 성문양식으로 정비복원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 끝에 결국 홍예식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강진 전라병영성 남문은 본래 홍예식 성문이었으나 개거식으로 잘못 복원된 사례에 속한다.



진도 남도진성 항공사진



진도 남도진성 북벽 붕괴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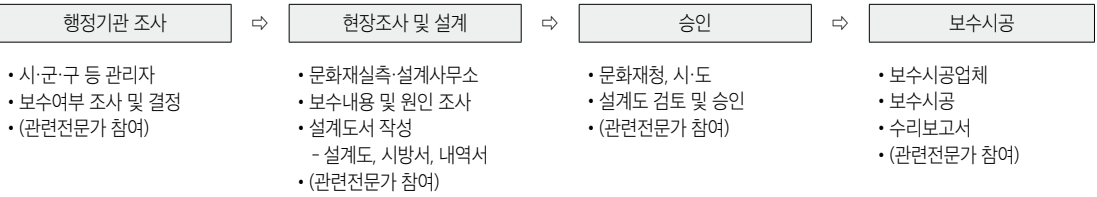
4. 보수·정비의 개선책

이상으로 매우 간략하고 형식적인 몇몇 사례에 불과하지만 전라도지역의 성곽을 대상으로 성곽의 보수정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곽을 포함한 문화재 보수·정비의 기본 원칙은 원형성, 즉 성곽의 가치와 진성성 유지에 있다. 하지만 이처럼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그것은 문화재 보수·정비의 특수성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로서 일단 보수를 시작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불가역성(irreversibility)’이라 할 수 있다. 일단 문화재 보수를 시작하기 위해 원형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문화재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는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재생불가성), 그 문화재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문화재로의 대체 또한 불가능하다(대체불가성). 이러한 문화재의 특성으로 인해 보수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물적·인적 노력이 수반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가치를 감퇴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를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일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보존 조치도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상태와 조건, 손상의 원인, 보존을 위한 조치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별로 각기 다르게 조치되어야 한다. 문화재 보수의 의미는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수는 독립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여러 부분에 걸쳐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문화재의 보수는 ‘원형보존’을 추구하면서, 엄격한 이론 적용에서 생기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간의 유연성을 가미하여 보수를 통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양식(style), 기술(style), 재료(material) 및 절차(procedure) 등의 보수 방법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성곽의 일반적인 보수절차는 건축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행정기관에서의 조사단계, 현장조사 및 설계단계, 승인단계, 보수시공 단계이다. 발주자가 되는 행정기관(시·군·구의 관리자)은 대상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수리여부를 판단한 후 예산을 신청해서 수리에 대한 방향과 규모를 결정 한 후 지침을 작성해 발주를 하게 된다. 이때 관련전문가가 동행하기도 한다. 행정기관의 담당자는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관련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다. 그나마 관련전문가가 동행하면 다행이지만 상당수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담당공무원 상당수가 순환보직 원칙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금 알만 하면 보직 변경되어 새 담당자가 오게 되고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지침은 현장 상황에도 안 맞고 예산에도 맞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지금까지의 성곽의 보수·정비를 위한 조사와 방식을 살펴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이를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성곽 보수·정비를 위한 조사의 경우, 전면적인 발굴조사는 지양하여야 하며, 성격구명이나 보수·정비의 기초자료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전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나름대로 완벽하게 성격을 규명하고, 보수·정비를 위한 완벽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조사가 잘못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오히려 합법적인 훼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곽의 보수·정비를 위한 발굴조사의 경우는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곽 보수·정비 시 부족한 성곽돌은 다른 장소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의 확보와 조달이 쉽지 않을뿐더러 신재를 사용함으로 원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석성石城을 보수·정비하기 위해서는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성벽을 먼저 발굴조사를 통하여 노출시켜야 한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연적으로 유실되어 버린 성벽은 원래의 모습을 추정하여 복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사설계 시 기존 성벽과 같은 석재를 확보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재료를 보충하여 보수·정비할 수 밖에 없는데, 이후에는 기존 성벽과 서로 다른 석재를 사용한 구간 간에 이질감을 주는 사례도 있다. 북한산성의 경우 신재와 구재의 색상이 서로 달라 보는 이로 하여금 이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성돌 가공과정에서도 기계톱을 사용하여 절단가공 후, 다듬어 성을 쌓은 관계로 원래의 성돌과 같은 모양이나 질감이 나지 않는다. 만약, 같은 종류의 석재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성돌로 복원 가능한 범위까지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오히려 바람직한 성곽 보수·정비 방법일 수 있다.

셋째, 성곽의 보수·정비는 최소한의 구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최소범위의 보수원칙)이다. 모든 구간을 같은 방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정비하는 패턴을 변화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전 구간을 발굴조사 하였다고 하여 모든 구간을 복원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유실되거나 훼손된 구간은 추정복원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성곽을 찾는 방문객이나 교육·연구목적상 필요한 구간만 일부 추정 복원하고, 나머지 구간은 원래의 상태대로 보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사전에 충분한 고증이 되기 전에는 전체 지역을 복원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내부까지 보수·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관아시설들에 대한 복원이 전제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창읍성의 경우에는 읍성 내부에 난립되어 있던 건축물들을 철거한 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아시설을 보수·정비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다섯째, 성곽의 보수·정비는 계획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전문성이 수반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의 인력풀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하여 구축 DB화하고 보수·정비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왕의 국가 및 지방문화재를 점검한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책토론회 이후에도 관계전문가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DB화하고 보수·정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원형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설정 등 규제가 불가피하데, 이는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과의 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곽의 발굴조사나 보수·정비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때 제시된 의견이 성곽 보수·정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정비·보수는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주변의 연계 유적과 문화콘텐츠 등의 개발을 통해 가치창출과 활용성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상으로 그 개선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놓친 부분도 많은 게 사실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봉룡, 1999, <나주시의 관방유적> 『나주시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고용규, 1999a, <장성군의 관방유적> 『장성군의 문화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 1999b, <전남지역 성곽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남고고학보』10, 호남고고학회.
-----, 2001, <한국 남부지역 관축토성의 연구> 『고문화』5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장도 청해진성-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김경옥, 1995, <목포시의 역사유적> 『목포시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김정애, 2007, 『여수 방답진성』, (재)남도문화재연구원.
김지민, 1990, 『나주읍성 남고문 복원에 관한 고증연구』, 목포대학교박물관.
김홍식 외, 2004, 『全羅右水營 望海樓址 및 北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008, 『나주목 객사지 발굴조사보고서』.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008, 『진도 금갑진성』.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014, 『진도 남도진성』.
마한문화재연구원, 2008, 『여수 석창성지 - 2차 발굴조사 -』.
마한문화재연구원·대한문화재연구원, 2015, <여수 석보 3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9, 『珍島 南桃石城 發掘調査報告書』.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5, 『강진 전라병영성지 발굴조사보고서』
박광석, 1993, <광양군의 유교유적> 『광양군의 문화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
박준범, 2000, <여수시의 고고유적> 『여수시의 문화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박형관, 1988, <여천지방의 관방유적> 『여천군의 문화유적』, 조선대학교 국사연구소.
-----, 1999, <화순군의 관방유적> 『화순군의 문화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배중무, 1986a, <무안지방의 관방유적> 『무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1986b, <영암지방의 관방유적> 『영암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1986c, <해남지방의 관방유적>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1987a, <진도지방의 역사유적> 『진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1987b, <신안지방의 역사유적>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1989a, <강진지방의 관방유적> 『강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1989b, <장흥지방의 관방유적> 『장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1989c, <나주시의 관방유적> 『나주시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배중무·고용규, 1991, <고흥군의 관방유적> 『고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서정석, 1999, <나주 회진토성에 대한 검토> 『백제문화』2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순천대학교박물관, 2005~2013, 『광양 마로산성 I~V』.
심정보, 2001,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과 성격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35, 한국상고사학회.
순천대학교박물관, 1993,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순천대학교박물관, 2002, 『전라좌수영성지』.
안재철 외, 2017, 『나주읍성 복문지』, 영해문화유산연구원.
이범기·이화영·고용규, 2011, 『강진 병영성지』.
이영철·권혁주, 2017, 『羅州邑城 西城壁 시굴조사보고서』, 대한문화재연구원.
이영철·권혁주·이혜현, 2011, 『여수 전라좌수영지』,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이해준·고용규, 1991, 『강진 병영성』, 목포대학교박물관.
-----, 1992, 『진도읍성·철마산성』, 목포대학교박물관.
임영진, 1989, 『무진고성 I』, 전남대학교박물관.
-----, 1990, 『무진고성 II』, 전남대학교박물관.
-----, 1992, <보성군의 고고학유적> 『보성군의 문화유적』, 전남대학교박물관.

임영진·조진선, 1993a, 『회진토성 I -1993년도 발굴조사-』, 전남대학교박물관.
-----, 1993b, <영광군의 고고학유적 II> 『영광군의 문화유적』, 전남대학교박물관.
-----, 1995, <담양군의 고고학유적> 『담양군의 문화유적』, 전남대학교박물관.
임영진·양해웅, 1996, <곡성군의 고고학유적> 『곡성군의 문화유적』, 전남대학교박물관.
정기진·장재근·이계표, 1997, 『광주읍성』, 광주광역시 시립민속박물관.
조선총독부, 1942,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조원래·박광석, 1992, <순천시의 유교유적> 『순천시의 문화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
천득엽, 1989, <금성산성의 구조와 축성방법> 『금성산성』, 전남대학교박물관.
최몽룡 1984 <고흥발포진성 발굴조사보고서> 『백산학보』 29, 백산학회.
최성락·고용규, 1993, <함평군의 관방유적> 『함평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1994, <구례군의 관방유적> 『구례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1995, <완도군의 관방유적> 『완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1998, 『진도 망금산성과 강강수월래』, 목포대학교박물관.
-----, 2000, <무안군의 수군진과 봉수 지표조사보고>, 『무안군의 수군진과 봉수』, 무안문화원.
최성락·고용규 외, 2000, 『흑산도 상라산성연구』,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 2000, 『자미산성』,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김경칠·김영필, 2006, 『珍島 南桃石城 船所遺蹟』, 전남문화재연구원.
崔仁善, 1997, <관방유적과 문화재>, 『順天市史』(문화·예술편), 順天市史編纂委員會.
-----, 1999, <順天 劍丹山城 研究(1) - 발굴조사 내용과 축성법을 중심으로>, 『文化史學』 11·12·13, 韓國文化史學會.
최인선, 1999, <순천 김단산성 연구(1) - 발굴조사 내용과 축성법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 2000a, <순천시의 성곽과 봉수유적> 『순천시의 문화유적(II)』, 순천대학교박물관.
-----, 2000b, <섬진강 서안지역의 백제산성> 『섬진강 주변의 백제산성』 제23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 2001, <전남지역 불교와 성곽유적의 최근 조사성과> 『고문화』5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崔仁善 2002, <全南 東部地域の 百濟山城 研究>, 『文化史學』 18, 한국문화사학회.
-----, 2002a, 『순천 해룡산성』, 순천대학교박물관.
-----, 2002b, <홍양읍성과 4개 진성> 『임진왜란과 고흥-임란해전의 수군기지 일관사포의 역사』,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 2002c, <낙안읍성의 축성과 그 구조> 『낙안과 낙안읍성』, 순천대학교박물관.
최인선, 2003, <여수 고락산성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19, 韓國文化史學會.
최인선, 2010, <順天 鴻內洞土城에 對한 研究 - 순천의 호족 박영규를 중심으로 ->.
최인선, 2015, <섬진강유역의 城郭과 寺址> 『제23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섬진강유역의 고고학-』, 호남고고학회.
최인선·박태홍, 2002, <海龍山城의 築城法과 調査内容>, 『順天 海龍山城』, 順天大博博物館·順天市.
최인선·이동희, 1997, <순천 김단산성 시굴조사> 『순천 김단산성과 왜성』, 순천대학교박물관.
-----, 1998, 『광양시의 산성』, 순천대학교박물관.
최인선·조근우, 1998a, 『여수의 성지』, 순천대학교박물관.
-----, 1998b, 『여수 고락산성』, 순천대학교박물관.
최인선·조근우외, 2001, 『영광 법성진성』, 순천대학교박물관.
최인선·조근우·이순엽, 2002, 『전라좌수영성지』, 순천대학교박물관.

〈전남지역 성곽유산 연구현황과 보존·정비방향〉에 대한 토론문

최인선(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

발표자의 자료에 의하면 전남지역에 179개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 백제시대 산성 20여개 가운데 6곳의 산성이 발굴조사되어 백제시대 전남지역의 산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산성은 6곳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완도 청해진성을 제외한 산성들은 극히 일부분만 조사되어 그 실상을 아직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시대 산성은 5곳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역시 진도 용장성만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조선시대는 읍성을 비롯해서 진성 등 20여 곳이 발굴조사되어 비교적 많은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렇듯 중세시기의 전남 지역 성곽 조사 예가 많지 않아 그 성격 파악이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다. 백제시기의 성곽 특징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데 중세시기의 전남지방 성곽 특징을 발표자에게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께서 성곽 사례별 보수·정비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밖의 것들 몇 예를 더 들어 보겠다.

전남동부지역에 분포하고 하고 있는 성곽 가운데 성벽의 일부라도 복원한 유적은 광양 마로산성, 여수 고락산성 보루, 순천왜성 등이 있다.

광양 마로산성은 조사결과 백제후기에 축성하여 후삼국시대까지 활용되었던 산성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체성은 백제~후삼국시대식으로 축성되어야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동측의 체성 외벽은 들여쌓기를 하여 원형을 잃은 상태로 정비되어 있다. 이 구간은 경사가 급해서 체성을 복원하면서 들여쌓기를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백제석축성의 체성은 기단석없이 생토에서 바로 수직으로 쌓고 있으며, 성벽의 밑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3-7단 정도의 높이까지 보강토를 다짐하여 성벽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체성의 외측벽석은 거의 수직을 이루고 있다.

성벽을 포함한 성곽의 정비·복원은 행정기관에서 담당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면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그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발굴조사기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사를 시행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발굴조사기관과 행정기관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수 고락산성 보루는 둘레 100m 정도의 작은 체성을 가지고 있는 석성이다. 이 보루 역시 백제시기의 것으로 밝혀져 백제시기의 축성법으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락산성의 보루는 문지가 1개였는데 백제산성의 석성 문지 평면은 외측이 각을 이루고 내측은 호형인 점이 특징이다. 이 보루 문지의 외측을 복원하면서 백제식으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 모서리 성돌(隅石)에 가늘고 긴 돌을 사용하여 그 장변과 단변을 서로 어긋나게(交互) 층층이 쌓아 올린 축성법을 적용하였다. 이 축성법을 일본의 ‘산기즈미(算木積み)’법이라 하는데 모서리 부분을 더욱 안정감있게 하려고 이처럼 백제식과는 무관하게 성벽을 복원하였던 것이다.

순천왜성은 1597년 9월부터 3개월간 일본 小西行長軍에 축성된 성이다. 일본은 16세기 중반에 이르러 본격적인 석축성을 축성하기 시작하며, 일본 특유의 석성 축성법을 적용하였다. 곧 조선시대 석성과 달리 기단석없이 성벽을 쌓았으며, 한국이나 중국의 성벽이 거의 수직으로 곧게 서있는데 반해 어느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경사지게 축성하였다. 순천왜성은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성벽을 허물고 새롭게 복원하면서 기존의 성벽에 사용되었던 성돌의 모양을 버리고 새롭게 채석하여 치석한 성돌을 이용하여 축성함으로써 왜성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현재의 우리나라식으로 축성하여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다. 역시 행정기관에서 학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유적의 복원은 원형대로 하여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대 원칙을 잘 지켜야만 그 유적은 생명력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정비와 복원안을 만들때부터 관련기관(학계, 행정당국, 유적정비와 복원의 설계와 시공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최선의 안을 만들어야 가능할 것이다.

발표자께서는 성곽 보수·정비 개선책으로 6가지를 나열하였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매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차제에 성곽 보수·정비안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시행하면 좋을 듯 하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제주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1. 머리말
2. 제주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현황
3. 성곽유산 보존·정비 현황과 과제



제주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 정비 방향

변성훈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도는 지정학적 위치상 동아시아 해로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가 된 이유로 과거로부터 주변국의 외침을 빈번하게 받아왔다. 특히 쓰시마에 거점을 둔 왜구들이 중국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제주를 정복하기 위한 왜구의 침략이 고려 말 이후 계속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 곳곳에는 외침에 대비한 방어시설들을 설치하였고 특히 소수의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성곽을 곳곳에 축조하였다. 이는 내륙과 떨어져 있어 유사시 신속한 지원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관계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성곽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중심지였던 만큼 그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런 이유로 성곽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성곽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늦은 편이다. 다른 지역의 성곽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으나 제주도의 경우 1970년대 들어서야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는 성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성곽을 연구하는 전공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이후 고고학조사가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성곽에 대한 연구는 점차 진전되었으나 아직도 그 수준은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주도 성곽 유적에 대한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현황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려시대 성곽 유적 2개소와 조선시대 성곽 유적 13개소의 성곽 유적 현황과 연구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성곽 유적의 보존·정비 현황에서는 잔존하는 성벽과 부속시설 현황을 제시하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비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곽 유적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언급하여 향후 복원·정비에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1. 머리말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는 북쪽으로는 한반도를 비롯하여 동쪽으로는 일본의 큐슈지방, 서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유구열도로 둘러싸인 동중국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동아시아 해로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가 된 이유로 과거로부터 주변국의 외침을 빈번하게 받아왔다. 특히 고려시대에 일본 정벌을 위한 元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든지, 조선시대의 잦은 왜구의 침입 등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도서지역인 제주도는 내륙과 떨어져 있어 적의 침입 시 중앙정부로부터 신속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런 이유로 소수의 인원으로도 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성곽을 쌓아 해안가로 들어오는 적을 상대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잦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제주도 곳곳에 성곽을 축조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다.

성곽유적의 축조시기는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은 환해장성과 항파두리 토성은 고려시대에 축조되었고 대부분은 조선시대 들어 본격적으로 축조되었다, 특히 세종대에 들어 중앙정부에서는 연해지역에 읍성을 축성하여 잦은 왜구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는데 제주도에도 비슷한 시기에 많은 방어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성곽은 군사적 목적을 갖고 요지에 설치한 시설물이지만, 평시에는 해당 지역을 관장하는 행정적 기능도 갖고 있었기에 성곽을 통해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해당 지역의 역사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성곽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져서 지방의 행정체제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정치·경제·문화·군사의 거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곽은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한다. 다른 지역의 성곽에 대한 조사는 고고학 분야의 조사와 비슷한 시기인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었으나 제주도 지역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도 동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사는 1990년대부터

제주도의 방어유적을 조사하면서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연구가² 이루어졌다. 다만 아직도 유적 정비와 건축공사를 위한 구제발굴 등에 그쳐 학술연구로서의 수준은 걸음마 단계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제주도의 성곽유적에 대한 고고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요인으로 인한 유적의 파괴나 변질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점과 제주도의 성곽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거의 없다는 현실은 향후 성곽유적의 보존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난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제주도 지역의 성곽유적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현황과 보존·정비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그동안 이루어진 성곽 정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 등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성곽유적 정비 및 복원에 필요한 성곽조사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글에 대한 기탄없는 선학들의 의견제시와 비판이 있기를 바란다.

1 고용규(1999), 『全南地域 城郭研究의 現況와 課題』, 『호남고고학보』 제10집, 호남고고학회.

2 제주도에서 당시 잔존하는 제주의 관방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96년 ‘濟州의 防禦遺跡’의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이후 성곽, 연대, 봉수대, 환해장성 등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졌다.

2.
제주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현황

성곽에 대한 조사는 일제 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라는 책에 전국에 산재된 성곽유적에 대한 소재지 및 규모 등이 간략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시기를 최초 조사 시점으로 볼 수 있으나, 제주도 지역의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1970년대에 들어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서 보고서」(제주도, 1973)가 나오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한동안 공백기로 남아 있다가 1986년부터 성곽 복원 사업이 실시되면서 고고학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제주도 성곽유적에 대한 최초의 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고 그 수준도 부진을 면치 못하였는데 점차 성곽유적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조금씩 활기를 띄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제주도 지역에 분포하는 성곽유적 현황을 먼저 제시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현황을 살펴보았다.

1) 제주도의 성곽유적 현황

제주도의 성곽유적 분포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고려시대의 유적으로는 제주도 해안을 둘러쌓아 해안으로 들어오는 외적을 방어하였던 환해장성과 여몽연합군에 항쟁하기 위해 삼별초에 의해 축성된 항파두리 토성이 있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나오는 제주읍성 이전의 古城이 고려시대 성곽유적으로 보이³나, 이 古城에 대한 실체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⁴ 두 번째로 조선시대의 유적으로는 군사적·행정적 목적으로 마련된 제주읍성과, 정의현성, 대정현성이 있으며 국방과

교통의 요충지에 설치한 9개의 鎭城이 있다. 그리고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의 1목 2현의 행정체제로 개편된 후 정의현 설치 초기 축조되었던 古정의현성까지 제주도의 성곽유적으로 남아 있다.

이 외에도 제주도에는 축성 목적이 다른 城이 존재하고 있다.⁵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고 앞서 제시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성곽유적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고려시대 축조된 제주도 성곽유적 현황

성곽명	축조시기	축조자	규모
환해장성	1270(원종 11)	고여림(高汝霖)	300餘里
항파두리 토성	1271(원종 12)	김통정(金通精)	약 6km

〈표 1〉은 고려시대에 축조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곽유적에 대한 현황 자료이다. 환해장성은 1270년(원종 11) 11월 중순 삼별초가 제주도를 장악할 때까지 제주도 해안 300여리에 급하게 쌓은 성곽이다.⁶ 이는 삼별초가 제주도를 점령한 시기가 같은 해 11월 중순인데 『高麗史』를 보면 같은 해 9월 환해장성을 축조한 고여림이 전라도에 있었다고 나오고 있어⁷ 환해장성의 축성기간은 채 2개월이 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⁸ 환해장성은 고려조정이 삼별초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탐라에 고여림을 보내 삼별초가 탐라에 들어오는 것을 해안에서부터 방어하도록 축성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⁹ 이후 삼별초군이 탐라를 점령하고 여몽연합군에 대응하면서 수차례 성곽을 정비하였고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제주도 해안가를 방어하는 시설로 사용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환해장성 유적은 현재 제주도 곳곳에 그 유적이 잔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항파두리 토성은 1271년(원종 12) 5월 진도에서 삼별초를 이끌고 탐라에 들어 온 김통정 장군이 귀일촌에 쌓은 토성이다. 삼별초는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여몽 연합군에 맞서 항쟁하다가 결국 2년 후인 1273년(원종 14) 1만여 명의 여몽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었다.¹⁰ 항파두리 토성은 제주도의 성곽유적 중 유일하게 성벽을 흙으로 쌓은 토성으로, 길이는 약 6km이며

3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全羅道, 濟州牧, 古跡條 : 古城 州城西北有城遺址.
4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주의 성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 제주읍성이 기 존재하고 있던 古城을 바탕으로 확장했다는 의견과 제주읍성이 축조된 이후 훼손된 古城을 다시 쌓았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古城이 존재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고려시대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판단에는 이견이 없다. 그 이유로는 『增補耽羅誌』에도 “古州城은 州城 西北에 古城基址가 有하니 洞名을 陳城이라 稱한다”라는 기록을 참고해 보면, ‘무근성’이 있던 곳을 ‘陳城洞’이라고 표기한 것은 ‘陳’의 뜻이 ‘목은 또는 오래된’이므로 ‘陳城’은 목은 성 또는 오래된 성 즉 古城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조선시대 제주읍성 축성 이전 이미 오래된 성인 목은성이 있었고, 이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측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명확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본고에서는 古城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5 제주도에는 조선시대 목축생활과 관련된 잣성(상잣성,중잣성,하잣성)유적과 4·3사건 당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성한 성곽유적이 일부 남아있다.
6 김보한(2016), 「제주도 環海長城과 규슈 元寇防壘의 역사적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55, 한일관계사학회.
7 『高麗史』 世家 卷第二十六 元宗11年 9月 辛丑 : 辛丑將軍楊東茂高汝霖等以舟師討珍島賊..(後略)
8 강창언(1991), 「濟州島の 環海長城 研究」, 『耽羅文化』 11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9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全羅道, 濟州牧, 古跡條 : 古長城, 沿海環築周三百餘里 高麗元宗時三別叛據珍島 王遣侍郎高汝林等于耽羅領兵一千以備之因築長城.
10 제주시·(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2),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도서출판 각.

外城과 內城을 갖춘 이중성이다. 토성의 위치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올라온 지역에 위치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파른 입지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성곽의 입지조건으로는 나쁘지 않다. 성곽의 형태는 불규칙한 장타원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성벽과 인접한 하천을 자연해자로 삼았다. 현재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고고학조사와 보존·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다음 제주도 성곽유적 중 조선시대의 성곽유적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아래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2. 조선시대 성곽유적 현황

성곽명	축조시기	축조자	규모
제주읍성	1411(태종 11) 수축	-	周 5,489尺, 高 11尺
古정의현성	1416(태종 16)이후	-	-
정의현성	1423(세종 5)	판관 최치렴	周 2,986尺, 高 13尺
대정현성	1418(태종 18)	현감 유신	周 4,090尺, 高 17尺 4寸
화북진성	1678(숙종 4)	목사 최관	周 606尺, 高 12尺
조천진성	1590(선조 23) 개축	목사 이육	周 428尺, 高 7尺
별방진성	1510(중종 5)	목사 장림	周 2,890尺
수산진성	1599(선조 32) 이축	목사 성윤문	周 1,164尺, 高 16尺
서귀진성	1590(선조 23) 이축	목사 이육	周 825尺, 高 12尺
모슬진성	1678(숙종 4)	목사 윤창형	周 315尺, 高 12尺
차귀진성	1652(효종 3) 개축	목사 이원진	周 2,466尺, 高 22尺
명월진성	1510(중종 5)	목사 장림	周 3,020尺, 高 8尺
애월진성	1581(선조 14) 개축	목사 김태정	周 549尺

〈표 2〉는 조선시대 제주도의 성곽유적 현황으로 성곽의 규모는 『濟州邑誌』의 기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앙집권강화 체제의 일환으로 방어체계가 강화되면서 성곽 축조 및 증개축 등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특히 세종대에 이르러 下三道의 연해읍성 축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고려말, 조선 초에 출몰한 왜구의 잦은 침략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 시설을 확충하고 城內 주민들의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였다.¹¹ 중앙정부의 이런 조치에 따라 제주도에도 비슷한 시기에 성곽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678년(숙종 4)에 3개의 읍성과 9개의 진성 체제의 방어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성곽 유적에 대한 위치는 다음 제시하는 『耽羅巡歷圖』를 통해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11 변성훈(2015), 「제주읍성의 변천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삽도 1. 탐라순력도 중 漢拏壯囑

〈삽도 1〉은 1702년(숙종 28) 4월 15일 당시 제주목사 이형상에 의해 제작된 『耽羅巡歷圖』 중 ‘한라장축’으로 당시 제주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현실을 잘 표현한 지도이다. 지도에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당시 3읍 관아의 위치와 9개소의 진성 위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해 놓았다. 그리고 중산간 지대에 설치되어 있었던 목마장과 그 경계를 표시했었던 돌담 즉, 잣성의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진성이 설치된 위치는 3읍 중간 중간 요소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3읍 중간 공백이 발생하는 위치에 진성을 설치하여 혹시 모를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하였다. 대부분 현재 위치에 일부 성곽 유적이 남아 있지만, 9개의 진성 중 차귀진성과 모슬진성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곽 대부분이 훼손되어 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2) 연구 현황

앞서 살펴본 제주도의 성곽유적들은 대부분 현재까지 제주도 곳곳에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유적에 대한 연구 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주도의 성곽유적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실제 고려시대 유적인 항파두리 토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곽유적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고고학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성곽도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도의 성곽유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의 부재와

성곽유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제주도의 성곽유적 연구 현황은 특정 유적에 치우치게 되었고 나머지 유적들의 수준은 걸음마 단계라 표현을 하여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현황을 고고학적 연구와 학술적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연구 성과를 살펴보겠다.

우선 고려시대 성곽유적인 항파두리 토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고고학 조사가 있어왔다. 1993년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추정남문지 긴급조사를 시작으로 토성 단면 확인조사, 발굴조사, 항파두리 토성 지표조사, 토성 내부에 대한 2차 지표조사, 토성 내 시굴조사, 내성 건물지 발굴조사 등 지속적으로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내성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 고고학조사 여건 상 개별 유적에 대한 조사 성과로서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항파두리 토성보다 먼저 축조된 환해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의 고고학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항파두리 토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현황과 성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3. 항파두리 토성 조사 현황

조사년도	조사 방법	조사 사유	조사내용 및 결과	조사기관
1993	긴급조사	도로개설 중 추정 남문지 및 용천수 정비 목적	청자편 및 다량 기와 출토, 토성 판축 부분 확인 용천수를 저장했던 목조의 수조 시설 확인 ¹²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6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토성 잔존현황, 보조성터, 내성지의 건물지터, 음용수 유적터, 기와가마터, 망대와 진지 등 확인	
2002	지표조사	학술조사 및 유물분포 확인	토성 내부 유물산포지 확인, 청자, 원대 도자기, 분청사기, 백자 등 출토 ¹³	(재)제주문화 예술재단
2003	확인조사	토성정비 확인조사	토성 판축단면과 기와 매물층 확인, 토성 축조는 3차례 판축한 것으로 확인 ¹⁴	
2009	시굴조사	토성정비	토성정비를 위한 시굴조사, 토성 판축 단면 확인, 기와류 출토, 토성은 크게 3차례 판축하여 축조된 것으로 확인 ¹⁵	(재)불교 문화재연구소
2010	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토성 내 시굴조사 실시, 조사결과 다수의 건물지 및 망루, 수혈유구 등 확인됨. 또한 청자, 철축, 동전, 청동정병, 청동시저, 청동잔 등 다량 유물 출토 ¹⁶	(재)제주 문화유산연구원
2011	시굴조사	토성정비	토성정비를 위한 시굴조사, 토성 기저부 기반석렬 확인, 기와류 출토, 여러 차례 판축하여 축조된 것으로 확인 ¹⁷	(재)제주 고고학 연구소
2011	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2010년 시굴조사 결과 외 특징적인 부분은 고누놀이 판 등 다량 유물 출토 ¹⁸	
2013~ 2016	발굴조사	2011년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연차적인 발굴조사 실시	내성지 내 건물지를 비롯하여 아궁이, 보도지, 담장지 등 여러 부속시설 확인 석축시설 및 배수로가 확인되고 찰갑, 철모, 청동시저, 자기류와 와전류 출토 ¹⁹	

12 제주시·(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2), 앞의 책.

13 (재)제주문화예술재단(2002),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기본계획』.

14 (재)제주문화예술재단(2003), 『제주항몽유적지 항파두리토성 보수정비에 따른 토성단면 확인조사 보고서』.

15 불교문화재연구소(2009),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성복원구간 발(시)굴조사 약보고서』.

16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1),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17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1), 『제주 항파두리 토성 단면조사 간략보고서』.

18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1), 『사적 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2차) 간략보고서』.

19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7), 『제주항파두리성 內城 Ⅰ /본문』, 디자인이야기.

20 김일우·이정란(2002), 『삼별초 대몽항쟁의 주도층과 그 의미』, 『제주도사연구』11, 제주도사연구회 ; 배종원(2003), 『삼별초와 민의 대몽항쟁과 그 성격』,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김윤곤(2004), 『삼별초정부의 대몽항전과 국내외 정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17, 한국중세사학회 ; 김호준(2012), 『高麗 對蒙抗爭期の 築城과 入保』, 충북대학사학위논문.

21 고창석(1984), 『여, 원과 탐라와의 관계』, 『논문집』17, 제주대학교 ; 신안식(2002), 『고려 원종 11년(1270) 삼별초 항쟁의 배경』, 『명지사론』13, 명지사학회 ; 박종일(2008), 『삼별초의 진도 입도배경과 저항활동』,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2 강창언(1991), 앞의 논문.

〈표 3〉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항파두리 토성에 대한 고고학 조사 현황과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는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여 최대한 요점만 작성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 유물 및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일부 누락된 조사 현황을 감안하면 항파두리 토성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993년도에 긴급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항파두리 토성 전반에 대한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사결과 토성의 규모및 토성 내 존재했었던 건물지와 배치 현황, 토성 내 여러 부속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 삼별초 당시의 성 내 생활모습 등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 당시 병사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누놀이 판의 출토가 이채롭다. 또한 삼별초 관련 유적인 강화도의 성곽 유적인 ‘강화중성’과 진도의 ‘용장성’과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에도 이상의 고고학 조사결과가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다음은 고려시대 성곽유적에 대한 학술 연구 현황이다. 학술 연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항파두리 토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즉, 토성의 축성방법, 규모, 부속시설 등에 대한 정밀한 학술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술 연구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는 삼별초와 관련된 연구이며 그 중에서도 대몽항쟁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²⁰그리고 삼별초가 제주도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강화도와 진도에서 펼쳤던 여몽연합군에 대한 항쟁과 관련된 연구도 있었다.²¹ 이러한 연구에서는 삼별초가 조직되어 강화도와 진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내려와 항파두리 토성을 축조하고 여몽연합군에 대항하였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고고학적 연구 현황과 학술 연구 현황을 통해 항파두리 토성의 축성과 내성의 성격, 건물지 배치 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항파두리 토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아직도 부족하다.

한편 동 시기 성곽 유적인 환해장성에 대한 학술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환해장성의 축성 배경과 축성 시기, 규모, 분포와 형태에 대한 연구가 있다.²² 그리고 제주도의 환해장성과 유

사한 성곽을 비교하며 해안성곽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도 있다.²³ 이러한 연구들은 그 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환해장성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환해장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그 연구 성과는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환해장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 및 활용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학술 조사를 실시하고 발간한 보고서가 있다.²⁴ 이 보고서에는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환해장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보존·관리 실태를 진단하여 향후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제주도의 성곽 유적 중 조선시대 성곽 유적에 대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겠다. 조선시대 성곽 유적에 대한 연구 현황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였듯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매우 부진하다. 특히 체계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성벽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성곽 평면도를 작성하고, 축조 방법, 축조시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많은 성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곽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시대의 성곽 유적에 대한 연구현황을 간략하게 다음에 제시하는 표를 참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조선시대의 제주도 성곽 유적 연구 현황²⁵

성곽명	연구 방법 (시기)	조사내용 및 결과	조사기관
제주읍성	정비계획 작성 (1990)	현황 지표조사 및 분석, 트렌치 시굴조사 결과 잔존 성곽 중앙부에 건물지 확인	
	복원계획 (1999)	제주읍성 남문 복원계획을 위한 학술 연구 결과 음성, 성곽 일부, 문루 복원 제시 ²⁶	(주)금성건축사 사무소
	학술조사 (2013)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 실시	제주역사문화진흥원
	표본조사 (2013)	남문 서쪽 치성 추정 위치에 대한 트렌치 조사 결과 내부성곽 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발굴조사 (2013)	동치성 상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여장시설, 기반석렬, 초석 등 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입회조사 (2013)	성곽 외벽 기반부로 추정되는 석렬 확인 ²⁷	제주고고학연구소
고정의현성	지표조사 (2004)	옛 정의현성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지표조사 실시. 조사결과 잔존상태가 양호한 성벽 일부 확인되었으며 백자편과 도기류, 기와류 확인·수습 ²⁸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시굴조사 (2016)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구제발굴조사 실시. 토층 및 트렌치 조사를 통해 체성의 축조방법 및 규모 확인 ²⁹	(재)경상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2017)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지점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실시. 등성시설 추정 석렬 확인. 체성은 협축하여 축성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음 ³⁰	

23 김보한(2016), 앞의 논문 ; 김보한(2017),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해안성곽의 성격에 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58, 한일관계사학회.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5), 『제주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계획』 도서출판 각 ; 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7), 『서귀포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 계획』, 일신출판사.

25 조선시대 성곽 유적 연구 현황은 지금까지 필자가 파악한 성곽에 대한 고고학조사, 학술조사 등을 개별 성곽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표에서 정리한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외에 많은 조사 내용과 성과가 있으나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성곽명	연구 방법 (시기)	조사내용 및 결과	조사기관
고정의현성	학술조사 및 지표조사 (2017)	고정의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 학술 용역 추진 과정에서 성곽 조사를 실시하여 성곽 형태 등을 조사함. 조사결과 여장 추정 시설 일부 확인, 도기 및 자기편 등의 유물 수습 ³¹	(재)제주 고고학 연구소
정의현성	발굴조사 (1987)	제주성읍민속마을 성문지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실시. 조사결과 동· 서·남 문지 및 음성 배치형태 확인. 문지 평면 형태 비교 분석, 석렬, 초석, 그릇, 기와류 등 출토 ³²	명지대학교한국 건축문화연구소
	정의현성 성곽 여장 복원연구 (2010)	성곽 구간별 기초현황조사 잔존, 수리, 유실구간 확인 및 복원 방향 연구 제시 ³³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대정현성	발굴조사 (2001)	대정성지 복원의 해체 발굴조사와 함께 성곽 보수 기록 및 시설 전반 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짐 ³⁴	
	학술조사 (2006)	대정읍성 학술조사 과정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물 및 성벽 시설 물 확인. 특히 건물지 및 해자 추정 시설이 확인됨 ³⁵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종합정비계획 (2012)	성곽 보존정비·관리운영·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발굴조사 및 성곽, 성곽 부속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 마련 ³⁶	다나건축사 사무소
화북진성	지표조사 (1988)	화북진성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건물 주초석 11점, 기와 편,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 등의 유물 확인 ³⁷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학술조사 (2011)	화북진성 복원계획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조사 실시. 향후 발굴조사 및 성곽, 성곽 부속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 마련 ³⁸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조천진성	학술조사 (2012)	성곽 보존정비·관리운영·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발굴조사 및 성곽, 성곽 부속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 마련 ³⁹	(재)제주 고고학 연구소
	발굴조사 (2017)	성곽 초축 시기 및 사용 시기 추론을 위한 발굴조사 실시. 건물지 및 계단, 배수로 등의 부속시설, 기와류, 자기류 출토. 출토한 기와 등을 통해 축조시기를 여말선초로 판단함 ⁴⁰	
별방진성	학술조사 (2014)	별방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 실시. 향후발굴 조사 및 성곽, 성곽 부속 시설물에 대한 정비·활용 계획 마련 ⁴¹	(주)별터건축사 사무소
수산진성	시굴조사 (2009)	성벽 입면 및 기반석 하부 조사 실시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서귀진성	발굴조사 (2009)	추정 성벽지, 건물지, 압거시설, 집수정 석렬 등 확인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표본조사 (2012)	성곽 경계부분과 성벽의 일단을 확인하고 향후 서귀진성의 보존 및 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 조사결과 성곽과 관련된 시설은 출토되지 않음 ⁴²	
모슬진성	-	멸실	-
차귀진성	-	멸실	-
명월진성	지표조사 (1993)	명월진성 정비 목적으로 음성 및 치성 구간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 어짐 ⁴³	(주)금성종합건축사 사무소
	남문지 발굴조사 (2000)	명월성 남문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실시. 조사결과 초석 4기, 지대석, 적심 등이 출토되어 남문지 확인. 어골무늬 기와편 일부 출토 ⁴⁴	
	학술조사 (2015)	명월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조사 실시. 향후 발굴조사 및 성곽, 성곽 부속 시설물에 대한 정비·활용 계획 마련 ⁴⁵	
애월진성	-	-	-

26 제주시(1999), 『제주읍성 남문 복원 조성계획』,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27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3), 「제주시 삼도2동 853번지외 3필지 입회조사 보고서」.

28 남제주군·(재)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2004), 「비지정 문화재 학술조사 보고서 古旌義縣城」,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원.

29 (재)경상문화재연구원(2016),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부분완료 약식보고서」, (재)경상문화재연구원.

30 (재)경상문화재연구원(2017),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재)경상문화재연구원.

31 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고고학 연구소, 「고성리 고정의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보고서」, 디자인이야기.



제시한 <표 4>는 제주도의 성곽 유적 중 조선시대에 축조된 13개소의 성곽에 대한 고고학 조사와 학술 조사 현황을 조사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다. 일부 성곽은 조선시대 이전 축조된 것으로 보이거나 기록에 나타나는 시기는 대부분이 조선시대에 들어서이다. 동 시기가 이들 성곽들이 방어시설로 두각을 나타낸 시점이기 때문이다. <표 4>에는 개별 성곽마다 이루어졌던 연구 방법과 시기, 조사기관 등 개략적인 연구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⁴⁶ 13개소의 성곽들은 유형별로는 읍성이 4개소, 진성이 9개소이며 모두 석축으로 축조된 石城이다. 그리고 제주읍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평지성 형태로 축조되었다. 그런데 기록에는 나타나지만 현재는 멸실되어 그 흔적을 찾지 못하는 모슬진성과 차귀진성에 대한 연구 현황은 거의 없다. 이 같은 결과는 제주도의 성곽에 대하여 연구된 논문에도 대부분이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을 나열하는 수준이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성곽과 관련한 연구사를 검토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제주도의 관방시설 전체를 살펴보고 문헌 기록 정리, 성곽 규모, 부속시설 현황, 축성 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연구가 있다.⁴⁷ 특히 이 연구 자료는 제주도의 성곽에 대한 연구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다만 일부 선행들이 앞선 연구에서 발생한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사 검토 시 세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⁴⁸

두 번째로는 문헌의 기록을 중심으로 제주도 읍성의 축조시기, 규모, 축조 배경, 증·개축 시기, 부속시설 등을 다룬 연구가 있다.⁴⁹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고고학적 검증 보다는 주로 문헌에 나타나는 기록 중심으로 제주도의 읍성에 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는 조선시대 읍성 중 특히 도서지역에 위치한 읍성을 살펴보면서 제주도에 축조된 읍성들의 규모

및 축성 방법, 성곽 부속 시설물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연구가 있다.⁵⁰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읍성을 다른 도서지역 읍성과 같이 연구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인데, 다소 아쉬운 점은 지역별로 축성방법 등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연구보다는 기록과 선행연구에 나타난 내용을 비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고고학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성곽의 변천과정과 부속시설, 관아시설 등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⁵¹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주도 곳곳을 순회한 모습을 기록한 화첩인 『耽羅巡歷圖』를 통해 제주도의 성곽 유적의 건축특성과 읍성의 규모, 성문 위치와 건물 공간구조를 고찰한 연구가 있으며⁵², 성곽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지리적 환경 고찰을 통한 성곽 입지조건과 지역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와 풍수지리적 관점에서의 성곽 입지, 형태, 구조, 시설 배치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⁵³

이 외에도 제주도의 성곽에 대한 다양한 연구⁵⁴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제주도의 성곽에 대해 많은 사실들을 밝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개별 성곽에 대한 고고학적·학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체계적으로 성곽을 전공한 연구자가 없는 상황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남았고 또한 성곽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문제 인식과 제언은 뒤에 제시하도록 하겠다.

32 남제주군(1987), 『濟州城邑民俗마을 城門址 및 雉城發掘調査報告書』, 명지대학교한국건축문화연구소.
33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2010), 『정의현성성곽 여장복원연구』, 제주특별자치도.
34 남제주군(2001), 『대정성지 복문 조사 보고서』.
35 제주문화예술재단(2006), 『대정읍성 학술조사보고서』.
36 서귀포시(2012), 『대정성 종합정비계획(안)』, 대한문화사.
37 이청규·강창언(1988), 『화북성지 지표조사 보고』, 『화북포구지표조사보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8 제주시(2011), 『도지정기념물 화북진성 복원계획 및 주변 문화유산 활용계획 수립 보고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
39 제주시(2012),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재)제주고고학연구소.
40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8), 『제주 조천진성 2차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41 제주시(2014), 『별방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주)별터건축사사무소.
42 서귀포시(2012), 『서귀진지 표본조사 및 복원정비 타당성 조사보고서』,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43 북제주군(1993), 『명월성 지표조사 보고서』,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44 북제주군(2000), 『명월성 남문지 유구조사 보고서』,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15), 『명월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주)금성건축사사무소.
46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 주제 간 자료 공유에 한계가 있으며 유적별·시기별로 차이가 있어 일부 연구 현황이 누락될 수 있다.
47 김봉옥·신석하(1996), 『濟州의 防禦遺蹟』, 제주도 ; 김명철(2000), 『朝鮮時代 濟州道 關防施設의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 예를 들면 선행연구에서 기록에 나타난 축조시기에 대한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인명을 표기할 때 한자의 오류, 고고학적 검증 없이 위치 및 규모를 비정하는 경우 등이다.
49 오수정(1997), 『19세기의 제주읍성』,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 변성훈(2018), 『濟州 旌義縣城의 構造와 變遷 研究』, 『백산학보』 110, 백산학회 ; 변성훈(2018), 『濟州 大靜縣城의 築城과 構造』, 『문화사학』 49, 한국문화사학회.

50 강두용(2008), 『朝鮮時代 島嶼地域 邑城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 강창화(2014), 『제주읍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제5차 한국지역학포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변성훈(2015), 『제주읍성의 변천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 신석하(2000),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관아건축양식고찰』, 『耽羅巡歷圖研究論叢』, 제주시 ; 윤일이(2007),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9진의 건축특성』,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計劃系』통권 제228호, 대한건축학회 ; 윤일이(2008),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3성의 건축특성』,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計劃系』통권 제42호, 대한건축학회.
53 김동섭(2009), 『濟州 旌義邑城의 風水地理的 解析』,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정광중(2011), 『제주도 대정읍성(大靜邑城)의 지리적 환경 고찰』, 『한국사진지리학회지』제21권 제2호, 한국사진지리학회.
54 김은석(2006), 『정의읍성의 공간구성』,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16권』, 한국사진지리학회 ; 양상호(2011), 『舊韓末 濟州邑城의 道路體系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제20권제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3.

성곽유산 보존·정비 현황과 과제

최근 제주도 지역은 성곽을 정비하거나 복원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성곽 보존을 위한 복원·정비과정이 성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원형을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주도의 성곽 유적에 대한 정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부작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향후 보존·정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1) 성곽 유적의 보존·정비 현황

제주도 성곽 유적의 보존을 위한 정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성곽 유적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특정 유적에 한해 보존·정비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성곽 유적의 보존 상태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이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성곽들에 한해 보존·정비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다보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성곽 유적들은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분위기에서 개발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곽 유적이 훼손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주도 성곽 유적의 정비 현황 중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고려시대 축조된 향파두리 토성의 경우 1993년 긴급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고고학 조사와 학술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보존·정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토성은 70% 이상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발굴조사 등 고고학 조사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⁵⁵ 향후 내성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성 내 건물지 등에 대한 복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 동 시기 성곽 유적인 환해장성의 경우에는 보존을 위한 정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고학조사는 물론 제대로 된 성곽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55 앞서 향파두리 토성의 규모를 검토하며 토성 길이를 약 6km로 제시하였다. 이는 문헌의 기록을 현재 수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2012년 제주시에서 토성의 길이를 실측한 결과 약 3.8km로 측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3km 토성 복원이 이루어졌다.

상태에서 일부 환해장성들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 그 원형이 멸실된 곳도 있다. 이는 환해장성 전체에 대해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별로 위치한 10개소에 대해서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앞서 언급했지만 환해장성은 고려시대에 처음 축조되었으나 조선시대까지 수차례 개·보수를 하며 해안을 방어하였던 성곽으로, 제주도 해안 전체를 둘러쌓았던 성곽인데 성벽이 남아 있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문화재로 지정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남아 있는 성벽을 포함하여 고고학조사 및 문헌 기록 등을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정된 환해장성 역시 성벽 복원 등이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로는 성벽 재료 및 축성 방법이 원형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간 중단되어 있다.

다음은 읍성 및 9개소의 진성 유적에 대한 보존·정비 현황이다. 제주에 축조된 읍성과 진성은 모두 석재를 이용하여 성벽을 쌓았는데 모두 현무암질의 석재를 이용하였다. 현무암질의 석재는 제주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원거리에 별도의 채석장을 지정하여 재료를 공급하기 보다는 인근에서 채집 가능한 성돌을 이용하였다. 그런 이유로 운반에 들어가는 공력을 덜 수 있었다. 또한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집중 호우 시 성벽 붕괴 등의 피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잔존하는 성벽을 살펴보면 현무암질의 석재를 다듬어 쌓은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조선시대의 제주도 성곽 유적 보존·정비 현황은 다음의 표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표 5. 조선시대의 제주도 성곽 유적 보존·정비 현황

성곽명	성곽 보존 상태	복원·정비 이력	정비계획 수립
제주읍성	성벽 복원 약 230m 雉 3개소	東雉城 개축, 제이각 복원 城內 군사시설 운주당 터 발굴조사	2013년 수립
古정의현성	잔존 성벽 약 880m ⁵⁶	-	2017년 수립
정의현성	성벽 복원 완료 雉 8개소 복원 성문 2개소, 甕城 3개소	성곽 복원정비, 성문 복원 붕괴 및 배부름 구간 보수 성벽 단절구간 복원	2010년 수립
대정현성	성벽 복원 752m 雉 4개소, 甕城 1개소	성벽 복원(1986~2000) 雉 4개소 복원 정비, 읍성 1개소 복원	2012년 수립
화북진성	성벽 잔존구간 187m 성벽 잔존높이 최고 4.3m, 최저 1.5m	1970년대 도로확장에 의해 일부 성곽 개축(서남측성벽은 도로 확포장 공사 시 안쪽으로 밀려 쌓음)	2011년 수립
조천진성	잔존 성벽 약 128m 높이 최고 4.3m, 최저 2.2m 진성 내 연북정	성 내 발굴조사 실시 유실 성벽 해체 복원(2016~2017) 연북정 보수(2015)57	2012년 수립
별방진성	성벽 복원 650m 잔존 구간 약 220m 雉 복원 3개소 성벽 약 138m 멸실	성벽 복원(1994~2006) 雉 복원3개소, 성내 샘물 복원 토지매입 및 건물 철거 등성계단 복원	2014년 수립
수산진성	잔존 성벽 약 585m 雉 3개소 및 甕城 1개소 잔존	수산진성 정비를 위한 시굴조사	미 수립
서귀진성	성벽 일부 잔존(북쪽,서쪽)	표본조사 및 발굴조사 우물터 및 수로 정비 정낭 및 정주석 설치, 돌담 설치 진성 내 건물지 유구 보존, 석축 및 울타리 돌담 정비	미 수립

성곽명	성곽 보존 상태	복원·정비 이력	정비계획 수립
모슬진성	멸실	멸실	미 수립
차귀진성	멸실	멸실	미 수립
명월진성	남문 주변 성벽 약 260m 복원 남문 및 甕城 1개소 雉 1개소 복원 성벽 잔존구간 약 760m 성벽 약 330m 멸실	성벽 복원(1997~2008) 정비 남문 및 문루 복원(2003) ⁵⁸ 등성계단 2개소 복원 甕城 및 雉 각 1개소 복원 2008년 이후 성벽 정비 중단	2015년 수립
애월진성	잔존 성벽 약 162m 女牆, 적대 1개소 미식, 총안 잔존	애월진성은 초등학교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성벽에는 女牆이 시설되어 있으며, 성문지에는 적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미 수립

〈표 5〉는 조선시대의 제주도 성곽 유적에 대한 보존·정비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이다. 표를 통해 성벽 복원 현황과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벽 잔존구간이 남아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성곽 부대시설인 雉, 城門, 甕城 등을 설치하여 성벽의 취약점을 보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잔존 구간이 남아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고고학조사를 통한 보존·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2) 복원 및 정비방향

성곽 유적 정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유적이 활용되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정비함이 일반적이거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 시점을 정해야 한다. 가령 제주읍성의 예를 들어보면 증·개축 시점에 대한 기록이 문헌에 명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바탕으로 성곽 규모를 검토하고 고고학 조사를 통해 성벽의 위치를 확인하여 정비해야 한다. 즉, 1차적인 정비 목표를 설정할 때 우선적으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고고학 조사 범위를 정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성곽에 대한 종합정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성곽의 정비 복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화재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정비 계획과 고고학 조사 없이 바로 성곽을 복원하다가 중단되는 일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앞에서 지적한 환해장성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환해장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성곽 위치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우선 다음 제시하는 사진과 도면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56 제주특별자치도(2017), 『고성리 고정의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재)제주고고학연구소.

5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2017),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8호 도지정문화재 조천진성 보수정비공사 수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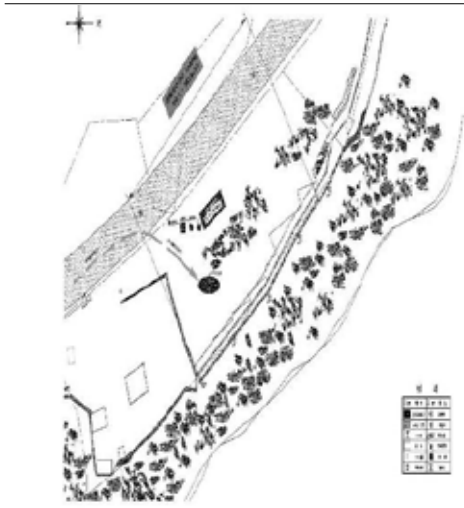
58 명월진성의 남문 및 문루는 2003년 처음 복원되었으나 성문 기둥 부재의 부식으로 인하여 2회의 개축이 이루어졌다. 이는 문루의 하중을 받쳐주는 기둥 속이 부식되어 붕괴 위험이 있어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동일 현상으로 2회 이상 개축을 하게 된 유일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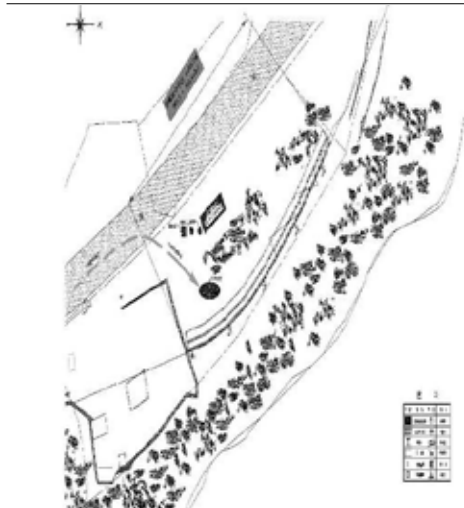
사진 1. 성곽 정비 계획(변경 전)



사진 2. 성곽 정비 계획(변경 후)⁵⁹



도면 1. 성곽 정비 계획(변경 전)



도면 2. 성곽 정비 계획(변경 후)⁶⁰

〈사진 1〉은 고고학 조사 없이 복원에 착수한 사진이다. 당초 계획에는 기존 석축을 해체하고 줄눈을 맞추며 성곽을 쌓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진 2〉를 보면 환해장성의 지대석들이 기존 석축 전면에서 발굴되었다. 이런 이유로 성곽 복원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제시된 〈도면 1〉과 〈도면 2〉를 통해 성곽 진행 방향이 변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고고학 조사 과정 없이 복원에 급급하여 바로 복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성곽에 대한 평면도를 작성하고 축성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획득한 내용과 문헌의 기록을 비교 연구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레

59 사진은 2008년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축성되었던 한동 환해장성 복원 사업 시 직접 필자가 촬영한 사진이다. 성벽을 복원하고 훼손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위치 변경으로 인해 복원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고고학 조사가 마무리 된 후 잔여 구간에 대한 보존·정비가 이루어졌다.

60 〈도면 1, 2〉는 2008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위치한 한동 환해장성 복원 사업 시 제작된 설계도면으로 당시 복원 사업을 시행한 문화재 보수 전문기관에서 확보한 도면이다.



야만 성곽 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원형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문제는 성곽 복원 시 사용하는 성돌과 축성 방법에 문제가 있다. 성곽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복원되고 있는 성곽들은 기존 성곽과 매우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복원 상태가 좋지 않다. 이는 다음의 사진을 통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3. 성곽 보수 전



사진 4. 성곽 보수 후

〈사진 3〉은 별방진성의 잔존 구간이며 〈사진 4〉는 복원된 구간이다. 사진에 나오는 성곽은 동일한 성곽임에도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 이유는 잔존 구간의 성벽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성돌의 거친 면만 다듬은 후 협축 형태로 불규칙하게 쌓았는데 복원한 구간의 성벽은 인위적으로 깎은 돌을 재료로 하여 정형화되게 쌓았다. 그런 이유로 동일한 성곽임에도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도의 石城은 성곽 축성 시 별도의 채석장을 두지 않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석재를 다듬어 성돌로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협축 형태로 축조하였다. 그리고 속채움은 흙을 사용하지 않고 석재만 사용했는데 제시한 〈사진 4〉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특징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역시 진성 정비 복원도 대부분 중단되었고 태풍이나 폭풍에 의해 훼손된 성벽을 일부 보수하는 선에서만 현재 보존·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에 축조된 성곽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산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읍성 또는 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 상 해안으로 침입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성 입지를 해안 또는 해안과 인접한 평탄한 대지로 잡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성곽이 위치했던 입지는 교통의 편리성과 인구 이동이 용이한 관계로 도시화로 접어들기 위한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곽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주도 독자적인 문화가 파괴되거나 변질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나아가 성곽은 성문을 비롯한 성 내외의 다양한 부속 시설과 건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종합적인 시설물로 폭 넓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史料

『高麗史』.
『太宗實錄』.
『世宗實錄』 「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南槎錄』.
『濟州邑誌』.
『增補耽羅志』尹蓍東 編.
『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志草本』.
『增補文獻備考』.
『耽羅紀年』.
『增補耽羅志』.

• 보고서

남제주군(1987), 「濟州城邑民俗마을 城門址 및 雉城發掘調査報告書」, 명지대학교한국건축문화연구소.
이청규·강창언(1988), 「화북성지 지표조사 보고」, 『화북포구지표조사보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북제주군(1993), 「명월성 지표조사 보고서」,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북제주군(2000), 「명월성 남문지 유구조사 보고서」,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남제주군(2001), 「대정성지 복문 조사 보고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2003), 「제주항몽유적지 향파두리토성 보수정비에 따른 토성단면 확인조사 보고서」.
남제주군·(재)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2004), 「비지정 문화재 학술조사 보고서 古旌義縣城」,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제주문화예술재단(2006), 「대정읍성 학술조사보고서」.
불교문화재연구소(2009),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성복원구간 발(시)굴조사 약보고서」.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1),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1), 「제주 향파두리 토성 단면조사 간략보고서」.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1), 「사적 396호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2차) 간략보고서」.
제주시(2011), 「도지정기념물 화북진성 복원계획 및 주변 문화유산 활용계획 수립 보고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시(2012),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서귀포시(2012), 「서귀진지 표본조사 및 복원정비 타당성 조사보고서」,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3), 「제주시 삼도2동 853번지외 3필지 입회조사 보고서」.
(재)경상문화재연구원(2016),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부분완료 약식보고서」, (재)경상문화재연구원.
(재)경상문화재연구원(2017),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재)경상문화재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2017),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8호 도지정문화재 조천진성 보수정비공사 수리 보고서」.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8), 「제주 조천진성 2차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 단행본 및 저서

문화재관리국(1985), 『전국 읍성 조사』.
김봉옥·신석하(1996), 『濟州의 防禦遺蹟』, 제주도.
제주시(1999), 『제주읍성 남문 복원 조성계획』,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제주도·탐라순력도연구회(2000),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재)제주문화예술회재단(2002),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기본계획』.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2010), 『정의현성성곽 여장복원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식(2011), 『한국의 성곽』, 주류성.
제주시·(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2),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도서출판 각.
서귀포시(2012), 『대정성 종합정비계획(안)』, 대한문화사.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2013), 『성곽 조사방법론』, 사회평론아카데미.
제주시(2014), 『별방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주)별터건축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5), 『제주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계획』, 도서출판 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15), 『명월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주)금성건축사사무소.
(재)제주고고학연구소(2017), 『제주향파두리성 內城 I /본문』, 디자인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7), 『서귀포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 계획』, 일신옵셋인쇄사.
제주특별자치도(2017), 『고성리 고정의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재)제주고고학연구소.

• 연구논문

고창석(1984), 「여, 원과 탐라와의 관계」, 『논문집』17, 제주대학교.
강창언(1991), 「濟州島의 環海長城 研究」, 『耽羅文化』11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오수정(1997), 「19세기의 제주읍성」,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고용규(1999), 「全南地域 城郭研究의 現況와 課題」, 『호남고고학보』 제10집, 호남고고학회.
김명철(2000), 「朝鮮時代 濟州道 關防施設의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석하(2000),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관아건축양식고찰」, 『耽羅巡歷圖研究論叢』, 제주시.
김일우·이정란(2002), 「삼별초 대몽항쟁의 주도층과 그 의미」, 『제주도사연구』11, 제주도사연구회.
신안식(2002), 「고려 원종 11년(1270) 삼별초 항쟁의 배경」, 『명지사론』13, 명지사학회.
배종원(2003), 「삼별초와 민의 대몽항쟁과 그 성격」,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김윤곤(2004), 「삼별초정부의 대몽항전과 국내외 정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17, 한국중세사학회.
김은석(2006), 「정의읍성의 공간구성」,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16권』, 한국사진지리학회.
윤일이(2007),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9진의 건축특성」, 『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系』통권 제228호, 대한건축학회.
윤일이(2008),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3성의 건축특성」, 『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系』통권 제42호, 대한건축학회.
박종일(2008), 「삼별초의 진도 입도배경과 저항활동」,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강두용(2008), 「朝鮮時代 島嶼地域 邑城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섭(2009), 「濟州 旌義邑城의 風水地理的 解析」,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정광중(2011), 「제주도 대정읍성(大靜邑城)의 지리적 환경 고찰」, 『한국사진지리학회지』제21권 제2호, 한국사진지리학회.
양상호(2011), 「舊韓末 濟州邑城의 道路體系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제20권제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김호준(2012), 「高麗 對蒙抗爭期の 築城과 入保」, 충북대박사학위논문.
강창화(2014), 「제주읍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제5차 한국지역학포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변성훈(2015), 「제주읍성의 변천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보한(2016), 「제주도 ‘環海長城’과 규슈 ‘元寇防壘’의 역사적 고찰」, 『한일관계사연구』55, 한일관계사학회.
김보한(2017),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해안성곽의 성격에 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58, 한일관계사학회.
변성훈(2018), 「濟州 旌義縣城의 構造와 變遷 研究」, 『백산학보』110, 백산학회.
변성훈(2018), 「濟州 大靜縣城의 築城과 構造」, 『문화사학』49, 한국문화사학회.

〈제주도 지역 성곽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방향〉에 대한 토론문

이희인(인천광역시립박물관)

변성훈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에서 제주도 지역에 분포하는 성곽 유적의 조사와 연구 현황 그리고 보존 및 정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 성곽 유적에 대한 이해가 없는 토론자에게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 발표는 주제의 성격 상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자에게 다음 몇 가지에 대해 견해를 요청하거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문에서는 제주도 성곽 유산의 범위를 고려시대 축성된 향파두리성과 환해장성, 조선시대 제주읍성, (古)정의현성, 대정현성 등 邑城과 별방진성 등 해안가를 따라 산재하는 9개의 鎭城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성곽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하여 목책이나 흙, 돌 따위로 높이 쌓아 만든 시설(국립문화재연구소 2011)이지만 넓게 보면 성벽 이외에도 다양한 관방관련 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도 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25개의 봉수와 38개의 연대는 기능적으로 읍성·진성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곽 유적에 포함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해안을 따라 다수의 연대와 봉수가 설치된 예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 어려운 제주도 관방유적의 특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 및 보존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와 조사와 연구 그리고 보존·정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환해장성의 관한 것입니다. 삼별초의 제주도 입도를 막기 위해 축조하였고, 조선 지리지에 둘레가 300여리라 전하고 있지만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구조와 규모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환해장성은 특수한 유적으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성곽유산인 것은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큐슈 하카다(博多)만 일대에 20km의 길이로 구축된 원구방루(元寇防壘, げんこうぼうるい)는 환해장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제주 환해장성에서 축조의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울러 원구방루는 조사·연구와 함께 잔존 구간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성격이 비슷

한 제주도 환해장성에 대한 향후 연구 및 관리 방안의 사례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제주 해안을 따라 9개의 진성이 분포합니다. 진성의 규모는 작은 것은 보루 규모에서부터 크게는 900여 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개 진성 가운데 6개는 16세기에 축조 및 이축되었고 3개는 효종~숙종 년간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중 기존 진성을 개축한 차귀진성을 제외한 화북진성과 모슬진성은 모두 1678년(숙종 4)에 축조되었습니다. 16세기에는 왜구의 침입과 관련하여 진성을 축조했다고 볼 수 있지만 17세기 중엽 이후 조성된 2개의 진성은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강화도의 경우 이보다 한해 늦은 1679년(숙종 5) 해안가를 따라 48개의 돈대를 조성하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요?

넷째, 제주도에 있던 목마장의 경계인 잣성에 관한 것입니다. 근래 馬場의 경계시설은 그 형태가 성벽과 유사해 馬城 또는 牧場城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 발표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으나 섬이나 해안 곳에 주로 분포하는 목장성은 마정은 물론 지역사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라는 측면에서 제주의 잣성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보존 현황 등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